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2011년 5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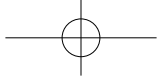
# 리아호나

## 연차 대회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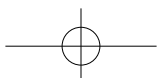
교회 복지 프로그램  
75주년

새로운 성전 세 곳 발표





**18** 1차 연차 대회 폐회 말씀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구주와 우리를 위한 그분의 위대한 속죄 희생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겻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의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우리를 위해 치르신 그분의 속죄 희생에 대해 매일 감사를 드립니다. ……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구하려고 만물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필멸의 생활 너머에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담의 타락에서 건져 내셨습니다. 제 영혼 깊은 곳까지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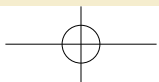




교회 역사 박물관 제공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월터 레인

“나면서 못 견게 된 이를 ……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사도행전 3:2~3,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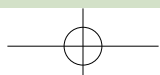
### 이탈리아 로마 성전 건축 모형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일요일 오전 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며 수행하는 역할과 축복, 의식도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이탈리아 로마 성전은 전세계적으로 대단히 유서 깊은 장소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로마는 고대 사도였던 베드로와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 …… [던] 도시입니다.”



2 제181차 연차 대회 요약

**토요일 오전 모임**

- 4 다시금 대회를 맞이하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6 안식일과 성장  
엘 톰 페리 장로
- 10 어린 아이와 같이 됩시다  
진 에이 스티븐스
- 13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월터 에프 곤잘레스 장로
- 15 속죄는 모든 고통을 치유합니다  
켄트 에프 리차즈 장로
- 18 후기 성도 여성들은 놀랍습니다!  
쿠엔틴 엘 쿡 장로
- 22 선을 행할 기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토요일 오후 모임**

- 26 교회 역원 지지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28 2010년 교회 감사부 보고서  
로버트 더블유 캔트웰
- 29 2010년 통계 보고서  
브룩 피 헤일즈
- 30 성령의 인도를 받아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 34 신앙으로 미래를 맞이합시다  
러셀 엠 넬슨 장로
- 37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가정을  
세우십시오  
리차드 제이 메이너즈 장로
- 40 간증  
세실 오 사무엘슨 장로
- 42 의로운 욕망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 46 봉사에서 느끼는 기쁨  
엠 러셀 밸라드 장로

**신권 모임**

- 49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십시오  
닐 엘 앤더슨 장로
- 53 소망  
스티븐 이 스노우 장로
- 55 아론 신권의 신성한 열쇠  
래리 엠 김슨

58 여러분에게 있는 잠재력과 특권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62 신권 안에서 배우며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66 신권 권능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일요일 오전 모임**

- 70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앉아  
기다리며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78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폴 브이 존슨 장로
- 81 성결하게 하는 복지 사업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
- 84 제자의 길을 따르는 참된 의미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 87 계시의 영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 90 거룩한 성전은 세상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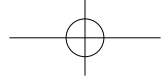
**일요일 오후 모임**

- 94 결혼에서 얻는 영원한 축복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 97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 101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풍성한 축복  
칼 비 프랫 장로
- 103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린 지 로빈슨 장로
- 106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벤자민 데 호요스 장로
- 108 속죄의 기적  
시 스코트 그로우 장로
- 111 열방을 향한 기적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 114 헤어지며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청녀 총회**

- 115 “나는 정직과 진실을 믿는다”  
앤 앤답
- 118 “그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친절하렵니다”  
메리 앤 쿡
- 121 정결을 지키는 수호자  
일레인 에스 돌튼
- 125 살아 있는 간증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72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역원
- 129 연차 대회에서 소개된 일화 색인
- 130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 대회 말씀을  
일상 생활에 적용합니다
- 132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 132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 133 교회 소식





## 제181차 연차 대회 요약

### 2011년 4월 2일 토요일 오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디이더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개회기도: 앨런 에프 패커 장로. 폐회기도: 데일 지 렌런드 장로. 음악 제공: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 맥 월버그와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 클레이 크리스텐슨: “기뻐하라 너희 주는 왕이시라”, 찬송가 36장; “하나님께 영광”, 찬송가 49장; “구세주와 예언자 음성”, 찬송가 1장, 머피 편곡, 미출판; “내 구주 살아 계시다”, 찬송가 68장; “I Know That My Savior Loves Me,” Creamer/Bell, 머피 편곡, 미출판; “높은 산 언덕 위”, 찬송가 2장, 월버그 편곡, 미출판.

### 2011년 4월 2일 토요일 오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디이더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개회기도: 케빈 더블유 피어슨 장로. 폐회기도: 마이클 터링우드 장로. 음악 제공: 브리검 영 대학교-아이다호 연합 합창단; 지휘: 에다 애쉬비와 랜들 챔튼; 오르간 반주: 보니 굿리프: “군도다 그 기초”, 찬송가 35장, 애쉬비 편곡, 미출판; “하나님 지혜와 사랑”, 찬송가 107장; “진진하게 주 예수 믿으니”, 찬송가 55장; “Let Zion in Her Beauty Rise”, 영문 찬송가 41장, 챔튼 편곡, 미출판.

### 2011년 4월 2일 토요일 저녁 신권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기도: 라파엘 이 피노 장로. 폐회기도: 조셉 더블유 시타티 장로. 음악 제공: 유타 옥튼 종교 교육원 및 유타 로건 종교 교육원 신권 합창단; 지휘: 사이몬 제이 나일즈 샬몬드와 앨런 티 선더스; 오르간 반주: 앤드루 언스워스: “See the Mighty Priesthood Gathered”, 영문 찬송가 325장; “참되신 구주여”, 찬송가 86장, 언스워스 편곡, 미출판; “이스라엘의 구주”, 찬송가 27장; “영광의 시온 세우신 하나님”, 찬송가 11장, 더햄 편곡, Jackman 출판.

### 2011년 4월 3일 일요일 오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감리: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기도: 게리 이스티븐슨 장로. 폐회기도: 테드 알 콜리스터 장로. 음악 제공: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 맥 월버그; 오르간 반주: 리차드 엘리엇과 앤드루 언스워스: “예수님은 구원 반석”, 찬송가 181장; “Sabbath Day”, 영문 찬송가

148장; “들으라 만방 하늘 음성”, 찬송가 243장;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나”, 찬송가 182장, 자브리츠키 편곡, Plum 출판;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 찬송가 31장, 월버그 편곡, 미출판.

### 2011년 4월 3일 일요일 오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기도: 호세 에이 테제이라 장로. 폐회기도: 켄트 디 왓슨 장로. 음악 제공: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 맥 월버그와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 린다 마켓츠와 보니 굿리프: “I Saw a Mighty Angel Fly”, 영문 찬송가 15장, 월버그 편곡, 미출판; “주 예수를 닮으려고”, 어린이 노래책 40~41쪽, 브래드포드 편곡, Nature Sings 출판; “오라 주의 자녀들”, 찬송가 13장; “기록함도 더욱”, 찬송가 131장, 스타헬리 편곡, Jackman 출판.

### 2011년 3월 26일 토요일 저녁 청년 총회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일레인 에스 돌튼. 개회기도: 에밀리 루이스. 폐회기도: 베다니 라이트. 음악 제공: 솔트레이크시티 지역 스테이크 청년 합창단; 지휘: 메릴리 웹; 오르간 반주: 린다 마켓츠와 보니 굿리프: “높은 산 언덕 위”, 찬송가 2장; “덕의 수호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2011년 미디어: 우리는 믿습니다, 미출판(첼로: 제시카 헌트); “내 구주 살아 계시다”, 찬송가 68장, 라이온 편곡, Jackman 출판(하프: 한나 코프); “군도다 그 기초”, 찬송가 35장, 월버그 편곡, 미출판.

### 대회 말씀 자료

여러 언어로 이용할 수 있는 연차 대회 말씀에 접속하려면 [conference.lds.org](http://conference.lds.org) 를 방문하십시오. 그런 후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녹화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대회가 끝난 후 2개월 내에 배부 센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가정 복음 및 방문 교육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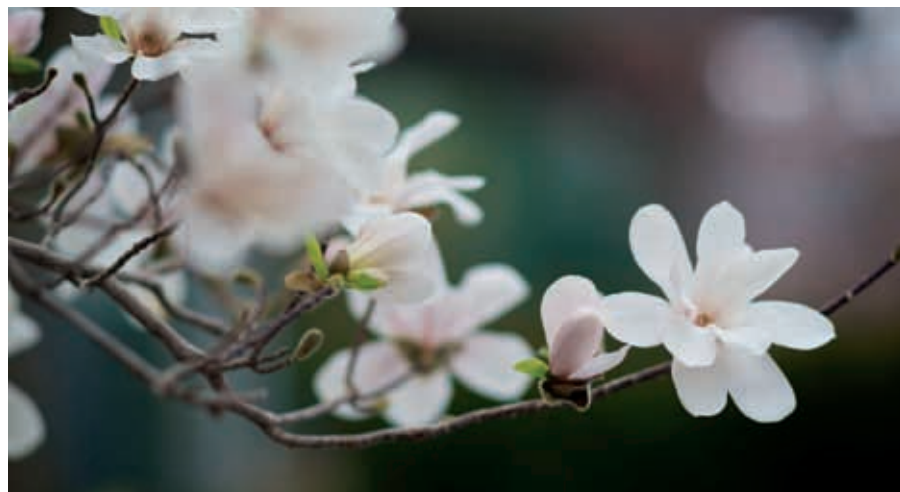
가정 복음 및 방문 교육 메시지는 여러분이 방문하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에 가장 잘 맞는 대회 말씀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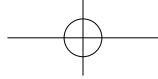
### 표지

앞: 사진 촬영, 웨스턴 콜튼. 뒤: 사진 촬영, 레스 닐슨.

### 대회 사진

솔트레이크시티 연차 대회 장면: 크레이크 다이먼드, 웰턴 시 앤더슨, 존 루크, 매튜 라이어, 크리스티나 스미스, 코디 벨, 레스 닐슨, 웨스턴 콜튼, 새라 켈슨, 데레크 이스라엘슨; 아르헨티나: 마르셀리노 토센; 브라질: 라우레니 포체토, 아나 클라우디아 수자 데 올리베리아, 베루스카 올리베리아; 에콰도르: 알렉스 롬니; 독일: 머코 쿠베; 자메이카: 알렉시아 포멜스; 멕시코: 에리카 곤잘레스 라제; 필리핀: 월모어 라 토레; 포르투갈: 줄리야나 올리베리아; 루마니아: 마테이 플로린; 슬로베니아: 이반 마지크; 남아프리카: 케빈 쿠니; 우크라이나: 마리나 루카치; 미국 메릴랜드: 새사 로즈; 잠비아: 타완다 마루자





2011년 5월호, 제48권, 제5호  
리아호나 09685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입니다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심이사도 정회원:**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앨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블라드,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편집인:** 폴 비 파이퍼  
**고문:** 스탠리 지 엘리스, 크리스토퍼 클드 이세, 요시히코 기쿠찌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쉬네이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래리 힐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아담 시 울슨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보조 편집인:** 수진 배넷  
**편집 스태프:**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트, 라켄 포터 곤트, 애니 존스, 캐리 캐스틴, 제니퍼 매디, 앨리스 메릴, 마이클 알 모리스, 샬리 제이 오데커크, 조슈아 제이 퍼기, 채드 이 패리스, 쟈 핀보로우, 리차드 엠 롬니, 돈 엘 설, 재닛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위델  
**선임 비서:** 로벨 듀셔  
**미술 책임자:** 스킵 벤 켈렌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엘리 아로요, 콜레트 네베커 오온,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처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킴 핀스티마커, 캐슬린 하워드, 애릭 피 존슨, 드니스 카빈, 스코트 엠 무이, 지니 제이 닐슨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부 책임자:** 랜디 제이 벤슨

통 관: 제535호, 제48권, 제5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1년 5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인: 박승호  
번역 책임자: 조현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정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ds.or.kr](http://www.lds.or.kr)에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c@hanmail.net](mailto:koreadc@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ds.or.kr](http://www.lds.or.kr)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1,0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mailto: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핀란드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탈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힌디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0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mailto: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http://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를 클릭하십시오.

May 2011 Vol. 35 No. 5.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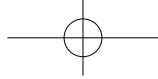
**연사들(가나다순)**

닐 엘 앤더슨, 49  
앨런 에이치 옥스, 42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87  
데이비드 에이치 버튼, 81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97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26, 58, 70  
래리 엠 김슨, 55  
러셀 엠 넬슨, 34  
리처드 제이 메이너즈, 37  
리처드 지 스코트, 94  
린 지 로빈슨, 103  
메리 앤 쿡, 118  
벤자민 데 호요스, 106  
보이드 케이 패커, 30  
세실 오 사무엘슨 이세, 40  
스티븐 이 스노우, 53  
시 스코트 그로우, 108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84  
앤 엠 덩, 115  
엘 톰 페리, 6  
엠 러셀 블라드, 46  
윌터 에프 곤잘레스, 13  
일레인 에스 돌튼, 121  
제프리 알 홀런드, 111  
진 에이 스티븐스, 10  
칼 비 프랫, 101  
켄트 에프 리차즈, 15  
쿠엔틴 엘 쿡, 18  
토마스 에스 몬슨, 4, 66, 90, 114  
폴 브이 존슨, 78  
헨리 비 아이어링, 22, 62, 125

**주제 색인**

가르침, 37  
가족, 10, 18, 37, 90, 94  
간증, 40, 66, 125  
개척자, 53  
결혼, 42, 66, 94  
검슨, 10, 15  
경배, 6  
경전, 30  
계시, 30, 87  
교정, 97  
기도, 125  
모범, 10, 121, 125  
복지 프로그램, 22, 81, 84  
봉사, 22, 46, 55, 58, 70, 81, 84, 118  
부활절, 114  
빛, 87  
사랑, 13, 22, 46, 62, 84, 94  
상호부조회, 84  
선교 사업, 4, 46, 49  
선지자, 111  
선택의지, 42  
성도, 106  
성신, 30, 40, 58, 70, 87, 111  
성약, 13, 90, 94, 115  
성전, 4, 90, 115  
성찬, 6  
소망, 53  
속죄, 15, 40, 53, 106, 108, 114  
순종, 10, 34, 40, 87, 97, 101, 103, 125  
신권, 30, 49, 58, 62, 66  
신앙, 18, 34, 42, 53, 70, 78, 87, 101, 106, 125

신약전서, 6  
십일조, 10, 34, 101  
아란 신권, 55  
안식일, 6  
양육, 37, 94, 103  
어린이, 10, 37, 103  
어머니의 본분, 18  
여성, 18  
역경, 15, 34, 78, 106  
연차 대회, 111, 114  
예수 그리스도, 6, 13, 15, 30, 78, 103, 108, 114  
우선순위, 42  
의료윤 욕망, 42  
의무, 55, 62  
이혼, 66  
인내, 15, 78  
인도주의 지원, 4  
인자, 118  
일, 84  
자립, 22, 81, 84  
자애, 46, 53, 81  
재림, 49  
정결, 115, 121  
정직, 121  
제자의 본분, 13, 84, 111  
준비, 49  
지도력, 55, 62  
진리, 40, 121  
축복, 34, 78, 101  
친절, 118  
평의회, 18  
표준, 111  
회개, 40, 97, 108  
희생, 90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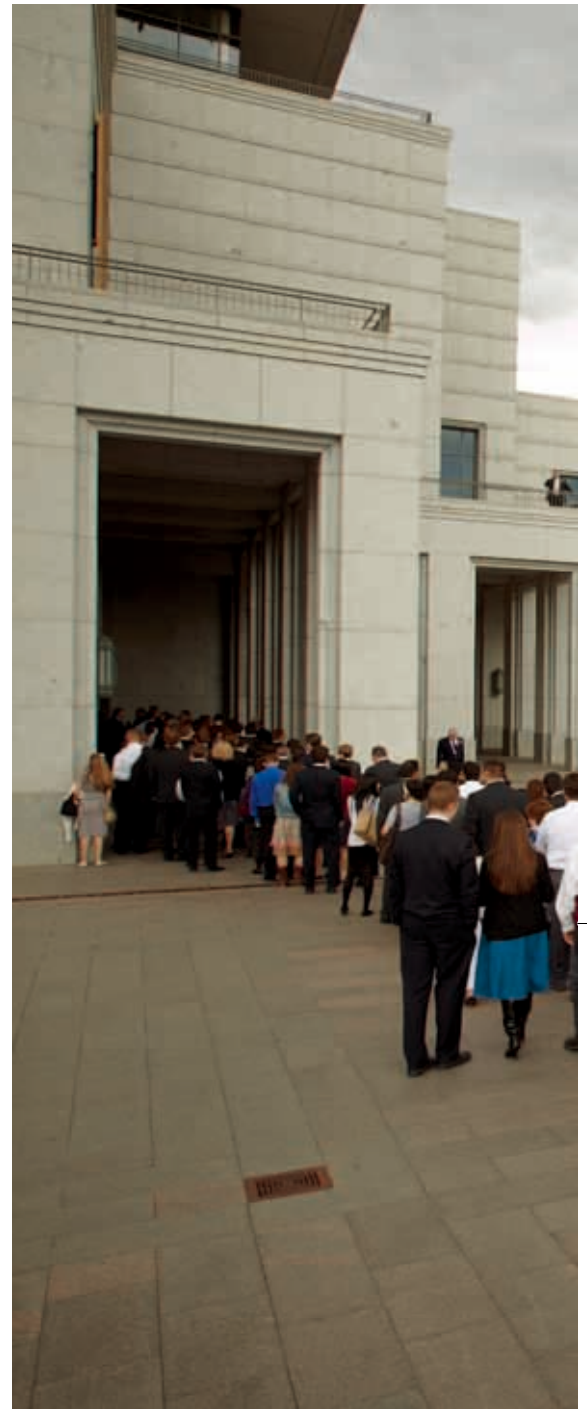
# 다시 대회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신앙과 복음에 대한 헌신, 서로에게 보이는 사랑과 염려, ..... 여러분이 펼치는 봉사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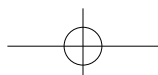
**우**리는 이 건물을 계획했을 당시만 해도 이 건물이 가득 차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시 함께 모여 제181차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연차 대회를 시작하게 되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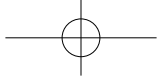
여러 책무를 수행하느라 바쁘게 지내다 보니 6개월이 금세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받은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아름다운 하와이 라이에 성전을 재헌납한 일이었는데, 이 성전은 거의 2년 동안 대대적인 개보수 작업을 거쳤습니다. 헨리 비아 이어링 회장님 내외분과 쿠엔틴 엘 쿡 장로님 내외분, 윌리엄 알 워커 장로님 내외



분이 저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때는 11월이었는데, 재헌납 전날 저녁에 브리검 영 대학교 하와이 캠퍼스 활동 센터는 2천 명에 달하는 라이에 성전 구역 젊은이들로 가득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그 젊은이들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공연 제목은 “집합 장소”였는데, 지역 교회 및 성전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창의적이고 능숙하게 묘사한 작품이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저녁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세 차례에 걸쳐 열린 성전 재  
헌납 모임은 영적인 만찬과도 같았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풍성히 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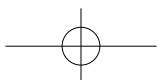
우리는 계속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이  
제 이 아침에 저는 신축될 성전 세 곳을 더  
발표하겠습니다. 대지를 구입했고, 앞으  
로 몇 개월 또는 몇 년 내에 건축을 시작할  
것입니다.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콜로  
라도 포트 콜린스, 아이다호 메리디안, 캐  
나다 매니토바 위니펙입니다. 이 성전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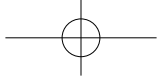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그 지역 회원들에게 분명 축복이 될 것입  
니다.

해마다 성전에서는 수백만 건에 이르는  
의식이 집행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  
라, 자신을 위해 스스로가 의식을 받을 수  
없는, 돌아가신 이들을 위해, 그러한 의식  
을 계속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합시다.

교회는 재난이 닥칠 때마다 늘 인도주  
의 원조를 제공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무  
시무시한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그 여파

로 발생한 방사능 유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본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식품과 식  
수, 담요, 침구, 위생용품, 옷, 연료 등을  
포함하여 70톤이 넘는 물품을 나누어 주었  
습니다. 청년 독신 성인들은 스스로 시간  
을 내어 자발적으로 인터넷, 소셜미디어,  
기타 최신 통신수단을 사용해 실종 회원들  
을 찾았습니다. 회원들은 차량 진입이 어  
려운 지역에 교회에서 제공한 스쿠터를 타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고 구호품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위생용품 및 청소용품 세트를 만드는 봉사 활동이 도쿄, 나고야, 오사카 등지에 있는 여러 스테이크 및 와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천 명이 넘는 자원 봉사자가 4만 시간 이상 봉사를 했습니다. 일본은 물론 도움이 필요한 그 밖의 여러 지역에 계속 도움을 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복음에 대한 헌신, 서로에게 보이는 사랑과 염려, 와드나 지부 또는 스테이크나 지방부에서 여러분이 펼치는 봉사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충실하게 십일조와 헌금을 내시고, 교회의 기타 기금에도 풍성하게 기부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 340개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는 2010년 말에 기준으로 52,225명입니다. 선교 사업은 이 왕국의 생명선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교회의 일반 선교사 기금에도 헌금할 것을 고려해 보시도록 제안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과 내일에 걸쳐 말씀들을 들겠습니다. 말씀을 하실 분들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늘에 도움과 인도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동안 우리 마음이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차 영적으로 고양되고 감명받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안식일과 성찬

온 종일 안식일을 영화롭게 보내고 그에 따른 영적 축복을 주중에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함으로써 가정에 사랑이 가득 차게 하십시오.

**전** 세계에 계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선지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들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의 그 음성이 바로 오늘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음성임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모범이 있기에 우리는 정말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모두는 주일학교에서 신약전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약전서에서도 선지자들과 한 백성에 관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만, 신약전서는 하늘과 땅 두 곳 모두에 속하신 상태로 육신을 입고 오신 유일한 분의 삶과 영향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인간의 교리가 넘쳐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중요한 구주의 삶과 성역이 담긴 이 신약전서에 대한 믿음을 잊거나 잃어버리기가 쉬워졌습니다. 우리 삶에서 구주가 가장 중요한 분이 되셔야 하는 것처럼 이 거룩한 책도 경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작품입니다. 최선을 다해 그 책을 공부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신약전서를 공부할 때 우리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과 같은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며 구

주의 교회를 조직하던 시기에 남긴 기록을 즐겨 읽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디모데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을 좋아합니다. 바울이 디모데 사람들에게 쓴 글 중에서 4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저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계속 우리가 믿는 자에게 본이 되려면, 또는 지금부터 그렇게 시작해 보려 한다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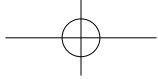
세상이 창조될 때, 단 하루는 나머지 옛 새와는 다르게 지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sup>2</sup>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일을 하지 않고 쉬셨으며, 그분은 자녀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sup>3</sup>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에는 언제나 예배가 포함됩니다. 아담과 이브는 필멸의 세계로 들어간 후 다음과 같은 명을 받았습



니다. “주 그들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들의 양 떼의 첫 새끼를 주께 제물로 바치라……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이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동물을 희생 제물로 바치며 언젠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실 것임을 기억했습니다.

지상에서 생활하던 시절에 구주께서는 그 희생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sup>5</sup>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그 말씀은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제자들을 다락방으로 불러 모으신 구주께서는 주님의 만찬인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sup>6</sup>

그 이후, 구주의 속죄는 위대한 마지막 희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미대륙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신권을 주시고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성찬식을 소개하셨습니다.

“이를 너희는 항상 지켜 행하되 …… 곧 내가 떡을 떼어 축복하고 그것을 너희에게 준 것같이 하라 ……

이것이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함을 아버지께 증거하는 것이 되리라. 또 만일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하면 너희는 너희와 함께 할 나의 영을 갖게 되리라.”<sup>7</sup>

암울한 배도 기간 동안에도 이런 안식일 예배와 성찬식이 여러 형태로 집행되어 왔다는 점은 정말 대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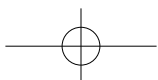
복음이 회복되었을 때, 구주께 맨 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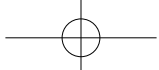


으로 성찬물을 받아 취했던 세 사도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들이 준 지시에 따라 교회 회원들에게 성찬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신권 권세가 회복되었습니다.<sup>8</sup>

구주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주셨고, 또한 그분들에게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 신

권 권세는 지금 이 지상에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권을 소유한 전세계 청년들은 신권 권능을 행사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복음 표준대로 생활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영적으로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으로 이천여 년 전에 구주께서 직접 보여 주신 방법에 따라 성찬을 준비하고 축복합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일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일은 바로 성찬을 취하는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을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더욱 온전히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나의 거룩한 날에 기도의 집에 가서 네 성찬을 바칠지이다.

이는 진실로 이 날은 네 일을 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네 헌신을 바치도록 너희에게 정해진 날임이니라 ……

그리고 이 날에는 다른 어떠한 일도 하지 말 것이요”<sup>9</sup>

안식일과 성찬식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당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으며, 기도의 집에 가서 성찬을 바치고, 우리의 일을 쉬는 것, 바로 이 세 가지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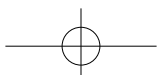
기독교인, 즉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sup>10</sup>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안식일에는 일에서 느끼는 세상의 번잡함, 오락 시설을 멀리하기를 바라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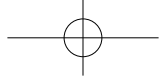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저는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적절한 옷을 입기를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안식일 복장”이라는 말이 진부한 표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안식일에도 아무렇게나 옷을 입게 되면 태도와 행동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해가 질 때까지 안식일 정장을 입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올바른 옷을 입고 올바른 활동을 계획할 수 있게 돕는다면 아이들은 준비되어 성찬식에 참석하고 종일토록 그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주님께 성찬을 바친다는 말은 무슨 뜻 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우리에게서 피해를 입었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죄나 잘못을 고백하고 그 잘못을 중단해야 합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성찬을 주님께 바치는 소중한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날 곧 주의 날에는 네 죄를 네 형제들에게 그리고 주 앞에 고백하며, 네 헌물과 네 성찬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바칠 것을 기억하라.”<sup>11</sup>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님은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모든 후기 성도가 성찬대 앞으로 나아오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행로를 바로잡고 삶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교회 가르침에 따라 살고, 형제 자매들과 마음을 합하여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sup>12</sup>

성찬을 함당하게 취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구주의 이름을 받들고 계명을 지키며 항상 그분을 기억하여 그분의 영을 동반할 수 있게 하겠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침례 성약은 새로워집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를 행할 때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던 이 시간을 기억 하리라.”<sup>13</sup>

일을 신다는 말을 그저 일손을 멈추고 직장에 가지 않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세상에서 일이란 매일의 일상에서 하는 노동까지 아우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은 집에서 하는 업무나 운동 경기, 그리고 안식일 예배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초기 성도들에게 “성스러운 것을 소홀히 다루지 말라”<sup>14</sup>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하신 다음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sup>15</sup>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시기에 구주를 열심히 섬기지 않거나 신약전서 등 여러 경전에 실린 주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거나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사탄에게 승리를 안겨 주고 말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에게 성찬식에 참석함으로써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가르쳐야 합니다. 일요일 아침에 아이들이 휴식을 잘 취한 상태에서 적절한 복장을 하고,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 성찬 상징물을 취하며, 성신의 권능으로 배우고, 교화하고, 더욱더 고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온 종일 안식일을 영화롭게 보내고 그에 따른 영적 축복을 주중에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함으로써 가정에 사랑이 가득 차게 하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므로써 “일어나 빛을 발하[고]” “[자신의] 빛이 열국을 위한 기가 되게 하라”<sup>16</sup>라고 자녀들을 격려하십시오.

저는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청소년 시절과 그때 보냈던 안식일을 기억합니다. 집사가 된 후 처음으로 성찬 전달에 참여하여 작은 유리잔들을 와드 회원들에게 전달한 그날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몇 년

전에 고향에 있는 교회 건물을 개축하는 과정에서 연단 한쪽 부분을 막아 두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열자 작은 유리잔 몇 개가 나왔습니다. 그것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숨겨져 있던 것입니다. 누군가 그중 한 개를 제게 기념품으로 보내 주셨습니다.

또한 미국 해병대에 복무할 때 쓰던 초록색 사물함도 기억합니다. 그 사물함 안에는 목각 성찬기와 성찬컵 세트가 있었는데, 심란하고 절망스러운 전시에든 저는 주님의 만찬을 취하며 평안과 소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기를 보낸 아늑한 고향 마을 교회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태평양 전장에서 쓰던 성찬컵을 생각하면 저를 위해 기꺼이 “쓴 잔”<sup>17</sup>을 들이키신 세상의 구주를 향한 감사함이 마음에 차오릅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기에 무한하고 영원한 속죄의 축복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sup>18</sup>하고 저도 시편의 저자처럼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하루 앞둔 오늘 이 훌륭한 대회를 시작하며, 와드와 지부에서 매주 성찬식에 참석할 때마다 받았던 축복과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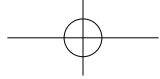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들을 기억해 봅시다. 우리 자신과 가족에게 약속된 그 축복들을 끌어내린다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여 안식일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합시다. 구주를 따를 때에야 비로소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특별한 간증을 전합니다. 주님의 성스러운 날을 거룩하게 지키므로써 그분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디모테전서 4:11~12.
2. 창세기 2:3.
3. 출애굽기 20:8~11.
4. 모세서 5:5, 7.
5. 마가복음 10:32~34, 요한복음 2:19, 10:17, 12:32에서 그 예들을 찾아볼 수 있음.
6. 마태복음 26:26~28.
7. 제3니파이 18:6~7.
8. 조셉 스미스-역사 1:68~69, 72; 또한 교리와 성약 27:12~13 참조.
9. 교리와 성약 59:9~10, 13.
10. 요한복음 17:16.
11. 교리와 성약 59:12.
12. Bryant S. Hinckley, *Sermons and Missionary Services of Melvin Joseph Ballard*(1949), 150쪽.
13. 조셉 스미스 역 성경, 마가복음 14:21.
14. 교리와 성약 6:12.
15. 마가복음 2:27.
16. 교리와 성약 115:5.
17. 제3니파이 11:11.
18. 시편 23:5.

우크라이나 키예프





진 에이 스티븐스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1보좌

# 어린이와 같이 됩시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어린이들의 모범을 따르고자 하는 열의가 있다면, 그들의 신성한 성품은 우리의 영적 성장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큰 지혜와 사랑으로 영의 아들과 딸들을 어린이로 이 지상에 보내십니다. 그들은 신성한 성품과 운명을 지닌 소중한 선물로 가족에게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어린이를 통해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어린이에게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진리는 몇 년 전에 홍콩을 방문하신 한 칠십인 역원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분은 자립할 능력이 부족하여 여러모로 힘들게 생활하는 아주 가난한 한 와드를 방문하셨습니다. 이 총관리 역원은 감독님에게서 와드 상황에 대해 들으시면서 회원들이 십일조를 내도록 권고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회원들의 어려운 사정을 아는 감독님은 그 권고를 어떻게 실행에 옮겨야 할지 염려가 되었습니다. 감독님은 생각 끝에 와드에서 가장 신앙심이 충만한 회원들에게 가서 십일조를 내라는 권고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일요일에 감독님은 초등학교로 가셨습니다. 감독님은 어린이들에게 주님의 율법인 십일조를 가르치고, 자신의 수입에서 기꺼이 십일조를 바치겠다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들은 실제로 십일조를 바쳤습니다.

그 후에 감독님은 성인 회원들에게 가서 충실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지난 6개월에 걸쳐 십일조를 내 왔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모범을 기꺼이 따르고 똑같이 할 수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어른들은 기꺼이 희생을 받아들인 어린이들에게서 감동을 받았고, 십일조를 내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충실한 아이들이 보인 모범으로 와드 전체가 더욱더 순종하게 되었고, 간증이 굳건해졌습니다.

어린이를 우리의 모범으로 삼아 따르고 가르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존재인가에 대해 논쟁한 부분과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 대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실물 공과로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니라”(마태복음 18: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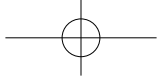
우리는 어린이들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린이들의 자질과 모범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올 때부터 이미 믿는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아이들은 신앙심으로 충만하며 영의 느낌을 잘 받아들입니다. 어린이들은 겸손과 순종, 사랑에 대한 좋은 모범이 됩니다. 종종 가장 먼저 사랑을 보이고 가장 먼저 용서를 베푸는 사람은 어린이들입니다.

아이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천진난만하면서도 강한 모범으로 보여 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이 되는지 알 수 있는 몇 가지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만으로 갓 두 살이 된 토드는 최근에 어머니와 함께 미술관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토드는 구주에 관한 아름다운 그림들이 걸린 특별 전시회를 관람했습니다. 그 성스러운 장면이 담긴 그림들을 지날 때, 토드의 어머니는 아들이 경건한 목소리로 “예수님”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선을 돌리자 그림 앞에서 공손히 팔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는 토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토드에게서 겸손과 경건,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태도에 대해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지난 가을에 아르메니아에서 만난 열 살짜리 소년의 모범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년은 지부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께서 교회에 도착하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소년은 곧바로 할머니 곁으로 가서 팔을 둘러 부축을 하고,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는 예배당 앞 줄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소년이 보여 준 그 작고 친절한 행동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찾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존재라는 가



르침을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어린이인 케이티가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면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케이티는 초등학교에 참석하면서 복음을 배우는 것이 정말 재미난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케이티의 신앙과 간증은 그렇게 자랐습니다. 케이티는 어느 날 쪽지를 써서 부모님 베개에 남겨 두었습니다. 케이티는 쪽지에다 복음 진리를 통해 '가슴속에 집'이 생긴 것만 같다고 말했습니다. 케이티는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지고 싶으며,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고 싶고, 가족이 성전에서 인봉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는 이야기도 썼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딸이 보낸 간절한 간증은 부모님의 마음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케이티와 가족들은 성스러운 성전 의식을 받고 영원한 가족으로 묶였습니다. 케이티는 믿는 마음과 신앙에서 모범을 보여 주었고, 그것으로 케이티의 온 가족은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진실한 간증과 주님의 계획을 따르려는 소망을 보여 준 케이티에게서 우리는 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더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은 여섯 살인 리암에게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리암은 저와 가까운 친척입니다. 지난 해에 리암은 치명적인 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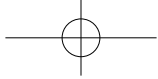
암으로 투병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어려운 수술 후에도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할 때에는 완전히 격리되어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누워만 있어야 합니다. 진정제가 투여되는 느낌을 힘겨워하는 리암은 스피커를 통해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진정제를 맞지 않고도 가만히 누워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리암의 아버지는 불안하고 염려가 되기는 했지만 격려와 사랑을 담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암, 네가 볼 수는 없겠지만 아빠는 바로 여기 있단다. 아빠는 네가 잘 해낼 수 있다는 걸 알아. 사랑한다.” 리암은 전혀 움직이지 않은 채 서른세 번에 걸친 방사선 치료를 잘 마쳤습니다. 이는 리암이 어리기 때문에 진정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의사들에게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 몇 개월 동안에도 고통과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까지도 전염시키는 리암의 낙관주의는 시련 앞에서 희망을 품고, 더 나아가 행복한 마음으로 역경을 맞이하는 놀라운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치의와 간호사를 비롯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리암의 용기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리암에게서 신앙을 선택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리암이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삶에서 치르는 시험을 참고 견디도록 힘을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리암의 모범 덕분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유순하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인내하고 사랑으로 참만하게 되라는 베냐민 왕의 가르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모사이사서 3:19 참조)

이 어린이들은 하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다시 발견해 내거나 발전시켜야 할 어린이와 같은 성품 중 몇 가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소중한 어린이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자질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았으며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충만한 순결한 영들입니다. 구주께서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셨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구주께서 미대륙을 방문하신 위대한 사건 중 어린이에게 베푸신 애정 어린 성역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애정으로 어린이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또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하나씩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시더라.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나서 다시 우시더라. 그리고는 무리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어린 자들을 보라 하시더라.”(제3니파이 17:21~23)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시며 ‘너희의 어린 자들을 보

라’라는 구주의 권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구주께서 ‘어린이들을 잠시 흠뻑 보라’라고 하시거나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라’ 혹은 ‘일반적인 시각에서 가끔씩 쳐다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구주께서는 어린이들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눈과 마음으로 어린이들을 포용하고, 거룩한 품성을 지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로서의 그들의 참된 존재 가치를 이해하고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너희의 어린 자들을 보라”, 리아호나, 1994년 10월호, 42쪽)

‘우리의 어린 자들을 보기’에 가정만큼 완벽한 장소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모두는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초등학교 노래를 통해 우리는 그러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가족을 주셨네

하나님 뜻 따라 살 수 있도록.

사랑 나눠 주시려

주님 가족 주셨네.

(“주님 가족 주셨네”, 리아호나, 2008년 10월호, 친12~1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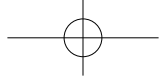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우리는 사랑이 가득한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신성한 성품을 직접 접하고 이에 대해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겸손히 어린 아이와 같이 되기 위해 변화하겠다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과정입니다.

삶에서 겪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한때 갖고 있었던, 순수하게 믿는 마음과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잃었습니까? 그렇다면 주위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 안에서, 혹은 길 건너편에서, 아니면 와드 초등학교에 가 보면 어린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어린이들의 모범을 따르고자 하는 열의가 있다면 그들의 신성한 성품은 우리의 영적 성장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자녀를 통해 얻는 축복에 대해 늘 감사할 것입니다. 자녀들 하나하나가 보여 주는 모범에서 저는 제 자신에게 필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자녀들은 제가 변화하여 더 나아지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겸손하지만 확실한 간증을 전합니다. 유순하고 온유하시고 겸손하고 인내하시며 사랑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은 완전하시며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각자가 가까이 그분의 모범을 따르며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하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월터 에프 곤잘레스 장로  
칠십인 회장단

##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생활 방식에서 구주의 모범을 따라 빛 속에서 걷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10월에 아내와 저는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에서 열리는 성전 기공식에 닐 엘 앤더슨 장로님 내외분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듯이 기공식 후에는 기자 회견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회 회원이 아닌 한 여 기자는 교회 형제들이 아내를 정중하게 대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는데, 그 기자는 “진심으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척 하는 건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기자가 우리 회원들에게서 뭔가 다른 것을 보고 느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분은 아마 회원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소망을 보았을 것입니다. 세계 도처에 있는 회원들은 모두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회원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도 구주를 따르고 싶어합니다.

아내와 저는 최근에 가나 사람들과 나이지리아 사람들에게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인 곳이지만 저희는 그들이 나누는 대화에서, 그들의 집에서, 차에서, 벽에서, 광고판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그곳 사람들의 소망을 보았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많은 기독교 교회가 서로 이웃해 있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후기 성도로서 우리가 받은 의무는 이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좋은 것 위

에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더해 줄 수 있는지 직접 와서 보도록 말입니다. 대륙과 기 후, 문화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시현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보았음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온 사자들이 신권을 회복했음을 그리고 몰몬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를 …… 하늘에서 내려 보낼 것이요, 그리고 진리를 …… 땅에서 내보내어 [그분의] 독생자에 대하여 …… 증거[하실]”<sup>1</sup>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주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sup>2</sup>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생활 방식에서 구주의 모범을 따라 빛 속에서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다음 두 가지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사랑이 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성약을 맺고 지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코르도바에서 만난 그 기자가 우리 교회 회원들에게서 발견한 것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그분을 따릅니다. 구속주를 따르려는 동기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라면, 우리는 주님께서 몸소 보이신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아버지를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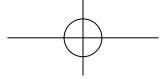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랑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몸과 마음에 큰 고통을 겪으실 때에도 순종하셨습니다. 채찍을 맞고 조롱을 받으며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고 적들에게 고문을 당하실 때에도 순종하셨습니다. 구주께서만 하실 수 있었던 속죄 희생은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sup>3</sup>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셨듯이 우리도 그분의 아들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어떤 슬픔이나 고통, 육체의 가시<sup>4</sup>도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분의 친절하신 자비로 우리는 강해질 것입니다.<sup>5</sup>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모압 사람인 룯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소중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룯은 새로 개종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룯은 자신의 신앙에 따라 생활하고자 모든 것을 두고 떠났습니다.<sup>6</sup>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또한 적과 유혹에 맞선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사랑한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부정한 일을 저지르도록 유혹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유혹을 거부하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sup>7</sup>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사랑은 어떤 적이나 유혹보다도 강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는 이 시대의 룯과 요셉이 있습니다. 에콰도르 과야킬에 사는 지미 올베라 형제님은 가족이 큰 어려움을 겪던 시절에 선교사 부름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업을 떠나는 날, 문 밖으로



나가기만 한다면 가족과는 연이 끊어질 것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미어졌지만 그는 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올베라 장로는 어머니에게서 정말 많은 축복을 받고 있으니 선교 임지에 더 오래 머물러 달라는 부탁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올베라 형제님은 스테이크 축복사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필요한 힘은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데에서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직접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소리 높여 단언했습니다. 그러자 구주께서는 다가올 어려움에 대해 말씀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구주께서 베드로에게 던진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 뒤에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려 주는 부름, 즉 “나를 따르라”<sup>8</sup>가 이어집니다.

순종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랑은 우리 가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구주를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어머니나 아버지, 배우자를 사랑할 때에도 역시 복음 원리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sup>9</sup> 하신 구주의 계명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지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사람들을 도울 때, “모든 일에 온전히 정직하고 올바[를 때]”<sup>10</sup>, 성약을 맺고 지킬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주님께서 하셨듯이 성약을 맺고 지키는 것입니다. 모로나이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 아버지의 성약 안에서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한 것으로서 너희를 거룩하며 흠 없게 되게 하는 것”<sup>11</sup>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 지구가 조직되기 이전부터 하늘에서도 성약을 맺었다고 가르쳤습니다.<sup>12</sup> 고대 선지자들과 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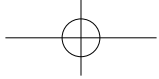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들도 성약을 맺었습니다.

구주께서는 직접 모범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주께서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올바른 권세를 소유한 사람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침례를 통해 자신이 아버지의 모든 계명에 순종할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께 증명하셨습니다.<sup>13</sup> 우리도 고대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따라서 신권 의식을 받고 성약을 맺습니다.

교회 회원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매우 좋은 것 위에 더할 수 있는 부분들 중 하나는 바로 성약을 맺는 것입니다. 성약을 맺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구주께 이렇게 말씀드리며 성약을 맺습니다. “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성약에는 “영생”<sup>14</sup>에 대한 약속이 따릅니다. 우리가 성약을 기억한다면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함께 역사할 것입니다.<sup>15</sup> 성약에 따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성약을 맺고,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성약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구주를 사랑하고 우리가 맺은 성약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약을 기억하는 한 가지 방법은 성찬을 취하는 것입니다.<sup>16</sup> 또한 자주 성전에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남미에서 서로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을 생각한 한 젊은 부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신권 지도자는 그 부부에게 성전에 참석하여 그곳에서 성약을 맺을 때 듣는 말과 약속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보라고 권고했습니다. 부부는 실제로 그렇게 했고, 결국 결혼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성약의 힘은 우리가 직면하거나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보다 더 위대합니다.

복음 생활에서 멀어진 분들께 다시 돌아오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성찬과 성전에 참여하면서 성약을 기억하고 성약을 새롭게 하는 축복을 느껴보십시오. 그렇게 우리



켄트 에프 리차즈 장로  
칠십인 정원회

는 사랑을 표현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다짐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닌 분들에게 신앙을 행사하고, 회개하도록 권유하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침례 성약을 맺을 준비를 하도록 권유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의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따를 때 더 행복해진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려 노력할 때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성약을 맺고 지키며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분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정말 커다란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모세서 7:62.
2. 요한복음 8:12.
3. 이사야 53:5.
4. 고린도후서 12:7.
5. 니파이전서 1:20 참조.
6. 룻기 1:16 참조.
7. 창세기 39:7-9 참조.
8. 요한복음 21:15-19 참조.
9. 요한복음 13:35 참조.
10. 엘마서 27:27.
11. 모로나이서 10:33.
1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42쪽 참조; 또한 Spencer W. Kimball, "Be Ye Therefore Perfect" (영적 말씀, 솔트레이크 종교 교육원, 1975년 1월 10일): "우리는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하늘에서 서약, 그것도 엄숙한 서약을 맺었습니다. …… 우리는 성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곳 지상에서 우리의 직책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성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13. 니파이후서 31:5~7 참조.
14. 아브라함서 2:11. 또한 John A. Widtsoe, "Temple Worship" (강연, 어셀블리홀, 솔트레이크시티, 1920년 10월 12일), 10쪽: "성약은 진리에 생명감을 가져다주고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주어지게 합니다."
15. 교리와 성약 90:24 참조.
16. 예: 제3니파이 18:7~11 참조.

# 속죄는 모든 고통을 치유합니다

이 필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가 달성해야 할 위대한 도전 과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외과 의사라는 직업상 상당 시간을 고통이란 주제와 씨름해 왔습니다. 거의 매일 외과 치료로 고통을 가해야 했고, 그 후에는 고통을 조절하고 경감시키는 일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고통의 목적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마다 아주 다른 방식으로 고통에 대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에 차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또 어떤 사람은 고통을 계기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고통은 치유되는 과정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을 겪으며 인내(patient)를 배웁니다. 그래서 "인내(patient)"라는 단어가 동시에 환자를 지칭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patient는 영어로 "환자" 그리고 "인내심이 강한"이라는 뜻으로 사용됨-윌슨이)

올슨 에프 휘트니 장로님은 이런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떠한 고통이나 시련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에서 배우고, 인내와 신앙, 굴하지 않는 정신, 겸손 등과 같은 성품을 키울 수 있습니다. …… 우리가 지상에 와서 배워야 하는 가르침들은 슬픔과 고통, 고생,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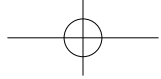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련을 통해서 전해집니다."<sup>1</sup>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은 사람을 사색으로 이끄는 겸손을 낳습니다. 저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견뎌 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

저는 큰 수술을 받은 후에 겪는 신체적인 고통과 치유가 회개 과정에서 겪는 영적 고통 및 영혼의 치유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sup>2</sup>

우리가 겪는 대다수의 고통은 우리 잘 못만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들, 모순되거나 실망스러운 상황, 일상 생활을 앗아가는 질병, 심지어 죽음이 엄습하여 이 필멸의 삶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게다가 고통은 다른 사람이 한 일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sup>3</sup> 리하이는 야곱이 "형들의 횡포로 …… 많은 슬픔을 겪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행복의 계획을 마련하실 때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많은 역경을 겪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에게 구주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구주께서는 침묵하는 방관자가 아닙니다. 그분께서도 직접, 무한히 겪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통이 어떤지 잘 아십니다.



“그가 만인의 고통, 참으로 ……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 모두, 곧 모든 살아 있는 피조물의 고통을 겪으심이라.”<sup>5</sup>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sup>6</sup>

우리는 때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길르 앞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sup>7</sup> 하고 묻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있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가 처하는 모든 상태와 필멸의 목적에 효력을 미칩니다.

고통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존재하는 영적인 고통은 끝이 없도록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고통은 엘마가 설명했듯이 “표현할 수 없는 공포”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sup>8</sup> 영적인 고통은 죄를 저지르고도 회개를 하지 않을 때 옵니다. 그렇지만 이 고통 또한 누구나 완전하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께 그런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에 필요한 모든 일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내게로 돌아와 …… 돌이켜 내가 너희를 고치게 하지 아니하려느냐?”<sup>9</sup>

그리스도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십자가 위에 들리게 하심이요, 또 내가 십자가 위에 들린 후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기 위함이라.] ……”

그러므로 아버지의 권능을 좇아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라.]”<sup>10</sup>

아마 그리스도께 가장 중대한 일은 언제나 그러하시듯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그분께서 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를 들어 올리고, 축복하고, 힘을 주고, 지탱해 주고, 인도하며, 용서하기 위해 하

시는 일들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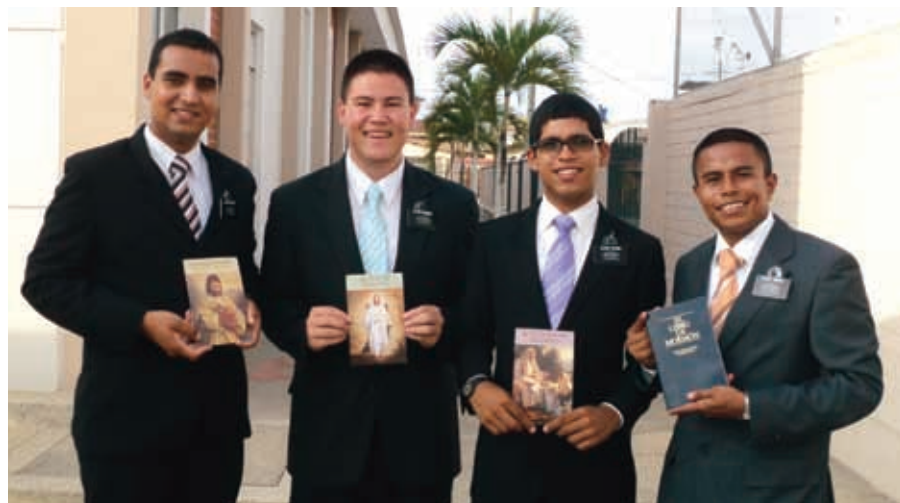
니파이가 시현으로 보았듯이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필멸의 몸으로 행하신 거의 모든 성역은 육체적이든 정서적이든 영적이든 온갖 질병으로 병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치유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나는 병든 자들과 온갖 종류의 질병으로 …… 고통받는 허다한 무리를 보았나니 ……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권능으로 고침을 받[더라].”<sup>11</sup>

엘마 또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나아가사,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심이라.”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좇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심이니라.”<sup>12</sup>

저는 어느 늦은 밤에 의사가 아니라 환자로 병원 침대에 누워 이 성구들을 읽고 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뤄진 것일까? 누구를 위해 이뤄진 것일까? 그렇게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 죄를 용서받는 것과 같은 것일까? 우리는 애써 노력해서 그분의 사랑과 도움을 얻어야 하나?’ 그날 저는 이러한 생각에 잠겨 있다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해하시고자 필멸의 생애에서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찌면 우리 또한 그분과 우리의 영

**에라도르 과야칼**



원한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 필멸성을 깊이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도 모릅니다.<sup>13</sup>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역경 중에 구주께서 약속하신 위안을 기다려야 할 때,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고 도와야 하는지를 경험을 통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위안이 될 것입니다. …… 그리고 그 힘이 실재하다는 신앙은 우리가 기도하고, 일하고 도움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그분은 간단히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었지만, 직접 경험하며 이를 배우기로 선택하셨습니다.”<sup>14</sup>

저는 그날 밤 “[주님께서] 사랑의 팔로 [저를] 안아 주[시는 듯한]”<sup>15</sup>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흘린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 후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의 지상 성역에 대해 읽던 중 “저물때 사람들이 ……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sup>16</sup>라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분께 오는 이들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아무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치유의 축복을 주실 때에는 우리 각자에게 맞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십니다. ‘치유’는 병에서 낫거나 우리의 짐을 더는 식으로 오기도 함



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과된 짐을 견디도록 힘이나 이해력, 인내가 주어짐으로써 '치유' 됩니다.<sup>17</sup> 그분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은 "예수의 팔에 안[길]"<sup>18</sup> 것입니다. 모든 영혼은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고통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이 섬을 얻[을]" 수 있습니다.<sup>19</sup> 우리가 처한 필멸의 상태가 곧바로 바뀌지는 않을 테지만 우리가 겪는 고통과 걱정, 고난, 두려움은 그분의 평안과 치유라는 유향 안에서 '삼키운 바' 될 것입니다.

저는 종종 아이들이 고통과 고난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았으며, 그 점에 주목해 왔습니다. 어린이들은 겸손하고 온유하게, 조용히 참습니다. 저는 그러한 어린아이들을 에워싸는 아름답고 감미로운 영을 느꼈습니다.

열세 살 난 세리는 척수에 생긴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열네 시간에 걸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다시 의식을 차렸을 때 세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체력 고모가 와 주세요. 그리고 ..... 노면 할아버지, ..... 브라운 할머니도 여기 주세요. 그런데 아빠, 아빠 옆에서 계신 분은 누구시죠? 아빠랑 닮았는데, 키가 좀 더 커요. 그분은 아빠 형제인 지미 삼촌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지미 삼촌은 낭포성 섬유증으로 열세 살 때 사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 거의 한 시간 가량이나 방문객들이 누구인지 설명했습니다. 그 방문객들은 모두 고인이 된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 후 세리는 피곤해하며 다시 잠들었습니다. 나중에 세리는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중환자실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는 옆에서 도와주는 천사들이 있어요."<sup>20</sup>

구주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보라, 너희는 어린아이라 지금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나니, 너희는 은혜로 또



진리의 지식으로 자라야만 하느니라.

두려워 말라. 어린아이들아, 이는 너희가 나의 것임이요, .....

그런즉 나는 너희 가운데 있나니, 나는 선한 목자이니라.]"<sup>21</sup>

이 필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가 달성해야 할 위대한 도전 과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sup>22</sup> 성도가 되는 과정은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고통을 통해 가장 많이 측정됩니다. 극단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되고 겸손해질 수 있으며, 우리 몸과 영혼이 치유될 수 있도록 끈기 있게 "기도하고 일하고 도움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sup>23</sup> 우리는 움처럼 시련을 통해 단련되어 "순금 같이 되어 내[올]" 것입니다.<sup>24</sup>

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구속주이자 친구 이시며, 변호자, 위대한 의사, 위대한 치유 자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구주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고통과 죄로부터 벗어나 그분 안에서 평안과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충분 합니다."<sup>25</sup>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Orson F. Whitney, *Faith Precedes the Miracle*,

Spencer W. Kimball, (1972), 98.

2. 로버트 더 헤일즈, "영과 육신의 치유",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14쪽.

3. 앨머서 31:31, 33 참조.

4. 니파이후서 2:1.

5. 니파이후서 9:21.

6. 히브리서 4:16. 바울은 우리에게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우리]에게 거역한 일"에 대해 구주를 모범으로 바라보라고 가르쳤 다. (히브리서 12:3)

7. 예레미야 8:22.

8. 앨머서 36:14.

9. 제3니파이 9:13.

10. 제3니파이 27:14~15.

11. 니파이전서 11:31.

12. 앨머서 7:11~12.

13. 존 테일러, *Mediation and Atonement*, 1882년, Chap XI, 97쪽 참조. 테일러 회장은 인류를 속죄하는 구속을 이루기 위해 천세에서 열린 천국 회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간에 맺은 "성약"에 대해 기록했다. 주님은 동산과 십자가에서 겪은 고난 외에도 지상에 사시는 동안 자발적으로 고난을 겪으 셨다. 모사이야서 3:5~8 참조.

14. 헨리 비 아이어링, "역경",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23~27쪽.

15. 교리와 성약 6:20 참조.

16. 마태복음 8:16~17.

17. 맬린 에이치 옥스, "무거운 짐 진 자들을 고치심",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7~8쪽.

18. 몰몬서 5:11.

19. 마태복음 11:29.

20. Michael R. Morris, "Sherrie's Shield of Faith", *Ensign*, 1995년 6월호, 4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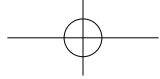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21. 교리와 성약 50:40~41, 44.

22. 모사이야서 3:19.

23. 헨리 비 아이어링, "역경",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24쪽.

24. 욕기 23:10.

25. 고린도후서 12:9; 또한 이터서 12:26~27; 교리와 성약 18:31 참조.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후기 성도 여성들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취하는 일 중 많은 부분은 여성들이 펼치는 비이기적인 봉사 덕분에 가능한 것입니다.

**작**가이자 역사가인 윌러스 스테그너는 물론 이주와 솔트레이크 밸리 집합에 관해 글을 썼습니다. 그는 우리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여러모로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윌러스는 우리 교회 초기 회원들, 특히 여성들이 보여 준 헌신과 영웅적 행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윌러스는 “그 여성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웠다.”<sup>1</sup>라고 썼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을 되풀이하겠습니다. 우리 후기 성도 여성들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여성에게 그분의 영의 자녀인 미래 세대를 양육하도록 힘과 덕성과 사랑, 기꺼이 희생하는 마음이라는 신성한 속성을 심어 주셨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떤 종교이든 종교가 있는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신을 더욱 열렬하게 믿으며” 종교 의식에 더 자주 참석한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거의 모든 면에서 더 종교적”<sup>2</sup>입니다.

저는 이런 결과가 놀랍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 종교에서 가족과 여성들이 하는 비길 데 없는 역할을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 교리는 분명합니다. 즉, 여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며, 아버지께서는 여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내는 남편과 동등

합니다. 결혼생활에서 남편과 아내는 가족에게 필요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완전한 동반자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sup>3</sup>

우리는 복음대로 생활하려 애쓰는 것을 비롯하여 여성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 개척자 자매들이 남긴 유산

우리 개척자 조상들의 삶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자매님들이 보여 준 신앙이었습니다. 여성은 신성한 본질 덕분에 가정과 자녀를 돌보고 어느 곳에서든 자녀를 양육해야 할 더 큰 책임과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기꺼이 집을 떠나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평원을 가로지른 자매님들의 신앙은 감동적입니다. 그 자매님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특징을 찾아본다면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일 것입니다.

이 개척자 여성들이 평원을 가로지르면서 치른 희생과 성취한 업적에 대한 영웅적인 이야기는 대단히 귀중한 교회 유산입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잭슨이라는 자매님의 이야기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잭슨 자매님의 남편 애런은 마틴 손수레 부대와 함께 플랫 강을 마지막으로 건넌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잭슨 자매님

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 자녀가 내게 남겨지고 내가 남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느낀 내 기분이 어땠는지는 기록하지 않을 것이다. …… 내가 복음 때문에 겪는 고통은 성별되어 나에게 유익이 되리라고 믿는다. ……

나는 남편을 잃은 이들에게 남편이 되어 주고 아버지가 없는 이들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기로 약속하신 …… 주님께 [간구했다.] 나는 그분께 간청했고 주님은 나에게로 오셔서 조력자가 되어 주셨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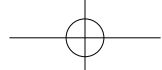
잭슨 자매님은 미래 세대가 하나님 왕국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괴로움을 감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사망한 이들을 대신하여 역사를 기록한다고 썼습니다.<sup>5</sup>

## 오늘날의 교회 여성들도 강하고 용감합니다!

지금도 그런 어려움에 처한 교회 여성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도 여러 면에서 강하고 충실하다고 믿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던 이 교회 신권 지도자들은 자매들이 베푸는 봉사와 희생, 헌신과 공헌에 대해 감사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취하는 일 중 많은 부분은 여성들이 펼치는 비이기적인 봉사 덕분에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신권과 상호부조회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협력하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화음이 잘 어우러져서 모든 이에게 영감 어린 교향곡을 들려주는 오케스트라도 같습니다.

저는 최근 캘리포니아 미션 비에호 스테이크 대회를 감리하라는 임무를 받았는데, 그때 네 개 스테이크 청소년들이 모인 송년 무도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도회가 끝난 후에 손가방이 하나 발견되었는데, 주인을 찾으려면 그 손가방을 열어 보아야만 했습니다. 라구나 니구엘 스테이크 청년 회장



인 모니카 세지위크 자매님이 쓴 글 일부분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손가방은 누군가의 개인 소지품이었기에 가방 안을 뒤지고 싶지는 않았습니 다. 그래서 손가방을 아주 조심스럽게 열 어서 맨 위에 나온 물건을 재빨리 보았습 니다. 신분을 알 수 있는 뭔가가 나오기를 바랐는데, 정말 그런 것이 나오기는 했지 만 우리가 생각한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라는 소 책자였습니다. 아! 그건 정말 그 청녀가 어 떤 사람인지 알려 주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은 수첩을 살펴보았습 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실상은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 수첩 첫 장에는 좋아하는 성구 목록이 적혀 있었고, 정성 들여 쓴 성 구와 메모가 다섯 쪽이나 더 있었습니다.”

손가방을 살피던 자매님들은 당장 그 충실한 청녀가 누구인지 만나보고 싶어 했 습니다. 자매님들은 손가방 주인을 알아 내려고 다시 가방 안을 살폈습니다. 이번 에는 구강 청결용 박하 사탕과 비누, 로션 과 빗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매님 들이 한 이 말이 제 마음에 쏙 듭니다. “와, 이 청녀 입에서는 좋은 것만 나오겠군. 손 은 깨끗하고 부드럽고, 스스로를 잘 가꾸 는 자매인가 봐.”

그들은 어떤 보물이 또 나올지 무척 기 대했습니다. 주스 상자로 숨씨 좋게 만든

작은 동전 지갑이 하나 나왔고, 지퍼가 달 린 주머니에는 돈도 약간 들어 있었습니 다. 자매님들은 “창의력도 있고, 준비를 잘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감탄했습니다. 자 매님들은 성탄절 아침을 맞는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방에서 꺼 낸 다음 물건을 보고는 더 놀라워했습니 다. 맛있는 초콜릿 케이크 요리법과 친구 생일에 케이크를 만들어 주겠다는 말이 적 힌 쪽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청녀는 직접 요리도 하는구나! 사려 깊은 데다 봉사하려는 마음까지 있어.” 그 다음에야 마 침내 신분을 알 수 있는 물건이 나왔습니 다. 이 청소년 지도자들은 “복음대로 생활 하는 청녀의 소리 없는 모범을 보게 되는”<sup>6</sup> 커다란 축복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청녀들이 교회 표준 을 따르고 있다는 예증입니다.<sup>7</sup> 또한 세계 도처에 있는 청녀 지도자들의 보살핌과 관 심과 헌신을 보여 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놀랍습니다!

자매들은 교회에서, 가족 생활에서, 하 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 으로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책임 중 대부분은 금전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 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중요한 일들입니다. 최근 에 어느 신문 편집부에서 취재를 나온 아 주 유능하고 쾌활한 여성 한 분이 우리 교 회 여성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요

청을 해 왔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든 지 도자가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 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말을 가로막으면 서 제가 한 말로 흥미를 많이 잃게 되었다 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여성이 무 보수로 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 다.”

우리는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 한 조직체는 가족이라는 것과,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sup>8</sup>이라 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어느 쪽도 금전 보 상은 받지 않지만 그 대신에 헤아릴 수 없 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녀에 게 여성 회장들이 인도하는 상호부조회, 청녀, 초등학교 조직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 니다. 교회 역사 초기부터 우리의 가장 성 스러운 모임인 성찬식에서도 남성과 여성 이 함께 기도를 하고, 음악을 연주하며, 말 씀을 하고, 합창단으로 노래를 한다고 언 급했습니다.

최근 큰 호응을 얻은 *American Grace* [미국의 은총]라는 책에는 여러 종교에 소 속된 여성들에 관해 나옵니다. 그 책은 후 기 성도 여성들만이 유일하게 교회 지도 자 역할에 대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만 족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sup>9</sup> 게다가 조 사를 실시한 모든 종교 중에서 후기 성도 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신앙에 대한 애착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sup>10</sup>

우리 자매님들이 놀라운 것은 인생에서



어려움을 면해서가 아닙니다.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삶에 닥치는 시련에 맞서는 자매님들의 모습은 놀랍습니다. 결혼생활로, 또는 결혼을 하지 못해서, 혹은 자녀들이 한 선택 때문에, 아니면 좋지 않은 건강 때문에, 또는 기회가 없다거나 그밖에 여러 가지 문제로 생기는 많은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 자매님들은 아주 강하고 흔들림 없이 신앙에 충실합니다. 교회 어느 곳에서나 자매님들은 약한 사람을 돕고, 처진 손을 들어 올리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는 일<sup>11</sup>을 꾸준히 실천합니다.

한 상호부조회 회장님은 이 훌륭한 봉사를 칭찬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들은 봉사를 할 때 ‘더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하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완전하지도 않고, 또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과 구주께서 치르신 속죄 희생에 대한 확신이 삶 속에 스며 있는 사람들입니다.

### 교회에서의 자매들의 역할

지난 3년 동안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새로운 교회 지침서에 관해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들과 협의하고 함께 일하면서 인도와 영감과 계시를 구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기혼이든 미혼이든,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재 가정과 교회에서 자매님들이 해 주시는 그 중요한 역할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복받칠 정도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회원은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주의 포도원에서 일[해야]”<sup>12</sup> 합니다. “이 구원 사업에는 회원 선교 사업과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저활동 회원의 활동 촉진,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 복음 교육”<sup>13</sup>과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sup>14</sup>이 포함됩니다. 이 일은 주로 와드 평의회를 통해 관리됩니다.<sup>15</sup>

특히, 새로운 지침서에는 감독이 기존 요구 사항을 잘 파악하여 더 많은 책임을 위임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회원들은 감독이 위임을 하도록 교육받았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감독은 청소년들과 청년 독신 성인, 그리고 자신의 가족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독은 다른 중요한 책임들도 신권 지도자와 보조 조직 회장, 그 밖의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위임할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여성들은 가정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 깊은 존경을 받습니다.<sup>16</sup> 어머니가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교회 부름을 받으면 아버지는 가족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덜 힘든 부름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몇 해 전에 통가에서 열린 한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예배실 앞쪽 세 줄이 26세에서 35세 사이 형제들로 메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남성 합창단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스테이크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63명이나 되는 이 형제들은 호명될 때마다 한 명씩 일어나 멜기세덱 신권 성임에 대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기뻐지만 놀라기도 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에 저는 스테이크 회장인 마테야키 회장님에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스테이크 평의회에서 재활동에 관한 토론이 있

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토론 자리에서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인 레이나타 바에누쿠 자매님이 양해를 구하며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에누쿠 자매님이 제안을 하는 동안 스테이크 회장님에게 영이 임하여 그 제안이 참됨을 증거했습니다. 자매님은 스테이크에 20대 후반에서 30대 연령인 젊은이들 중 선교사로 봉사하지 않은 훌륭한 이들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 다수는 자신들에게 선교 사업을 강력히 권고하던 감독과 신권 지도자들이 실망했음을 잘 알았으며, 이제 스스로를 교회에서 덜 중요한 회원처럼 느끼는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자매님은 이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나가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사랑과 염려를 표현했습니다. 자매님은 그들이 아직도 모든 구원 의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권 의식과 성전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 젊은이들 중 일부는 아직 미혼이지만 대다수는 훌륭한 여성과 결혼했으며, 그 여성들 중 일부는 활동 회원이고, 일부는 저활동 회원이며, 일부는 비회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스테이크 평의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신권 형제들과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이 젊은이들과 그 아내들을 구조하고자 손을 내미는 한편, 감독들은 와드에 있는







우크라이나 키예프

청남 청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조에 참여한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신권과 영원한 결혼, 성전 구원 의식을 준비하도록 집중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그 대회에서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로 지지를 받은 젊은이 63명 중 거의 모두가 성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고 배우자와 함께 인봉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매님들이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펼치는 구원 사업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특히 가족 내에서 그리고 교회 평의회에서 더 쉽게 계시가 임하도록 자매님들이 어떤 역할을 해내는지 보여 주는 한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sup>17</sup>

### 가족 내에서의 자매의 역할

우리는 여성과 가족에 대항하는 막대한 세력이 있음을 압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결혼을 하는 성인 수가 줄어드는 것과 함께 결혼생활에 대한 헌신도 또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sup>18</sup> 어떤 이들에게는 결혼과 가족이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 원리라기보다는 그저 선택 사항”<sup>19</sup>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각 선택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한 뒤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저는 작년에 뉴질랜드에 있는 동안 오클랜드의 한 신문에서 이러한 주제로 고심하는 여성들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여성들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 어머니는 자신의 경우에, 일을 하느

냐 아니면 집에 있느냐에 관한 선택은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새 양탄자나 차를 한 대 더 구입하는 문제와 다름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행복한 가정 생활에서” 가장 큰 적은 “돈을 버는 직장이 아니라 텔레비전임”을 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이 텔레비전을 보는 데 많은 시간을 쓰는 반면에 서로에게 쓰는 시간은 매우 적다고 지적했습니다.<sup>20</sup>

이런 일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며, 그 사람의 정서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결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여기서 다음 두 가지 원리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쏟는 것에 대해 어떤 여성도 자신이 기여한 그 일을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그 일에 대해 변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둘째, 우리는 자매들이 가정을 두고 직장에 다니기로 결정할 경우, 그런 자매들을 용감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나 비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거나 완전하게 헤아릴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내린 결정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므로, 남편과 아내는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잘 협의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홀로 자녀를 키우는 헌신적인 자매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지자들은 “여러 손길이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

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심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교회 또한 무관심하지 않다.”<sup>21</sup>라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했습니다. 또한 후기 성도가 앞장서서 남성과 여성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좀 더 관대하고 호의를 베푸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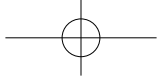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용감하고 충실한 독신 자매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어떠한 영원한 축복도 여러분에게서 거두어지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찬송가 “오 시온의 자매여”의 가사는 훌륭한 개척자 여성인 에밀리 에이치 우드맨시가 쓴 것입니다. 그녀는 “천사들의 심부름 자매가 받으니”<sup>22</sup>라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권유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이야말로 …… 자매들이 …… 요구할 수 있는 은사’”<sup>23</sup>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님 왕국에서 베푸시는 봉사에 대해 고마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놀랍습니다! 특별히 제 인생에 영향을 준 여성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속죄의 실재성과 구주의 신성, 그리고 회복된 그분의 교회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Wallace Stegner, *The Gathering of Zion* (McGraw-Hill Book Company, 1971), 13쪽.
2. Robert D. Putnam and David E. Campbell, *American Grace: How Religion Divides and Unites Us*, (2010)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 년), 233쪽.
3.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년), 1.3.1 참조. 또한 모세서 5:1, 4, 12, 27 참조
  4. Andrew D. Olsen, *The Price We Paid: The Extraordinary Story of the Willie and Martin Handcart Pioneers*(2006), 445쪽.
  5. "Leaves from the Life of Elizabeth Horrocks Jackson Kingsford", *Utah State Historical Society, Manuscript A 719*; in "Remembering the Rescue", *Ensign*, 1997년 8월호, 47쪽 참조.
  6. 이 이야기는 캘리포니아 라구나 니구엘 스테이크 청녀 회장인 모니카 세지윅 자매의 이메일 내용과 캘리포니아 미션 비에호 스테이크 청녀 회장인 레슬리 모텐슨 자매의 말씀 내용을 합쳐서 축약한 것이다.
  7. "Why Do We Let Them Dress Like That?"이라는 기사에서. *Wall Street Journal*, March 19~20, 2011, C3. 어느 사려 깊은 유대인 어머니는 [우리 교회의] 복장 표준과 정숙함을 옹호했으며 물론 여성들이 보이는 모범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8.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9. Putnam and Campbell, *American Grace*, 244~245쪽 참조.
  10. Putnam and Campbell, *American Grace*, 504쪽 참조.
  11. 교리와 성약 81:5; 또한 모사이아서 4:26 참조
  12. 교리와 성약 138:56.
  13.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년), 22쪽.
  14. 지침서 제2권, 6.1 참조.
  15. 지침서 제2권, 4.5 참조.
  16. Emily Matchar, "Why I Can't Stop Reading Mormon Housewife Blogs", [salon.com/life/feature/2011/01/15/feminist\\_obsessed\\_with\\_mormon\\_blogs](http://salon.com/life/feature/2011/01/15/feminist_obsessed_with_mormon_blogs) 참조. 자칭 남녀평등주의자이자 무신론자인 이 여성은 이 점을 인정했으며, 물론 주부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중독될 정도로 이를 즐겨 읽는다고 말했다.
  17. 통가 누쿠알로파 하이카메 스테이크의 레호니타이 마테야키 스테이크 회장(해임된 이후에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레즈비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다.)과 레이나타 바에누쿠 스테이크의 상호부조회 회장과의 대화에서.
  18. D'Vera Cohn and Richard Fry, "Women, Men, and the New Economics of Marriage", *Pew Research Center, Social and Demographic Trends*, [pewsocial-trends.org](http://pewsocial-trends.org) 참조. 많은 나라에서 출산 자녀 수 또한 현저하게 감소했다. 이런 현상을 인구통계학적 정체라고 한다.
  19. "A Troubling Marriage Trend", *Deseret News*, 2010년 11월 22일, A14, [msnbc.com](http://msnbc.com)의 한 보고서에서 인용.
  20. Simon Collins, "Put Family before Moneymaking Is Message from Festival", *New Zealand Herald*, 2010년 2월 1일, A2쪽 참조.
  21. 고든 비 헝클리, "교회의 여성들", *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67쪽; 또한 스펜서 더블류 킴볼, "교회의 우리 자매들", *성도의 빛*, 1980년 3월호, 70쪽 참조.
  22. "오 시온의 자매여", 찬송가, 198장.
  23. Karen Lynn Davidson, *Our Latter-Day Hymns: The Stories and the Messages*, rev. ed. (2009), 338~339쪽.

## 선을 행할 기회

주님께서 현재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실 때에는 늘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사랑에서 우리나라 마음으로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과 그분 사업에 헌납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목적은 주님께서 지상에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그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돌보아 오셨고, 또 현재 어떻게 돕고 계신지를 기억하고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려움에 처한 그분의 자녀들과 또한 그들을 도우려는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 모두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 세계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이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얻기 위해 드리는 기도, 즉 스스로를 부양하여 자급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간구하는 기도를 모두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인간을 두신 이래로 그러한 간구들은 늘 그분께 전달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주변이나 전 세계 도처에 그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종종 마음 속에 연민과 동정심을 느끼실 것입니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쓰는 누군가를 만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미망인 가정 찬장에 음식이 없는 것을 볼 때도 그런 마음이 들 테고, 지진이나 화재로 폐허가 된 집 잔해 위에 걸터앉아 울고 있는 아이들의 사진을 볼 때도 그런 동정심이 생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궁핍한 이들의 울음소리

를 들으시며 그들을 염려하는 여러분의 깊은 연민을 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기초를 놓은 때부터 그분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시간과 재물과 자신을 헌납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그분과 함께하도록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은 한때 헌납의 법에 따르는 생활이라고 일컬어졌으며, 또 다른 시기에는 협동교단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를 교회 복지 프로그램이라 부릅니다.

그 명칭과 세부 내용은 사람들의 필요와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변경됩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한 가지는 주님께서 현재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실 때에는 늘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점입니다. 사랑에서 우리나라 마음으로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과 그분 사업에 헌납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궁핍한 사람을 구제하는 그분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시며, 또한 그것은 계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침례의 물가에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성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성찬을 취할 때 그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

저는 오늘 궁핍한 사람을 돕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마련하셨는



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시간 관계상 모두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이를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굳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불러 온, 이 사업을 행하라는 주님의 권고가 담긴 찬송가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가사에 담긴 의미보다는 활기찬 선율에 더 끌렸습니다. 하지만 가사에 담긴 뜻을 여러분이 가슴으로 느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가사를 살펴보고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나  
궁핍한 사람 도왔나  
슬픈 사람들을 즐겁게 해 줬나  
우리 실수하지 말고  
남의 짐을 즐겨 짊어지시다  
병들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으로 위로하세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깨어나 일해 봅시다  
말로서만 하지 말고  
선행은 한량 없이 기쁘고  
사랑과 큰 의무의 축복일세!

주님께서서는 정기적으로 우리를 깨우는 자명종을 울리십니다. 그 자명종은 때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보고 문득 느끼는 동정심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넘어져 다

친 것을 본 아버지나, 밤중에 겁에 질린 아이 울음 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그런 연민을 느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아들딸들도 학교에서 누군가가 슬픔이나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런 마음을 느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동정심을 느낍니다. 한 예로 여러분은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난 후 태평양을 건너 밀어닥친 해일의 소식을 접했을 때,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염려했을 것입니다.

호주 퀸즐랜드를 덮친 홍수 소식에 많은 분들이 연민과 동정을 느꼈습니다. 뉴스 보도는 주로 이재민 숫자만을 추산했습니다만 여러분 대다수는 사람들이 당할 고통까지도 공감했을 것입니다. 호주에서는 1,500명이 넘는 교회 회원들이 그 자명종 소리에 깨어 일어나 도움과 위안을 주고자 자원 봉사자로 나섰습니다.

그 자원 봉사자들은 연민이라는 감정을, 자신이 맺은 성약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결심으로 바꾸었습니다. 저는 도움을 받은 사람과 또 도움을 줄 기회를 잡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현명한 부모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볼 때, 이를 자녀들에게 축복을 전해 줄 기회라고 여깁니다. 최근에 세 어린이가 맛있는 저녁 식사가 담긴 통을 들고서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님은

저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저희를 돕는 기회에 자녀들을 참여시켰습니다.

그 부모님은 아낌없는 봉사로 저희 가족을 축복했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전하는 일에 자녀를 참여시킴으로써 축복이 손자 손녀에게까지 미치게 했습니다. 저희 집을 나서는 어린이들 얼굴에서 웃음이 번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부모님은 주님을 위해 친절한 봉사를 할 때 느끼는 기쁨을 자녀들에게 알려 줄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 부탁으로 이웃집 잔디를 깎았을 때 느낀 잔잔한 만족감이 기억납니다.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올 때마다 저는 찬송가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을 떠올리고 그 내용을 믿습니다.<sup>2</sup>

저는 그 찬송가 가사가 원래 안식일에 주님을 경배할 때 느끼는 기쁨을 묘사하기 위해 쓰여졌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음식을 들고 저희 집에 온 그 어린이들은 주님의 일을 할 때 얻는 기쁨을 평일에도 느꼈습니다. 또한 그 부모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고, 그 기쁨이 세대를 넘어서까지 전해지게 했습니다.

주님의 방법에 따라 사람들을 도울 때,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는 또 다른 기회를 맞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일요일 예배당에서 그런 예를 보았습니다. 성찬식 모임



전에 감독님이 예배당에 들어오시자 한 어린 아이가 다가가서 자기 가족의 현금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 가족과 소년을 알았는데, 그 가족은 얼마 전 와드에 있는 누군가가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후한 금식현금을 넣으며 아이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금식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했지? 이 봉투를 감독님께 드리렴. 감독님은 우리보다 더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을 돕기 위해 그 돈을 사용하실 거란다.”

소년은 일요일에 금식을 하면서 겪는 배고픔 대신 훈훈하고 행복한 마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마련한 가족의 금식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맡아 하면서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느꼈을 것입니다. 소년의 표정과 봉투를 꼭 쥐는 모습에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소년은 나중에 집사가 되는 그날에도, 그리고 어쩌면 영원토록 그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24 리 아 호 나

여러 해 전에 저는 아이다호에서 주님을 위해 사람들을 도운 이들의 얼굴에서도 그 같은 행복을 보았습니다. 1976년 6월 5일 토요일에 테튼 댐이 무너져 열한 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몇 시간 내에 수천 명이 집을 떠나 대피해야 했습니다. 어떤 집은 물에 휩쓸려 사라져 버렸고, 수백 채에 달하는 가옥이 주인 혼자서는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동정심을 느꼈으며, 몇몇 사람들은 선을 행하라는 부름을 감지했습니다. 이웃과 감독, 상호부조회 회장, 정원회 지도자, 가정복음 교사 및 방문 교사들은 집과 직장에서 달려 나와 홍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집을 청소했습니다.

홍수가 난 직후, 휴가를 마친 한 부부가 렉스버그로 돌아왔습니다. 그 부부는 자기 집을 살피러 가는 대신 감독님을 찾아가서 어디로 가면 봉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감독님은 그 부부를 도움이 필요한 가정으로 보냈습니다.

며칠 후, 부부는 그제서야 자기 집을 살피러 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의 집은 홍수에 휩쓸려 사라진 후였습니다. 부부는 감독님을 찾아가서 그냥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동정심이 비이 기적인 행동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커다란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어느 신권 정원회에서 한 형제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직장을 구하는 다른 회원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며, 그 가족을 어떻게 지원해 주어야 할지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에서 그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교실 안이 동정심으로 가득 차올랐으며, 또 다른 형제님은 일자리를 줄 만한 곳을 알려 주기도 했습니다.

그 신권 정원회에서 일어난 일이나 아이다호에서 홍수로 침수된 집에서 일어난 일들은 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다시 자립하도록 도울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방법을 따를 수 있는지를 잘 보여 줍니다. 우리는 동정심을 느끼며, 어떻게 하면 주님의 방법에 따라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잘 압니다.

교회 복지 프로그램은 올해로 일흔다섯 번째 기념일을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공황이라고 알려진 시기에 직장과 농장, 또는 집까지도 잃어버린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최근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는 현세적인 도전과 어려움이 다시 닥쳐왔습니다. 교회 복지 프로그램의 근간이 되는 원리는 특정한 때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원리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이 원리는 영적이고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원리를 이해하고 마음 속에 새겨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로 우리를 부르시든 간에 누군가를 도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포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방법대로 도우려고 할 때 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때, 저를 인도하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을 때 더 큰 행복과 자긍심을 느낍니다. 저는 제가 겪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신 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제가 자립하도록 도와주신 분들에게는 오래도록 더 큰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가장 고맙게 생각하는 분들은 제가 가진 여유분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을 돕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들입니다.

저는 여유분이 생기게 하려면 버는 것보다 덜 써야 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 여유분 덕분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낫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주님의 방법대로 도움을 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메리온 지 롬니 회장님은 복지 사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여러분이 베푸다고 해서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후 자신의 선교부 회장님이셨던 멜빈 제이 벨라드 회장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빵 껍질을 드리면, 주님께서는 빵 한 덩어리를 돌려주십니다.”<sup>3</sup>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말씀이 진실이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색하지 않았을 때, 그분께서도 제게 인색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지 사업에서 저를 지도해 준 두 번째 복음 원리는 단합에서 얻는 힘과 축복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일에 동참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하나로 엮어 주십니다.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일은 형제애를 불러옵니다. 복지에 관해서 일을 할 때에는 서로 다른 교육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함께 어

우러져 일하기 때문입니다.”<sup>4</sup>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가 더 큰 형제애를 느끼게 된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렉스버그에서 저는 홍수에 휩쓸린 한 집에 들어가 그 집 주인과 함께 진흙을 퍼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수고한 그 주인과 저는 지금까지도 서로 깊은 유대감을 느낍니다. 또한 그분은 스스로 자신과 가족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는 점에서 큰 긍지를 느낍니다. 저희가 각자 홀로 일을 했다면, 두 사람 모두 영적인 축복을 놓쳤을 것입니다.

복지 사업을 시행할 때 따르는 세 번째 원리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가족을 참여시켜서 서로를 돌보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함께 봉사를 해 본 자녀들은 자신들이 곤궁에 처할 때에도 서로를 도울 가능성이 커집니다.

교회 복지에서 따르는 네 번째 원리는 감독 시절에 배운 것으로, 저는 이 소중한 원리를 가난한 사람을 찾아 나서라는 경전의 명령을 따름으로써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감독은 자신과 가족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뒤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찾아 도와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분이 진리를 찾을 때와 마찬가지로 가난한 이들을 돌볼 때 주님께서는 성신을 보내어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라]”<sup>5</sup>라는 말씀이 실현되게 하신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난한 사람을 찾는 일에 상호 부조회 회장을 참여시키는 것도 배웠습니다. 어찌면 그녀는 감독보다 먼저 그 계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에게는 몇 달 후 그러한 영감이 필요할 것입니다. 75회 교회 복지 프로그램 기념일을 기리기 위해 전 세계 회원들은 봉사의 날 행사에 참여하도록

초청될 것입니다. 지도자와 회원들은 기획하려는 행사가 어떤 것이든 계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봉사의 날 행사를 기획할 때 따르시도록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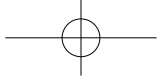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먼저, 영적으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인도하는 사람들을 준비시키십시오. 구주께서 치르신 속죄를 통해 마음이 온유하게 되었을 때만 이 행사를 치르는 취지를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취지는 개인적으로,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삶에 영적, 현세적 축복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국과 지역 사회에서 봉사할 대상을 찾을 때, 그들을 도우면서 봉사자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선택하십시오. 봉사자들이 베푸는 봉사를 통해 그 사람들은 봉사자들의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찬송가에서 약속했듯이 그들은 그 사랑으로 물질적인 도움을 받은 것을 넘어서는 더 큰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마지막 제안은 가족과 정원회, 보조 조직, 지역 사회의 지인들이 결속력을 발휘할 만한 행사를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단합을 느낀다면 그 봉사에서 선한 영향력이 퍼져 나갈 것입니다. 가족과 교회, 지역 사회에서 그 같은 단합은 행사가 끝난 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하여 오래 지속되는 하나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저는 제가 여러분께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세계 도처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바치신 사랑의 봉사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방법에 따라 사람들을 더 높이 끌어올리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과 같이 겸손한 구주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를 했



고, 도움을 받은 분들은 그에 대한 감사를 제게 전해 주셨습니다.

저는 또한 여러분과 함께 봉사에 참여한 분들에게서도 같은 감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한번은 에스라 태프트 벤슨 회장님 옆에 서 있는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지 봉사에 관해 말씀하던 중이었습니다. 벤슨 회장님은 말씀 도중에 주먹을 불끈 쥐면서 “저는 이 사업을 사랑합니다. 이 사업은 곧 일하는 것입니다!” 하고 외치셨습니다.<sup>6</sup>

주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아시며, 여러분이 바친 노력과 부지런함과 희생을 눈여겨 보십니다. 주님을 위해 여러분이 도움을 준 사람들 및 그들과 더불어 여러분이 도왔던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쏟은 수고에서 맺히는 그 열매를 축복으로 얻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압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봉사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순결하게 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아는 것처럼 성신의 권능을 통해 조셉 스미스가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 바로 이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름 받은 선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몬슨 회장님이 살아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주님께서서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그 일에서 큰 모범이 되십니다.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고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찾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찬송가 182장,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나?”
2. 찬송가 63장,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참조
3. Conference Report, Oct. 1980, 93.
4. Conference Report, Oct. 1943, 13.
5. 마태복음 7:7~8, 누가복음 11:9~10, 제3니파이 14:7~8 참조.
6. Personal experience of Henry B. Eyring.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 교회 역원 지지

**도**마스 스펜서 몬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으로, 헨리 베니언 아이어링을 제일회장단 제1보좌로, 디이터 프레드릭 우흐트도르프를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분이 계시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회장단 보좌들과 십이사도들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2011년 5월 1일부터 다음 지역 칠십인들을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호세 엘 알론소, 넬슨 엘 엘타미라노, 존 에스 앤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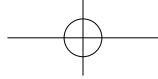
슨, 이안 에스 알턴, 세르지오 이 아빌라, 데이비드 알 브라운, 디 프레이저 불록, 도널드 제이 버틀러, 블라디미르 제이 캄페로, 다니엘 엠 카놀레스, 칼 비 쿡, 아이 폴로스키 코든, 제이 데븐 코니쉬, 페데리코 에프 코스타레스, 리그랜드 알 커티스 이세, 히버 오 디아즈, 앤드류 엠 포드, 줄리오 지 가비올라, 마누엘 곤잘레스, 다니엘 엠 존스, 도널드 제이 키즈, 도밍고스 에스 린하레스, 비 레나토 말르도나도, 레이먼도 모랄레스, 제이 마이클 파야, 스티븐 디 포지, 후안 엠 로드리게이스, 제라르도 엘 루비오, 제이 엘 시테루드, 더크 스미버트, 에이빈드 스테리, 이스라엘 에이 톨렌티노, 더블유 크리스토퍼 와델, 게리 더블유 워커.

훌륭하게 봉사해 주신 이 형제님들께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다음 형제님들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돈 알클라크, 호세 엘 알론소, 이안 에스 알턴, 칼 비 쿡, 리그랜드 알 커티스 이세, 더블유 크리스토퍼 와델, 가즈히코 야마시타. 칠십인 제이 정원회 회원으로 다음 형제님들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랜들 케이 베네트, 제이 데븐 코니쉬, 오 빈센트 할레크, 래리 와이 윌슨.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지역 칠십인으로 다음 형제님들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켄트 제이 앨런, 스티븐 비 앨런, 윈저 발데라마, 알 랜들 블루스, 헨스 티 붐, 패트릭 엠 부트왈르, 마르첼로 에프 샤페, 엘리저 에스 콜라도, 제프리 디 커밍즈, 니콜라스 엘 디 기오바니, 조지 에스 도밍게스, 게리 비 독시, 데이비드 지 페르난데스, 헤르난 디 페

레이라, 리카르도 피 기메네스, 앨런 디 하이니, 더글러스 에프 하이젠, 로버트 더블유 하이마스, 레스터 에프 존슨, 마티 티주테누스, 김창호, 올프레드 견구, 로메지오 이 메임 이세, 이스마엘 멘도자, 시저 에이 모랄레스, 룰론 디 먼즈, 라몬 시노블레자, 아브니르 브이 파자로, 게리 비 포터, 호세 엘 레이나, 에스터반 지 리섹, 조

지 에프 로데스 이세, 린 엘 서머헤이즈, 크레이그 비 테리, 데이비드 제이 톰슨, 어니스토 알 토리스, 알누포 발렌수엘라, 리카르도 발라다레스, 파비안 아이 발레조, 에머 빌라로보스, 테리 엘 웨이드.

찬성하시는 분들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 외 현재 구성된 모든 총관리 역원, 지역 칠십인,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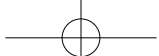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몬슨 회장님, 제가 지켜본 바로는 컨퍼런스 센터에서 제의된 모든 제안에 대한 지지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지지와 지속적인 신앙, 헌신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





# 2010년 교회 감사부 보고서

**보고자: 로버트 더블유 캔트웰**  
교회 감사부 관리 책임자

수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일회장단

**형** 제 여러분, 교리와 성약 120편에 나오는 계시에 규정된 대로 십일조 지출 평의회가 교회의 자금 지출을 승인합니다. 이 평의회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감리 감독단으로 구성됩니다. 이 평의회는 교회 부서와 그 운

영 예산 및 교회 단위 조직과 관련하여 배정되는 예산을 승인합니다. 교회 부서는 교회 정책과 절차에 따라, 그리고 승인된 예산 한도에 따라 기금을 지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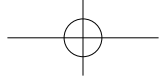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교회 감사부는 자금 수입과 지출 및 교회 자산 보호와 관련해 교회 자산이 올바

르게 관리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록과 시스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감사부는 교회의 모든 다른 부서와 운영 기구들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공인 회계사와 공인 내부 감사자, 공인 정보 시스템 감사자, 그 외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 감사부는 감사 자료에 근거해 2010년 동안 있었던 현금 영수와 지출, 교회 자산이 모든 면에서 적절한 회계 관행과 승인된 예산 범위, 교회 정책과 절차에 따라 집행되고 기록되었음을 밝힙니다.

삼가 제출합니다.  
교회 감사부  
로버트 더블유 캔트웰  
관리 책임자 ■





# 2010년 통계 보고서

**보고자: 브룩 피 헤일즈**  
제일회장단 비서

**제** 일회장단은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2010년 교회 통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스테이크 2,896개, 선교부 340개, 지방부 614개, 와드 및 지부 28,660개.

2010년 말 기준 교회 전체 회원 수는 14,131,467명입니다.

교회 기록에 등록된 새로운 자녀는 120,528명이며, 2010년 한 해 동안 침례 받은 개종자는 272,814명입니다.

연말을 기준으로 현재 봉사하고 있는

전임 선교사 수는 52,225명입니다.

교회 봉사 선교사 수는 20,813명입니다. 그중 많은 이들이 집에서 거주하며 교회의 다양한 직무에 도움을 주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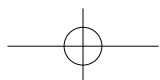
올해 성전 네 곳이 헌납되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밴쿠버 성전, 미국 애리조나 길라 밸리 성전, 필리핀 세부시 티 성전, 우크라이나 키예프 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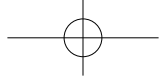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미국 하와이 라이에 성전은 2010년에 재헌납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전체 성전 수는 134곳입니다.

## 작년 4월 연차 대회 이후로 작고한 교회의 이전 본부 역원과 교회 회원들

전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이었던 더블 유 그랜트 뱅거터 장로, 애드니 와이 고마츠 장로, 헨스 비 링거 장로, 리그랜드 알 커티스 장로, 리차드 피 린지 장로, 도널드 엘 스타헬리 장로, 리차드 비 위스틴 장로. 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이었던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 전 본부 청년 회장이었던 루스 에이치 핑크 자매. 전 본부 청년 회장단 보좌였던 노마 제인 비 스미스 자매. 명예 총관리 역원인 제이 토마스 화이언즈 장로의 미망인 헬렌 화이언즈 자매. 미술가이자 삽화가였던 아들드 디 프리버그 형제. 전 교회 교육 총감이었던 제이 엘리엇 카메론 형제. ■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계시의 영과 성신의 은사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음** 정역 성경이 출판된 지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책이 나오기까지 상당히 기여한 윌리엄 틴들은 저에게는 위대한 영웅과 같은 사람입니다.

성직자들은 성경이 일상 영어로 출판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틴들이 어디로 가든 따라다니며 괴롭혔습니다. 틴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부지해 주신다면 나는 몇 년 내에 쟁기질을 하는 소년이 당신들보다도 경전을 더 많이 알게 할 것이요.”<sup>1</sup>

틴들은 배신을 당하여 브뤼셀에 있는 어둡고 차디찬 감옥에 일년 넘게 수감되었습니다. 옷이 누더기가 되자 틴들은 자신을 그곳에 가둔 사람들에게 외투와 모자를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또한 “어두운 곳에 홀로 앉아 있자니 정말 무료하군요.”라고 말하며 양초도 부탁했습니다.<sup>2</sup>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틴들은 감옥에서 끌려 나와 군중 앞에서 교수형을 당하고 시신은 화형대에 묶여 불태워졌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틴들이 남긴 저술과 순교한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경전을 배워 알도록 가르침 받으며 자라 온 후기 성도 자녀들이 4세기 전에 윌리엄 틴들이 한 그 예언을 어느 정도 성취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경전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몰몬경, 값진 진주, 교리와 성약입니다.

몰몬경 때문에 우리는 흔히 몰몬 교회라고도 불립니다. 그렇게 불리는 것을 억울하게 여기지는 않지만 몰몬 교회란 명칭은 사실 우리 교회를 부르는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

몰몬경에서 주님은 니파이인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기 때문에 다시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에 그들이 예수께 아뢰기를, 주여, 우리가 이 교회를 일컬을 이름을 우리에게 일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는 이 문제에 관하여서 백성 중에 논쟁이 있음이니이다.

이에 주께서 …… 이르시되 ……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하여 불평하며 논쟁함은 어찌이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 받들어야 한다 말하는 경전을 그들이 읽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마지막 날에 너희가 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행하든지 내 이름으로 행할지니, 그러므로 너희는 교회를 내 이름으로 칭할지며, 또 내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를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나로 인하여 교회에 복을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일컫지 아니할진대 어찌 나의 교회가겠느냐? 만일 어떠한 교회가 모세의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대 그것은 모

세의 교회일 것이요, 만일 교회가 어떠한 자의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대 그것은 어떠한 자의 교회일 것이라. 그러나 만일 교회가 내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대 그것은 내 교회니, 만일 그들이 내 복음 위에 세워졌으면 그러하리다.”<sup>3</sup>

우리는 계시에 따라 스스로를 몰몬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 부릅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몰몬 교회라 하고, 우리를 몰몬으로 부르다 해도 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그렇게 부르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일회장단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교성 115:4 참조)라는 계시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구주의 이름을 전세계에 선포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에서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부응하여 제일회장단은 교회 회원들이 어느 곳에서든 교회 이름을 언급할 때 교회의 완전한 이름을 사용하도록 요청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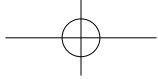
교회 회원을 지칭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라고 부르실 것을 제안합니다. 약칭으로는 “후기 성도”가 바람직[합니다.]”<sup>4</sup>

“[후기 성도]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또 우리는 우리의 예언에 따라 기록하노니, 이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함[입니다.]”<sup>5</sup>

세상은 우리를 마음 내키는 대로 부를 테지만, 우리는 우리 말 속에서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전혀 알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의식은 예수 그리



스도의 권세와 이름으로 집행됩니다.<sup>6</sup>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가 있던 초대 교회와 똑같은 조직입니다.<sup>7</sup>

고대에 주님께서는 열두 사도를 성임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배신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부활하신 후에는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 뒤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sup>8</sup>

그런데 사도들은 뭔가가 부족했습니다. 며칠 뒤에 십이사도가 한 집에 모였고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 온 집에 가득하며 ……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sup>9</sup> 이제야 사도들은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구주께서 주신 권세와 성신의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데 꼭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사도들은 침례를 베풀고 성신의 은사를 부여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sup>10</sup>

이윽고 사도들과 그들에게 있었던 신권까지 모두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리할 권세와 권능은 회복되어야만 했습니다. 여러 세기 동안 사람들은 주님의 권세가 다시 돌아오고 그분의 교회가 다시 설립되는 것을 무척이나 기다렸습니다.

1829년, 침례 요한과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신권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현대에는 교회에서 합당한 남성 회원들이 신권에 성임됩니다. 이 권세와 더불어 침례를 받은 모든 교회 회원에게 부여되는 성신의 은사는 우리를 다른 교회와 구별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초기에 받은 계시에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 하나님 곧 세상의 구주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려 함이요”라는 지시가 나옵니다.<sup>11</sup> 오늘날 교회 사업은 평범한 형제와 자매들이 부름과 지지를 받아 감리하고, 가르치고, 집행합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알도록 인도되는 것은 바로 계시의 힘과 성신의 은사 덕분입니다. 예언이나 계시, 성신의 은사와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려 한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실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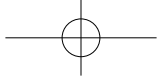
주님께서는 조셉 스미스에게 건강의 율법인 지혜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셨는데, 당시에는 그 위험성이 세상에 알려지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차, 커피, 술, 담배 등은 물론 언제나 우리 젊은이들 주변에서 도사리는 다양한 약물과 중독 물질을 피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계시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의 배꼽에 건강과 그들의 뼈에 골수를 얻을 것이요,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 참으로 감추인 보화도 찾으리니,

달려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sup>12</sup>

또 다른 계시에서 주님은 도덕성에 관한 표준을 세워 생명을 낳는 성스러운 힘이 보호되고 오직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sup>13</sup> 이런 힘을 남용하는 것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과 성신을 부인하는 일 다음으로 심각한 죄입니다.<sup>14</sup> 이 율법을 범했을 때 어떻게 그 결과를 완전히 지울 수 있는지는 회개라는 교리에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습니다. 유독 자신만이 특정한 유혹으로 시험 받는다며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필멸의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시험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어떤



유혹도 이겨 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는 한결같은 대답입니다.

“위대한 행복의 계획”<sup>15</sup>은 가족 생활에 중심 기반을 둡니다. 남편은 가정의 머리이며, 아내는 가정의 심장입니다. 부부 관계는 동등한 협력 관계입니다. 후기 성도 남성은 책임감 있고 복음에 충실한, 가정적인 남성입니다. 후기 성도 남성은 다정하고 헌신적인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후기 성도 남성은 여성의 역할을 존중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뒷받침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후기 성도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잘못을 값없이 용서하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제 인생은 의로운 한 축복사님 덕분에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셨습니다. 두 분은 깊이 사랑했고, 첫 아기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던 날 밤, 부인은 출산과 관련한 합병증에 걸렸습니다. 그때 마을에

있는 유일한 의사는 외딴 시골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장시간 산고를 겪었기에 산모 상태는 대단히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의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의사는 신속히 조치를 취했고, 곧이어 아기가 태어났으며, 위험한 고비는 지나간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산모는 그날 밤 의사가 다른 집에서 치료하던 바로 그 병에 감염되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젊은 아버지의 생활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여러 주가 흘렀지만 슬픔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는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비통한 마음으로 위협적인 말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그 일이 요즘 일어났더라면 마치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될 것처럼 그 젊은 아버지도 의료 사고 소송을 제기하라는 압력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 밖에 선] 한 작은 소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저희 집에서 좀 뵙자고 하세요. 이야기할 게 있으시대요.”

‘그 아빠’는 스테이크 회장님이었습니다. 그 현명한 지도자는 간단하게 권고했습니다. “존, 그 일에 그렇게 매달리지 말게나. 자녀가 무슨 일을 해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는다네. 상황만 더 악화될 뿐이지. 이제는 그 일에서 벗어나게.”

이것이 제 친구 분이 감내해야 할 시련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끔찍한 잘못이 저질러졌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추스르고자 무척 애쓰는 끝에 마침내 현명한 스테이크 회장님의 권고에 순종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 일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분은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노인이 되어서야 그 불쌍한 시골 의사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지. 그 의사는 의약품이나 병원, 의료기구도 없이 항상 많은 일을 해야 했어. 적은 보수에도 여기저기 환자를 진료하러 숨가쁘게 돌아다니며 생명을 구하려 애쓰고 많은 사람을 구해 주는 사람이었지. 그 의사는 두 사람의 생명이 걸린 위급한 상황에 도착해서 지체 없이 조치를 취했을 뿐이야. 이제야 이해가 되었다네!” 그리고는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는 내 인생과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다 망칠 뻔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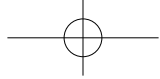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그분은 “존, 이제는 그 일에서 벗어나게” 하고 단순하게 권고해 준 그 현명한 신권 지도자를 보내 주신 주님께 무릎을 꿇고 여러 차례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마음이 상한 교회 회원들을 봅니다. 교회 역사에서 있었던 우발적인 사건이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마음이 상하여 다른 사람의 실수를 지나쳐 버리지 못하고 사는 동안 내내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와 멀어지고 맙니다.

그런 태도는 몽둥이에 맞은 사람과 비슷합니다. 몽둥이에 맞은 사람이 마음이

**브라질 상루이스**





상해서 몽둥이를 집어 들고 평생토록 매일 같이 자기 머리를 내리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 보복은 자신만 다치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면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그 일에서 벗어나십시오.

물문경에는 이런 경고가 실려 있습니다. “이에 이제, 만일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실수라, 그러한즉, 너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흠 없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정죄하지 말지니라”<sup>16</sup>

후기 성도들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 어디에나 있으며 그 수는 1,400만 명에 달합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거하되 속하지 말라고 가르침을 받았 습니다.<sup>17</sup>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평범한 가족 안에서 평범한 삶을 삽니다.

우리는 거짓말하거나 흠치거나 속이지 말라고 배웠습니다.<sup>18</sup> 우리는 저속한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이고 행복하며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슬퍼하고, 또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 어느 때에나 무슨 일에

나 ……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sup>19</sup>이 됩니다.

요구하는 것이 거의 없는 교회를 찾는 사람에게는 우리 교회가 맞지 않습니다. 후기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유일하게 참된 길은 그것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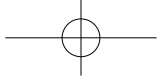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반대가 일거나 또는 “치체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과 지진이”<sup>20</sup> 있기는 하지만 어떠한 힘이나 영향력도 이 사업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계시의 영과 성신의 은사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연약한 팔을 뻗어 정해진 수로를 따라 흐르는 미주리 강을 멈추게 하거나 그 물줄기를 역류 시킬 수 있다면, 전능하신 이께서 하늘에서 후기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식을 부어 내려 주심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sup>21</sup>

만일 여러분이 몇 가지 짐을 안고 있다면 그것을 잊어버리십시오. 그저 내버려 두십시오. 용서는 많이 하시고 후회는 조금만 하십시오. 그러면 성신의 영이 여러분을 찾아와 여러분에게 있었는지도 몰랐던 간증을 확증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은 보살핌과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에게로 나아오라는 권유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온 지면 위

에서 유일한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sup>22</sup>라고 직접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위대한 행복의 계획”<sup>23</sup>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David Danielle, IntroductionDaniell, introduction to Tyndale's New Testament, trans. by William Tyndale(1989), viii.
2. Daniell, introduction to Tyndale's New Testament, ix.
3. 제3니파이 27:2~5, 7~8.
4. 제일회장단 서신, 2001년 2월 23일자.
5. 니파이후서 25:26.
6. 모세서 5:8 참조; 침례: 니파이후서 31:12 참조; 제3니파이 11:27; 18:16; 병자 축복: 교리와 성약 42:44; 성신 부여: 모로나이서 2:2; 신권 성임: 모로나이서 3:1~3 참조; 성찬: 모로나이서 4:1~3 참조; 기작: 교리와 성약 84:66~69 참조.
7. 신앙개조 제6조 참조.
8. 사도행전 1:3~11 참조.
9. 사도행전 2:2~4.
10. 사도행전 2:38 참조.
11. 교리와 성약 1:20.
12. 교리와 성약 89:18~20.
13.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야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14. 엘마서 39:4~6 참조.
15. 엘마서 42:8.
16. 물문경 서문.
17. 요한복음 17:14~19 참조.
18. 출애굽기 20:15~16 참조.
19. 모사이야서 18:9.
20. 물문서 8:30.
21. 교리와 성약 121:33.
22. 교리와 성약 1:30.
23. 엘마서 42:8.



러셀 엠 벨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신앙으로 미래를 맞이합시다

진리와 성약과 의식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신앙으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손을 들어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 지역 사회에서 사람들을 고양시키는 봉사를 통해 저희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한 여러분을 볼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을 지지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중계로 가정에서 연차 대회 진행 상황을 시청하시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한 어머니와 아버지는 연차 대회 기간에 찍은 사진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그들은 당시 18개월 된 아들이 말씀 중인 연사의 모습과 음성을 알아차리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폈습니다. 아이는 텔레비전을 향해 뽀뽀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가고 싶어했습니다. 그러자 사려 깊은 누나가 재빠르게 목마를 태워 가까이 데려왔습니다. 이게 그 사진입니다.

맞습니다. 텔레비전에는 제 얼굴이 나왔고 이 아이들은 제 손자 손녀입니다. 몇 년 있으면 이 아이는 장로가 되어 성전 엔

다우먼트를 받고 선교사로 떠날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런 후 자신이 택한 영원한 동반자에게 인봉될 것입니다. 장차 남편과 아버지가 되어 자녀를 거느린 이 아이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죽음이 삶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확실한 지식을 갖고, 할아버지에게 작별을 고하겠지요.

죽기 위해 살며, 다시 살기 위해 죽는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때 이른 죽음이란 말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된 사람의 죽음에만 걸맞은 표현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로서 우리는 자신의 자녀와 손자손녀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부모와 가족, 친구와 교사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의 신앙은 훗날 후손의 신앙 중 일부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이념이 대립하는 세상에서 각자의 길을 갑니다. 악한 세력은 늘 선한 세력에 맞설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꺾어 자기 길을 따르고 자기처럼 비참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sup>1</sup> 또한 질병, 부상, 사고와 같이 삶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위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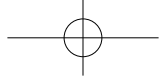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지진과 쓰나미로 황폐화되고, 정부가 무너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며, 가정이 공격받고, 이혼율이 증가합니다. 우려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신앙을 밀어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강화하여 그러한 두려움에 맞설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부모 여러분은 자녀의 신앙을 강화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힘겨운 시련이 닥칠지라도 자녀가 여러분의 신앙을 느끼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을 집중시키십시오. 그러한 신앙을 깊은 확신으로 가르치십시오. 이 소중한 아들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신성한 목적과 잠재력이 있음을 가르치십시오. 모든 사람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앙을 발전시키기 위해 태어났습니다.<sup>2</sup>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는 신앙을 가르치십시오. 필멸의 여정은 시험 받는 기간,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보기 위한 시련과 시험을 겪는 시간임을 가르치십시오.<sup>3</sup>

하나님의 계명은 그분의 자녀를 축복하고 기쁨을 주기 위한 것임을 명심하면서<sup>4</sup> 모든 계명을 지키는 신앙을 가르치십시오. 자신이 지킬 계명을 고르고 나머지는 무시하고 지키지 않기로 택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고 경고하십시오. 저는 이것을 뷔페식 순종이라 부릅니다. 이같이 고르고 택하는 행태는 헛된 것이며, 비참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려면 그분께서 주신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계명에 순종하려면 신앙이 필요하며, 계명에 순종하면 신앙이 강화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이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게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



가 속박과 불행에서 자유로워지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또한 더 큰 빛도 축복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순종을 통해 중독에서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이라는 큰 보화도 축복받습니다.<sup>5</sup>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보호받는다라는 사실을 아는 신앙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앞서 나아 갈 것임이라. 나는 너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받쳐 주리라.”<sup>6</sup> 참으로 놀라운 약속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실하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굳건한 신앙은 기도로 강화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서 우리나라오는 간구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리버티 감옥에 투옥되어 끔찍한 나날을 보내는 동안 조셉 스

미스가 드린 열렬하고도 감동적인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선지자의 관점을 바꿈으로써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이 모든 일이 네게 경험이 되고 네 유익이 될 줄 알라.”<sup>7</sup>

우리가 영원한 관점에 기초해 기도한다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진심을 다해 드리는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과연 들으실까 하고 의구심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리와 성약 98편에는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나옵니다.

“너희 기도가 …… 주의 귀에 들어왔고 - 주께서 맹세하시고 그 기도한 것이 허락 될 것을 명하셨다 - 하는 이 인봉과 증언과 함께 기록되었음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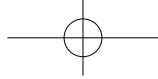
그러므로 그는 그 기도한 것이 이루어 지리라는 불변하는 성약과 함께 이 약속을 너희에게 주느니라. 그리고 너희가 고난 받은 모든 일들은 너희 유익을 위하여 함께 역사하며, 내 이름의 영광이 되리라. 주가 이르노라.”<sup>8</sup>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가장 힘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인봉! 증언! 맹세! 명하다! 불변하는 성약!** 형제 자매 여러분, 그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드리는 진지하고 진심 어린 기도를 들으실 것이며, 여러분의 신앙은 힘을 받을 것입니다.

지속되는 신앙을 키우려면 완전한 십일조를 바치겠다는 지속적인 결의가 꼭 필요합니다. 처음에 십일조를 바치려면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은 그 일이 소중한 특권임을 느끼는 수준으로 신앙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십일조는 하나님이 주신 고대 율법입니다.<sup>9</sup>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하늘 문을 열고 ……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리라]”<sup>10</sup>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십일조를 바칠 때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등재되어 “양값음과 불사름의 날”<sup>11</sup>에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토록 굳건한 신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까닭은 어려운 시기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충실한 후기 성



도가 되는 일이 수월하거나 인기 있는 일이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우리 각자는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후기에 부지런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박해를 받으리라”<sup>12</sup>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박해 때문에 나약하게 침묵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일상 생활에서 좀 더 용기 있게 모범을 보이고픈 동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삶에서 시련에 대처하는 태도는 신앙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신성한 속성이라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유산을 받았음을 기억하면 힘이 날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손자손녀들이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장소에 태어나 그분의 대표자와 성약의 백성이 되도록 하늘에서 예비된 합법적인 상속자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의의 길을 걸을 때, 여러분은 주님의 선함에 거하여 그분의 백성들에게 빛이 되고 구원자가 되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sup>13</sup>

형제 자매 여러분 각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은 성 멜기세덱 신권 권능을 통해서 옵니다. 이 축복을 통해 여러분은 건강, 성신을 동반하는 일, 대인 관계, 미래에 펼쳐질 기회 등과 관련된 인생 여건에 변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 신권 권능과 권세는 교회의 모든 영적 축복을 끌어오는

열쇠가 됩니다.<sup>14</sup> 또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주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그러한 축복들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셨다는 점입니다.<sup>15</sup>

모든 신권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주어집니다. 그곳에서 맺은 성약에 충실하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영생이라는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sup>16</sup>

보상을 내세에서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손녀들과 함께 많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충실한 성도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홀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sup>17</sup> 훗날 주님의 충실한 백성들은 이러한 약속도 받았습니다. “나 주가 그들의 싸움과 그들의 자녀의 싸움과, 그들의 자녀의 자녀 싸움을 싸우되 …… 삼사 대에 이르도록 …… 하[리]라.”<sup>18</sup>

사랑하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예언과 같은 간증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폭우가 쏟아질지라도 올바른 길을 걷고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는 복음 지식과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위안과

힘을 얻고 마음속에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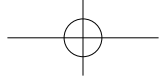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또한 이런 말도 덧붙이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두려워 말고 기뻐하십시오. 미래는 여러분의 신앙처럼 밝습니다.”<sup>19</sup>

몬슨 회장님의 힘찬 선언에 제 간증을 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는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 구주께서 알려주신 진리와 성약과 의식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신앙으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니파이후서 2:27 참조.
2. 베드로는 “너희[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베드로후서 1:4)는 희망을 전하며 이 개념을 가르쳤다.
3. 아브라함서 3:25 참조.
4. 니파이후서 2:25 참조.
5. 교리와 성약 89:19; 또한 이사야 45:3 참조.
6. 교리와 성약 84:88.
7. 교리와 성약 122:7. 관점을 바꾼 또 다른 예는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 “내 영혼을 보존소서 내 주 하나님이어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소서 주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 주 나의 하나님이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시편 86:2~3, 12)
8. 교리와 성약 98:2~3.
9. 십일조는 구약에 있는 여덟 권의 책, 즉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대하, 느헤미야, 아모스, 말라기에 언급되어 있다.
10. 말라기 3:10.
11. 교리와 성약 85:3.
12. 디모데후서 3:12.
13. 교리와 성약 86:8~11 참조.
14. 교리와 성약 107:18 참조.
15. 교리와 성약 132:47, 59 참조.
16. 아브라함서 2:11 참조.
17. 이사야 49:25; 또한 교리와 성약 105:14 참조.
18. 교리와 성약 98:37.
19. 토마스 에스 몬슨, “기뻐하라”,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92쪽.





리처드 제이 메이너즈 장로  
칠십인 정원회

#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가정을 세우십시오

우리는 …… 영원한 가족의 본질을 알며, 또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식과 믿음에 힘입어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가정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 루과이와 파라과이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던 시절, 선교 사업 초반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족에 관한 교리에 커다란 매력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된 이후 진리를 찾는 구도자들은 가족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교리에 이끌렸습니다.

영원한 가족이라는 원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위대한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 계획에 기초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지상 가족이 있듯이 하늘 가족이 있다는 지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영의 아버지이심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 하나님을 ……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sup>1</sup>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났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서 매우 기본이 되는 원리이기에 우리의 자녀들도 초등학교 노래인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며 그 원리가 참되다고 선

언합니다. 그 노랫말을 기억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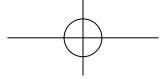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난 하나님의 자녀  
날 세상에 보내  
부모와 함께 살도록

가정을 주셨네  
길을 찾아 가게 저를  
도와 주소서  
주와 함께 살도록  
가르쳐 주소서<sup>2</sup>

우리에게 하늘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지상 가족도 영원할 수 있다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은 가족이 하늘에서 제정된 조직에 기초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과 똑같은 사림이 그곳에서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리라. 다만 그 사림에는 …… 영원한 영광이 수반되리라.”<sup>3</sup>

가족이 영원하다는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반해 사탄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망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





키려고 가족이라는 제도에 전혀 없는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더 강력한 무기는 이기심, 탐욕, 외설물 등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얻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을 자기처럼 비참하게 만들려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가족 관계를 박탈하는 것이 주요 열쇠임을 압니다. 이생과 영원한 생에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은 가족 안에 있다는 점을 알기에 가족을 파괴하고자 온갖 수단을 다 씁니다.

고대 선지자 엘마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을 “위대한 행복의 계획”<sup>4</sup>이라 불렀습니다. 우리가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하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행복과 가족 생활에 관해 다음과 같은 영감 어린 권고를 주셨습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다. 남녀간의 결혼은 그의 영원한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자녀들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 결혼 서약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sup>5</sup>

엘마가 이야기하고 최근에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언급한 이 행복은 분명히 가족이 있는 가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가정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행복을 풍족하게 누릴 것입니다.

결혼 초기에 저희 부부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가정을 세우는 일을 시작하면서 중요한 원리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를 따르는 일부러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을 모아 매주 가정의 밤을 하고 매일 기도와 경전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쉽거나, 편하거나, 항상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간단한 일들은 저희 가족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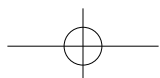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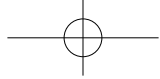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소중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주말 즈음이 되면 가정의 밤 공과 내용은 완전히 잊어버리지만 우리가 가정의 밤을 했다는 것만은 기억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지내다 보면 경전 구절이나 기도 내용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경전을 읽었고 기도했다는 점은 기억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가정에서 신성한 전통을 세우면 우리와 우리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힘과 보호가 임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리를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하면 영이 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러한 신성한 전통을 세우면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짓 전통을 물리치고 다른 사람의 필요와 관심사를 우선순위에 두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가정을 세우는 책임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있습니다. 부모는 사랑과 의로움으로 자녀를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부모가 그들





이 말은 신성한 책임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말과 모범으로 가르칩니다. 시 시 밀러가 쓴 '메아리'라는 시를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길 잃은 양은 어린 양이 아니었다네  
우리 안에 있는 아흔아홉 마리 중에서 떨어져 나온 어린 양이라네  
우리는 왜 그 어린 양을 찾고자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도해야 할까?  
어린 양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어린 양이 뒤를 따르기 때문이지.  
어린 양이 어디서 헤매든 새끼 양은 어린 양을 따르다네  
어린 양이 그릇된 길로 가면 어린 양도 금세 그 길을 따르고 말리  
우리는 오늘 어린 양을 위해 어린 양에게 간청한다네  
어린 양이 길을 잃으면 어린 양이 치르게 될 값은 얼마나 클까<sup>6</sup>

교리와 성약을 보면, 자녀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부모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를 주님께서 일러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시온[에] …… 자녀를 둔 부모가 …… 회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고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의 교리를 이해하도록 그들을 가르치지 아니할진대, 그 죄는 그 부모의 머리 위에 있느니라.”<sup>7</sup>

부모가 자녀에게 말과 모범으로 신성한 전통을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녀 또한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가정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덟 살 된 제 손자 윌이 최근에 다음과 같은 원리를 설명하며 전해 준 짧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아빠와 함께 말을 타고 올라미를 던져 말이나 소를 잡는 것을 좋아합니다. 밧줄은 여러 가닥을 꼬아서 튼튼하게 만듭니다. 밧줄이 한 가닥으로만 되어 있으면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닥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튼튼한 밧줄이 되고 여러 곳에 쓸 수 있습니다.

가족은 밧줄과 같습니다. 한 사람만 열심히 일하고 옳은 일을 한다면 모든 사람이 서로 도우려고 노력할 때만큼 가족이 강해질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가족을 돕는 일이라는 점을 압니다. 여동생 이사벨에게 상냥하게 대하면 저희는 둘 다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엄마 아빠도 행복해 하십니다. 엄마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제가 남동생 조이와 놀아 주는 것이 엄마를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제 방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냥하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가족을 돕는 길입니다. 저는 믿이니까 훌륭한

**독일 도르트문트**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압니다. 저는 옳은 일을 선택하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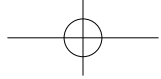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저는 가족이 튼튼한 밧줄처럼 강해지도록 아이들이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함께 일하면 가족은 행복하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리고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과 모범으로 가르치며, 자녀가 부모님에게 원리를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부모님을 사랑하고 지지한다면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가정이 세워질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서 영원한 가족의 본질을 알며, 또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식과 믿음에 힘입어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가정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과 속죄를 통해 보이신 사랑과 봉사를 더 충실히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을 간증드립니다. 또한 그 결과로 가정은 참으로 지상에 있는 천국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주**

1. 사도행전 17:27~28.
2. “나는 하나님의 자녀”, 찬송가, 187장
3. 교리와 성약 130:2; 또한 로버트 디 헤일즈, “영원한 가족”, 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64쪽 참조.
4. 앨마서 42:8.
5.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6. C. C. Miller, C. C., “The Echo,” Best-Loved Poems of the LDS People, ed. Jack M. Lyon, et.al. (Salt Lake City: Deseret Book, and others)(1996), 312~313쪽.
7. 교리와 성약 68:25.



세실 오 사무엘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 간증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고 유지하는 기본 원리는 모든 사람이 쉽게 터득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오**랜 세월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받은 큰 축복들 중 하나는 교회 젊은이들에 둘러싸여 함께 일하는 기회를 누린 것입니다. 저는 삶에서 친분과 우정을 나누는 경험을 가장 달콤하고 소중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그런 경험을 통해 교회와 사회, 그리고 세상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여러 가지 의심이나 어려움 때문에 간증이 흔들리는 이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도 있었습니다. 저마다 속사정이 다르고 특별히 독특한 경우도 있지만, 의문과 혼란이 일어나는 원인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문제와 걱정은 어느 특정 부류나 연령층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또한 집안 대대로 회원인 가족들과 비교적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원들, 이제 갓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 의구심은 대개 정직한 탐구나 호기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결과가 우리 각자에게 정말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간증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후기 성도들은 간증이 성신을 통해 계시로 받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임을 압니다.

간증은 단순명확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간증을 얻으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

할까? 필요한 계시는 어떻게 얻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간증을 얻을 수 있을까? 간증은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에서 얻는 것일까, 아니면 지속되는 과정에서 얻는 것인가?' 하는 의문들을 자아냅니다. 이런 저런 궁금증에서 더 세세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고 유지하는 기본 원리는 모든 사람이 쉽게 터득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불확실한 점에 대해 잠시 살펴본 다음, 개인적으로 간증을 얻는 일에 관하여 신뢰할 만한 젊은 친구들이 최근에 들려준 몇 가지 통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또한 신앙과 믿음 문제를 고민과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 주기도 했습니다.

먼저, 간증을 얻으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간증을 얻기 위한 대가를 기꺼이 치르고자 하는, 즉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간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즉 주의 음성은 땅 끝까지 미치나니, 듣고자 하는 자는 모두 듣게 하려 함이니라"(교리와 성약 1:11) 복음이 회복된 기본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 하나님 곧 세상의 구주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려 함이요, 신앙이 또한 땅에서 증가되게 하려 함"(교리와 성약 1:20~21)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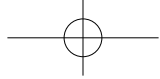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둘째, 필요한 계시는 어떻게 얻으며, 계시를 얻기 위해 거쳐야 하는 기본 단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분명하고 한결같은 방식을 따를 수 있습니다. 물론경에 대한 간증을 구하는 이에게 주는 약속 또한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또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여러분이 듣고, 읽고, 공부하고, 궁금한 점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너희는 혹 이 기록이 참되지 아니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보라.[이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대로 따르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서 깊이 생각하며 구체적이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할진대, 그는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

"또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는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되리라"(모로나이서 10:4~5)

셋째, 간증은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에서 얻습니까, 아니면 지속되는 과정에서 얻습니까? 간증은 살아 있는 생물과 같아서 올바르게 다룰 때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생물이 꾸준히 영양분을 받고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번성하고 성장하듯이, 그러한 방식으로 간증을 보살피지 않거나 그 방식에서 벗어난다면 간증을 잃거나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서 어긋나거나 이를 지키지 않으면 영을 잃고, 나아가서는 한때 있었던 간증마저도 부인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경전은 경고합니다.(교리와 성약 42:23 참조)

이제 저의 소중한고도 충실한 젊은 친구들이 살펴보고 제안한 열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생각에는 그 개념과 경험 면에서 공통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들은 우리에게 그다지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애석하게도 우리가 특별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에는 이런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



남아프리카 칼리처

을 일시적으로 잊거나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알고, 사랑하시며, 우리가 성공적으로 그분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조급하고 불완전한 자기만의 소망이 아닌 그분의 사랑과 시간표를 믿어야 합니다.

둘째, 경전에 설명된 “마음에 크나큰 변화”를 온전히 믿는다 하더라도(모사이야서 5장 및 앨마서 5장 참조) 그런 변화는 한 순간에, 또는 한꺼번에 일어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며, 또한 연구와 기도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의문이나 경험, 관심사에 대한 응답으로도 온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인생의 기본 목적이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이겨 내는 것임을 기억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하는 법을 배우며, 더 쉬운 길로는 배울 수 없을 교훈을 얻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넷째, 불확실한 때나 여러 문제들로 허우적거릴 때에는 우리가 믿는 바나, 우리

를 지명해 준다고 알고 있는 것들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섯째, 앨마가(앨마서 32장에서) 가르쳤듯이 간증은 보통 구체적인 원리나 교리, 또는 복음에 담긴 진리를 바라고, 믿고, 결국에는 알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얻습니다.(앨마서 32장 참조)

여섯째, 자신이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 그 사람의 간증을 키워 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간증도 강화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음식을 주면 우리가 가진 것은 줄어듭니다. 그러나 간증은 전하고 받는 사람 모두가 강화되고 커집니다.

일곱째, 사소하지만 필요한 일들을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 경전, 복음 공부, 교회 모임 참석, 성전 예배, 방문 교육 수행, 가정 복음 교육 및 그 밖의 지명 받은 임무 등을 행할 때 신앙이 강화되고 영을 우리 생활에 불러들이게 됩니다. 이런 특권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우리의 간증은 위태로워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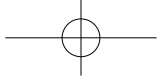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여덟째, 높은 표준을 자신에게는 적용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여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특히 지도자나 교회 회원들이 실수나 실패를 할 때 그 일들이 자신에 대한 느낌이나 간증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두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자주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구실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홉째, 잘못을 범했을 때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것은 참된 회개가 필요할 때 태평하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좋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열째, 그리스도의 속죄가 충분히,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각자에게 작용하게 하는 일은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허용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늘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나 습관, 또는 우리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어떤 요소들로 계속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른 것들은 제 위치를 찾게 됩니다.

통찰력과 힘과 간증을 보여 준 모범적인 젊은 친구들과 동료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저는 힘이 솟아남



멜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니다. 자신들이 섬기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주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선행과 봉사를 서슴지 않는 그들을 만날 때면 제가 무척 고무됩니다.

사람들은 간증이 있기 때문에 선하고 중요한 일을 행합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는 하나 우리는 자신이 하는 일 때문에 간증을 얻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할인지 알리라”(요한복음 7:16~17)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한복음 14:15)

고대에 살았던 니파이와 몰몬처럼 저도 “모든 것의 의미를 알지는 못하나”(니파이 전서 11:17; 몰몬의 말씀 1:7 참조) 제가 아는 것은 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시며, 그분의 이름을 따르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시대에 일어난 복음 회복과 관련하여 조셉 스미스가 전하고 가르친 모든 것은 그분이 실제로 경험한 일임을 저는 압니다. 저는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께서 우리를 인도하며,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우리 생활을 축복하시고 주님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신권 열쇠를 갖고 계심을 압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지식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이 대회 연단에서 들은 참된 간증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의로운 욕망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영생에 요구되는 품성들을 갈망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의로운 욕망의 중요성이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각자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요한 소망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욕망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우선순위는 선택을 좌우하며, 선택은 행동을 결정짓습니다. 욕망에 따른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지, 무엇을 이룰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욕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필멸의 존재로서 일부 기본적인 신체 욕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를 채우려는 욕망은 우리의 선택을 강요하고 행동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 가지 예는 때로 그런 욕구가 아닌 우리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욕구를 우선시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첫 번째는 식욕입니다. 우리는 음식에 대한 기본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하고자 하는 더 강한 욕구가 이에 우선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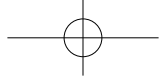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두 번째는 안락함에 관한 욕구입니다. 열두 살 소년 시절에 저는 숲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하는 보이 스카우트 요건을 달성하고자 하는 더 큰 욕구 때문에 안락함에 관한 욕구를 참아 냈습니다. 저는 몇몇 소년들과 함께 편안한 텐트를 떠나 은신처를 마련하고 자연에서 찾아낼 수 있는 재

료로 원시적인 잠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잠입니다. 이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더 중요한 욕구를 위해 잠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유타 주 주방위군에 소속된 젊은 군인 시절에 저는 전투 경험이 많은 어느 장교로부터 그러한 예를 배웠습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몇 달 안 되어 유타 주 리치필드 주방위군 야전 포병 중대가 참전 명령을 받았습니다. 레이 콕스 대위가 이끄는 이 포병중대는 몰몬 청년 마흔 명 가량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추가 훈련을 받고 다른 지역 예비역들이 더해진 후, 중대는 한국으로 보내졌으며, 그들은 한국 전쟁에서도 가장 격렬했던 전투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한 전투에서 야군 야전 포병대들을 압도적인 전력으로 섬멸해 온 수백 명의 적군 보병들이 가하는 직접적인 공격을 물리쳤습니다.

이 이야기가 잠자고자 하는 욕구를 극복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전세가 위급하던 어느 날 밤, 전선을 뚫고 적군 보병들이 밀려 들어와 이 포병대가 주둔한 후방까지 접근했을 때, 그 대위는 야전 전화선을 막사 안으로 끌어다 놓고 보초를 서는 수많은 병사들에게 매 시간 정시에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보초병들이 깨어 있게 했고, 콕스 대위도 수없이 잠을 깨야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



선시되는 욕구에서 어떤 힘이 발휘되는지를 그 대답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집에 돌아 가게 된다면 작은 우리 마을 길거리에서 그 소년들의 부모와 마주칠 텐데, 내가 지휘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들이 있다면 부모님들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지.”<sup>1</sup>

우선순위와 행동에 대한 우선적인 욕구가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 주는 참으로 놀라운 예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복리에 책임이 있는 우리 모두와 부모, 그리고 교회 지도자 및 교사들에게 참으로 훌륭한 본보기가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야기의 결말을 말씀드리자면,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 콕스 대위는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부하들을 이끌고 적군 보병대에 역습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800명 이상을 포로로 잡았고, 부상을 당한 병사는 오직 두 명뿐이었습니다. 콕스 대위는 무공

훈장을 받았고, 포병대는 보기 드문 영웅적인 전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힐라맨의 이천 용사처럼(엘마서 57:25~26 참조) 그들은 모두 무사히 귀환했습니다.<sup>2</sup>

물론경에는 욕구 또는 소망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 시간을 주님께 간청한 끝에 이노스는 자신의 죄가 사해졌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노스는 자기 형제들의 복리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느끼기 시작 [했습니다.]”(이노소서 1:9) 이노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 내가 부지런함을 다하여 기도하고 애쓴 후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네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네 소원대로 네게 허락하리라 하시더라.”(12절) 축복을 약속 받기 전에 먼저 충족되어야 하는 세 가지 필수 요건인 간절한 바람과 노력, 신앙에 주목하십시오.

신앙에 관한 설교에서 엘마는 “민기를 바라는 것 이상은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 바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엘

마서 32:27) 한다면 신앙이 시작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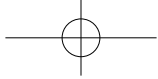
욕망, 특히 우리의 궁극적인 열망에 대한 또 다른 위대한 가르침은 선교사 아론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레이맨인 왕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론의 가르침에 흥미를 느낀 왕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 하여야 하나님에게서 나서” “이 영생을 얻겠느냐?”(엘마서 22:15) 아론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만일 이것을 원하시오면 …… 왕이 왕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절하며 받을 줄로 믿으며 신앙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실진대, 왕이 원하시는 소망을 받게 되시리이다.”(16절)

왕은 그렇게 했고, 혼신을 다해 기도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을 알고 ……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버리겠나이다.”(18절) 그러한 결의로 자신의 궁극적인 열망에 대해 밝혔기에 왕의 기도는 기적처럼 응답되었습니다.

선지자 엘마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외치고 싶은 강한 소망이 있었지만, 이를 강요하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 사람들에게 사망에 이르는 것이든 생명에 이르는 것이든, 그들의 원대로 주심을 내가 앎이라.”(엘마서 29:4) 이와 비슷하게 주님께서는 현대에 밝히신 계시에서 “나 주가 모든 사람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 그들 마음의 소원에 따라 심판할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137:9)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심판자께서 우리가 진심으로 소원하는 것을 그토록 중요하게 보신다는 점에 대해 우리는 진정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많은 경전 구절에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곧 우리가 찾은 것이라 표현합니다. “일찍 나를 찾는 자는 나를 찾게 될 것이요, 버림을 받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88:83) “가장 좋은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라]”(교리와 성약 46:8) “부지런히 찾는 자가 찾을 것이며”(니파이전서 10:19)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찾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라.”(교리와 성약 88:63)

우리가 열망하는 것들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영원한 것들을 가장 위에 두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적인 네 가지 욕망, 즉 재산, 명성, 자만, 권력을 바라도록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바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을 쌓는 일이 가장 중요한 소원인 사람들은 물질주의라는 함정에 빠집니다. 이들은 “재물이나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지 말라”(엘마서 39:14; 또한 야곱서 2:18 참조)라는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명성이나 권력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권력”이나 “세상의 영예”를 추구하지 않고 봉사했던 용감한 모로나이 장군의 본보

기를 따라야 합니다.(엘마서 60:36)

어떻게 하면 의로운 욕망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아론 렐스톤<sup>3</sup>에게 동기를 준 그런 위기를 겪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렐스톤이 한 경험은 의로운 욕망을 키우는 것에 관한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렐스톤은 유타 남부에 있는 어느 외진 협곡에서 하이킹을 하던 중 갑자기 약 350킬로그램이나 되는 바위가 굴러 떨어져 오른팔이 그 사이에 끼고 말았습니다. 그는 닷새 동안 팔을 빼려고 외로운 사투를 벌였습니다. 마침내 포기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려는 순간, 자신에게 달려오는 세 살 난 남자 아이를 자기 왼팔로 안아 올리려는 모습이 눈 앞에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미래에 함께할 자기 아들에 대한 시현이며, 자신이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표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렐스톤은 용기를 내어 기력이 다 소진하기 전에 과감한 일을 감행하여 목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렐스톤은 바위에 낀 오른팔에서 뼈 두 개를 부러뜨린 후 주머니칼로 그 팔을 잘라냈습니다. 그런 후 사력을 다해 8킬로미터를 걸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sup>4</sup> 강렬

한 욕망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보여 주는 놀라운 사례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청사진이 있다면 행하고자 하는 욕망과 힘은 급격하게 커집니다.

우리 대다수는 그런 극단적인 위기를 맞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향해 전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함정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품은 의로운 욕망이 충분히 강렬하다면, 그것이 동기가 되어 우리는 영원한 진보를 막는 각종 중독과 죄의 압박과 우선순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자신을 잘라내고 다듬을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욕망이 가볍거나 충동적이거나 일시적일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로운 욕망은 진실한 마음에서 우리나라와야 하고 흔들림 없고 영구적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지가 있을 때 우리는 조셉 스미스가 표현한 것처럼 “[우리 삶]의 악을 극복하고 죄에 대한 모든 욕망을 잃게 되는”<sup>5</sup> 상태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결심입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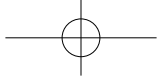
“사람이 ‘죄를 바라는 욕망을 잃어 버렸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바로 그런 사람들, 오직 그렇게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알고자 기꺼이 “[자신의] 모든 죄를 버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그릇된 욕망들을 벗어 버리고자 신중히 결심합니다. ……

그러므로 오랜 기간을 즐기게 소망한 바에 따라 우리가 마침내는 어떤 사람이 되고, 영원토록 무엇을 받게 될 것인지가 결정됩니다.”<sup>6</sup>

죄에 대한 모든 욕망을 잃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영생이 그 이상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영생에 요구되는 품성들을 갈망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생에 이른 존재는 자신에게 잘못된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복리를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사랑합니다. 혹시 이러한 일들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실제로 이러한 일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같은 품성을 소망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감정을 이끌어 주시도록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물론경은 우리가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 모두에게 내려주신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야]”(모로나아서 7:48) 한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남성과 여성에게, 특히 현재 기혼이거나 독신인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해야 할 욕망에 대한 마지막 예를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한 결혼을 간절히 바라야 하며 결혼을 영원히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미 성전 결혼을 한 사람들은 그 결혼을 보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독신들은 성전 결혼을 소망하고 그것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청소년과 청년 독신들은 결혼과 출산의 중요성을 폄하하는, 정치적으로는 그럴 듯하나 영원의 관점에서는 그릇된 관념 앞에 굴하

지 말아야 합니다.<sup>7</sup>

독신 남성 여러분, 어느 독신 자매가 보낸 이 편지에서 여러분에게 제기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딸들이 합당한 동반자를 진지하게 찾고 있지만, 형제들은 그렇게 훌륭하고 선택된 하나님 아버지의 딸들을 찾고, 구애하고, 주님의 집에서 성스러운 성약을 기꺼이 맺고 지키는 것이 자신의 책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눈이 멀고 혼란스러워 하는 듯 보입니다.” 이 자매는 이런 말로 편지를 끝맺었습니다. “나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데이트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은 좋아하지만, 한 여성에게 어떤 식으로든 전념하려는 소망이 전혀 없는 후기 성도 독신 남자들이 많습니다.”<sup>8</sup>

물론 간절한 마음으로 배우자를 찾는 젊은 남성들 중에는 일부 젊은 여성들 또한 합당한 결혼과 자녀에 대한 소망보다는 직업이나 다른 세상적 성공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제가 덧붙이길 바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는 자신을 영생으로 이끌어 줄 의로운 욕망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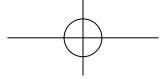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욕망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우선순위는 선택을 좌우하며, 선택은 행동을 결정

한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과 욕망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참된 친구이든, 재능 있는 교사이든,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그분의 사랑과 가르침과 속죄 덕분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그분과 같이 되려는 소망을 품고, 그래서 그분 면전에 돌아가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레이 콕스와 나는 대담에서 직접 기록한 내용, 유타 주, 마운트 플래전트, 1985년 8월 1일, 1953년 경 유타 주 프로보에서 들려준 이야기를 다시 확인함.
2. Richard C. Roberts, Legacy, The History of the Utah National Guard, 307-14(National Guard Association of Utah, 2003); The National Guardsman(magazine issue of May 1971); “Miracle at Kap Yong: The Story of the 213th”(film produced by Southern Utah University, 2002).
3. 아론 램스톤, 6일간의 깨달음, 한언, 2006 참조.
4. 아론 램스톤, 6일간의 깨달음, 한언, 2006.
5.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17장, 211쪽.
6. 닐 에이 맥스웰, “우리 마음의 욕망에 따라,” 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21~22쪽.
7. 줄리 비 벅, “우리 가정, 우리 가족: 가족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십시오” 리야호나, 2011년, 3월호, 32~37쪽.
8. 2006년 9월 14일에 쓴 편지.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봉사에서 느끼는 기쁨

단순하고 온정 어린 봉사를 하며 구주의 속죄 희생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보이기를 바랍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솔트레이크를 방문하신 분들은 템플 스퀘어에 있는 아름다운 봄꽃의 다양한 색채와 향기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빛과 생명이 소생하는 봄이 되면 우리는 계절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주님이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희생, 부활을 되새깁니다. “만물은 [그분을] 증거하기”(모세서 6:63)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봄 풍경과 그것이 상징하는 희망과는 대조적으로 세상은 불확실함과 복잡함, 혼돈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생활에서 교육활동, 직업활동, 자녀 양육, 교회 관리와 부름, 세속적 활동 등을 해야 하고 심지어 예기치 않은 질병과 비극에 따른 고통과 슬픔까지 겪으면서 지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거미줄처럼 엉킨 이런 난제들과 불확실함 속에서 빠져 나와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1849년에 살았던 젊은 보스턴 출신 상인과도 같습니다. 그 이야기에 나오는 젊은이는 캘리포니아에서 일했던 금광 열풍에 온통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팔아 캘리포니아로 가 그곳 강에서 부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곳에는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나

를 수 없을 만큼의 아주 큰 금덩어리가 가득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는 매일 끊임없이 사금용 냄비를 강 속에 넣었다가 꺼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저 돌무더기만 계속 쌓여 갈 뿐이었습니다. 그는 낙심하고 풀이 죽은 나머지 그 일을 그만두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 채취 경험이 많은 어느 노인이 그에게 “젊은이, 돌무더기가 꽤 많이 쌓였군.” 하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여기에 금은 없어요. 저는 고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돌무더기 쪽으로 걸어가면서 “아, 쓸 만한 금이야 있지. 자네는 그것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를 모를 뿐이야.” 하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돌 두 개를 집어서 서로 부딪혔습니다. 쪼개진 돌 하나에서 작은 금 알갱이 몇 개가 햇빛에 반짝거렸습니다.

젊은이는 노인이 허리에 찬 불룩한 가죽 주머니를 보고는 “저는 이런 조그마한 알갱이들 말고 할아버지의 주머니에 든 것과 같은 금덩어리를 찾고 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자기 주머니를 젊은이에게 내밀었고, 젊은이는 커다란 금덩어리 몇 개를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젊은이는 그 주머니가 금 알갱이 수천 개로 채워진 것을 보고는 어안이 빙빙했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커다란 금덩어리를 찾느라 바빠서 이 귀중한 금 알갱이로 주머니를 채울 생각은 못한 것 같군. 나는 이런 조그마한 알갱이들을 부지런히 모아서 큰 부를 얻었다네.”

이 이야기는 엘마가 아들 힐라맨에게 가르친 영적 진리를 설명합니다.

“작고 단순한 일로 큰 일이 이루어지며 .....

주께서는 아주 작은 방편으로 ..... 많은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느니라.”(엘마서 37: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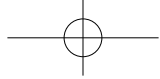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아무리 복잡하게 만들려 해도 단순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또한 외부로부터 오는 영향력에 방해받지 않고 가장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추어 단순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복음 안에는 우리 삶을 명확하게 하고 우리 삶에 목적을 부여하는 귀중하고 단순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생 여정에서 끈기 있게 계속 모은다면 마지막에는 영생이라는 귀중한 은사로 보상받게 될 복음의 작은 금 알갱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체를 둘러싸는 단순하고도 심오하며 송고한 원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이 원리를 받아들여 그것을 중심으로 삼아 살아간다면, 우리는 깨끗하고 성결하게 되어 다시 하나님 면전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바리새인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 원리를 언급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



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22:36~40)

우리가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다해 하  
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웃 또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구주  
께서 지금 이곳에 계셨다면 우리 모두에게  
보이셨을 그런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는  
이웃을 위해 친절을 베풀고 봉사할 수 있  
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 즉 자애로 둘  
려싸일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의 동기와 마음에서 우러나오  
는 소망이 구주의 소망과 같아집니다. 구  
주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사도  
들에게 이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  
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요한복  
음 13:34~35)

구주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적극적인 사  
랑입니다. 그것은 영웅의 일과 같은 큰 일  
보다는 친절하고 행동과 봉사라는 단순한 행  
위를 통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방법과 상황은 다양합니다. 여기  
몇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자애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모  
든 가정에서 적용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원리는 바로 황금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  
접하라”(마태복음 7:12)라고 훈계하셨습니  
다. 잠시, 여러분이 분별없는 말이나 행동을  
받는 쪽이라면 기분이 어떨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에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  
는 점을 모범으로 가르칩시다.

우리가 봉사할 기회가 많은 또 다른 곳  
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와드와 지부는 늘  
황금률에 따라 서로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친절  
하게 대하고, 힘을 주고 격려가 되는 말을  
하며, 서로에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민  
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와드 회원들 사이에

사랑이 깃든 단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애가 있는 곳에는 험담이나 불친절한 말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어른이든 청소년이든 와드 회원들은 단  
합하여 다른 사람의 삶을 축복하는 의미  
있는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2주 전에 남  
미 북서 지역 회장인 칩십인의 마커스 비  
내쉬 장로님은 “영적으로 강한 자들에게  
약한 이들을” 맡게 함으로써 수백 명에 달  
하는 저활동 성인과 청소년들을 구조해 내  
고 있다며 보고하셨습니다. 사랑과 봉사를  
통해 그들은 ‘하나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친절하고 행동은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 사이에 강하고 지속되는  
유대를 형성합니다. 그러한 봉사에서 참으  
로 소중한 추억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제가 수년 동안 교회를 관리하며 보낸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매우 뜻깊은 추억  
중 일부는 와드 회원들과 함께 누군가를  
도왔던 때입니다.

예를 들자면 감독으로 봉사하던 시절에  
몇몇 활동적인 와드 회원들과 함께 스테이  
크 복지 농장에서 목초를 저장하는 구덩이  
를 깨끗이 청소한 일이 생각납니다. 그것



은 그다지 유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교회에 참석하지 않은 저활동 형제 한 명이 초대되어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했습니다. 그 냄새 나는 구덩이 속에서 함께 일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형제는 사랑과 우정을 느껴 교회로 돌아왔고, 그 후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성전에서 인봉을 받았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짝튼 우리의 우정은 그 형제의 자녀와 손자 손녀, 그리고 이제는 증손자 증손녀에게까지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가 선교사로 봉사하고 성전에서 결혼했으며, 현재 영원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이 커다란 일은 단순한 행동 하나, 작은 금 알갱이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세 번째 장소는 우리의 지역 사회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관심을 순수하게 표현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내밀 수 있

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이 '도움의 손길' 셔츠를 입고서 사람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지역 사회를 향상시키려고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최근 일본 센다이 스테이크 청년 독신 성인들은 파괴적인 지진과 쓰나미에 피해를 입은 회원들을 찾아 다니는, 매우 귀중한 봉사를 했습니다. 봉사를 하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진심 어린 친절과 봉사를 통해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우정 속에서는 복음에 대한 헌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우리에게 대해 더 배우려는 소망이 생겨납니다.

저의 좋은 친구인 조셉 비 워스린 장로님은 이 원리의 힘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친절은 …… 위대함의 정수[입니다.] …… 친절은 문을 열고 친구를 만드는 열쇠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평생 지속되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친절의 미덕”,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26쪽)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선교 사업입니다. 전임 선교사뿐만 아니라 친구나 이웃으로서 하는 선교 사업도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낯선 집 대문을 두드리는 것만으로는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회원들이 선교사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자애로운 봉사 정신으로 필요한 도움을 줄 때 교회는 성장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은 우리의 진심과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대해 더 알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교회는 퍼져 나가서 지구 전체를 채울 것입니다. 이것은 선교사들만으로는 성취될 수 없으며, 모든 회원의 관심과 봉사가 필요한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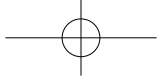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우리는 봉사를 할 때마다 성신이 속삭이는 소리에 민감해야 합니다. 이 고요하고 작은 음성은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 줄 것입니다.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왕국에서 서로 봉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 우리의 봉사는 종종 단순히 격려를 하거나 일상적인 일을 도와주는 정도이지만 작고 신중한 행동에서 영광스러운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유 김볼[2006], 82쪽)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항상 존재하며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

우리가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목적이 없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오늘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했나?”,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85쪽)

형제 자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속성 중 우리가 소망하고 얻고자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성품은 자애라는 은사,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모로나이사 7:47)입니다. 바로 이 은사에서 구주께서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솟아납니다.

선지자 몰몬은 이 은사가 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쳤으며 그 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 주었습니다. “그러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 모두에게 내려주신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그가 계신 그대로 우리가 그를 볼 것인즉, 우리가 그와 같이 되게 하며, 우리로 이 소망을 갖게 하며, 그가 순결하신 것같이 우리가 순결하게 되게 할지이다.”(모로나이사 7:48)

큰 일은 작고 단순한 일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작은 금 알갱이가 계속 쌓여서 큰 보화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베푸는 작고 단순한 친절과 봉사는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에 대한 헌신, 그리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 때마다 얻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부활절이 다가오는 이 계절에 가정과 교회와 지역 사회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단순하고 온정 어린 봉사를 하며 구주의 속죄 희생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겸손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선교 사업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데려오고, 사람들이 구주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도록 돕는 성스러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밤 특별히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12세에서 25세 형제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 대해 많이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전에 한 번 저는 네 살 난 손자가 동생을 강하게 밀쳤던 일화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는 아이를 달랠 후에 제 아내 케이스는 고개를 돌려 네 살 난 손자에게 사려 깊게 물었습니다. “왜 동생을 밀었니?” 손자 아이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정의반 반지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옳은 것을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옳은 일을 선택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는 점을 압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무척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왜 이 특정한 시기에 지상에 보내졌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담과 이브 시대나 파라오가 이집트를 통치하던 시대, 혹은 명나라 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신 때로부터 20세기가 지난 이 시기에 이렇게 지상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신권이 지상에 회복되었으며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시고자 손을 뻗고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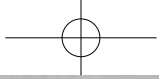
지금은 위대한 기회와 중요한 책임들로 가득한 시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침례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보여 주었습니다. 신권 성임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재능과 영적 역량은 강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중요한 책임 중 하나는 세상이 구주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을 지명하여 그분의 신권 사업을 인도하도록 하셨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sup>1</sup> “모든 합당하고 건강한 젊은 남성은 선교 사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선교 사업은 신권 의무이며, 많이 받은 자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의무입니다.”<sup>2</sup>

선교 사업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봉사하라는 선지자의 권고를 따를 때에는 항상 무언가 희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럭비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뉴질랜드 올블랙스가 가장 칭송받는 럭비팀이라는 것을 압니다. 선수복이 새까맣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sup>3</sup> 뉴질랜드 “올블랙스”에 선발되는 것은 미국 슈퍼볼 팀이나 월드컵



축구팀에서 활약하는 것과 맞먹습니다.

1961년, 열여덟 살인 아론 신권 소유자 시드니 고잉은 뉴질랜드 럭비계에서 스타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드니의 뛰어난 재능을 보고 그가 이듬해에 “올블랙스” 럭비팀에 선발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열아홉 살이 되었을 때 시드니는 럭비 선수로 승승장구하던 그 중요한 시기에 럭비를 중단하고 선교 사업을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에게 “미쳤다”라고 했고 어떤 이들은 “어리석다”라고 했습니다.<sup>4</sup> 사람들은 시드니가 럭비계에서 다시는 그 같은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드니에게 선교 사업은 희생이 아니라 앞에 놓인 기회와 책임이었습니다. 시드니에게는 인생에서 2년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이 참되다는 사실을 선언해야 할 신권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심지어 훌륭한 팀에서 활약할 기회와 그에 따라 얻을 모든 명성도 시드니가 이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sup>5</sup>

시드니는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캐나다 웨스턴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48년 전 4월, 열아홉 살이 된 시드니 고잉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뉴질랜드를 떠났습니다.

시드니 장로는 선교 사업을 하며 경험한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동반자와 함께 숙소로 돌아가려던 참에,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한 집만 더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방문한 그 집의 가장은 선교사들을 집안으로 들였고, 시드니 장로와 동반자는 구주에 대한 간증을 전했습니다. 그 가족은 물몬경을 받았으며 아버지는 밤새도록 물몬경을 읽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반 만에 그 가장은 물몬경과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를 모두 읽었습니다. 몇 주 후, 가족들은 침례를 받았습니다.<sup>6</sup>

뉴질랜드 올블랙스팀 선수 자리가 아닌 선교 사업을 선택하다니요? 그런 반응에 시드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을 복음으로 데려오는 축복은 그 어떤 희생보다도 훨씬 값집니다.”<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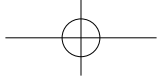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시드니 고잉이 선교 사업을 마치고 어

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드니가 사랑하는 아내 콜린을 만나 영원한 결혼을 했고 고귀한 다섯 자녀와 손자 손녀를 얻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시드니 형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계명을 지키며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럭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드니 고잉은 귀환하고 나서 “올블랙스” 역사상 가장 뛰어난 하프백 중 한 명이 되었으며 열한 시즌에서 선수로 활약했고 여러 해 동안 주장으로서 기량을 펼쳤습니다.<sup>8</sup>

시드니 고잉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십니까? 시드니는 너무도 뛰어난 선수였기에 그가 경기를 하지 않으려 한 일요일에는 경기와 훈련을 하지 않도록 일정이 바뀔 정도였습니다.<sup>9</sup> 정말 우수한 선수였기에 럭비에 대한 공헌을 인정 받아 영국 여왕에게서 치하를 받기도 했습니다.<sup>10</sup> 심지어 시드니를 다룬 “Super Sid[슈퍼 영웅 시드니]”라는 책도 저술되었습니다.

선교 사업을 마친 후 시드니가 그 모든 영광을 얻지 못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이 교회의 선교 사업에서 보는 가장 큰 기적



중 하나는 시드니 고잉을 비롯하여 비슷한 상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 사업을 마치면 무엇을 얻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교 사업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데려오고, 사람들이 구주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도록 돕는 성스러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재림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에녹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보낼 것이요, 그리고 진리를 내가 땅에서 내보내 [며] …… 내가 또 의와 진리가 마치 홍수와 같이 땅을 휩쓸게 하여 땅의 사방에서 나의 택한 자를 …… 집합시키리라.”<sup>11</sup> 선지자 다니엘은 마치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온”<sup>12</sup> 것과 같이 후기에 복음이 땅 끝까지 굴러 나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니파이는 후기에 세워질 교회가 수는 적지만 온 지면 위에 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sup>13</sup> 주님께서는 이 경륜의 시대에 “너희는 나의 택함 받은 자의 집합을 이루도록 부름을 받았[다]”<sup>14</sup>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젊은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임무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집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이며, 이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과 관련된 큰 기회이자 책임입니다.

형제들은 교회가 회복된 초기부터 복음을 선포하는 책임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1837년, 교회가 조직된 지 겨우 7년밖에 되지 않았고 가난과 박해에 시달리던 그 시절에도 복음을 가르치도록 선교사들이 영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 사이에 선교사들은 호주,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인도, 바베이도스, 칠레, 중국 등 매우 다양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sup>15</sup>

주님께서 이 사업을 축복하셨으며, 교회는 전 세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92개 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150개국 이상에서 봉사하는 전임 선교사 52,225분께 감사를 드립니다.<sup>16</sup> 세상 어디를 가든 구주를 증거하는 의로운 선교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을 받은 선교사 오만 이천 명이 “다른 아무 이름이나 다른 어떠한 길이나 방법도 주어지지 아니하리니, 다만 ……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만 구원이 올 수 있느니라.”<sup>17</sup> 라고 담대하게 외치며 내뿜는 영적인 위력을 그려보십시오.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많은 귀환 선교사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구주의 재림을 위해 준비되고 있으며, 이 일의 상당 부분은 선교사들이 주님의 사업에서 이룬 결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교 사업은 영적인 사업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는 합당해야 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남 여러분, 선교 사업을 준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님을 대표하기 위해 깨끗하고 순결하며 합당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sup>18</sup> 선교 사업을 떠나기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이 받을 성스러운 임무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선교 사업을 하기 전에 한 행동들은 선교 임지에서 발휘할 신권 권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스스로를 잘 준비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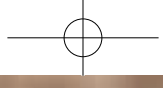
몬슨 회장은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모든 합당하고 건강한 젊은 남성”<sup>19</sup>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나 다른 어떤 이유로 봉사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감독님과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

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처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고귀한 임무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매우 관대하시며 여러분을 위해 다른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봉사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지 않나 염려할 것입니다. 제 중국인 친구는 20대 중반에 캄보디아에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 친구는 당시 나이가 많았는데도 선교 사업을 나가야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기도하고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눈 후 그 친구는 부름을 받아 뉴욕 시에서 훌륭하게 봉사했습니다. 나이가 걱정되거든 기도하고 감독님과 상의해 보십시오. 감독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전체 선교사 중 절반이 고국에서 봉사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은 …… 자기 자신의 방언과 자기 자신의 언어로 복음의 충만함을 듣게 되리라.”<sup>20</sup>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언에 따라 부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곳에서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최근에 호주 시드니 선교부를 방문하는 동안 제가 누구를 만났는지 아십니까? 뉴질랜드 럭비계의 전설인 시드니 고잉 장로님입니다. 시드니 장로님은 67세에 다시 선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선택한 동반자인 콜린 고잉 자매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아내와 함께 가르친 한 가족에 대해 들려주셨습니다. 그 부모는 회원이었지



만 오랜 세월 저활동으로 지냈습니다. 시드니 부부는 그 가족이 다시 신앙의 불을 밝히도록 도우셨습니다. 시드니 장로님은 신권을 받은 장남이 남동생과 여동생에게 침례를 주는 동안 그들의 아버지와 함께 침례탕 옆에 서서 느낀 권능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족이 단합되어 함께 영생을 추구하는 모습에서 느낀 기쁨을 나누어 주셨습니다.<sup>21</sup>

제일회장단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책임과 기회뿐 아니라 유혹 또한 가장 큰 이 시대에 태어난, 특별히 선택받은 [영]입니다. ……

우리는 여러분 개개인[이] …… 여러분 앞에 놓인 위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구주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합당하게 되[며] [이를 기꺼이 행하]기를 [기도합]니다.”<sup>22</sup>

저는 해리 앤더슨이 그린 구주의 재림이라는 작품을 좋아합니다. 이 그림은 구주께서 위엄과 권능 중에 오시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 줍니다. 기이한 일들이 하늘과 땅에서 일어날 것입니다.<sup>23</sup>

구주께서 재림하실 때를 고대하는 사람들은 “[구주]를 배[탈]” 것입니다. 구주께서 “내가 오리라.”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옷을 입고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하늘의 구름 가운데 [계신]”<sup>24</sup> 주님을 볼 것입니다. “한 천사가 자기 나팔을 불 [것이]며] …… 땅의 사방에서 나아온[다]”<sup>25</sup> 성도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sup>26</sup> “잠자던 성도”, 즉 죽음을 맞이했던 합당한 성도도 “[그분]을 맞으러 나아[올] 것입니다.”<sup>27</sup>

경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가 자기 발을 …… 산 위에 디디[고]”<sup>28</sup> “주가 그의 음성을 발하리니, 땅의 모든 끝이 이를 들을 것이요”<sup>29</sup>

젊은 신권 형제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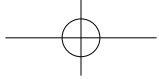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의 위엄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구주께서는 살아 계시며 지상에 돌아오실 것입니다. 지상에 있든, 휘장 저편에 있든 저와 여러분은 구주의 재림을 기뻐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성스러운 의무를 수행하도록 우리를 이 시기에 지상으로 보내 주신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토마스 에스 문슨, “주님께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리아호나*, 2011년 1월호, 4쪽.
2. 토마스 에스 문슨,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5~6쪽.
3. stats.allblacks.com 참조
4. Bob Howitt, “*Super Sid: The story of a great- Great All Black*,” Auckland: New Zealand, Rugby Press Ltd, (1978), 27 참조
5. 뉴질랜드 카이코헤 스테이크 맥스웰 홀스포드 회장과 통화한 내용, 2011년 3월.
6. 시드니 고잉 장로와 통화한 내용, 2011년 3월.
7. 시드니 고잉 장로에게서 받은 이메일, 2011년 3월.
8. stats.allblacks.com/asp/profile.asp?ABID=324 참조.

9. 뉴질랜드 카이코헤 스테이크 맥스웰 홀스포드 회장과 통화한 내용, 2011년 3월.
10. 시드니 고잉은 럭비 경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78년에 MBE(Member of the Order of the British Empire[대영제국 훈장])를 받았다.(Howitt, *Super Sid*, 265 참조)
11. 모세서 7:62.
12. 다니엘 2:45.
13. 니파이전서 14:12~14 참조.
14. 교리와 성약 29:7.
15. *Deseret News 2011 Church Almanac*(2011), 430, 432, 458, 463, 487, 505 참조
16. 2010년 12월 31일 기준.
17. 모사야서 3:17.
18. 토마스 에스 문슨, *리아호나*, 2011년 1월호, 4쪽.
19. 토마스 에스 문슨,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5~6쪽.
20. 교리와 성약 90:11.
21. 시드니 고잉 장로와 통화한 내용, 2011년 3월.
22. “제일회장단 메시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소책자, 2001), 2~3쪽.
23. 교리와 성약 43:18; 45:40 참조.
24. 교리와 성약 45:44.
25. 교리와 성약 45:45~46.
26. 교리와 성약 88:96.
27. 교리와 성약 45:45; 또한 교리와 성약 29:13; 88:96~97 참조.
28. 교리와 성약 45:48.
29. 교리와 성약 45:49.





스티븐 이 스노우 장로  
칠십인 회장단

# 소망

우리가 속죄를 소망하면 영원한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남부 유타에 있는 사막 고원 지대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은 비가 오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에 여름이 다가 올 때면 비가 좀 많이 내렸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고는 했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때에도 기도를 드리며 비가 내리기를 기원했고, 절박할 때에는 금식도 했습니다.

다섯 살 난 손자를 데리고 산책을 나선 그 마을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길가에 있는 식료품 가게에서 걸음을 멈추고 시원한 청량 음료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다른 주에서 오던 차가 서더니 운전자가 내려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운전자는 하늘에 떠 있는 작은 구름을 가리키며 “비가 올 것 같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소. 나는 전에 본 적이 있어도 손자 아이는 아직 본 일이 없으니 말이오.” 하고 할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마음에 소망이 있으면 우리의 생활은 풍요로워집니다. 소망은 “만사가 잘되길 바라는 바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기대하게 됩니다.”(dictionary.reference.com/browse/hope) 따라서 소망을 품고 미래의 일을 자신감을 갖고 기대할 때 우리의 삶은 평온해집니다.

때로 사람은 우리가 전혀, 또는 거의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소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날씨가 좋았으면 하고 바랍니다. 봄이 일찍 오기를 소망하고, 좋아하는 팀이 월드컵이나 슈퍼볼 또는 월드컵 시리즈에서 우승했으면 하고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 때문에 생활이 재미있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상하거나 미신에 가까운 행동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 장인께서는 스포츠를 매우 좋아하시면서도 좋아하는 농구팀의 경기를 자신이 시청하지 않으면 승리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믿으셨습니다. 열두 살 때 저는 이기겠다는 일념 하나로 어린이 야구 경기에 나갈 때마다 매번 세탁하지 않은 양말을 꼭 신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언제나 뒷문에서 제게 양말을 신겨 주셨습니다.

반면에 소망은 꿈이 되어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어떤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학교 생활을 더 잘하겠다는 소망이 있으면, 그것이 동기가 되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승 팀에서 선수로 출전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으면, 그것이 힘이 되어 연습을 꾸준히 하고 온 힘을 다해 팀이 단합하도록 노력하여 결국 성공을 거둡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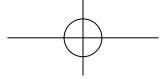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영국에서 공부하는 의과 대학생이었던 로저 배니스터에게는 큰 소망이 있었습니다. 달리기에서 최초로 1마일(1.6킬로미터)을 4분 이내로 달리는 선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20세기 초에 육상에 큰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4분대 벽을 깨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기나긴 세월 동

안 수많은 걸출한 주자들이 마의 4분 벽을 넘을 뻔 했으나 문턱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배니스터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려는 소망을 품고 의욕적으로 강도 높은 훈련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스포츠 종사자들 중에서는 4분대 벽을 깰 수 있을지 의구심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인간이 1마일을 4분 내로 달리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떠들었습니다. 로저 배니스터가 품은 원대한 소망은 날이 잔뜩 찌푸렸던 1954년 5월 6일에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그는 3분 59.4초에 결승선을 통과하여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4분대 벽을 넘겠다는 배니스터의 간절한 소망은 온 몸을 던져 집중적으로 훈련한 끝에 성취되었습니다.

소망은 꿈을 키우고, 우리는 소망의 자극을 받아 꿈을 실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망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뜻은 좋았으나 게으름 때문에 꽃을 피우지 못하고 사라진 훌륭한 소망도 많습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들에게 가장 큰 소망을 걸 것입니다. 자녀가 자라서 책임감 있고 의로운 삶을 살아 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소망은 부모가 좋은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소망만으로는 자녀들이 의롭게 자라주지 않습니다. 가정의 밤과 건전한 가족 활동을 하며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 시간을 활용하여 자녀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 주고, 경전을 함께 읽으면서 중요한 복음 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녀에게 거는 큰 소망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그 자리에 절망이 들어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받을] 갈[아야]”(고린도전서 9:10)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소망을 품으면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고 미래를 기대하게 됩니다. 받을 갈아 곡식을 심든 인생을 살아가든 우리 후기 성도는 반드시 소



망을 풀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소망은 그분의 제자가 되어 구주의 속죄를 통해 영원한 구원을 얻겠다는 바람을 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녕 풀어야 하는 참된 소망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베드로는 일찍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베드로전서 3:15)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우리가 속죄를 소망하면 영원한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관점이 있으면 이 생을 넘어서 미래에 올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번덕스러운 세상 사에 간혀 허우적거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봉되어 해의 영광에 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복음에서는 소망을 신앙과 사랑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소망은 신앙 및 사랑과 함께 다리가 세 개인 의자를 지탱하는 하나의 다리입니다. 이렇게 세 다리가 다 있으면 바닥이 거칠거나 고르지 못해도 우리의 삶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무한한 소망의 힘”,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21쪽)

모로나이는 물론경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신앙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신앙이 있어야 할진대 또한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할진대 또한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하느니라.

또 너희에게 사랑이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너희에게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을 수 없으며, 너희에게 소망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모로나이사서 10:20~21)

러셀 엠 벨슨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신앙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 이시며, 소망의 중심은 속죄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속성은 전선 속에 있는 구리 선처럼 서로 얽혀 있어서 딱히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로 엮여서 해의 왕국으로 인도하는 동아줄이 됩니다.”(“A More Excellent Hope”, *Ensign*, 1997년 2월호, 61쪽)

니파이는 자신의 기록을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느니라”(니파이후서 3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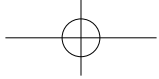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니파이가 말한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은 속죄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영원한 구원을 바라는 소망은 우리 구주께서 치르신 희생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이 소망 덕분에 놀라운 일들을 해냈습니다. 고대 사도들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주님에 대해 간증하고 마지막까지 그분을 위해 봉사하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도 교회의 초기 회원들 다수는 가슴에 소망과 신앙을 가득 품고 집을 떠나 대평원을 횡단하여 솔트레이크 밸리로 갔습니다.

1851년, 남편을 사별한 메리 머레이 머독은 67세에 스코틀랜드에서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메리는 키가 1.2 미터이고 체중은 41킬로그램밖에 되지 않는, 체구가 작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덟 자녀를 낳았고 그 중 여섯은 살아남아 장성했습니다. 체구가 작았기에 자녀와 손자 손녀들은 메리에게 “꼬마 할머니”라는 애칭을 붙여 주었습니다.

메리의 아들인 존 머독은 아내와 함께 교회 회원이 되어 1852년에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유타로 떠났습니다.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4년 뒤에 존은 어머니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가족과 합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보냈습니다. 체구가 작은 73세 노인 메리는 큰 소망을 품고서 서부에 있는 유타를 향해 힘든 여



래리 엠 기슨 형제  
본부 청남 회장단 제1보좌

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대서양을 안전하게 건넌 뒤에 불운했던 마틴 손수레 부대에 합류했습니다. 7월 28일에 이 손수레 개척자들은 서부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대가 겪은 고초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576명인 대원들 중 4분의 1정도가 유타 땅을 밟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브리검 영 회장이 구조대를 조직하여 마차와 물자를 보내 눈 속에서 오도 가도 못하던 성도를 찾아 나서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메리 머독은 1856년 10월 2일에 네브래스카 주 침니록 근처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메리는 여독과 험한 날씨, 고난으로 그곳에서 쓰러졌습니다. 그 연약한 몸으로는 성도들이 겪는 고초를 더는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숨을 거둘 무렵, 메리는 유타에 있는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이 충실한 개척자 여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내가 시온을 바라보며 죽었다고 존에게 전해 주세요.”였습니다.(Kenneth W. Merrell, *Scottish Shepherd: The Life and Times of John Murray Murdoch, Utah Pioneer*[2006], 34, 39, 54, 77, 94~97, 103, 112~13, 115 참조)

메리 머레이 머독은 서부로 대담하게 떠났던 수많은 초기 개척자들에게 소망과 신앙에서 모범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걷는 이 영적인 여정에도 초기 개척자들 못지 않은 소망과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다른 종류의 고난일 수 있겠지만 힘겨운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품고 의로운 꿈을 성취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속죄에 대한 소망으로 신앙과 사랑이 커지고 미래를 영원한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을 지닐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아론 신권의 신성한 열쇠

주님께서 모든 아론 신권 소유자가 자신의 가족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권유하기를 바라십니다.

**제** 아들 중 한 아이는 열두 살 때 토끼를 키워 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끼집을 만들고 이웃에게서 커다란 토끼 한 쌍을 샀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우리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토끼집은 토끼들로 넘쳐났습니다. 이제는 제 아들이 다 자랐기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저희 집 토끼 숫자가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알았을 때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웃집 개가 이따금 저희 토끼집에 들어와서 몇 마리씩 물어 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절에 저는 아들 아이가 토끼를 돌보고 보호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들들은 어엿한 남편과 아버지로서 가족을 사랑하고, 강화하고, 돌보는 합당한 신권 소유자들입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인 청남들이 자신의 가족과 정원회 회원, 다른 많은 사람들을 포함한 주변 사람을 돌보고, 지지하고, 강화하는 모습을 보면 제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최근에 열세 살 난 청남이 집사 정원회 회장으로 성별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성별 후에 감독님은 그 청남에게 “회장님”이라 부르며 악수를 청했고, 정원회 회원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청남을 회장님이라 부른 것은 그가 맡은 부름이 신성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사 정원회 회장은 와드에서 회장단의 열쇠를 소유한 네 명 중 한 사람입니다. 집사 정원회 회장은 그 열쇠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감에 따라 보좌들과 함께 정원회를 이끌니다.” 그 감독님은 성스러운 신권 열쇠를 갖고 이를 행사하는 회장이 이끄는 회장단의 힘을 이해하셨던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24:142~143 참조)

저는 그 청남에게 훌륭한 정원회를 이끌 준비가 되었냐며 물었습니다. 그는 “무척 떨려요. 저는 집사 정원회 회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데, 저에게 그것에 대해 알려 주실 수 있으세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청남이 성공적이고 강한 신권 지도자가 되도록 도울 훌륭한 감독단과 고문이 있다는 점을 알려 주었습니다. 저는 감독단과 고문이 그 청남이 받은 회장단의 신성한 열쇠를 존중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형제님에게 나아갈 방향을 알려 주시지도 않고 이 중요한 부름에 봉사하도록 부르셨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 청남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더니 “그 방향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조금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그 형제는 경전과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과 기도에 대한 응답에서 그 방향을 찾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형제와 저는 새로 받은 부름에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배우기 위해 경전 구절 하나를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교리와 성약 107편 85절을 펼쳤습니다. 그 구절에는 집사 정원회 회장이 정원회 회원들과 함께 평의회를 하며 그들이 수행해야 할 의무를 가르쳐야 한다고 나옵니다. 저희는 그 형제의 정원회가 하나의 반일뿐만 아니라 청남으로 구성된 평의회이며, 평의회 회원들은 회장이 이끄는 대로 서로를 강화하고 교화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저는 그 청남이 동료 집사들에게 그들이 해야 하는 의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감에 의지하고 그 신성한 부름을 영화롭게 할 훌륭한 회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저는 “이제 형제님은 집사들에게 그들이 받은 의무를 가르쳐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경전을 펼쳐 그 의무를 찾아보았습니다.

1. 집사는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의 상주 성역자가 되도록 임명됩니다.(교리와 성약 84:111 참조)

가족은 교회의 기본 단위가기 때문에 아론 신권 소유자가 이 의무를 수행할 가장 중요한 장소는 바로 자신의 집입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는 가족을 이끌어가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신권 봉사를 합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는 또한 자신의 형제와 자매, 정원회 청남들, 그

밖의 다른 와드 회원들을 돌봅니다.

2. 집사는 필요할 경우, 교사가 교회에서 맡은 의무를 다하도록 도움을 줍니다.(교리와 성약 20:57 참조)

우리는 집사가 교사의 의무를 도와 주려면, 교사의 의무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펼쳐 교사 직분에서 수행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의무를 곧바로 찾아보았습니다.(교리와 성약 20:53~59; 84:111 참조) 모든 청남과 그들의 아버지, 고문, 우리 모두가 이 청남이 한 것처럼 경전을 펼쳐서 자신이 맡은 의무가 무엇인지 직접 알아본다면, 이 얼마나 훌륭한 경험이 되겠습니까? 우리 대다수는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점에 놀라워할 뿐 아니라 영감 또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책자에는 아론 신권 의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요약되어 있으며, 그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유용한 훌륭한 자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소책자를 꾸준히 사용하도록 촉구합니다.

3. 집사들과 교사들은 “경고하고, 해설하며, 권면하며, 가르치며,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해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20:59; 또한 제사의 경우 46절 및 68절 참조)

대다수 청남들이 열아홉 살이 되어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가야 비로소 선교 사업을 경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전에서는 그보다 훨씬 전에 선교사 경험을 시작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주님께서 모든 아론 신권 소유자가 자신의 가족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에

게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권유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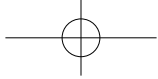
그 다음으로 저는 이 어린 회장이 자신만이 그 정원회에서 감리 역원임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교리와 성약 107편 85절에 나오는 첫 번째 의무를 세 번 읽으라고 했습니다. 청남은 “열두 집사를 감리[한다]”라고 읽었습니다. 저는 “형제님이 회장으로서는 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 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제님과 제가 함께 이야기하는 동안 몇 가지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제 생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가 열두 명의 집사를 감리하는 회장이 되기를 바라세요. 현재 저희 정원회에 참석하는 집사는 다섯 명밖에 없고, 그 중 한 명은 가끔씩만 와요. 열두 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성구를 한번도 그 청남처럼 해석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성한 열쇠를 받은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 청남이었습니다. 저는 열세 살 난 어린 집사 정원회 회장에게서 지능이나 위상, 나이 등에 상관없이 회장단의 신성한 열쇠가 있는 사람에게 오는 계시의 힘에 대해 배웠습니다.

저는 “모르겠네요. 형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청남이 계속 나오게 할 방법을 생각해 내야겠어요. 또, 정원회에 나와야 할 청남이 두 명 더 있어요. 그렇지만 정원회에 온 적이 없어서 저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죠.



어쩌면 제가 그중 한 명과 친해지고, 제 보좌자들에게 다른 두 명과 친구가 되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친구들이 모두 나온다면 우리는 일곱 명이 될 거예요. 하지만 다섯 명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원회에 다섯 명이 더 있기를 바라신다면, 그분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아시겠죠.”

“그렇다면 회장단과 정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내야겠어요.” 그러고는 그 청년이 물었습니다. “저는 저희 워드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집사 연령대 소년들에 대해, 심지어 교회 회원이 아닌 소년들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나요?”

저는 경외심을 느꼈으며, 다시 질문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감독은 워드 회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을까요, 아니면 워드 경계 내에 사는 모든 사람에 대해 책임이 있을까요?”

이 어린 “상주 성역자”는 그 점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집사, 교사, 제사는 교회를 돌보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 나아오도



록 권유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훌륭한 청년 청년들에 대해 생각하며 한 성구를 떠올렸습니다. 모로나이가 조셉 스미스에게 인용한 그 성구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곧 이루어질 것이라”(조셉 스미스 - 역사 1:41)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요엘 2:28)

이 청년 회장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정원회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지 그에게 보여 주신 청사진이었습니다. 정원회의 활동 회원을 강화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구조하며,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권유할 필요가 있다는 계시였습니다. 그렇게 영감을 받아 그는 주님의 뜻을 실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어린 회장에게 신권이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 손을 내미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신권은 은사라기보다는 봉사하라는 임무이자 고양시키는 특권이며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축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신성한 신권 책임”,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57쪽)

봉사는 신권이라는 기본 토대 위에 세워집니다. 구주께서는 몸소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그분의 신권이며, 우리는 그분의 심부름을 하고 있고, 그분은 모든 신권 소유자에게 충실하게 신권 봉사를 하는 방법을 보여 주셨음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각 집사 및 교사, 제사 정원회 회장단에게 정원회를 위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대로 행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상의하고 연구하고 기도할 것을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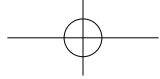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책자를 사용하여 정원회 회원들에게 의무를 가르치십시오. 모든 신권 의무를 배우고 이를 의롭게 수행할 때 정원회 회장을 지지하고 그에게 조언을 구할 것을 정원회 회원들 개개인에게 권고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훌륭한 청년들을 지금 이곳에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고 강화시킬 강력한 재원으로 보시듯이 우리 개개인도 청년들을 그렇게 보도록 권유합니다.

훌륭한 청년 여러분은 펜실베이니아 하모니 부근에서 침례 요한이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회복시켜 준 아론 신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신권에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그분을 따르도록 할, 문을 여는 신성한 열쇠가 있습니다. 이 열쇠는 “회개의 복음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 매주 집행하는 성찬 의식, “천사의 성역”(교리와 성약 13:1; 조셉 스미스 - 역사 1:69)을 통해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성역자로서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깨끗하고 충실한 신권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제일 회장단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 책자에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여러 가지 아론 신권의 의식을 집행할 권세가 있습니다. …… 여러분은 이웃의 삶에 위대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매우 신뢰하시며, 여러분이 완수해야 할 중요한 사명을 예비하고 계십니다.”(*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아론 신권 소유자* [2010], 5쪽)

저는 이 말씀이 참됨을 알며 우리 모두가 똑같은 증거를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신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 여러분에게 있는 잠재력과 특권

경전을 읽고, 선지자의 말씀을 온 마음과 생각을 다해 듣는다면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신권으로 누리는 특권에 걸맞은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실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평생 소원은 유람선을 타고 지중해를 여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아테네와 이스탄불 거리를 거닐 그날을 꿈꾸며 열심히 저축하고 여행 경비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돈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그는 가방 하나를 사서 콩 통조림과 크래커와 레모네이드 가루를 가득 담아 여행에서 그것으로 끼니를 때우기로 했습니다.

남자는 유람선 안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고, 미니 골프도 치고, 수영장도 이용하는 등 선상에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영화나 쇼,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으며, 매 식사 때마다 훌륭한 음식들로 차려지는 만찬을 얼마나 먹고 싶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돈을 아끼고 싶었기에 그런 것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가 보고 싶었던 도시들은 구경했지만, 여행 대부분은 배 안 객실에 머물며 자신이 싸온 음식들로 하루 하루를 버텨왔습니다.

유람선 여행 마지막 날, 승무원이 그 남자에게 어떤 작별 파티에 참석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남자는 그 작별 파티뿐만 아니라 선상에서 제공되는 거의

모든 것들, 즉 만찬, 공연, 모든 활동들에 대한 비용이 자신이 지불한 표 값에 포함되어 있어 그것들이 무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는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특권에 한참 못 미치는 생활을 해 왔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특권에 걸맞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사람만이 받는 기회이자 권리이기도 한 성스러운 권능과 은사,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까?

## 신권의 영광과 위대함

우리는 모두 신권이 단순한 이름이나 직함 이상을 의미한다는 것을 압니다. 선지자 조셉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신권은 영원불변한 원리이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고 영원까지 존재할 것이니,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나는 날도 없습니다.”<sup>1</sup> 신권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열쇠”<sup>2</sup>가 있으며, 신권을 통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sup>3</sup>

신권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은 우리의 이해력을 초월합니다. 충실한 멜기세덱 신

권 소유자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됩니다.”<sup>4</sup> “영으로 성결하게 되어 몸이 새로워[지며]”<sup>5</sup> 궁극적으로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sup>6</sup>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를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저는 그것이 참됨을 간증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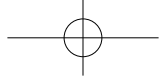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권능과 책임을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며, 다음 세상에서 우리가 펼치게 될 하나님 아들로서의 잠재력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자주 그 잠재력에 훨씬 못 미치는 생활을 합니다. 누가 신권에 대해 물을 때 신권이 무엇인지 정의해 주실 만한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루 생활을 돌아본다면, 아마도 입으로 설명한 그 정의를 진실로 이해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앞에는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신권 소유자로서 할 수 있는 경험들의 범주를 축소시키고 우리의 특권에 한참 못 미치는 생활에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영적인 기회와 신권의 포괄적인 축복이 풍성하게 차려진 만찬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잠재력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경전이나 연차 대회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읽거나 듣기만<sup>7</sup>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스스로에게 적용하[는]”<sup>8</sup> 자가 되라고 권고합니다. 너무 자주 우리는 모임에 참석하여 머리를 끄덕이기로 합니다. 뭔가를 알고 동의한다는 듯이 웃어 보입니다. 실천해 볼 어떤 일을 적으면서 “그래, 이렇게 해야겠어.” 하고 스스로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듣고, 그렇게 해 보겠다고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어도, 실제로 그 일을 해야 할 상황이 오면 너무 쉽게 그 일을 ‘나중에’ 하겠다고 생각해 버



립니다. 형제 여러분, 그 일을 ‘지금’ 하겠다고 항상 다짐하십시오.

경전을 읽고, 선지자의 말씀을 온 마음과 생각을 다해 듣는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신권으로 누리는 특권에 걸맞은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실 것입니다. 영이 속삭이는 소리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그냥 지나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 첫째: 사용자 설명서를 읽으십시오

최고급 사양인 최고가 컴퓨터를 샀다면 그냥 책상 위에 장식용으로만 놔 두시겠습니까? 그 컴퓨터는 걸으로도 멋져 보이지만 실제로도 여러 가지 용도에 쓰일 것입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사용자 설명서를 살펴보고,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익히고, 전원을 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권 역시 사용자 설명서가 있습니다. 목적을 기억하면서 좀 더 집중하여 경전과 지침서를 읽어 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교리와 성약 20편, 84편, 107편, 121편을 다시 읽어 봅시다. 신권의 목적과 잠재력과 활용법에 대해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힘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과 우리 지역 사회와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영을 통해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세상적인 학문과 직업 개발에 높은 우선 순위를 둡니다. 학문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꾸준히 교육을 받고 각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시는 여러분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음 교리 분야에서도, 특히 신권에 관한 교리에서도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역사상 그 어느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처럼 경전과 현대 선지자



들의 말씀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던 때는 없었습니다. 손을 뻗어 그 가르침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특권이자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신권에 관한 원리와 교리는 장엄하고 고귀합니다. 그 교리와 잠재력을 연구할수록, 그리고 신권이 추구하는 실제 목적을 실천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성장하게 되고, 이해력은 더 깊어질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 둘째: 영의 계시를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확실한 간증은 단순한 지식 이상입니

다. 그러한 간증은 정직하게 헌신적으로 복음 원리에 따랐을 때 오는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생깁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신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신권은] 전능하신 분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실 때부터 그분의 영광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 사용하신 통로입니다. 그분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통로를 이용하여 인간의 자녀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sup>9</sup>

계시가 오는 그 통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권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에 훨씬 못 미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믿으면서도 자신이 믿는다는 사실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고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가지 응답을 받았음에도, 그 영감이 너무 작고 미미한 것처럼 보이기에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결국 스스로 의심이 파고들도록 허용하여 신권 소유자로서의 잠재된 능력을 성취하지 못하고 맙니다.

계시와 간증이 항상 압도하는 힘과 함께 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간증은 평화로운 느낌으로 한 번에 조금씩, 천천히 옵니다. 때로는 간증이 너무 서서히 형성되어서 우리가 정확히 복음이 참됨을 언제 깨달았는지 기억하기 힘들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되,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주십니다.]”<sup>10</sup>

어떤 면에서, 우리의 간증은 굴러가며 커지는 눈덩이와 같습니다. 작은 빛에서 시작하는데, 그 빛은 단순히 믿고자 하는 소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점차로 “빛은 빛과 결합[할 것입니다.]”<sup>11</sup> 또 “빛을 받아들이고 계속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빛을 더욱 받아들이나니,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는 대낮이 되[고]”<sup>12</sup> “때가 되면 [우리는] 그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sup>13</sup>

생각해 보십시오. 지상에 속해 있어 겪는 인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이해의 눈이 열리며 하늘에 있는 근원으로부터 빛과 지식을 받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신권을 소유한 우리에게 특별한 권리와 기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계

시를 구하고, 성신께 확실한 증거를 받아 직접 진리를 깨닫는 법을 배우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심을 다하여 개인적인 영감을 가져오는 빛을 구하십시오. 우리 마음에 신앙을 점화시킬 수 있는 신앙의 불꽃을 내려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처한 특수한 삶의 상황, 고난, 그리고 신권 의무에 대한 성신의 신성한 역사하심을 받아들이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합시다.

### 셋째: 신권 봉사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비행기 기장으로 일하던 시절에 훈련 담당자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숙련된 조종사들을 훈련하고 시험하면서 그들이 대형 제트기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다룰 만큼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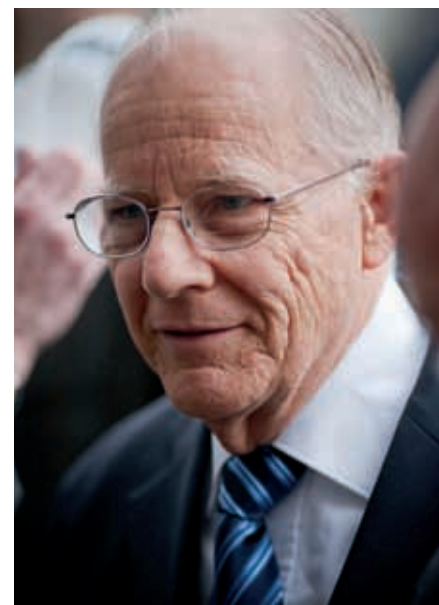
그때 저는 전문 비행사로 오래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늘로 날아오르는 짜릿함을 느끼고 “지상의 속박을 벗어나 은빛 날개로 즐거이 춤을 추듯 하늘 위를 나는”<sup>14</sup> 조종사들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공기를 가르는 소리와 으르렁대는 엔진음을 좋아했으며 “바람과 하늘, 그 너머에 떠오른 별들과 하나가 되는 그 기분”<sup>15</sup>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열정은 주변까지도 그렇게 물들입니다.

반면, 그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조종사들도 몇몇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시스템과 제트기 조작에는 통달했지만 언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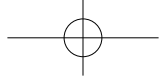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가부터 “종달새도 독수리도 날아 보지 못한”<sup>16</sup> 하늘 위로 비행하는 그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양과 대륙을 가로지르며 보는 찬란한 일출과 한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움에 대해 경외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요건만 충족하면 그들을 합격 처리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에 대해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권 소유자로서 기계처럼 움직이지는 않는지, 해야 할 일은 하지만 여러분이 느껴야 하는 기쁨에서는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신권을 소유한 우리에게는 기뻐할 만한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뻐할 만한 큰 이유가 있지 아니하냐 …… 우리는 [주의] 손 안에서 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도구가 되었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영광스러워하자, 참으로 우리가 기뻐하리니.”<sup>17</sup>

형제 여러분, 이 복음은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권을 받은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시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이다.”<sup>18</sup> 우리가 찾고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같이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신권으로 봉사하며 느낄 수 있는 큰 만족감과 기쁨을 너무나도 자주 놓칩니다. 때로는 맡은 임무가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피로와 걱정과 불평이 우리 삶에 스며들지 않게 합시다. 세상적인 근심 때문에 충실하고 헌신적인 신권 봉사에서 오는 충만한 기쁨을 느낄 수 없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특권에 훨씬 못 미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가정에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신권을 소유한 충실한 종에게 정말 풍성히 부여하시는 행복과 평안, 기쁨의 향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은 특권에 못 미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청남 여러분, 만일 교회에 일찍 와서 성찬을 준비하는 일이 축복이기보다는 힘든 일로만 느껴진다면, 힘든 한 주를 보내고 교회에 참석한 워드 회원들에게 이 성스러운 의식이 어떤 의미일지를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 여러분, 만일 가정 복음 교육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면 걸으려는 보이지 않는 여러 문제를 가진 가족이 주님의 종에게 방문을 받을 때 어떤 훌륭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여러분이 신권 봉사에서 얻을 수 있는 신성한 잠재력에 눈을 뜨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슴을 가득 채울 것이며, 그 영은 여러분의 눈과 얼굴에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신권 소유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능력에 대한 놀라움과 경외심에 우리 마음이 둔감해지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 결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거룩한 신권 교리를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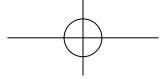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니다. 영의 계시를 받아 말씀에 말씀을 더 하듯 간증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신권으로 봉사하면서 참된 기쁨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신권 소유자로서 가진 잠재력과 특권에 걸맞은 생활을 하기 시작할 것이며,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sup>19</sup>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사도로써 간증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여러분께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아멘. ■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104쪽.
2. 교리와 성약 84:19.

3. 교리와 성약 84:20.
4. 교리와 성약 84:34.
5. 교리와 성약 84:33.
6. 교리와 성약 84:38.
7. 야고보서 1:22 참조.
8. 니파이전서 19:24.
9.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108~109쪽.
10. 니파이후서 28:30.
11. 교리와 성약 88:40.
12. 교리와 성약 50:24.
13. 교리와 성약 93:19.
14. John Gillespie Magee Jr., “High Flight”, Diane Ravitch, ed., *The American Reader: Words That Moved a Nation*(1990), 486.
15. Richard Bach, *Stranger to the Ground*(1963), 9.
16. Magee, “High Flight,” 486.
17. 엘마서 26:13, 15~16.
18. 시편 89:15.
19. 빌립보서 4:13.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 신권 안에서 배우며

신권 안에서 부지런하고 순종적이라면, 영적 지식의 보화들이 여러분에게 부여될 것입니다.

**하** 나님의 이 신권 모임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각각 전세계 수많은 지역에, 그리고 신권으로 봉사하는 다양한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온갖 다양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신권 의무를 배우고 행사하는 역량을 키우는 일입니다.

저는 집사 시절에 그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미국 동쪽 해안가에 있는 뉴저지에 살 때 저는 규모가 작은 교회 지부에 다녔습니다. 지부에서 저는 유일한 집사였는데, 참석하는 유일한 집사가 아니고, 기록상으로 유일한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제형 테드가 유일한 교사였는데, 그 형님께서 오늘 밤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제가 아직 집사였을 때 저희 가족은 유타 주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신권 안에서 저를 더 빠르게 성장시킨 세 가지 훌륭한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 청남들과 함께 정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지를 잘 아는 회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우리가 들어 왔던 그 큰 사랑, 즉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신권 목적에 대한 신념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신권의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수고하는 데 있습니다.

그곳이 확고하게 자리가 잡힌 와드였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와드에 있었던 것들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교회 단위 조직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여러분이 신권 소유자로서 늘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거의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성장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여러분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더라도 영의 도움을 받아 그것들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것들에 마음이 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이 세 요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활용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더 훌륭하게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를 영화롭게 한다면, 여러분이 신권으로 하는 봉사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훨씬 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요소는 감독님이 회장으로 있는 제사 정원회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을 때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일은 눈에 띄지 않는 별 일 아닌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신권 안에 있는 힘을 느꼈으며, 그 덕분에 제가 신권을 활용해 봉사하는 방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한 변화는 감독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방식 때문

이었습니다.

감독님은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인 것처럼 대하시며 어린 제사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감독님은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모두 말할 때까지 기다리셨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그런 후에 감독님께서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실 때면, 영이 우리 제사들과 감독님께 그 결정이 옳다고 확인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그때 회장이 정원회 회원들과 함께 평의회에 앉는다는 성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느꼈던 것 같습니다.<sup>1</sup>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난 후에 감독으로 부름을 받아 제사 정원회와 함께 일하면서 제가 어린 제사 시절에 배웠던 그것을 통해 제사들과 저는 더 배웠습니다.

20년이 흐른 후 감독이 된 저는 교회 집회소에서만 아니라 산속에서도 평의회가 영향력을 미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토요일 활동에서 정원회 형제 중 한 명이 밤에 숲 속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아는 점이라고는 그저 그 청년이 지금 홀로 있으며 따뜻한 옷도, 음식도, 피신처도 없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모두가 찾아 나섰지만 어디에서도 그 형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제사 정원회와 저는 함께 기도했고, 그런 후에 저는 각 사람에게 말씀을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귀를 기울였고 청남들 또한 서로에게 그렇게 하는 듯 보였습니다. 잠시 후, 우리 마음에 평안이 깃들었습니다. 저는 실종된 정원회 회원이 안전하며, 어딘가에서 몸을 말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원회가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그 청남을 찾아냈습니다. 그 형제가 숲 속에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 머문 장소에 대해 말했을 때 저는 그곳이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일에서 제가 더 경이롭게 여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단합한 신권 평의회가 신권 열쇠를 지닌 사람에게 계시가 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날 신권의 힘 안에서 조금 더 성장했습니다.

신권 안에서 배우게 하는 두 번째 열쇠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큰 신앙에서 나옵니다. 어떤 것이 먼저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권 안에서 신속하게 많이 배우고자 하는 곳에는 언제나 큰 신앙과 사랑이 함께하는 듯이 보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모범으로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께 신권의 역량을 키우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신권 소유자를 위한 학교를 세우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신권에 관하여 배울 장소를 마련하는 일과 그곳에서 공부할 사람들에게 그곳이 어떤 곳

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 주시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신을 조직하라 …… 학문의 집 …… 질서의 집[을] …… 세우라

너희 가운데 교사 한 사람을 지명하여 모두가 동시에 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고, 한 번에 한 사람이 말하게 하여 모두가 그의 말하는 것을 듣게 하라. 그리하여 모두가 말하고 난 후에 모두가 모두에게서 교화되며, 또 모든 사람이 동등한 특권을 누리게 하라.”<sup>2</sup>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이 영을 통해 계시가 주어지도록 하는 신권 평의회 또는 반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는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 이심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큰 신앙은 복음 원리를 배우기 위해 오르는 사다리에서 밟는 첫 번째 가로대입니다.

교리와 성약 88편 123절과 124절에서 주님께서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 대한 결점 찾기를 그치라고 힘주어 말

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신권 학교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손을 들고 “사랑의 띠 안에서 …… 친구와 형제가 되 [겠다]”는 성약을 맺었습니다.<sup>3</sup>

우리가 지금도 그 관례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곳이든 신권 안에서 놀라운 가르침을 받는 곳에서는 항상 그러한 사랑의 띠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랑으로 묶이는 유대감이 복음 진리를 배우게 하는 원인인 동시에 배움에서 생기는 결과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사랑은 성신을 초대하여 진리를 확인하게 만듭니다. 신성한 진리를 배우는 기쁨은 함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마음에 사랑이 싹트게 합니다.

그 반대 경우 또한 사실입니다. 다툼이나 시샘은 우리를 가르치는 성신의 능력을 방해하고 빛과 진리를 받는 우리 능력도 방해합니다. 그 결과로 따라오는 실망감은 서로에게서 배울 것을 기대했다가 얻지 못한 사람들이 서로 더 크게 다투고 결점을 찾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함께 잘 배우는 신권 소유자들 사이에는 언제나 훌륭한 중재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신권회 반과 평의회에서 그러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을 봅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은 차이점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은사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한 말이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도움을 주고자 한 말임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갖고자 하는 바람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려는 소망이 충분히 강하다면, 신권 평의회나 반이 단합할 수 있습니다. 단합하려면 인내와 겸손이 필요하지만, 평의회나 반원들이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거나, 서로 환경이 엄청나게 다르더라도 단합을 이루어내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정원회는 주님께서 신권 소유자들을 위



해 세우신 아주 높은 표준에 맞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큰 신앙과 사랑이 있고 다툼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내린 결정에 대한 지지를 주님께서 받으려면, 그 결정이 그분께서 정하신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원회들 중 어느 하나가 내리는 결정은 그 정원회의 만장일치의 지지로 내려져야 하나니, 곧 각 정원회의 모든 회원이 그 결정에 동의해야만 하느니라. 이는 그들의 결정이 서로 똑같은 권능 곧 효력을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sup>4</sup>

신권으로 배우게 하는 세 번째 요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신권을 주시고 행사하게 하실 만큼 우리를 신뢰하고 축복하시는 이유를 다 함께 확신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확신은 곧 인간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통된 확신이 정원회에 있을 때 단합이 형성됩니다. 육체를 입고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영의 아들로써 신권을 받는 진귀한 영예를 위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경전에서 찾아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확신에 대해 배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신권을 받을 만큼 신뢰를 받는 사람들에게 대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실로 태어나기 전에 다른 많은 자들과 함께 영의 세계에서 그들의 첫 교훈을 받았고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주의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주께서 정하신 때에 나아오도록 예비되었더라.”<sup>5</sup>

신권 안에서 우리는 인간의 영혼을 위해 수고하는 신성한 의무를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야만 합니다. 이 신성한 의무감이 우리 가슴 속 깊이 자리 잡아 젊은 시절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수많은 요구들이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찾아오는 많은 시련들이 우리를 그 목적으로부터 돌이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한 대제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더는 정원회 모임에 오시지 못했습니다. 홀로 사시는 그분은 아름다운 아내를 먼저 떠나 보냈으며 자녀들은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분은 연로하고 병든 몸 때문에 봉사하기가 힘든 상태였습니다.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가자 그분은 보행기에서 일어나 저를 맞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의자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신권 안에서 함께 누리던 행복한 유대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분은 제게 간절히 물으셨습니다. “나는 왜 아직 살아 있는 걸까? 나는 왜 여전히 이곳에 있는 걸까? 나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데 말일세.”

저는 그분이 저를 위해 뭔가를 해 주시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신앙과 사랑이 저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짧은 방문이었지만 그분은 제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는 그분의 결의에서 감동을 받은 저는 사람들과 주님을 섬기는 일에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슬픔이 배어나는 눈망울과 음식에서 그분이 제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셨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제한되어 버린 삶을 계속 살게 하시는지 그것이 그분에게는 의문이었습니다.

형제님은 언제나처럼 너그럽게 찾아와 줘서 고맙다며 인사를 건넵셨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뜨려 할 때, 매일 몇 시간씩

그 집에 왕진을 오는 간호사가 다른 방에서 걸어 들어 왔습니다. 저는 그 형제님께 가서 그 간호사에 대해 조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간호사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형제님이 말하셨습니다. 간호사는 생애 대부분을 후기 성도들 사이에서 살아 왔지만 아직 회원은 아니었습니다.

간호사는 저를 묻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형제님은 그녀를 가리키며 웃음 띤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이 사람에게 침례를 주어 교회로 이끌려고 노력해 왔지만 아직 결실이 없네.” 간호사는 형제님과 제게 싱긋 웃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밖으로 걸어 나와 근처에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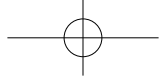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그때, 저는 그 형제님께 하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래 전부터 그분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용감한 대제사님은 십 년에 걸쳐 신권 안에서 배운 자신의 의무를 실행하려 애쓰고 있으셨습니다.

형제님은 그 젊은 여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의 축복을 받으려면 침례를 받고 성약을 맺는 길 밖에는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집사에서 대제사가 될 때까지 그분은 모든 정원회 회장에게서 성약에 따라 그런 가르침을 받아 오셨습니다.

그분은 신권 안에서 맺은 맹세와 성약을 기억했고,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것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 형제님은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항상 구주를 위한 증인이자 선교사로 사셨습니다. 가슴 속에 이미 그것이 있었습니다. 형제님은 간호사인 그 여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신성한 성약을 지키면서 변화되기를 마음으로 바라셨습니다.

이 생애에서 그분이 신권 학교에서 보낸 시간은 영원에 비하면 정말 짧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짧은 시간 안에서도 영



원한 교과 과정을 통달하셨습니다. 그분은 주님께서 어디로 부르시든 신권에서 배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 가르침을 간직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사는 동안 열성을 다해 신권에서 배우고자 노력해야 할 뿐 아니라 무엇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낙관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이 주님께 봉사하는 사람 앞에 주님께서 놓아 두신 것을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을 마음 속에서 제한하려고 합니다.

1840년대 초에 하나님의 사도들이 전하는 말을 들은 한 젊은이가 작은 웨일즈 마을을 떠나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성도들과 함께 배를 타고 미국으로 와서 마차를 몰고 평원을 건너 서부로 왔습니다. 그는 브리검 영의 다음 부대를 따라 이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신권 형제로서 봉사하면서 경작할 땅을 일구기도 했습니다.

그 형제는 주님을 위해 양을 돌보는 임무를 맡았을 때 농장을 헐값에 팔고 지금의 네바다 사막으로 떠났습니다. 그 후에

는 선교사 부름을 또 받아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 가난 속에서 떠나야 했던 그 마을을 향해 대양을 건너갔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젊은이는 신권 형제들과 함께 배울 방법을 찾았습니다. 담대한 선교사였던 그는 웨일즈 시골길을 걸어 영국 수상을 네 차례나 지낸 한 사람의 여름 휴양지로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대단한 사람은 선교사를 자신의 저택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는 이튼 칼리지와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선교사는 그 사람과 인간이 어디에서 기원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사에서 차지하는 중심적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가들이 처할 운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토론이 끝날 무렵, 집주인은 침례를 받으라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세계에서 위대한 제국 중 하나인 영국의 지도자인 그 사람은 헤어지는 자리에서 보잘것 없는 그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러자 선교사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신권 안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한때 좋은 어떤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할 수 있었더라면 삶이 훨씬 좋

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그분께서 그분의 신권 학교에 들어오도록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를 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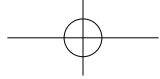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신권 안에서 부지런하고 순종적이라면, 영적 지식의 보화들이 여러분에게 부여될 것입니다. 악을 이겨 내고 구원으로 이끄는 진리를 전할 힘이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승영으로 이끌어 준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때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배우의 집이 될 것입니다.

신권 열쇠가 회복되었음을 간증드립니다. 그 열쇠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 있으며, 그분께서는 그 열쇠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그분은 여러분에 대해 완벽하게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성스러운 신권을 소유하는 영광을 누리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107:87 참조.
2. 교리와 성약 88:119, 122.
3. 교리와 성약 88:133.
4. 교리와 성약 107:27.
5. 교리와 성약 138:56.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신권 권능

우리가 받은 신권의 신성한 권능을 합당하게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권이 우리 삶을 축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신권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녁 어떤 말씀을 드릴지에 관해 오랫동안 기도하고 연구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상처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매일, 때로는 밤 늦게까지 눈물을 흘리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그 문제 중 몇 가지를 말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것은 젊은이들에게, 어떤 것은 중년 분들에게 해당될 것입니다. 중년이 약간 지난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노년기를 보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녁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참 좋다는 말로 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신권에 관해 훌륭하고 시의 적절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는 가운데 마음이 고양되고 영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최근에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던 주제를, 여러분께 전해야겠다고 느낀 그 문제들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은 여러 면에서 우리가 지닌 신권의 성스러운 권능을 얻고 행사하는 데 필요한 개인적인 합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121편에 있는 구절을 읽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신권의 권리는 하늘의 권능과 불가분하게 연계되어 있고, 하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통제되거나 다루어질 수 없다 함이니라.

신권의 권리가 우리에게 부여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사실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은폐하려 하거나 우리의 교만, 우리의 헛된 야망을 만족시키려 하거나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사람의 자녀들의 영혼을 통제하거나 지배하거나 강압하려 하면, 보라, 여러 하늘은 스스로 물러가며, 주의 영은 심히 슬퍼하니, 주의 영이 물러가면, 그 사람의 신권 곧 권세는 아멘이니라.”

형제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신성한 권세에 관해 그분께서 주신 분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권이 있는 우리 형제들은 이 구절에 담긴 각자의 책무에 대해 의구심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혼란한 시대에 이 지상에 왔습니다. 대중이 생각하는 도덕적 가치관은 차츰차츰 표류하여 이제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라는 수준까지 와 버렸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사회의 도덕관이 많이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 표준과 사회에서 말하는 표준에 별한 차이가 없었으나 지금은 둘 사이에 큰 골이 생기고 틈은 계속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영화와 텔레비전은 하나님의 율법과 완전히 상충되는 행태들을 수도 없이 내보입니다. 그런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은밀하고 적나라한 음란물에 빠지지 마십시오. 지금은 노래 가사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싼 저속한 것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슬프게도, 주님의 이름은 거듭 명령되게 사용됩니다. 주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계시하여 주신 십계명 중 하나인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명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명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 하리라”라는 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sup>2</sup> 우리 가운데 유감스럽게도 저속한 언어를 쓰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지 마시기를 간청합니다. 자부심을 떨어트리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외설물과는 완전히 담을 쌓으십시오. 아예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외설물에 극복하기 어려운 중독성이 있다는 것은 입증된 사실입니다. 술과 담배, 다른 모든 약물과 기타 이겨내기 힘든 중독성 물질을 피하십시오.

무엇이 주위의 죄와 악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구주와 복음에 대한 강한 간증이 여러분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리라 믿습니다. 몰몬경을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으십시오. 손을 들어 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진지한 마음으로 읽는다면 성신께서 그 진리를 여러분에게 알려 주실 것입니다. 몰몬경이 참되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조셉 스미스는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도 참됩니다. 이런 간증이 아직 없는 분들은 간증을 얻는 데 필요한 일을 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개인적인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만으로는 필요한 모든 도움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만의 간증이 있어



야만 합니다. 간증을 얻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며, 경전을 공부하여 간증이 생명력을 유지하고 살아 숨쉬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 참석하십시오.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이 있는 곳에 사는 청년 여러분, 그 모임에 꼭 참석하십시오.

생활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극복할 방법이 있습니다. 의롭지 못한 행동을 멈추십시오. 감독님과 상의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올바르게 회개한다면 풀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sup>3</sup>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sup>4</sup>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주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sup>5</sup> 우리 또한 그릇된 개념과 가르침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충실하여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결혼할 연령이 되었으나 아직 그럴 마음이 없는 젊은이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는 아름다운 젊은 여성

들은 많은데, 너무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있어 그 기회가 줄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 과거 교회 회장님들도 여러 차례 언급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주신 권고 중에서 한두 가지만 들려드리겠습니다.

해롤드 비 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적령기를 넘겨서도 이 사랑스러운 여성들과 결혼하는 것을 보류한다면 우리는 신권 소유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sup>6</sup>

고든 비 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 결혼을 갈망하지만 아직 못하고 있는 …… 독신 자매들에게 생각이 미칩니다. …… 사회 관습상 이 문제를 주도할 수 있는 특권을 준 청년들이 많이들 그렇게 하지 않는 현실을 접할 때, 그 젊은 형제들에게는 연민의 마음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sup>7</sup>

여러분이 결혼을 망설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내와 가족을 재정적으로 부양하는 일이 염려된다면 저는 그 점에 대해 확신을 심어 주고 싶습니다. 검소하게 생활하고 저축하는 부부에게 부끄러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서로

희생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배울 때, 대부분 두 사람은 한결 더 가까워집니다. 어떤 이들은 잘못된 선택을 할까 봐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앙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앞으로 생길 모든 어려움을 미리 예상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슬기롭고, 또 결혼 생활을 잘 가꿔 나가려는 마음만 있다면 풀이가지 못할 문제는 거의 없을 것이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독신으로서, 호사스러운 휴가를 보내고, 비싼 차와 물건을 사고, 그저 친구들과 함께 구속받지 않는 인생을 즐기는 데 지나치게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때를 지어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왜 멋진 숙녀들을 놔두고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동반자를 찾아볼 시점이 찾아올 것입니다. 현명하게 선택하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겠다고 마음만 먹는다면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은 주님의 집에서 결혼하고 싶을 것입니다. 신권을 받은 여러분은 신



택할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연애 기간 동안 선을 넘지 않고도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 전해야겠다고 느낀 다른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 회장으로 지지 받은 이래 오늘까지 3년여를 지내면서 가장 슬프고 실망스러운 일은 인봉을 취소하는 일입니다. 부부는 각기 주님의 집에서 기쁨 속에 결혼하여 결혼 생활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가고 달이 지나면서 이런 저런 이유로 사랑이 식어 버립니다. 재정 문제, 부족한 대화, 자제하지 못하는 감정, 친척들의 간섭, 또는 죄에 사로잡히면서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혼을 결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입니다.

인봉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 대부분은 자매님들이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마침내는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어 자매님들이 신청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주 기도하며 신중하게 동반자를 선택하십시오. 일단 결혼을 하면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충실해야 합니다. 삼촌 집에서 본 조그만 액자 속 글귀에서 저는 값진 조

언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사랑하라.” 이 짧은 몇 마디에는 심오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약속은 결혼 생활에서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아내는 여러분과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결혼 관계에서는 어느 한 사람이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딸로서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아내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모욕을 주어서는 안 되며,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 [아내에게] 불의하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권을 소유할 자격이 없습니다. 설사 성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늘은 스스로 물러가고, 주님의 영은 슬피하며 그 사람에게 있는 신권의 권능은 아멘이 될 것입니다.”<sup>8</sup>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님은 결혼에 관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결혼은 대개 얼마나 좋은 사람과 결혼하느냐보다는 얼마나 올바른 사람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 점이 마음에 듭니다.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의식적인 노력이야말로 성공에 이르는 가장 큰 열쇠입니다.”<sup>9</sup>

오래 전 제가 감독으로 있던 와드에는 매우 심각한 불화로 극에 달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불화였습

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만이 옳다고 믿었으며, 한 치도 양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말다툼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제가 “불안한 휴전”이라고 부르던 상태로 지냈습니다.

어느 날 밤, 새벽 2시경에 저는 그 부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저와 대화하고 싶다면, 그것도 당장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겨우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방 안에서 저만치 등을 돌리고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통해 남편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남편도 저를 통해 아내에게 답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부부를 화합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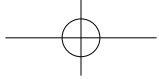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저는 영감을 얻으려 기도했고, 부부에게 질문 하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두 분이 성전에서 성전 인봉을 목격하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두 사람은 꽤 오래되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면에서는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고, 또 성전에 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 의식 봉사를 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수요일 아침 여덟 시에 저와 함께 성전에 가서 인봉 의식을 한 번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 모두 “그날 누가 의식을 받나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누군지는 모르나 그날





아침에 의식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약속한 시간에 우리는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아름다운 인봉실로 들어갔는데 당시 총관리 역원으로, 십이사도 보조이셨던 엘레이 엘 크리스텐슨 장로님을 제외하고는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크리스텐슨 장로님은 그 날 아침에 인봉실에서 신랑 신부를 위해 인봉 의식을 집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부와 그 가족은 우리를 “신랑 쪽 친구일 거야.” 하고, 또 신랑 가족은 “신부 쪽 친구일 거야.”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와 같이 참석한 부부는 작은 의자에 약 60센티미터 정도 서로 떨어져 앉았습니다.

크리스텐슨 장로님은 결혼하는 부부에게 주는 권고 말씀을 전하시며 의식을 시작하셨는데, 정말 멋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의 있게 대해야 하는지, 아내를 어떻게 가정의 중심으로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그런 다음 신부에게는 어떻게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존중하고 교회 부름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남편을 지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텐슨 장로님이 신랑 신부에게 말씀하시는 동안 저는 그 부부가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곧 두 사람은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속도로 서로에게 향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참 기뻐했습니다. 의식이 끝날 무렵, 그 부부는 신혼부부마냥 꼭 붙어 앉아 서로를 향해 웃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떠날 때까지도 우리가 누구인지, 왜 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온 그 친구들은 손을 맞잡은 채로 정문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서로 다른 점들은 이제 더는 문제되지 않았으며 아무 말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 부부는 결혼을 한 그날과 하나님

의 집에서 맺은 성약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되 앞으로는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혹 여러분 중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결혼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처럼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집에서 결혼한 우리는 현재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이 진정으로 영원하게 되려면 필요한 노력을 모두 기울여야 합니다. 결혼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결혼 관계는 유지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헝클리 회장님은 하나님의 신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표준에 따라 생활하기 위해 자신을 훈련하는 일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존경받을 만하고 품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판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사람을 대하는 방식,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모두 우리가 신권을 소유한 형제로서 살아가는 데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권이란 선물은 고귀한 것입니다. 신권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하고, 아픈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가족뿐 아니라 다

른 사람들까지도 축복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죽음이 드리우는 휘장을 넘어서 영원한 세상에까지 미칩니다. “이 세상 모든 것 중 신권과 비견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신권을 옹호하고, 소중히 간직하며, 사랑하고, 신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sup>10</sup>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의롭게 내딛는 발걸음으로 인생 여정을 헤쳐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받은 신권의 신성한 권능을 합당하게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권이 우리 삶을 축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사셨으며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우리 주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신권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성스럽고 거룩한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주

1. 교리와 성약 121:36, 37.
2. 출애굽기 20:7.
3. 이사야 1:18.
4. 교리와 성약 58:42.
5. 요한복음 17:14; 교리와 성약 49:5 참조.
6. “President Harold B. Lee’s General Priesthood Address,” *Ensign*, Jan. 1974, 100.
7. Gordon B. Hinckley, “What God Hath Joined Together,” *Ensign*, May 1991, 71.
8. 고든 비 헝클리, “신권을 행사하기 위한 개인적인 합당성”,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60쪽.
9.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ed. Clyde J. Williams(1997), 130.
10. 고든 비 헝클리,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58~61쪽 참조.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앉아 기다리며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려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분을 알게 됩니다.

**세** 계 역사에 있었던 매우 놀라운 사건 중 하나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성도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던]”<sup>1</sup> 사울이라는 청년의 이야기를 잘 아십니다. 사울은 초기 교회 회원들을 극심히 증오했으며, 많은 성도들은 사울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사울은 그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sup>2</sup>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울은 영원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는 사실 전 세계를 변화시킨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와 비슷한 성스러운 일이 1820년 조셉 스미스라는 소년에게도 일어났음을 간증합니다. 우리에게서는 하늘이 다시 열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

으시며, 그에 응답하십니다.

한편, 직접 사울이나 조셉 스미스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가에 서 있거나 침례를 받으려 물속으로 들어가지는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간증으로 들어가는 문턱에서 서성이기만 한다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작은 신앙으로 제자의 길에 들어서기 위한 발걸음을 떼는 대신 어떤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자신이 믿지 않을 수 없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앉아 뭔가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며 세월을 보냅니다.

### 믿음은 한 번에 한 걸음씩 옵니다

평생 충실한 교회 회원으로 지내신 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그 자매님에게는 남 모르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수년 전, 딸이 짧은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 자매님은 그 충격으로 늘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그런 비극적 사건 뒤에 품게 되는 큰 의문을 갖게 되었고, 그것으로 괴로워하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자신의 간증이 이전과 같지 않다고

솔직히 인정하셨습니다. 눈으로 하늘이 열리는 모습을 보기 전에는 신앙을 되찾지 못할 것이라고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은 기다리기만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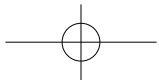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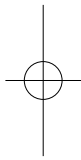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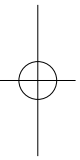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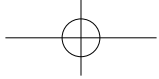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여러 가지 이유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앉아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자로서 온전히 참여하기를 미룹니다. 신권을 받고 싶지만 그 특권을 누릴 자격을 얻기 위해 합당하게 생활하는 일에는 주저합니다. 성전에 들어가고 싶지만 신앙을 행사하여 합당하게 되는 일은 미룹니다. 그들은 칼 블로흐가 그린 웅장한 그림처럼 코앞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자신의 의심과 두려움을 단번에 없애 주시기를 바라며 그저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려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분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주님에 대한 이해력을 얻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이해력은 퍼즐처럼 한 번에 한 조각씩만 옵니다. 각 조각이 따로 있을 때에는 알아보기가 쉽지 않고 전체 그림과 관련시키기도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조각 하나하나를 모으다 보면 전체 그림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각들을 충분히 모았을 때, 전체 그림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지금까지 해 온 경험을 돌아보면서 구주께서 우리 곁에 오셨음을, 단번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조용히, 부드럽게, 거의 알아채지 못하게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앉아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전진해 나간다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직원

2011년 4월

## 제일회장단



헨리 비 아이어링  
제1보좌



토마스 애스 문스  
회장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제2보좌

##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페커



엘 톰 페리



러웨이 엠 넬슨



머린 에이치 후스



엠 러셀 벨라드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암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퀸텐 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널 앤더슨



로버트 에이 래스밴드



클라톤디안 암 햄  
포스터



스티븐 이 사노



왈터 애프 콘클레이스



앤드루 러셀 제이슨



케이 이 제슨



도널드 햄 크리스텐슨

## 취임인 회장단

### 칠십인 제일 정위원회 (알파벳 순)



에드워드 에이 아이두카와



호세 엘 알톤



카를로스 에이치 아란다



이안 에스 아스핀



머빈 비 아블린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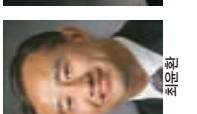
데이비드 에스 벅스터



세인 뎀 브리엔



제럴드 코세



최환



크레이그 시 크리스티안스



윌포드 더블유 엡더슨



고이저치 아요아기



폴 에이 페넬



테드 엘 폴리스터



돈 할 클라크



제리 에이 플러머



칼 비 쿡



로런스 이 코브리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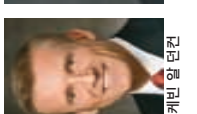
릭 헨드릭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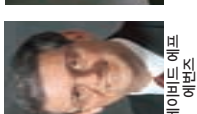
벤자민 데 호요스



존 비 지른



케빈 알 하킨



데이비드 에프 데이비슨



에릭 에이 플러머



크레이그 에이 카건



브루스 에이 쿨슨



제이 데븐 코너쉬



키스 알 앤드류즈



에드워드 그 가버렛



카를로스 에이 고도이



크리스토허 엘 고도이



게이트 더블유 공



시 스코트 그로우



제임스 에이 헤울러



키스 케이 핑버그



리처드 지 핑클러



말빈 케이 존슨



다니엘 엘 존슨



스тивен 지 엘거스



브래들리 디 포스터



래리 더블유 기텐스



오 빈센트 할레크



톰 브이 존슨



패트릭 키아넌



요시히로 가메자키



홀 이 캘리커



에릭 더블유 코우피쉬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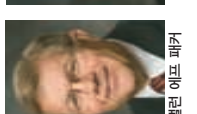
리처드 에이치 맥이너스



앨런 에프 배커



케빈 더블유 피어슨



조셀 오 시블린



로벨 엠 스노우



레이먼드 엠 마르티노



로벨 엠 스노우



그레고리 에이 슈바이처



로벨 엠 스노우



앤스니 디 맥킨스



톰 비 파이버



리파헬 이 피노



브루스 디 포터



칼 비 프랫



데이브 지 렌던



마이클 티 링우드



란 지 로빈슨



쇼윈 오 사뮤엘슨



크리스티안 제2보좌



크리스티안 제2보좌



크리스티안 제2보좌



크리스티안 제2보좌



크리스티안 제2보좌



데블유 크리스토퍼 외델



데블유 알 위커



에프 마이클 왓슨



가즈히코 야마시타



조지 에프 제블로스



클라우디오 디 지빅



포란시스코 제이 비다스



리처드 시 에츨러 제1보좌



데이비드 버틀러 감독



크리스티안 제2보좌



폴 케이 시트모스키



켄트 디 왓슨



레이 와이 월슨



레이 와이 월슨

### 감리 감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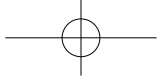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리처드 시 에츨러 제1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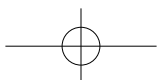
데이비드 버틀러 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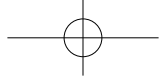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크리스티안 제2보좌



“성동들과 동일한 시민”(에베소서 2:19)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제181차 교회 연차 대회를 시청하기 위해 모였다. 사진에 나오는 이들은 왼쪽 맨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잠비아 루사카, 우크라이나 키예프, 자메이카 세인트 캐서린, 브라질 상파울루, 메릴랜드 주 오펜턴, 독일 도르트문트, 포르투갈 코임브라에 있는 후기 성도들이다.





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평안을 구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업고서 여러분 앞에 놓인 장애물을 건너실 것입니다. 종종 주님께서는 마음으로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더 잘 들으려면 우리 생활에서 세상적인 소음을 줄여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영의 속삭임을 무시하거나 차단한다면 그 소리는 점점 더 듣기 힘들어지고 결국은 완전히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영이 속삭이는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우고, 그 속삭임에 열심히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십니다. 몬슨 회장님께서 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신 일화는 많습니다. 그중에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께서 들려주신 한 예가 있습니다.

언젠가 몬슨 회장님께서 루이지애나를 방문하셨을 때 한 스테이크 회장님은 크리스탈이라는 열 살 난 소녀를 방문해 주실 수 있는지 물어오셨습니다. 그 아이는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크리스탈의 가족은 몬슨 회장님이 와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집은 멀었고, 몬슨 회장님은 일정이 꼭 차 있어서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몬슨 회장님은 방문을 가는 대신 스테이크 대회에서 기도를 맡은 분들에게 크리스탈을 위해 기도를 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주님도, 그 가족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하셨습니다.

스테이크 대회 토요일 모임에서 말씀을 하고자 일어서던 몬슨 회장님은 영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sup>3</sup>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여 메모해둔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메모해둔 개요에 따라 모임의 주제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려 하였으나 [그 어린 소녀의] 이름과 모습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sup>4</sup>

몬슨 회장님은 영의 속삭임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몬슨 회장님은 아흔 아홉 마리 양 떼를 두고 침대에 누워 있는 양 한 마리를 만나기 위해 먼 거리를 달려가셨습니다.

그 집에 들어서신 몬슨 회장님은 “병이 심해서 일어날 수도 없고 힘이 없어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아이를 가만히 응시하셨습니다. 아이는 병으로 시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주님의 영으로 깊이 감화되신 몬슨 회장님은 아이의 가냘픈 손을 잡으시며 작은 소리로 ‘크리스탈, 내가 왔단다.’ 하고 말을 건네셨습니다.

아이는 힘겨운 목소리로 ‘몬슨 형제님, 와 주실 줄 알았어요.’ 하고 대답했습니

다.”<sup>5</sup>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속삭이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주님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여 나로 무엇을 하게 하시려나이까?”<sup>6</sup> 하고 말한 사울처럼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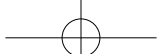
### 봉사하십시오

생활 속에서 때때로 주님의 음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는 영의 계시가 우리에게 직접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의문과 염려에 대해 답을 구할 때 먼저 스스로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인도를 구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응답은 우리가 신뢰하는 친구와 가족이 전해 준 말이나 지혜를 통해서, 또 경전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을 비추어보면 우리가 받는 매우 강력한 속삭임 중에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삶에서 아주 강력한 영적인 경험과 심오한 계시를 일부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님은 이 개념



을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봉사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sup>7</sup>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약을 맺었기에 사람들을 돕고자 봉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주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축복하며, 복돋아 주어야 합니다.

종종 기도에 대한 응답은 무릎을 꿇고 있는 동안이 아니라 일어서서 주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도중에 찾아옵니다. 이타적인 봉사와 헌신은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 영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 주며, 하늘 문을 엽니다. 종종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면서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 나누십시오

주님께서서는 단지 내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계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서는 진리에 대한 간증을,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려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아담의 시대 이래로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에게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분의 교회 회원인 우리가 “어느 때든지 [우리의] 입을 열어 기쁨에 찬 소리로 [그분의] 복음을 선포”<sup>8</sup>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늘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손수레를 끌고 수천 킬로미터 평원을 횡단하는 것이 친구와 동료들 앞에서 신앙이나 종교를 주제로 말하는 것보다 쉬울지 모릅니다.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 걱정하거나 관계가 멀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누려는 것은 기쁨을 가져올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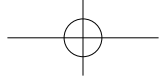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여러 해 전만 해도 저희 가족은 거의 항

상 우리와 종교가 다른 이웃들과 더불어 생활하고 일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주말을 잘 보냈냐는 인사에 대답할 때 운동경기나 영화, 낚시 같은 일반적인 주제 대신 주말에 있었던 종교적인 경험을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성찬식에서 청소년 연사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표준에 관해 뭐라고 말했는지, 선교 사업을 떠나는 청년의 말씀에서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또 저희 가족이 복음과 교회를 통해 특정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단, 설교처럼 이야기하거나 위압감이 들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제 아내 해리엇은 영감을 주거나 고양시키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아 나누는 일에 뛰어난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종종 더 진지한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삶에서 겪는 역경에 대처하는 방법에 관해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종종 “당신들에게는 쉽겠지요. 교회가 있으니까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소셜 미디어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기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더 쉽고 광범위하게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들으며 이미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낸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 시작한 지 10분이 지났는데 아직 비행기 이야기는 없으시네!”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입을 열[라]”<sup>9</sup>라는 주님의 권고를 현대적으로 풀어서 보면 복음에 관한 좋은 소식을 문자와 블로그 등으로 나누기 위해 “손을 움직이라”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와 장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현대 기술이라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위대한 계획에 대해 감사와 기쁨을 표현할 수 있고, 우리 직장뿐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습니다. 때로





는 한마디로 표현한 간증이 연쇄작용을 일으켜 다른 사람의 삶에 영원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에 따라 생활한다면 사람들은 이를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빛난다면,<sup>10</sup>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가득하여 세상에서 평화롭게 지낸다

면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할 것입니다. 선교 사업에 대한 위대한 말씀 중에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가 남긴 이런 단순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필요하다면 말로 전하라.”<sup>11</sup> 그렇게 할 기회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앉아 너무 오래 기다리기만 하여서 그런 기회를 놓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 다메섹으로 가는 길

저는 주님께서 이 시대에도 그분의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진지한 마음과 진정한 의도<sup>12</sup>로 주께 나아가는 모든 이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sup>13</sup>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분을 찾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위안과 평안과 이해력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주님께서 뜻하시는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우리에게 살아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며,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의 이름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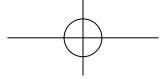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앉아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말고, 그 대신 신앙과 소망과 사랑으로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구하는 빛으로 제자의 길 위에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축복을 남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 주

1. 사도행전 8:3.
2. 사도행전 9:3~4.
3. 마가복음 10:14.
4. 제프리 알 홀런드, “토마스 에스 문슨: 주의 심부름꾼”, 성도의 빛, 1986년 10~11월호, 20쪽.
5. 제프리 알 홀런드, “토마스 에스 문슨”, 20쪽.
6. 사도행전 9:6[한글 성경에는 인용된 부분이 번역되어 있지 않음-옮긴이]
7.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유 김블(2006), 82쪽.
8. 교리와 성약 28:16.
9. 교리와 성약 60:2.
10. 엘마서 5:14 참조.
11. William Fay and Linda Evans Shepherd, *Share Jesus without Fear*(1999), 22.
12. 모로나이서 10:3~5 참조.
13. 요한복음 20:29.

### 브라질 상파울루





폴 브이 존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시련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시련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극히 중요합니다.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시험과 시련, 고난을 겪게 되는데, 인생살이에서 마주치는 그러한 시련은 때로 혹독하기까지 합니다. 질병, 배신, 유혹,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자연 재해, 그 밖의 다른 호된 시련 등 우리의 모든 환난은 필멸의 삶에서 겪는 경험 중 일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 중 한 가지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여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우리가 행하는지 보기 위함임을 압니다.<sup>1</sup> 다행히도 지상 생활은 이러한 시험을 겪고 통과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갖추었습니다.<sup>2</sup>

하지만 시련이 꼭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시련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극히 중요합니다.<sup>3</sup> 올바르게 대처하기만 한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성별될 것입니다.<sup>4</sup>

울슨 에프 휘트니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시련 중에 쓸모 없는 것은 없습니다. …… 특별히 참을성 있게 견뎌 낸다면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인내는 성품을 강화하고, 마

음을 성결하게 하고, 영혼을 성장하게 하며, 우리를 더 온화하고 자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와서 얻고자 하는 가르침은 슬픔과 고통, 수고와 고난을 통해 주어집니다.”<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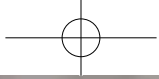
최근에 한 아홉 살배기 소년은 희귀 골수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진단 결과와 함께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했는데, 소년은 앞으로 몇 달에 걸쳐 화학요법과 주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소년과 가족 모두에게 몹시 힘든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과정이 끝나도 저는 그 대로일까요?’ 하고 묻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훨씬 더 강하고 멋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시련이 인생에서 가장 감당하기 힘든 시기에, 그것도 우리 영혼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에 집중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시련을 겪는 목적이 바로 우리의 성장을 위한 것임을 기억한다면 그것이 그다지 놀라워할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시련이 자신에게 특별히 부족한 부분과 약

점을 정조준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말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으며, 특히 의롭게 살아가고자 분투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충실한 성도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야? 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왜 주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지?” 그러나 고난의 풀무는 인생에 섞여 든 불순물을 불태워서 가장 훌륭한 성도마저도 깨끗하게 정화시켜 순금으로 만듭니다.<sup>6</sup> 아무리 순도 높은 광석이라도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정련되어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주처럼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겪음으로써 배우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등산로 중 하나는 로건 캐년에 있는 크림슨 트레일입니다. 장대한 석회암 절벽 정상에 따라 이어지는 이 길 중심부에서 보면 협곡과 골짜기 아래로 아름다운 장관이 펼쳐집니다. 그렇지만 절벽 정상에 오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정상에 닿으려면 끝없는 오르막을 지나야 합니다. 등산객들은 정상 직전에서 가장 가파른 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절벽은 골짜기 시야를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 오른 사람은 노력한 이상으로 보람을 맛보게 되는데, 정상 위에서는 숨막히게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경치를 감상할 유일한 방법은 산에 오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경전과 인생살이에서 가장 암울하고 위험한 시험을 통과한 직후에 괄목할 만한 업적이나 성장이 뒤따르는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많은 환난 후에야 축복이 오느니라.”<sup>8</sup> 이스라엘 자녀들은 흥해가 갈라지기 전까지는 움푹달짝 못했습니다.<sup>9</sup> 늦 쇠판을 얻기까지 니파이는 위험한 일들을 겪고, 형들은 분노했으며, 여러 차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sup>10</sup> 조셉 스미스는 어떤 사악한 힘에 사로잡혔는데 그 힘이 너무 강



하여 멸망 당할 운명에 놓인 것만 같았습니다. 거의 절망 끝 바다까지 가라앉았을 때 조셉은 하나님을 부르고자 온 힘을 다했고, 바로 그 순간 아버지와 아들께서 오셨습니다.<sup>11</sup> 종종 구도자들은 침례에 가까이 이르렀을 무렵에 반대와 박해에 부딪힙니다. 어머니들은 산고를 겪은 후에야 출생이라는 기적이 뒤따른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엄청난 시련을 겪은 후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합니다.

저희 할머니는 열아홉 살 무렵에 어떤 질병에 걸려 심하게 앓으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훗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걸

을 수가 없었던단. 몇 달간 누워 지내면서 왼발은 완전히 무기력해졌지. 뼈가 스폰지처럼 물러져서 발이 마루에 단자 전기충격을 받은 듯 고통스러웠단다.”<sup>12</sup> 할머니께서는 고통이 극에 달하여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발간한 소책자를 받아 읽으셨으며, 후에 개종하여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많은 경우, 특정 어려움은 매우 중요한 일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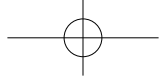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문제 속에 휩싸여 있을 때에는 그 순간에 겪는 고통이나 수치, 비통함보다 앞으로 받게 될 축복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깨

닫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sup>13</sup>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sup>14</sup> 바울이 “환난의 경한 것”이라 표현한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매를 맞고, 돌을 맞고, 타고 가던 배가 난파되고, 옥에 갇히는 등 수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기 때문입니다.<sup>15</sup> 저는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가 겪는 환난이 경하다고 여기는지 궁금합니다. 현재와 영원한 세상에서 받게 될 축복과 성장에 비하면 우리가 겪는 환난은 참으로 가볍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딱 필요한 만큼만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많은 시험들은 필멸의 삶에서 받는 당연한 과정이며, 우리가 진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상 성역을 마치실 무렵, 구주께서는 역사를 통틀어 가장 험난한 시험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겻세마네와 골고다에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 고통 후에 영화로운 부활이 이루어졌으며, 언젠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리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무덤이 열려 텅 빈 채 남도록, 또한 우리가 장차 불멸과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고통 없는 성장을 바라며 아무런 투쟁도 없이 강인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쉬운 길을 택하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고된 훈련을 마다하는 운동 선수는 결코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신성한 성품을 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들에 대해 억울해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난 중에 감당 못할 일은 없습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sup>16</sup>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님은 심각한 병고에서 회복되신 후에 연차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따금 저는 제가 배워야 할 바를 확실하게 익혔으며 이제 더 고통을 겪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간구는 아무 소용이 없는 듯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결하게 하는 이러한 시험 과정을 주님의 시간에 따라 주님의 방법대로 견뎌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 저는 또한 이러한 역경과 시련에 처했을 때 혼자서 감당하도록 버려지지 않고 수호천사들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사와 같은 모습을 한 사람들 중에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있었으며, 누구보다도 제 사랑하는 동반자인 메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주님께서 뜻하시는 시점에 하늘 천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으며 저는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위안과 영원한 평안을 느꼈습니다.”<sup>17</sup>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시련과 그 곤경과 그 고난 중에 받들어 주심을 얻을 것이요, 마지막 날에 들

리움을 받을 것임”<sup>18</sup>을 압니다. 언젠가 휘장 저편으로 건너갈 그 날, 우리는 누군가에게서 “자, 네 일이 끝났도다.” 하는 말을 듣는 것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sup>19</sup>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바랄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남긴 말씀들을 좋아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sup>2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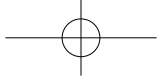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을 압니다. 또한 그분들께서 도와 주시기에 인생에서 겪는 환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분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베드로전서 1:6~8, 아브라함서 3:25 참조.
2. 베드로전서 2:20 참조.
3. 베드로후서 1:4 참조.
4. 니파이후서 2:2 참조.
5. Orson F. Whitney, in Spencer W. Kimball, *Faith Precedes the Miracle*(1972), 98.
6. 이사야 48:10; 니파이전서 20:10 참조.
7. 엘마서 7:11~12 참조.
8. 교리와 성약 58:4.
9. 출애굽기 14:5~30 참조.
10. 니파이전서 3~4장 참조.
11. 조셉스미스-역사 1:15~17 참조.
12. Amalie Hollenweger Amacher, unpublished history in possession of author.
13. 히브리서 12:11.
14. 고린도후서 4:17.
15. 고린도후서 11:23~28 참조.
16. 필립보서 4:13 참조.
17. 로버트 디 헤일즈, “침례 성약, 왕국 안에 있으며 왕국에 속해 있음”,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6쪽.
18. 엘마서 36:3.
19. 마태복음 25:21.
20. 로마서 8:35, 37.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  
감리 감독단

# 성결하게 하는 복지 사업

서로 돕고 “가난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은 성결하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입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897년, 젊은 청년인 데이비드 오 맥케이는 전도용 소책자를 들고 어느 집 문 앞에 섰습니다. 당시 스코틀랜드 스틸링 시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던 데이비드 오 맥케이는 가가호호 전도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몹시도 지쳐 보이는 한 부인이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차림새는 몹시 남루했으며, 볼은 움푹 파이고 머리카락은 온통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맥케이 장로가 건넨 소책자를 받아 들더니 그 이후로 그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한 마디 했습니다. “이것이 빵을 갖다 줘니까?”

이 만남은 젊은 선교사에게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맥케이 장로는 훗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인간의 현세적 구원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깨달았다. 그 집 문을 나서면서 나는 가슴 속에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쓰라린 기억이 가득한 그 부인은 복음 메시지를 받아들일 어떠한 여유도 없다고 느꼈다. 그 부인은 물질적인 도움이 절실했으나 내가 알기에 당시 스틸링 시에는 그런 도움을 줄 만한 단체가 한 군데도 없었다.”<sup>1</sup>

몇십 년이 지난 후, 세계는 대공황이 낀 후폭풍을 앓았습니다. 그 무렵인 1936년 4월 6일,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님과 그분의 보좌인 제이 르우벤 클라크 회장님,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은 훗날 교회 복지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제도를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두 주 후에는 델빈 제이 벨라드 장로님이 초대 위원장으로, 해럴드 비 리 장로님이 집행이사로 지명되었습니다.

그 일에는 범상치 않은 노력이 따랐습니다. 비록 주님께서서는 뛰어난 사람들을 불러 그 일을 관리하게 하셨으나 제이 르우벤 클라크 회장님은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랜트 회장님은 성신으로부터 받은 계시에 따라 [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셨으며, 이후로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형제들이 똑같이 계시를 받아 그 일을 수행해 왔습니다.”<sup>2</sup>

교회 지도자들은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도우려는 확고부동한 결의를 보였습니다. 그랜트 회장님은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분은 이 일을 하기 위해 “세미나리를 중지하고, 한시적으로 선교 사업을 중단하고, 심지어는 성전을 폐쇄해서라도 사람들을 굶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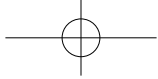
게 만들지 않겠다.”<sup>3</sup>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께서 니카라과 마나과 시 교회 회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 곁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회원들 1,300명은 11,000명 이상을 희생시킨 파괴적인 허리케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힝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자원이 남아 있는 한 우리는 여러분이 굶주리거나 헐벗거나 거할 곳이 없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땅히 해야 한다고 정하신 방법대로, 도울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sup>4</sup>

복음에 중심을 둔 이 영감 받은 노력에는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개인의 책임과 자립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매리온 지 롬니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궁핍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훌륭한 취지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프로그램 중 대다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돕게’ 한다는 뜻과는 상반되게 단순히 ‘사람들을 돕는다’는 근시안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sup>5</sup>

자립은 검소한 생활과 경제적인 자기 훈련을 통해 얻습니다. 가족은 할 수 있는 한 가족들의 현세적 복지를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각 세대는 자립의 기초가 되는 원리들을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채를 피하고, 검약을 생활화하며, 어려울 때를 대비하고, 살아 있는 선지자의 권고를 듣고 따르며, 필요와 욕망을 구별하는 훈련을 하고, 다음에는 그 원리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일을 강화하는 목적과 약속, 원리는 현세를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 성스러운 사업은 고난을 겪는 사람이나 궁핍한 사람만을 이롭게 하고 축복하려는 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



가 지상에 있는 동안 서로를 돌보는 일에 온전히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생의 충만함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며 자비를 실천할 때 희생과 헌납이라는 해의 왕국의 원리를 배우기 때문입니다.<sup>6</sup>

위대한 베냐민 왕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과 재물을 나누고 구제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매일 죄 사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생활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쳤습니다.<sup>7</sup>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의로운 사람들의 입은 옷은 늘 자선이라는 금실로 짠 옷감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평화롭고 지역 사회가 번영하기를 염원합니다. 악이 버림받고 선과 정의가 승리하는, 인정 많고 덕이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성전을 짓고, 회원 수가 많이 증가하며, 세상 사람들 눈에 긍정적으로 비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약한 자를 도우라.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라.”<sup>8</sup>라는 그 큰 계명을 소홀히 하거나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지나쳐 버린다면, 우리는 정죄받을 것이며,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지도 못할 것이고,<sup>9</sup> 가슴 속에 품은 환희에 찬 소망은 뜬 구름을 잡는 일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28,000명에 이르는 감독님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그들

을 찾아 나섭니다. 감독은 헌신적으로 일하는 상호 부조회 회장을 포함한 신권 지도자와 보조 조직 지도자들로 구성된 와드 평의회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들은 “나 그네를 구조하기 위해 달려가 …… 고통으로 상처받은 가슴에 향유와 포도주를 붓고 …… 고아의 눈물을 닦아주고, 과부의 마음을 기쁘게”<sup>10</sup>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 회원들과 지도자들의 마음은 이웃을 사랑하고 보살피려는 거룩한 정신과 교리로 감화되고 인도됩니다.

남미에 있는 한 신권 지도자는 자신의 작은 스테이크에 소속된 회원들의 굶주림과 궁핍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는 아이들이 배고픔을 겪지 않게 하려고 애쓰던 중 빈 땅을 찾아냈고, 땅을 갈고 농작물을 심기 위해 신권 소유자들을 조직했습니다. 그들은 늪은 말 한 필을 구하여 재래식 쟁기를 달아 땅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마치기도 전에 불행한 일이 생겨 그 늪은 말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신권 형제들은 형제 자매들이 굶주림으로 고통 받게 하지 않으려고 낡은 쟁기를 자신의 등에 붙들어 매고 거친 땅을 갈았습니다. 그들은 형제 자매들의 고통과 짐을 털어 주기 위해 문자 그대로 스스로 멍에를 땀습니다.<sup>11</sup>

곤궁에 처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결의를 보인 한 사건은 저의 가족 역사에도 있습

니다. 윌리와 마틴 손수레 부대에 대해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충실한 개척자들이 서부로 가는 노정에서 춥고 혹독한 겨울을 견뎌 내는 동안 어떻게 고통 받고 죽어 갔는지를 말입니다. 제 고조부이신 로버트 테일러 버튼은 브리검 영 회장님으로부터 말을 타고 가서 그 소중하고도 절망에 처한 성도들을 구조하라는 부탁을 받은 이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에 대해 고조 할아버지는 일지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눈이 깊이 쌓였고 무척 추웠다. …… 너무 추워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온도계가 영하 24도를 가리킬 만큼 …… 추워서 사람들은 여행할 수 없었다.”<sup>12</sup>

오도가도 못하던 성도들에게 구조품을 나눠 주고 “[구조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해 봤지만 여러 사람이 쓰러져 길가에 묻혔다.”<sup>13</sup>

구조된 성도들이 에코우 캐년을 따라 여행을 계속하는 동안 마차 몇 대가 출산

#### 자메이카 세인트 캐서린





을 돕기 위해 멈춰 섰으며, 이윽고 한 여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로버트 할아버지는 갓난아기에게 덮어 줄 옷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살을 에는 추위 속에서도 할아버지는 “집에서 만든, 입고 있던 셔츠를 벗어 아이에게 덮어 주라고 산 모에게 주었[습니다.]”<sup>14</sup> 그 아이에게는 자신이 태어난 곳과 당시 상황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에코우 스콰이어스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 후 로버트 할아버지는 교회 감리 감독단에 부름을 받아 삼십 년 이상을 봉사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여든여섯이 되셨을 때 병상에 누우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온 가족을 침대 곁에 불러 마지막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남긴 마지막 유언에는 짧지만 아주 심오한 권고가 담겨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친절하여라.”<sup>15</sup>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궁핍한 회원 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선 활동을 조직 하고 집행하도록 주님께 부름을 받은 혁신 적인 분들을 존경합니다. 지금 수많은 방법으로, 때로는 소리 없이 “가난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며, 헐벗은 이들을 입히고, 병든 사람을 돌 보고, 속박된 사람을 찾아가는 분들을 존

경합니다.

이 일은 바로 구주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성스러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지상에서 생활하셨을 때 즐겨 하시던 일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행하셨을 일입니다.<sup>1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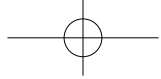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75년 전, 시작은 단촐했습니다만 바야흐로 인류의 영적 구원과 현세적 구원을 위한 제도가 태동했습니다. 그 이후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삶이 향상되는 축복을 누 렸습니다. 이 예언과도 같은 복지 계획이 교회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미미 하지 않습니다. 이 원리의 근저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복지 계획은 우리가 구주의 제자로 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모범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을 나타냅니다.

서로 돕고 “가난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은 성결하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입니다. 그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정결하게 하며, 들어 올려 주기 위해 성스럽게 계획된 일입니다.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려주시며 한 울법사에게 주신 다음 권고를

우리가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sup>17</sup>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Cherished Experiences from the Writings of President David O. McKay, comp. Clare Middlemiss*(1955), 189.
2. J. Reuben Clark Jr., “Testimony of Divine Origin of Welfare Plan”, *Church News*, 1951년 8월 8일, 15; 또한 Glen L. Rudd, *Pure Religion*(1995), 47참조.
3. Glen L. Rudd, *Pure Religion*, 34쪽.
4. “President Hinckley Visits Hurricane Mitch Victims and Mid-Atlantic United States”, *Ensign*, 1999년 2월 호, 74쪽.
5. 매리온 지 롬니, “자립의 신성한 특성”, *리아호나*, 2009년 3월호, 15쪽.
6. 교리와 성약 104:15~18 참조; 또한 교리와 성약 105:2~3 참조.
7. 모사이야서 4:26~27 참조.
8. 교리와 성약 81:5; 또한 마태복음 22:36~40 참조.
9. 교리와 성약 104:18 참조.
10. Joseph Smith, *History of the Church*, 4:567~568.
11. 복지 서비스부 관리 책임자를 역임한 해럴드 시 브라운과 가진 회견.
12. *Journal of Robert T. Burton,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1856년 11월 2~6일.
13. Robert Taylor Burton, Janet Burton Seegmiller, *Be Kind to the Poor: The Life Story of Robert Taylor Burton*(1988), 164쪽.
14. Lenore Gunderson, Jolene S. Allphin, *Tell My Story, Too*, tellmystorytoo.com/art\_imagepages/image43.html.
15. Robert Taylor Burton, Seegmiller, “*Be Kind to the Poor*”, 416쪽.
16.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너희가 곧 내 손이니라”,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68~70, 75쪽.
17. 누가복음 10:37.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 제자의 길을 따르는 참된 의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서 사랑을 지침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봉사는 그들에게 복음대로 생활하는 모범이 됩니다.

**태**초부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려면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sup>1</sup> 또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 중에서도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sup>2</sup>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회복된 직후에 성도들에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찾아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베풀[라]”라고 명하셨습니다.<sup>3</sup>

이 모든 계명에서 공통된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에서 따라야 할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교회 복지 프로그램 75주년을 맞아 우리는 회원들이 스스로 자립하도록 돕고,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을 돌보며, 사람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복지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새겨 봅니다. 교회는 회원들이 자신과 가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육체적, 영적, 사회적, 정서적 복지를 돌보기 위해 자원을 편성해 왔습니다. 감독 직책에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돌보며, 워드 회원들

에게 그러한 교회 자원을 제공해야 할 특별한 책임이 따릅니다. 감독은 신권 정원과 상호부조회, 그리고 특히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의 도움을 받아 그 책임을 수행합니다.

교회 복지의 중심에는 늘 상호부조회가 있었습니다. 1842년에 조셉 스미스는 상호부조회를 조직하면서 “이것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에게 더 좋은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sup>4</sup>라고 선언했습니다. 조셉은 상호부조회가 설립된 목적이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과 미망인과 고아를 돕고, 자선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자매들은 “낙담하고 상한 마음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고아의 눈물을 닦아 주고, 미망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sup>5</sup>

또한 조셉 스미스는 상호부조회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려고 노력함으로써, 즉 자애를 베풀 대상을 찾아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줌으로써 형제들이 선한 일을 행하고, 지역 사회의 도덕관을 바로잡으며 미덕을 강화시켜 도움을 주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sup>6</sup>

오늘날 교회에서는 궁핍한 이들을 돕기 위해 남성과 여성이 함께 노력합니다.

신권 소유자들은 영적 인도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영감받은 가정 복음 교사들은 회원들의 삶을 축복하고 모든 가족이 복음으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애씁니다. 그뿐 아니라 집 수리가 필요하거나 이사를 하는 가족을 돕고 형제가 직장을 찾도록 돕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힘과 재능을 나눕니다.

상호부조회 회장은 감독을 대신하여 가정을 방문하며 그곳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봅니다. 영감받은 방문 교사들은 자매들과 가족들을 보살핍니다. 그들은 종종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나서서 돕습니다.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식사를 마련해 주고, 온정 어린 봉사를 베풀며, 시련을 겪는 시기에 계속해서 도움을 줍니다.

전 세계 교회 회원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기회에 대해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합하여 가난이나 굶주림, 고통, 어려움 등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을 구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모든 감독님은 주님의 창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창고는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고 지상에 하나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충실한 회원들이 감독님에게 자신의 시간과 재능, 기술, 동정심, 물건, 재산 등을 줌으로써 세워집니다.<sup>7</sup> 우리 모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금식 현금을 바치고 우리의 모든 자원을 감독님이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주님의 창고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세계는 급변하지만 복지 원리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복지 원리는 신성한 계시로 받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회원과 그 가족들이 스스로를 부양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한 후에도 기본적인 생활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교회는 기꺼이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기간에 필요한 부분을 곧바로 지원하고, 수혜





자가 자립하도록 도울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립은 개인과 가족이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부분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신의 자립 수준이 높아진다면 주님께 서하신 방법대로 사람들을 돕고 섬길 능력도 커집니다. 궁핍한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은 곧 구주의 모범을 따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서 사랑을 지침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봉사는 그들에게 복음대로 생활하는 모범이 됩니다. 사랑이 담긴 봉사에서 복음은 가장 밝게 빛을 발합니다. 그러한 봉사는 순수한 신앙심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여러 임무를 맡아 하면서 감독과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이 회원들에게 보여 주는 관심과 사랑으로 마음이 겸손해졌습니다. 칠레에서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하던 시기인 1980년대 초반, 그 나라는 심한 불황을 겪던 터라 실직률이 무려 30퍼센트에 달했습니다. 저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웅적인 상호부조회 회장들과 충실한 방문 교사들이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는]”<sup>8</sup>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잠언 31장 20절에 나오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라는 성구를 행동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자신의 가족도 별로 가진 게 없는 상황에서 그 자매님들은 더 큰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꾸준히 도왔습니다. 저는 그때 구주께서 무엇을 보시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을 선언하셨는지 더욱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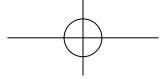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로부터 몇 년 후, 물가 폭등에 따른 경제 붕괴로 허덕이던 아르헨티나에서 저는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때도 많은 충실한 회원들이 경제 상황에 따른 영향을 받았지만 제가 칠

레에서 본 것과 다른 없는 선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짐바브웨 볼라와요에서도 다시 한 번 그런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와드 회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특히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은 계속 신앙을 쌓고, 개인과 가족을 강화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습니다.

부름을 받은 겸손한 자매 또는 형제가 가난, 슬픔, 병, 고통을 겪는 가정에 가서 평안과 도움,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와드나 지부가 어디에 있든, 인원이 많건 적건 간에, 전세계 모든 회원에게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매일 일어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칼라는 두 자녀를 키우는 젊은 엄마입니다. 칼라의 남편 브렌트는 한 시간씩 걸려 직장에 출퇴근하며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합니다. 칼라는 둘째 아이를 출산한 직후에 경험했던 내용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와드 상호부조회 보좌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고 난 다음 날 큰 부담감이 몰려왔어요. 아내로서, 그리고 활발하게 움



직이는 두 살배기 아이와 갓난아기 엄마 역할을 하느라 씨름하는 제가 와드 자매님들을 돌보는 책임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두 살 난 아이가 아프게 되었어요. 그 아이를 위해 무얼 해야 할지, 그 와중에 아기는 또 어떻게 돌봐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졌죠. 바로 그때 뜻밖에 제 방문 교사인 와스텐 자매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자매님은 자녀들을 이미 다 키웠기 때문에 저를 어떻게 도울지 아셨어요. 와스텐 자매님은 자신이 약국에 갔다 오는 동안 제가 해야 할 일을 알려 주셨어요. 와스텐 자매님은 나중에 제 남편이 빨리 집에 와서 저를 도울 수 있도록 기차역에서 제 남편을 집까지 태워다 주라고 누군가에게 부탁까지 해 두셨죠. 그 자매님이 성신의 속삭임에 응하고 또 기꺼이 저를 위해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새로운 부름을 수행하도록 주님께 서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

고 우리 각자에게 있는 독특한 상황과 능력을 아십니다. 우리가 매일 그분께 기도로 도움을 구하지만, 그분은 주로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십니다.<sup>9</sup>

주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sup>10</sup>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은 우리가 비이 기적으로 봉사할 때 나타납니다. 서로 돕는 일은 성결하게 되는 경험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을 드높이고, 주는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됩니다.

복지 계획에는 항상 영원한 복음 원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그 계획은 참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창고에서 한 부분을 맡아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자 하는 소망을 새롭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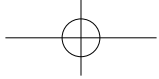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우리 각자가 더 큰 자비와 자애, 동정심을 느끼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형편이 어렵고 고통과 고난에 시

달리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주려는 소망과 능력이 커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고, 그들의 신앙이 강화되고, 그들의 마음이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계명에 충실하고 그분의 복음과 빛 안에서 걸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모세서 7:18 참조.
2. 마태복음 22:36~40 참조.
3. 교리와 성약 44:6.
4. Joseph Smith, *History of the Church*, 4:567.
5.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52쪽.
6.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452쪽.
7. 주님의 방법으로 배움: 복지 지도자 지도서 개요, 11쪽.
8. 사도행전 10:38; 신앙개조 제13조.
9.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유 김볼*(2006), 82쪽.
10. 요한복음 13:35.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계시의 영”

계시의 영은 실재하며, 우리 개인의 삶과 …… 교회에서 작용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 말씀이 끝난 후에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다’(찬송가 182장)를 부르게 되는데, 영감으로 그 곡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 의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이 경험해 보았을 빛과 관련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경우는 어두운 방에 들어서서 불을 켜고 있을 때입니다. 짧은 순간 환한 조명이 방을 채우고 어둠이 사라지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보이지 않고 흐릿하던 것들이 분명하게 잘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빛을 즉시, 강렬하게 인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광경입니다.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빛이 서서히 지평선 위로 번지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어두운 방 안에서 불을 켜는 것과는 다르게 떠오르는 태양 빛은 순간에 번쩍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점점 밝아져서 어두운 밤이 찬란한 아침으로 바뀝니다. 마침내 해는 땅 위로 솟아오릅니다. 동이 틀 것이라는 징조는 지평선에 실제로 해가 나타나기 수시간 전부터 분명히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빛을 은근히, 점차적으로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빛에 대한 이 일상적인 두 가지 경험을 생각해 보면 계시의 영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계시의 영과 계시를 받

는 기본 방법에 집중하는 동안 성신께서 우리에게 영감과 가르침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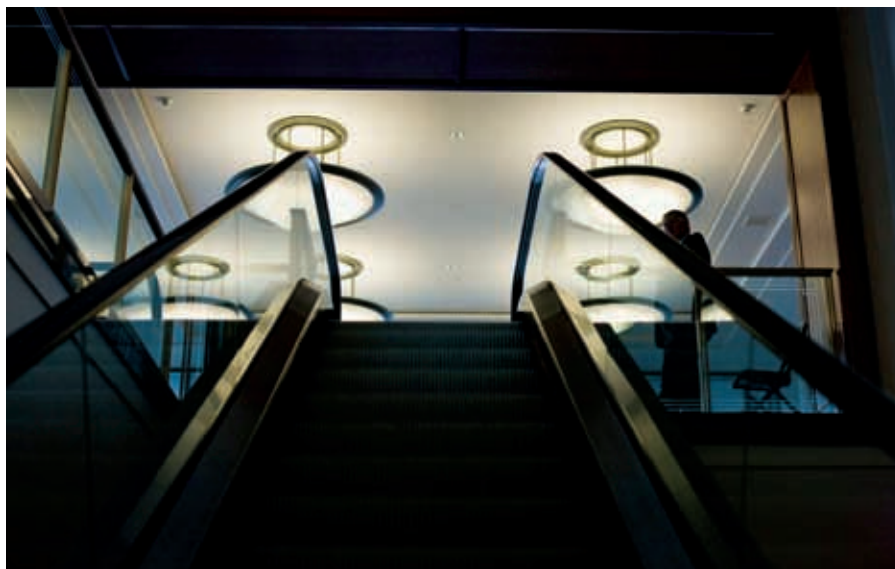
### 계시의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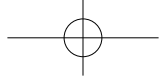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며, 성신의 은사를 받아 성신을 계속 동반할 때 받을 수 있는 매우 위대한 축복 중 하나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성신은 계시자”이며 “어떤 사람도 계시를 받지 않고서는 성신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

스[2007], 132쪽)

올바른 신권 권세를 통해 구원 의식, 즉 죄 사함을 위한 침례를 침수로서 받고, 안수례를 통해 성신의 은사를 받은 모든 사람, 그리고 “성신을 받으라”라는 신권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 신앙으로 행하는 모든 사람은 계시의 영을 받습니다. 이 축복은 교회를 감리하는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책임질 나이가 되어 성스러운 성약을 맺은 모든 남녀와 어린이들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그들은 생활 속에서 그 축복을 활용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그 축복을 열망하고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으로 계시의 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물몬경을 번역하는 동안 계시의 영에 대한 소중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받게 되리라 믿으면서 정직한 마음과 신앙으로 구한다면 그들의 일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어떤 지식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계시의 영이 작용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생각과 느낌이 성신의 권능을 통해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 들어오는 것이라는 점을 조





급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교리와 성약 8:1~2; 100:5~8 참조) 주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이제 보라, 이것은 계시의 영이니, 보라,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마른 땅 위로 홍해를 통과하게 한 그 영이니라. 그러므로 이것이 너의 은사이니, 그것을 활용하라.”(교리와 성약 8:3~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계시의 영과 관련하여 “그것을 활용하라”라는 문구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전에서 성신의 영향은 자주 “고요하고 작은 음성”(열왕기상 19:12; 니파이전서 17:45; 또한 제3니파이 11:3 참조) 그리고 “심히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힐라맨서 5:30)으로 묘사됩니다. 영이 우리에게 부드럽고 조용히 속삭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왜 부적절한 매체와 외설물, 해롭고 중독성 있는 약물과 행위를 피해야 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휘두르는 그 도구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조용한 가르침을 인식하고 그에 반응하는 우리의 능력을 손상시키며, 결국에는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기 생활과 가정 생활에서 어떻게 악마의 유혹을 거부하고 계시의 영을 의롭게 활용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해야 합니다.

### 계시가 오는 방식

계시는 예를 들면 꿈이나 시현, 하늘에서 온 사자와 나누는 대화, 영감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옵니다. 어떤 계시는 즉각적으로 강렬하게 받기도 하며 어떤 계시는 점차 조용히 옵니다. 제가 빛에 관해 설명한 그 두 경우는 계시에 대한 이 두 가지 기본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빠르게, 온전히, 단번에 메시지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중 많은 수가 이런 방식으로 오는 계시를 경험해 보았습니

다.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에 따라 응답을 받았을 때, 필요한 인도나 보호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즉각적이고 강렬한 나타내심은 경전에도 나오고, 교회사에도 기술되어 있으며, 우리의 생활에서도 실제로 일어납니다. 참으로 그러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에 따라 계시를 받는 일은 드문 경우에 속합니다.

태양이 떠오르면서 그 빛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니파이후서 28:30) 가르침을 받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대부분 계시는 시간이 가면서 우리의 열망과 합당성과 준비에 따라 조금씩 더해지는 방식으로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는 그러한 계시는 점차로, 그리고 부드럽게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같이 [우리의] 영혼을 적십니다.”(교리와 성약 121:45) 이러한 방식으로 계시를 받는 것이 더 일반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라반에게서 낚시판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한 니파이의 이야기에서도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니파이전서 3~4장 참조) 니파이는 결국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미리 알지 못한 채”(니파이전서 4:6) 영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또한 정교한 솜씨로 배를 만드는 방법도 단번에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때도 주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배의 재목을 다듬어야 하는지를 시시로 [니파이에게] 보여주셨습니다.”(니파이전서 18:1)

주님께서 계시를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신 사례는 교회 역사와 우리의 개인 생활 모두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복된 복음에 담긴 기본 진리들도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성스러운 숲에서 단번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귀중한 보화들은 필요한 상황과 적절한 시점에 알려졌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은 어떻게 이

러한 방식에 따라 계시를 받았는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 간증을 얻고자 주님께 어떤 놀라운 일을 보여 달라는 간구를 곧잘 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 주지는 않으셨으며, 그 대신 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리를 알게 될 때까지, 의심과 두려움이 저에게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 진리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실 필요도 없었으며, 천사장의 나팔을 통해 말씀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는 작고 조용한 영의 음성으로 저에게 간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원리와 권능을 통하여 모든 인간의 자녀에게 진리에 대한 지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놀라운 현시로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Conference Report, 1900년 4월, 40~41쪽)

교회 회원인 우리는 극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 사건을 너무 많이 강조한 나머지 성신께서 어떻게 그분의 과업을 행하시는지 그 기본 방식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간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영적 속삭임을 조금씩 받아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바라던 응답이 완성되거나 필요한 인도를 받는 “방법이 간단 하[기]”(니파이전서 17:41) 때문에 “뾰대를 지나쳐 바라[보는]”(야곱서 4:14)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주, 기적적으로, 또는 강렬한 방식으로 느낌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자신에게 있는 간증의 힘을 의심하고 영적인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성스러운 숲에 있던 조셉,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 엘마 이세가 겪은 사건을 생각하면서 것처럼 잘 알려진 놀라운



영적 사건이 자기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여 자신에게 뭔가가 잘못되었거나 결핍되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생각이나 의심이 든다면, 여러분은 지극히 정상이라는 점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계속 순종하며 구주를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만 한다면 여러분은 “그릇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80:3)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굳건히 남아 있기 위해 기적과 표적과 시현에 의지하는 후기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으며 실족하기 쉬운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나타내심을 목격해서가 아니라, 겸손과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충실히 순종함으로써 진리 안에 굳

게 서게 됩니다.”(Conference Report, 1900년 4월, 40쪽)

우리는 빛과 관련된 또 다른 일상 경험을 통해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여]” 계시를 받는 방식에 대해 진리를 더 배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침에 동이 틀 무렵에 날이 흐리거나 안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흐린 날씨 탓에 빛을 감지하기가 더욱 어렵고, 해가 정확히 언제 지평선 위로 떠올랐는지도 알아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침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새 날이 밝았음을 인식하고 일과를 해 나가는 데 필요한 빛은 충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언제 어떻게 계시를 받았는지 미처 깨닫지 못하면서도 계시를 받습니다. 교회에 나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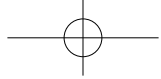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한 중요한 사건에서 이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1829년 봄, 올리버 카우드리는 뉴욕 주 팔마이러에서 학교 교사로 있었습니다. 조셉 스미스와 몰몬경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올리버는 그 젊은 선지자를 돕고 싶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로 가서 조셉의 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올리버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도착하여 몰몬경이 세상에 나오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 후 구주께서는 그가 기도로 인도를 구할 때마다 주님의 영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왔다는 사실을 올리버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너는 네가 지금 있는 곳에 오지 못하였으리라. 보라, 네가 내게 물었고 이에 내가 네 마음을 밝혀 깨닫게 해 주었음을 너는 알고 있나니, 이제 내가 이 일들을 네게 말함은 네가 진리의 영으로 비추임을 받아 깨닫게 된 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교리와 성약 6:14~15)

이렇게 올리버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자신이 계시를 받아 왔음을 확인해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올리버는 자신이 하나님께 언제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지 인식하지 못했기에 계시의 영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올리버는 흐린 아침에 해가 뜨는 동안 그 빛 안에서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불확실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고, 스스로 행하고 행함을 받지 않으며(니파이후서 2:26 참조), 그분을 신뢰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천사를 보거나 하늘의 음성을 듣거나 영적 느낌으로 압도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소망하고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에도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인지 완전하게 확신하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맺은 성약과 계명을 지킬 때, 선한 일을 행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으로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알려 주신다는 확신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교리와 성약 121:45)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와 일면 상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적절하게 계시의 영을 구하고 활용한다면 “주의 빛 가운데 행[하게]”(이사야 2:5; 니파이후서 12:5)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어떤 때에는 계시의 영이 즉각적으로 강렬하게 임할 것이고, 또 다른 때에는 조용히, 점차로, 참으로 부드럽게 와서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오든지 그 빛은 여러분의 영혼을 밝히고 크게 하며 이해력을 넓혀 주고(앨마서 5:7; 앨마서 32:28 참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인도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사도로서 아버지와 아들이 살아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계시의 영은 실재하며, 우리 개인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작용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거룩한 성전은 세상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으뜸 되는 축복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받습니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의 사랑과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생각을 인도하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에 영감을 부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선, 오늘 아침 얼리드 자매님과 버튼 감독님 그리고 그 외 분들이 전하신 교회 복지 프로그램에 관한 훌륭한 말씀에 대해 한 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이 영감 받은 프로그램을 시행한 지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많은 이들의 삶에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 위대한 프로그램을 시작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안다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정말로 인정 많고 선견지명이 있었던 분들이십니다.

버튼 감독님과 얼리드 자매님 그리고 그 외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와드 감독은 자기 와드 구역 내에 있는 궁핍한 사람들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아주 젊은 나이에 감독 자격으로 미망인 여든네 분을 포함하여 회원 수가 1,080명이나 되는 와드를 감리하면서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곳에는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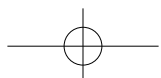
서 저는 교회에 복지 프로그램이 있는 것과 상호부조회와 신권 정원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척 고마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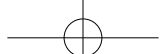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복지 프로그램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에 따라 마련된 프로그램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연차 대회는 제가 교회 회장으로 지지받고 3년째 개최되는 대회입니다. 지난 3년간 수많은 어려운 과제 속에서 바쁜 나날을 보냈으나 축복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축복 중에서도 성전을 헌납하거나 재헌납했을 때가 가장 즐겁고 성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도 바로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1902년 10월 연차 대회 때, 당시 교회 회장이셨던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은 개회 말씀에서 언젠가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성전이 필요한 [세계] 곳곳에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소망을 피력하셨습니다.

1830년부터 1980년까지 교회가 조직되고 나서 150년이 흐르는 동안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성전과 일리노이 주 나부 성전을 포함하여 21곳에 성전이 건립되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980년 이후 30년 동안





에는 115곳에서 성전이 건축되고 헌납되었습니다. 어제 새로 발표한 성전 세 곳을 더하여 보면 현재 우리는 26곳에 성전을 짓고 있거나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수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께서 1902년에 소망하신 그 목표는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바램은 회원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현재 짓고 있는 성전 중 하나는 브라질 마나우스에 있습니다. 저는 몇 해 전에 아마존 우림 중심부에 위치한 마나우스에서 백 명이 넘는 회원들이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까지 거의 4천 킬로미터를 여행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곳이 가장 가까운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충실한 성도들은 나홀 동안 배를 타고 아마존 강과 지류를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린 후에는 또다시 사흘 동안 버스를 타고 울퉁불퉁한 길을 달려야 했습니다. 먹을 것도 거의 없었고 편히 잠을 잘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낮 없이 꼬박 7일간 힘든 여행을 한 후에야 그들은 영원한 의식이 진행되는 상파울루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돌아가는 길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주머니는 비었어도, 성전 의식과 성전 축복을 받은 것만으로도 그들은 성전의 영을 충만하게 느꼈고, 받은 축복에 대해 그저 고맙고 또 고마워할 따름이었습니다.<sup>2</sup>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지금, 마나우스에 있는 우리 회원들은 이제 리오네그로 강 기슭에 건축되고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뻐합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면 어디서든 충실한 회원들은 성전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위해 회원들이 어떤 희생을 감수하는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감동을 받고 성전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게 됩니다.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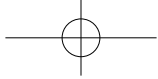
여러분께 티히 모우 탐과 타라이나 모우 탐, 그리고 그들의 열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모우탐 가족이 살던 섬은 타히티 남쪽으로 약 16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1960년대 초반에 선교사들이 그 섬에 왔을 때 딸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교회에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성전에서 영원한 가족으로 인봉되는 축복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이 가족에게 가장 가까운 성전은 뉴질랜드 해밀턴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은 남서쪽으로 4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었으며, 값비싼 항공편을 이용해야만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작은 농장으로 살림을 꾸려 나가는 모우 탐 대가족은 간신히 생계를 이어 나가는 처지였기 때문에 비행기 표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태평양 섬에서는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우 탐 형제님과 아들 제라드는 4천 8백 킬로미터 떨어진 뉴 칼레도니아 섬에 가서 일하려는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다른 아들은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우 탐 가족의 세 남성은 4년간 일했습니다. 모우 탐 형제님은 딸의 결혼식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한 번만 집에 갔습니다.

모우 탐 형제님과 두 아들은 4년에 걸쳐 일한 끝에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 성전에 갈



수 있는 여비를 모았습니다. 임신 중이었던 딸 한 명을 제외하고는 회원인 가족들은 모두 성전으로 갔습니다. 이 가족은 현세와 영원을 위한 인봉을 받으면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모우 탐 형제님은 성전에서 바로 뉴칼레도니아로 돌아가서 성전에 가지 못한 딸의 여비를 마련하려고 2년을 더 일했습니다. 딸은 이미 결혼하여 남편과 자녀가 있었습니다.

몇 년 후, 모우 탐 형제님과 자매님은 성전에서 봉사하고자 했습니다. 그 무렵에 타히티 파페에테 성전이 건축되어 헌납되었고, 두 사람은 그곳에서 네 번이나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sup>3</sup>

형제 자매 여러분, 성전은 그저 돌과 회반죽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신앙이 깊은 금식하는 회원들로 가득하고 시련과 간증으로 지어졌으며 희생과 봉사로 성결해지는 곳입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최초로 세워진 성전은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성전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히버 시 김볼 장로님은 그 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기 위해 빈곤과 시련, 고통으로 얼룩진 처절한 상황을 어떻게 겪었는지는 주님만이 아신다.”<sup>4</sup> 그러나 성도들은 그토록 힘들게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부득이 오하이오와 소중한 성전을 두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잠시이기는 했지만 결국 그들은 일리노이 주 미주리 강가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새로 정착한 그곳을 나무라 이름 짓고 다시 한 번 굳건한 신앙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세웠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간신히 나무 성전을 완공했지만 그들은 다시 한 번 집에서 쫓겨나 불모지에서 피난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40년에 걸쳐 솔트레이크 성전을 세우는, 대역사를 착수하는 고생과 희생의 길에 다시 나섰습니다. 현재 그 성전은 컨퍼런스 센터 남쪽 구획에 장엄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나 성전에 갈 때에는 늘 어느 정도 희생이 따랐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으려고 힘들게 일을 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은 성전 축복을 받기 위해 많은 것을 기꺼이 희생하려 할까요? 성전에서 받는 영원한 축복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수 있으며, 어떠한 대가도 감내할 수 있고, 어떠한 고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수많은 장애가 있어도 그런 불편쯤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에서 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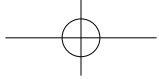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의식을 받아야만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과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이나 수고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중 대다수는 큰 고초를 겪지 않고도 성전에 갈 수 있습니다. 현재 교회 회원 중 85퍼센트는 성전에서 약 320킬로미터 거리 내에 거주하며, 우리 가운데 다수는 그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삽니다.

여러분이 이미 자신을 위해 성전을 다녀오셨다면, 또한 비교적 성전과 가까운 곳에 산다면 바쁜 생활 중에서도 시간을 내어 정기적으로 성전을 방문하는 희생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휘장 저편에서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조상을 위해 봉사하면서 여러분은 그분들이 직접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수고할 때 그들을 속박하는 사슬이 풀리고, 그들을 뒤덮은 암흑이 깨끗이 사라져 그들에게 빛이 드리울 것입니다.







그들은 영의 세계에서 자신의 자손들이 이곳에서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듣고, 이러한 의무를 수행한 여러분에 대해 기뻐할 것입니다.”<sup>5</sup> 형제 자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저에게 가장 성스럽고 귀중한 경험 중 몇 가지는 가족과 함께 성전에 가서 조상들을 위해 인봉 의식을 받았을 때 생긴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직 성전에 간 적이 없다면 성전에 다녀온 적은 있으나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셨다면, 지금 여러분에게는 성전에 가기 위해 합당해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는 없습니다. 희생을 감수하면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테면 합당치 못한 오랜 습관을 버린다면, 신앙을 행사하고 노력하여 십일조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십시오. 성전 추천서를 받고 추천서를 귀중한 자산으로 여기십시오. 그것은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아직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 마련된 모든 축복을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을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으뜸 되는 축복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받습니다.

십대인 젊은 친구 여러분, 늘 성전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성스럽고 영원한 축복을 받는 데 방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정기적으로 성전에 가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는 청소년, 즉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 등교하기 전에 침례 의식에 참석하는 청소년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여러분,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현명한



조언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김볼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모든 침실에 성전 사진을 걸어 두시면 ……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매일 그 사진을 볼 것이며, 나중에 성전은 [그들] 삶에서 일부가 될 것입니다. [성전에 가는 문제에 관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나이가 될 때, 이미 그 결정은 내려져 있을 것입니다.”<sup>6</sup>

어린이들은 초등학교에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나 성전 보고 싶어  
그 안에 들어가  
주님과 성약 맺고  
또 순종 약속해<sup>7</sup>*

자녀들에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치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살기에 힘들고 험난한 곳일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를 끌어내리려는 존재에게 에워싸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가고 그 안에서 맺는 성약을 기억한다면 모든 시련을 더 잘 견뎌 내고 유혹을 더 잘 극복해 낼 것입니다. 또한 그 성스러운 곳에서 평안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으며 강화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 전에 성전 한 곳에 대해 더 언급하고 싶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성전들이 건립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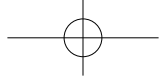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있지만, 이전 오백여 년 전에 세워진 한 도시에도 머지 않아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 건축 중인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며 수행하는 역할과 축복, 의식도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이탈리아 로마 성전은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유서 깊은 장소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로마는 고대 사도였던 베드로와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고, 또한 순교를 당한 도시입니다.

지난 해 10월, 로마 북동쪽에 있는 아름다운 시골에 마련된 부지에 모여 기공식을 했으며 제가 헌납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상원의원인 루시오 말란과 로마 부시장인 기우세페 시아르디에게 함께 첫 삽을 뜨자고 부탁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두 사람은 이 도시에 성전이 건축되도록 허가하는 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날씨는 흐렸으나 포근했고, 비가 올 듯 했으나 한두 방울 정도만 내렸습니다. 합창단이 아름다운 노래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을 이탈리아어로 장엄하게 부르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영광스러운 그 찬송가를 마치 하늘과 땅이 함께 부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영원한 도시’인 로마에서 충실한 이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영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원한 의식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로마에 세우고 있는 성전과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성전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전은 세상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시며, 그분의 아들 딸인 모든 세대를 축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신다는 우리의 간증을 밝게 보여 줍니다. 성전은 무덤 너머에서도 우리 삶은 실제로 계속된다는, 이 지상에 사는 삶처럼 그러한 삶을 분명하게 여기는 우리의 간증을 표현합니다. 그 점을 간증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전에 참석하기 위해, 또한 우리 마음과 가정에 성전의 영이 임하도록 어떤 희생이든 감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 왕국에서 영생과 승영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마지막 희생을 치르신 분, 우리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의 진실한 기도이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

주

1. Joseph F. Smith, Conference Report, Oct. 1902, 3.
2. Wilson Felipe Santiago and Linda Ritchie Archibald, "From Amazon Basin to Temple," *Church News*, March, Mar. 13, 1993, 6 참조.
3. C. Jay Larson, "Temple Moments: Impossible Desire," *Church News*, Mar. 16, 1996, 16 참조.
4. Heber C. Kimball, in Orson F. Whitney, *Life of Heber C. Kimball*(1945), 67.
5.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1998), 247 쪽.
6. *The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ed. Edward L. Kimball, (1982), 301.
7. 제니스 캡 페리, "나 성전 보고 싶어", *어린이 노래 책*, 99쪽.

# 결혼에서 얻는 영원한 축복

인생을 살아갈수록 성전 인봉은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성전 인봉은 서로에게 끊임없이 다가가게 하며 이생에서 더 큰 기쁨과 성취감을 얻게 합니다.

**제** 생각에는 웅장한 이 합창단이 전해 준 아름다운 메시지에는 우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생활 방식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1953년 7월 16일, 사랑하는 아내 지닌과 저는 유타 맨타이 성전 제단에 함께 무릎 꿇었습니다. 그날, 루이스 알 앤터슨 회장님이 인봉 권세를 행사하여 저희가 남편과 아내로서 현세와 영원을 위해 결혼했다며 성혼을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순전한 신권 권세로 집행된 성스러운 의식 덕분에 제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한 사랑하는 아내 지닌, 그리고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으리라는 확신으로 가슴 벅차던 그 고요하고 평온한 느낌은 실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 성스러운 성전 의식을 통해 그 후 일곱 자녀가 저희 부부와 가족으로 묶어졌으나 그 중 두 아이는 소중한 아내 지닌과 함께 휘장 저 편에 있습니다. 그들은 남은 가족들에게 성전에서 약속된 영원한 축복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합당하게 살라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행복의 계

획을 떠받치는 두 기둥은 바로 결혼과 가족입니다. 가족을 영원히 함께 묶는 성전 의식의 의미를 깎아 내리고, 가족을 분열시키려고 끝없이 발버둥치는 사탄을 생각해 보면 그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성전 인봉은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성전 인봉은 우리가 서로에게 끊임없이 다가가게 하며 이생에서 더 큰 기쁨과 성취감을 얻게 합니다.

저는 아내에게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직업상 저는 출장을 많이 다녔는데, 한 번은 거의 두 주 동안 출장을 갔다가 토요일 오전에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다른 모임에 참석하기 전 네 시간 가량 시간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작은 세탁기가 고장 난 탓에 손빨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탁기를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와서 물었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세탁기 고치는 중이에요. 그래야 당신이 손빨래를 안 해도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



요. 가서 아이들하고 놀아주세요.”

저는 “아이들하고는 언제든 놀아줄 수 있잖아요. 지금은 당신을 돕고 싶어요.” 하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리차드, 제발 가서 아이들 하고 놀아주세요.”

정말 근엄한 태도로 이야기했기에 저는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과는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술래잡기를 하고 낙엽 위를 뒹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저는 모임에 갔습니다. 만일 제가 배웠으면 하고 아내가 바랐던 교훈을 얻지 못했다면, 그 경험은 망각 속에 묻혀버렸을 것입니다.

저는 다음 날 새벽 4시쯤 잠에서 깰습니다. 누군가가 조그만 팔로 제 목을 감싸 안고는 볼에 입맞춤을 한 뒤,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 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는 제일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인생 최고의 기쁨을 맛보신 것입니다.

결혼 적령기임에도 아직 미혼인 젊은이들은 헛된 것에 시간을 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를 늦추지 마시고 결혼에 힘을 쏟으십시오. 이 황금기를 허송세월하며 낭비하지 마십시오. 젊은이 여러분, 훌륭하게 선교 사업을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는 영원한 반려자가 될 만한 사람을 찾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십시오. 마음을 사로잡는 젊은 여성이 생기면,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주어 그 여성이 여러분과 좀 더 사귀고픈 마음이 생기도록 만드십시오. 데이트 할 때에는 상대를 가치 있는 곳으로 데려가십시오. 창의성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아내를 얻고 싶다면, 여러분이 훌륭한 남자이자 장래가 촉망된 남편감임을 상대가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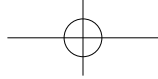
좋은 사람을 찾으면, 주님께서 세우신 테두리 안에서 합당하게 행동하여 아주 멋진 연애와 결혼을 하고, 부디 영원토록 행복하십시오.

결혼하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배우자에게 충실하십니까? 배우자가 듣지 않았으면 하는 대화에는 결코 참여하지 않으므로써 결혼 성약을 충실히 지키십니까?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친절하고 도움을 주십니까?

형제 여러분, 경전 공부, 가족 기도, 가정의 밤 같은 가족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의를 기울여 빈자리를 아내가 채우도록 만드십니까?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까? 아내들은 그 말을 들으면 크게 행복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라고 하면 “그런 말을 듣지 않아도 제 아내는 압니

다.” 하고 대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꼭 말로 표현해 주십시오. 여성은 그와 같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말을 들으며 성장하고 큰 축복을 느낍니다.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해주는 일에 감사를 표하십시오. 사랑과 감사를 되도록 자주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즐거워지며,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사랑 표현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꼭 껴안고 그런 말을 해주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신혼 시절,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경전을 펼치다 보면 아내가 책갈피에 꽂아놓은 애정이 넘치면서도 힘을 주는 쪽지가 자주 보였습니다. 너무나 애정이 어려 있어서 어떤 때는 말을 잊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



는 아내가 끼워 둔 그 소중한 쪽지야말로 저에게는 위안과 영감의 원천이 되는 한량 없는 보물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아내에게 어떤 의미를 주게 될지 알 수는 없었으나 저도 아내를 따라 똑같이 쪽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저는 아내에게 발렌타인데이 선물을 사줄 돈이 없어서 선물 대신 냉장고 앞에도 수채화를 그리기로 한 일이 기억이 납니다. 최선을 다해 그리기는 했는데, 그만 한 가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수성 물감이 아니라 잘 지워지지 않는 에나멜 페인트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곳에 그려져 있던 그 그림을 그대로 놔두게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종이에 펀치로 구멍을 뚫을 때 생기는 조그맣고 동그란 종이를 가져와서 종이 뒷면에 1부터 100번까지 번호를 매겼습니다. 그리고는 그 반대 면마다 아내에게 바치는 글을 한 마디씩 적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들을 모아 봉투에 담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박장대소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뒤, 저는 아내의 사물함을 보면서 저희가 함께 나는 그 짙막한 쪽지들을 아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그 둥근 종이들을 모두 모아 종이 한 장에 붙여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모아두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귀중품마냥 비닐로 덮어서 보관했습니다. 다른 것들과 함께 모아두지

않은 종이 한 장이 있었는데, 그 종이는 지금도 저희 집 주방에 있는 시계 유리 안에 끼어 있습니다. 그 쪽지에는 “여보, 당신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 시간이오.” 하고 써 있습니다. 아직도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그 글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특별한 말이 생각납니다.

저희 두 사람이 함께 한 때를 떠올릴 때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를 새삼 느낍니다. 저희는 말다툼이나 상처가 될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 그게 모두 아내 덕분이었습니다. 그 모든 축복은 기꺼이 베풀고 나누며, 자신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던 아내 덕분이었습니다. 함께 살면서 저는 아내를 닮으려고 애썼습니다. 남편과 아내 되시는 여러분께서도 집에서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사랑은 견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올바른 사랑은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토대가 됩니다. 자녀들이 만족스러워하고 잘 성장하는 원천이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미치는 의로운 영향력을 누가 감히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가슴속에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라는 비옥한 토양이 있는 자녀에게 진리의 씨앗을 정성스럽게 뿌려서 사랑으로 키운다면 훌륭한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로서 여러분은 자녀에게 있는 특출한 재능과 고유한 능력을 감지할 수 있는 본능을 하나님에게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남편과 함께 자녀들의 그런 특성을 배양하고 강화시켜서 활짝 꽃을 피우게 하실 수 있

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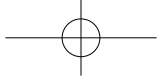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결혼에서 얻는 보상은 매우 큼니다. 결혼은 정말 멋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는 생각이나 느낌 모두가 닮아갑니다. 지극히 행복할 때도 있고 시련이나 고난을 겪는 시기도 있겠지만,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는 동안 주님께서 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심장에 문제가 있던 어린 리차드가 잠에서 깨어나 울기 시작하는 소리가 저희 두 사람에게 들렸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항상 아내가 일어나서 우는 아이를 달랠지만, 그날은 제가 아이를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있는 아이의 작은 심장은 뛰는 속도가 매우 빨라졌습니다. 구토를 하는 바람에 침대보와 이불이 더럽혀졌습니다. 그 날 밤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요동치는 심장을 진정시켜 울음을 멈추게 한 후, 옷을 갈아 입히고 침대보를 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다시 잠들 때까지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이가 몇 달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밤중에 아이를 꼭 껴안고 있었던 그 시간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가 숨을 거둔 날이 또렷하게 기억 납니다. 아내와 함께 병원을 나서다가 길가에 차를 세우고 아내를 부둥켜안았습니다. 둘 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성전에서 성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휘장 저편에서 다시 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덕분에 아이를 잃은 사실을 어렵사리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친절한 아내를 두었기에 소중한 교훈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우 미숙한 남편이었던 반면, 아내는 잘 훈련되고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극복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마련해 줍니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다. 일찍 결혼하라고 권유하는 이유 중에는 잘 바뀌지 않는 좋지 않은 성격을 다듬기 위해서라는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영원한 반려자를 찾지 못한 형제님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또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매님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외로움과 더불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며, 과연 결혼을 하고 자녀들과 내 가정을 가질 수 있을지, 앞이 보이지 않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는 불가능이란 없으며,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어 선포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영원이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약속들을 믿고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이 정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틀림없이 여러분은 합당함에 대한 대가로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의 소중한 아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송구합니다만, 저희 가족은 영원합니다. 아내는 늘 행복에 넘쳤는데, 그 행복 중 대부분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몹시 아플 때에도 아내는 아침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는 꾸준히 응답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짐이 가벼워졌고 삶이 밝아졌습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는 축복을 아내는 끊임없이 누렸습니다.

은혜와 헌신 가운데 여성으로서 의로운 빛을 온전히 발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을 사랑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저는 압니다. 장차 휘장 저편에서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되면 저희는 서로를 훨씬 더 깊이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휘장이 저희 둘을 갈라놓아 떨어져 지냈지만, 서로에게 더욱 고마워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징계를 견디면서 우리는 자신을 정화시켜 더 위대한 영적 특권을 누리게끔 준비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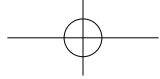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하** 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는 무척 큼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대치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원하노니 나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같이 너희도 온전하라.”(제3니파이 12:48) 아버지께서는 “해의 왕국[을] …… 감당[하고]”(교리와 성약 88:22) “그의 면전에 거할 수”(모세서 6:57) 있도록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권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할 수 있도록 그분의 계명과 성약과 성신의 은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속죄와 부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마련하신 목적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며, 또한 그분과 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몇 년 전에 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단순히 우리가 행한 선악을 총합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행위와 생각이 낳은 최종 결과, 즉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누

구든 진심 없이 시늉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에서 가르치는 계명과 의식과 성약은 하늘 계좌에 적립해 두어야 할 목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존 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보여 주는 계획입니다.”<sup>1</sup>

안타깝게도 현대 기독교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이들에게 실제로 어떤 요구를 하신다는 점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면 달려오는” 집사 또는 “스스로에게 편한 느낌을 갖도록”<sup>2</sup> 도와주는 치료사 정도로 여깁니다. 그러한 종교적 관점으로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흉내조차도 내지 못합니다.”<sup>3</sup> “그와는 대조적으로” 어떤 작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히브리 경전과 기독교 경전에 묘사된 하나님은 결심뿐 아니라 진심 어린 실천을 요구하신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단지 좋은 일만이 아닌 생사를 주관하시고 또한 무사태평한 태도가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을 요구하신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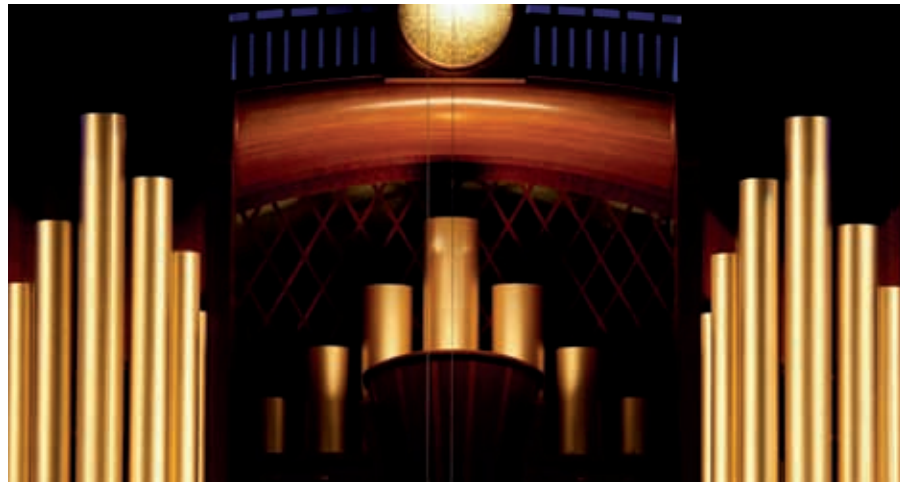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높은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 받아들여야 할 구체적인 태도와 습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



다. 그것은 교정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교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에베소서 4:13) 이르게 하려면 교정은 꼭 필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교정, 곧 징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히브리서 12:6)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있지만, 실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잡기 위해 시간과 문제를 주실 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점에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에는 적어도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징계는 (1) 회개하도록 설득하고 (2) 우리를 정화시키고 성결하게 하며 (3) 때로는 우리의 인생 진로를 바꾸어 하나님께서 아시는 더 나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옵니다.

우선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기 위한 선결 조건인 회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서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요한계시록 3:19)라고 선언하시고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백성은 순종을 배우기까지, 만일 필요하다면 그들이 겪는 것으로, 징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교리와 성약 105:6; 또한 교리와 성약 1:27 참조) 주님께서서는 후기에 주신 계시에서 교회의 선임 지도자 네 명이 “계명에 따라” 자녀들을 충분히 가르치지 않고 “가정에 더 부지런하고 마음을 쓰[지 않는다]”(교리와 성약 93:41~50 참조)라고 말씀하시며 회개하라고 명하셨습니다.(이 말씀은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에 나오는 야렛의 형제는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 서서서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억하지 아니하였던 까닭”으로 “세 시간 동안 …… 질책[을]”(이더서 2:14) 받고서 회개했습니다. 이 같은 호된 책망에 기



꺼이 응했기 때문에 야렛의 형제는 훗날 필멸의 몸으로 세상에 오실 그 구속주께서 전세 상태에 계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가르침을 주시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이더서 3:6~20 참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의로 인도하는 회개라는 열매를 맺습니다.(히브리서 12:11 참조)

징계를 견디면서 우리는 회개를 서두르게 될 뿐 아니라 자신을 정화시켜 더 위대한 영적 특권을 누리게끔 준비됩니다.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백성은 모든 일에 시험을 받아야 하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내가 그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광 곧 시온의 영광을 받을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이라. 징계를 견디려 하지 않는 자는 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교리와 성약 136:31) 또 다른 성구에서는 “무릇 징계를 견디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부인할 자는 모두 성결하게 될 수 없도다.”(교리와 성약 101:5; 또한 히브리서 12:10 참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폴 브이 존슨 장로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갖도록 도움을 주는 것들을 멀리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엘마를 따르던 무리는 힐렘에 시온 공동체를 건설했지만 결국 속박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고통보다는 축복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으나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그의 백성을 징계하시기를 합당하게 보시나니, 참으로 그는 그들의 인내와 신앙을 시험하시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누구든지 그를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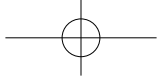
뢰하는 자 그는 마지막 날에 들리우리니, 또한 이 백성이 그와 같았느니라.”(모사이야서 23:21~22)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강하게 만들고, 등에 진 짐 무게를 거의 못 느낄 만큼 가볍게 해 주신 다음, 마침내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모사이야서 24:8~22 참조) 그 경험으로 이 백성들의 신앙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강해졌으며, 그 후 내내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그럭 보지도 못할, 또한 그럭 볼 수도 없는 길을, 더 좋은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또 다른 형태의 징계 또는 교정 방법을 이용하십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자 제일회장단 보좌를 지내신 휴 비 브라운 회장님의 경험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장로님은 오래 전에 캐나다에서 황폐한 농장 한 곳을 구입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농장을 청소하고 수리하는 동안 장로님은 1.8미터 이상 옷자란 데다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까치밥나무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작은 밀동 몇 개만 남겨 놓고 모든 가지를 쳐 내셨습니다. 그러자 그 작은 밀동마다 맺힌 눈물방울 같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브라운 장로님은 그때 마치 까치밥나무가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듯이 느끼셨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죠? 내가 얼마나 멋지게 자랐는데요. …… 그런데 당신은 나를 이렇게 잘라 버렸어요. 정원에 있는 모든 나무가 나를 얹잡아 볼 거예요. ……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죠? 정원사 라면서 말이예요.”

브라운 회장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다. “작은 까치밥나무야, 내 말 좀 들어 보렴. 난 이곳 정원사란다. 난 네가 어떤 나무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지. 난 네가 그저 과일나무, 아니면 그늘이나 만들어 주는 나무가 되는 걸 바라지 않는단다. 난 네가 까치밥나무가 되었으면 해. 작은 나무야, 언젠가 열매를 가득 맺게 되는 날, 넌 이렇게 말하게 될 거란다. ‘정원사님, 고맙워요. 절 사랑해서 제 가지들을 잘랐던 거군요.’”

수년 후, 브라운 회장은 캐나다 군 영관급 장교로 영국에서 복무하셨습니다. 상관이 전사하자 서열상 장군으로 진급할 위치에 있던 브라운 회장은 런던으로 오라는 전보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진급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이 되었으나 물론이라는 이유로 심사에서 떨어지셨습니다. 사령관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자넨 자격이 되지만 난 자넨 진급시킬 수 없네.” 브라운 회장이 10년 동안 소망하고 기도하고 준비해 온 꿈은 노골적인 차별 때문에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브라운 회장은 말씀을 이으며 그때 일을 회상하셨습니다.

“미어지는 가슴을 부여안고 참담한 심정으로 …… 기차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 막사에 도착해서 …… 저는 침대 위에 모자를 뺐고 눕습니다. 불끈 쥐 주먹을 하늘을 향해 뻗으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기회를 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남김없이 다 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이룰 수 있습니까?’ 쓰디쓴 고통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귀에 익은 음성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저의 목소리였습니다. ‘난 이곳 정원사란다. 난 네가 어떤 나무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지.’ 쓰라린 고통이 제 영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무릎 꿇고 배은망덕한 제 태도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 그리고 50여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하나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정원사님, 저를 잘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예뻐서 아프게 하셨지요?’”<sup>5</sup>

하나님께서 휴 비 브라운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렇게 되려면 어떤 일이 필요한지를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장로님이 거룩한 사도 직분을 준비하도록 진로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이를 위해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위안이나 힘, 또는 징계까지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모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러한 도움을 받기로 한다면 자신에게 필요한 교정을 여러 곳에서, 여러 형태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성신을 통해 우리 생각과 마음에

말씀하심으로 교정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8:2 참조) 안 된다면 응답으로, 또는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방향이 다른 응답으로 오기도 합니다. 징계는 경전을 공부하는 도중에 부족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소홀히 한 점이 떠오르는 식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교정은 다른 사람, 특히 하나님께 받은 영감에 따라 우리를 더 큰 행복으로 이끌어 주는 사람들을 통해 오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 축복사와 감독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부름을 받는 이유는 고대와 마찬가지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에베소서 4:12)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이 대회에서 들은 몇몇 말씀이 여러분에게 회개하고 변화하게 만드는 외침으로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침을 따른다면



여러분은 더 높은 곳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교회 회원으로서 서로를 도울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구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를 존중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악의적인 비평을 들을지라도 자기 자신을 낮춰 그 비평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고 우리를 발전시킬 무언가를 얻는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교정은 배우자를 통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온화한 태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은 결혼 초기에 아내 지닌에게서 들은 조언을, 즉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그 사람을 바라보라는 충고를 들은 그 순간을 떠올리셨습니다. 자매님은 “당신은 천장과 벽과 바닥만 바라보지, 사람들 눈을 보지 않아요.” 하고 짚어주셨습니다. 장로님은 이 부드러운 질책을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덕분에 사람들에게 조언을 주거나 함께 일할 때 더 잘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스코트 장로님을 선교부 회장님으로 모시고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그렇기에 장로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신다는 점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 눈빛은 교정이 필요한 사람을 움짱달짝 못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무자비한 대적과 그 추종자들의 손아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바로잡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하며 징계도 마다해서는 안됩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께서 다른 사람을 교정해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자기만을 위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셨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꾸짖을 때는 시의적절하고 날카롭게, 명확하게 하되 “성신에 감동되었을 때 [그렇게 하시고,] …… 그 후에는 [여러분이] 꾸짖은 자에게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 그가 [여러분을] 자기 원수로 여기지 않게 하십시오.”(교리와 성약 121:43)

우리가 변화되기를 거부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교정을 귀땀해 주는 일을 멈출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에 계속 응하지 않는다면 그분 또한 징계를 멈추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이 항상 사람과 함께 애쓰지는 아니한다.”(이더서 2:1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징계의 대부분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교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친구인 고 조셉 비 워스런 장로님께서서는 자신이 수행한 모든 임무 지명과 과제를 분석하셨으며, 그 덕분에 그토록 순수하고 겸손한 제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워스런 장로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픈 마음에서 더 잘 해낼 수 있었을 다른 방법도 찾아보기로 결심하셨으며, 그런 다음 배운 모든 교훈을 부지런히 생활에 적용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능력과 재능의 크기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모로나이는 다음과 같이 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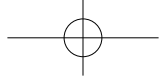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고, 너희의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니, 그의 은혜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지라.”(모로나이서 10:32) 우리가 부지런히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받아들이며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이와 같이 힘과 능력을 더해 주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담긴 교정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는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그에 따르는 충만한 행복과 평안을 부여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과 우리가 그분들께 받은 잠재력에 대한 기쁜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증드립니다. 아멘. ■

#### 주

1. 델린 에이치 옥스, “무엇인가 되어야 하는 과제”,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40쪽.
2. Kenda Creasy Dean, *Almost Christian: What the Faith of Our Teenagers Is Telling the American Church*(2010), 17.
3. Dean, *Almost Christian*, 30; 또한 Christian Smith and Melinda Lundquist Denton, *Soul Searching: The Religious and Spiritual Lives of American Teenagers*(2005), 118~171 참조.
4. Dean, *Almost Christian*, 37.
5. 휴 비 브라운, “까지잡나무”, *리아호나*, 2002년 3월호, 12쪽.





칼 비 프랫 장로  
칠십인 정원회

#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풍성한 축복

[우리가] 십일조를 충실하게 바칠 때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축복을 주[십니다.]

저는 가정의 밤 프로그램이 공식화되기 훨씬 전에도 가정에서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셨던 의로운 선조들께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 외조부모님 존함은 아이다 에스퍼슨과 존 에이 휘튼으로, 그분들은 멕시코 치와와 주 콜로니아 후아레스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사셨습니다. 휘튼 집안 자녀들은 교육과 부모님께서 보여 주시는 모범을 통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멕시코에서 1920년대 초엽은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폭력으로 물든 혁명이 막 끝난 탓에 대부분 은화였던 현금은 유통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나 노동력을 사고파는 일은 물물교환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늦은 여름날, 존 할아버지는 거래를 하신 후 받은 은화 백 폐소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곧 내야 하는 아이들 학비로 쓰시겠다고 그 돈을 아이다 할머니에게 맡기셨습니다.

할머니는 필요한 돈이 생겨서 고마운 마음이 드셨지만 이내 할아버지께 여름 내내 십일조를 바치지 못했다는 점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현금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없었으나 가족을 기르셨기에 고기와 달걀, 우유를 계속 얻었으며, 밭에서는 과일과

채소를 풍성하게 거두었고, 물물교환으로 다른 거래를 하기도 했으니, 할머니는 그 돈을 십일조로 감독님께 드리자고 하셨습니다.

아이들 학비에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하셨기에 다소 실망은 되었지만 존 할아버지도 흔쾌히 그 돈을 십일조로 바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돈이 담긴 무거운 자루를 십일조 사무실로 가져가서 감독님과 십일조 결산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 할아버지는 부유한 미국인 사업가인 호드 씨로부터 다음 주에 대여섯 사람과 함께 산에서 사냥과 낚시를 하며 며칠 지내기 위해 그곳에 오겠다는 전갈을 받으셨습니다.

존 할아버지는 콜로니아 후아레스에서 멀지 않은 기차역에서 그 일행을 만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말과 함께 짐과 야영 장비를 실어 나를 동물들을 끌고 가셨고, 일행에게 길 안내도 하시고 야영지와 동물들을 돌보면서 한 주를 보내셨습니다.

주말이 되자 일행은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차역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날 할아버지는 노임과 아울러 다른 경비를 충당하도록 은화로 된 폐소화가 담긴 자루를 받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분의 동료들과 함께 일행에게서 돈을 받은 후 남은 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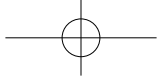
을 호드 씨에게 돌려주셨습니다. 호드 씨는 돈이 남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는 듯 짐짓 놀라는 기색으로, 빠트린 것 없이 모든 경비를 계산했다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모든 셈은 틀림없으며 그러고서도 이만큼 돈이 남았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기적이 울리자 호드 씨는 기차에 오르려 하다가 다시 돌아오더니 그 은화가 담긴 무거운 자루를 존 할아버지께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져가서 애들을 위해 쓰게.” 할아버지는 자루를 들고 콜로니아 후아레스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날 밤, 저녁식사 후 여행담을 듣기 위해 가족이 둘러앉았을 때, 할아버지는 문득 생각이 나서 그 돈자루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자루 안에 담긴 돈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하셨기에, 가족들은 재미 삼아 돈을 세어 보았습니다. 꽤 큰 무더기였습니다. 모두 세어 보니 정확히 은화 백 폐소였습니다. 물론 호드 씨가 한 여행은 존 할아버지와 아들들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임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자루에 담긴 백 폐소는 똑같은 액수로 한 주 전에 바친 그 십일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이 신기한 우연일 뿐이라 말하기도 하겠지만, 휘튼 가족은 그 일을 겪으며 주님께서 온전히 십일조를 바치는 이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교훈을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사냥과 낚시를 하러 말을 타고 여행한 이야기가 담겨 있기에, 저는 어릴 적에 이 일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계명을 지킬 때 축복을 받게 된다고 가르쳐 주기에 정말 좋았습니다. 이 일화에서 우리는 십일조에 관해 몇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경우에서 우리는 십일조를 바치는 일은 현금으로 얻는 수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배웁니다. 휘튼 가족은 첫 번째로 얻은 현금 수입을 십일조로 바



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족과 밭에서 얻은 풍부한 과일과 채소로 잘 생활해 왔고, 그 축복에 대해 주님께 빚을 졌다고 분명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주님께서 물으신 말씀에 담긴 함축된 의미를 기억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는도다” 하고 묻자 사람들이 되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우레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말라기 3:8)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존과 아이다 휘튼 부부가 수십 년 전 여름에 깨달았듯이 우리 모두는 주님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는 책망을 받지 않게 생활합시다. 주님께 우리가 진 빚을 정직하게 갚읍시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든 것은 십 퍼센트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빚진 것을 갚아 충실해질 때 우리 동료들에게도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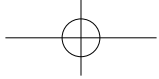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다음으로 제가 이 일화에서 찾은 교훈은 저희 조부모님은 어려운 집안형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십일조를 바치셨다는 점입니다. 그분들은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알고 경전을 자신에게 비유하여(니파이전서 19:23~24 참조) 율법에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십일조를 바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풍족한 가운데에서, 혹은 사용하고 남은 가족 예산 중에서가 아니라, 수입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고대에 명하신 것처럼 첫 수확에서 십일조를 바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께서는 “너는 내가 [처음] 추수한 것[을] ……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출애굽기 22:29)라고 명하셨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충실하게 십일조를 바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떤 것이든 수입이 생기자마자 바로 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습니다.

제 조부모님 일화에서 우리는 실로 십일조는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신앙, 즉 주님을 믿는 신앙에 관련된 일임을 배웁니다. 주님께서는 계명에 순종할 때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존과 아이다 휘튼 부부는 십일조를 바치는 일에서 큰 신앙을

확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맨 먼저, 정직하게 십일조를 바치십시오. 자녀들에게는 용돈, 또는 다른 수입에서 십일조를 바치도록 가르치십시오. 자녀들도 함께 십일조 결산에 참여토록 하여 우리의 모범과 주님에 대한 사랑을 알게 하십시오.

제 조부모님에 관한 이 일화를 잘못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십일조를 돈으로 바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항상 돈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렸을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키 가면서 저는 축복이 꼭 그렇게 오는 것만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에게 “하늘 문을 열고 ……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라기 3:10)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십일조를 충실히 바친다면 생활에서 궁핍함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부를 약속하지는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풍성한 축복은 돈과 은행잔고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제한된 물질을 현명하게 관리



린지 로빈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하고 우리가 번 수입 중 90퍼센트만으로도 100퍼센트가 있을 때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충실하게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들은 검약하게 사는 것의 참된 뜻을 이해하게 되고 자립을 더 잘 하게 됩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풍성한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며, 그 축복은 종종 가족이나 친구, 복음과 관계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특히 결혼이나 자녀를 키우는 일과 같은 가정 일에서 성령의 영향력이나 인도에 민감하도록 특별한 감성을 축복으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한 감성은 가정에 화평과 조화라는 축복들이 깃들게 합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은 십일조를 내는 것이 이혼을 막는 가장 훌륭한 보험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결혼 생활을 풍성하게 함” 리아호나, 2007년 4월호, 2~6쪽 참조)

십일조를 바칠 때 우리는 “만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여] ……”(교리와 성약 59:21) 순종적이며, 겸손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관대하고 용서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 찬 자애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깃들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축복하려는 열망이 커집니다. 정기적으로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강화되었음을 느끼며, 그분이 주신 복음과 교회에 대한 굳고 변치 않는 간증을 발전시킵니다. 이러한 축복들은 금전 또는 물질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풍성한 축복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저는 십일조를 충실하게 바칠 때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리스도와 같은 속성을 발전시키려는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 주님의 형상이 여러분의 얼굴에 새겨지고 그분의 속성이 여러분의 행위에서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존재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원문은 ‘To be or not to be’로 흔히 ‘사느냐 죽느냐’로 번역됨-옮긴이)”는 실제로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sup>1</sup> 구주께서는 훨씬 더 심오한 방법으로 물으셨는데, 이는 우리 각자에게 교리적으로 지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to be] 마땅하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은 자[I am]라야 하느니라.”(제3니파이 27:27) ‘Be’ 동사의 일인칭 현재 시제는 I Am[즉, 여호와와의 이름인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이름과 성품을 받들라고 권고하십니다.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 그분께서 하신 대로 행해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나의 복음이니라. 또 너희는 나의 교회 안에서 너희가 행하여야 할 일을 알고 있나니, 이는 너희가 본 바, 나의 하는 일 그것을 너희도 하여야 할 것임이니라.”(제3니파이 27:21)

되는 것과 행하는 것은 참으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둘은 상호의존하는 교리로, 서로 강화하고 장려합니다. 예를 들어, 신앙이 있으면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면 신앙이 강해집니다.

구주께서는 종종 의롭지 않으면서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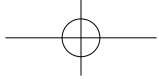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으로만 의로운 척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 부르며 비난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마가복음 7:6) 본성은 좋지 않은데 겉으로만 좋게 행동하는 것은 위선이며, 그러한 사람인 척하는 것뿐입니다.

반대로 본성은 좋은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야고보서 2:17)이라는 말씀처럼 헛됩니다. 본성은 좋은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은 본성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의도가 선하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 여기는 자기 기만입니다.

본성은 좋지 않은데 겉으로만 좋게 행동하는 것(위선)은 타인에게 그릇된 인상을 심어 주는 반면, 본성은 좋은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은 자신에게 그릇된 인상을 줍니다.

구주께서는 위선을 행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그들이 행한 것)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마태복음 23:23) 다시 말해 그들은 그들이 되었어야 할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구주께서는 행동의 중요성을 인정하셨



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더 중한 바”로 여기셨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다음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 침례의 물에 들어가는 것은 행동입니다. 그 전에 도달해야 할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마음에 일어나는 큰 변화입니다.
- 성찬을 취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성찬을 취하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고 중한 것입니다.
- 신권 성임은 행위, 즉 행동입니다. 그러나 더 중한 바는 신권 권능이며, 이것은 “의의 원칙”(교리와 성약 121:36), 즉 [개인의] 상태에 기초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달성하고 싶은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 할 일들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관하여 목록을 만드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할 일 목록은 활동 또는 행사로 되어 있어서 완수하고 나면 확인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완수라는 것은 아예 없습니다. 확인 표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금요일 저녁에 아내를 데리고 나가 멋진 시간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할 일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은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제 본성, 됨됨이 또는 특성을 말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목록을 완수하고 확인 표시를 하여 그 부분을 지울 수 있는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좋은 부모가 되는 일에서도 완수란 없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주와 같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속성을 지닌 존재가 되는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무언가

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눈으로 확인되는 것, 즉 우리 행동 이면에 동기를 부여하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걸음마를 배우도록 도울 때 부모는 자녀를 안심시키고 칭찬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이런 행동으로 부모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사랑과 자녀의 잠재력에 대한 보이지 않는 믿음과 희망이 표현됩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기울이는 부모의 노력은 인내와 근면이라는 보이지 않는 성품을 증거합니다.

본성은 행동을 낳고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가 됩니다. 그렇기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지를 가르친다면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행위가 개선될 것입니다.

자녀가 나쁜 짓을 할 때, 이를테면 자녀들이 서로 싸울 때, 훈계하는 방향을 자녀가 한 일 또는 우리가 목격한 싸움으로 잘못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보인 행동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동기가 겉으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어떤 속성을 이해해야 이런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그것을 이해하면 화가 날 때 참고 용서하게 될까? 사랑하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까?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비난하지 않게 될까?’

부모는 자녀에게 그런 속성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자녀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가르치고 보여 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훈계(discipline)는 제자(disciple)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에서 파생했으며, 이는 인내와 가르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화를 내며 훈계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교리와 성약 121편에 나오듯이 “설득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친절함과 순수한 지식으로” 훈계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두 부모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속성입니다.(41~42절)

자녀는 훈계를 통해 결과를 배웁니다. 그러한 순간에는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면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잘못을 고백한다면 그 용기를 칭찬하십시오. 자녀에게 그 실수 또는 잘못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무엇보다도 영이 자녀에게 가르치고 감화시킬 기회가 생깁니다. 자녀에게 영으로 교리를 가르치면, 그 교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합니다.

앨마도 이 원리, 즉 “말씀의 전파가 백성을 인도하여 의로운 일을 하게 하는 큰 경향이 있으므로—참으로 그것은 칼[보다]…… 백성들의 생각에 더 강력한 효과가 있[다]”(앨마서 31:5)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행위를 벌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사람의 본성, 즉 그들이 누구였는가, 또는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착하고 말을 잘 듣는 자녀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대해 여러분에게 별로 가르쳐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내심의 환계를 시험하는 자녀를 축복받았다면 그것은 자녀 양육에 관한 대학원 과정을 밟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전세에서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을 겪는 걸까 하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루기 힘든 자녀는 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 자녀를 통해 여러분의 인내와 오래 참음과 그 밖의 그리스도와 같은 덕목이 시험받고, 발전하며, 다듬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녀에게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녀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잘못을 저지를 때, 우리는 자녀 입장



에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자신의 본 모습이라고 여기게 할 만한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 한 행동에서 비롯된 실패가 ‘멍청한’, ‘게으른’, ‘서투른’과 같은 수식어가 붙어 다니는 정체성으로 확대되지 않게 하십시오.”<sup>2</sup>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이자 잠재력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자녀가 실수와 잘못을 극복하고 그분과 같은 존재로 진보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대에 어긋나는 행위는 영속되는 문제가 아니라 잠시 거치는 일일 뿐이며, 그 아이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냥 한 가지 행동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훈계를 할 때 “넌 항상 그래.” 또는 “넌 한 번도 …… 한 적이 없어.”와 같은 항구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넌 내 기분이 어떤지 생각도 안 하는구나.” 또는 “넌 왜 항상 우리를 기다리게 하지?”와 같은 표현을 조심하십시오. 이러한 표현은 행위를 정체성인 것처럼 여기는 것으로서 자녀의 자아 인식과 자부심에 그릇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우리가 자녀에게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물을 때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마치 사람이 생계를 위해 무슨 일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듯 비쳐집니다. 직업이나 재산이 정체성이나 자부심을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구주께서는 가난한 목수이셨지만, 그것으로 그분의

삶이 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큰 자부심을 느끼도록 돕기 위해 자녀가 이룬 성취나 행위를 적절하게 칭찬할 수 있습니다. 칭찬을 할 때 자녀의 품성과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믿음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는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자녀가 성취한 일을 칭찬할 때에는 아이가 보인 힘과 끈기, 상대를 대하는 자세 등과 같은 속성에 주목하여 성품과 행동 모두를 칭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에는 “네가 흔쾌히 이런 일을 해 주면 내 마음이 아주 행복해진다.”와 같이 성품을 칭찬하는 방법을 실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오면 좋은 점수를 칭찬할 수도 있겠지만 “숙제도 꼬박꼬박 하고 어려운 문제도 노력해서 풀어서 널 줄 알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하고 자녀의 부지런한 속성을 칭찬한다면 더 오랜 시간 지속되는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가족 경전 읽기 시간에 그날 읽은 내용에 나오는 속성을 찾아 토론하십시오. 그리스도와 같은 속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사이며, 그분의 도움 없이는 발전시킬 수 없으므로<sup>3</sup> 가족 및 개인 기도에서 그런 은사를 간구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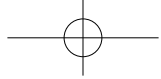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이따금 저녁 식탁에서도 속성에 대해, 특히 아침에 경전을 읽으면서 찾은 속성에 관해 대화하십시오. “오늘 너는 어떤 방법으로 좋은 친구가 돼 주었니? 어떤 방법으

로 동정심을 보였니? 오늘 도전에 맞서는데 신앙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니? 네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임을, 정직한 사람임을, 관대한 사람임을, 겸손한 사람임을 어떻게 보여 줬니?” 경전에는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야 할 많은 속성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에게 그분과 같은 부모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로서 완전한 분이시며, 우리에게 그분의 자녀 양육 지침서인 경전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주로 부모님들을 향해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담긴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속성을 발전시키려는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 주님의 형상이 여러분의 얼굴에 새겨지고 그분의 속성이 여러분의 행위에서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자녀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느끼고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구주를 떠올려 그분께 다가가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주  
1.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덴마크의 왕자, 3막 1장, 56행.  
2. Carol Dweck, quoted in Joe Kita, “Bounce Back Chronicles,” *Reader’s Digest*, May 2009, 95.  
3.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 115쪽 참조.



벤자민 데 호요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후기 성도가 된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신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저는 스테이크와 와드, 지부를 방문하고 대회에 참석하며 교회 회원들을 만날 때마다 크나큰 기쁨을 가득 느낍니다. 오늘날 교회 회원들은 절정의 시기에 살았던 신앙인들처럼 성도라 불립니다. 회원들과 함께할 때면 사랑과 평안을 느끼고 제가 시온의 스테이크 중 한 곳에 있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교회에는 두 세대 이상 거슬러 올라가는 회원 가정 출신도 많지만, 최근에 개종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전한 그 환영 말씀을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에베소서 2:19~20)

몇 년 전, 멕시코 교회 공보 사무실에서 봉사할 때 한 라디오 토크쇼에 출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세계에 있는 여러 종교를 설명하고 토론하는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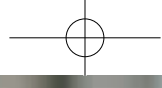
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실에서는 두 사람을 지명하여 그런 프로그램에서 다룰 법한 질문들에 대해 교회를 대표해서 답변을 하게 했습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광고 나가는 순서가 몇 차례 있는 후 진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오신 장로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행자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회 이름이 왜 그렇게 긴가요? 좀 더 짧거나 멋진 이름을 쓰는 게 어떨지요?”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



저와 동반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질문을 받았기에 싱긋 웃으며, 우리 교회 이름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님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이름은 이 후기에 구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마지막 날에 나의 교회는 이같이, 곧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 일컬어질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115:4) 그러자 진행자는 즉시 정중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교회 이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자가 의미심장한 그 이름을 몇 차례나 되뇌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이름뿐 아니라 그 이름이 교회 회원, 즉 후기 성도를 지칭한다는 사실을 설명할 때 임했던 감미로운 영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신약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들이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졌으나(사도행전 11:26 참조) 회원들은 서로를 성도라 불렀다고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에베소서 2:19) 또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 자”(로마서 1:7)라 지칭했을 때 그들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교회 회원들은 복음대로 생활하고 선지자들이 전하는 권고를 따르는 정도에 따라 조금씩, 심지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결해집니다. 매일 가족 기도와 경전 공부를 하고, 가족 역사에 참여하며, 자주 시간을 내어 성전 예배를 드리는 겸손한 교회 회원들은 성도가 됩니다. 영원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도 성도가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어 교회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구조하고, 돌아와서 주님의 식탁에 앉도록 권하는 사람들은 성도가 됩니다. 주님의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에 응하는 장로와 자매와 연로한 부부들도 성도가 됩니다. 맞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자애,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는 그 따스하고 훌륭한 느낌을 아는 성도가 됩니다. (모로나이사 7:42~48 참조)

그러나 성도, 즉 교회 회원도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구주에 대해 알게 됩니다. 구주께서도 모든 것을 감내해 내셔야 했음을 잊지 맙시다. “또 그가 사망을 짊어지시리니, 이는 그의 백성을 결박하는 사망의 줄을 푸시려 함이요, 또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리니, 육체를 따라,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좇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심이니라.” (앨마서 7:12)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성도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아 왔습니다. 저희는 그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살피 주셔서 그분들이 신앙이 약해지지 않는 가운데 인내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분들께 몰몬경에서 선지자 야곱이 했던 위로를 전합니다.

“오 그럴진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거룩하신 자 곧 주께로 나아오라. 그의 길이 의로움을 기억하라. 보라, 사람을 위한 길은 좁으나 그 앞에 똑바른 길로 놓였으며, 그 문을 지키시는 이는 이스라엘의 거

룩하신 자시니라. 그가 아무 종도 거기 두지 아니하시며 그 문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무 다른 길이 없나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이므로 그가 속임을 받을 수 없음이니라.

또 누구든지 두드리는 그에게는 그가 열어 주실 것이로되”(니파이후서 9:41~42)

어떤 처지나 시련,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교리와 그분의 속죄를 이해한다면 힘과 평안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영이 안겨 주는, 주님께서 충실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내적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27)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복돋우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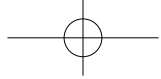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저는 교회 회원, 즉 후기 성도들이 충실하게 생활하는 것을 여러 해 동안 보아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신앙으로 담대하게, 열성을 다해 역경과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그리하여 성결하게 하는 험악하고 좁은 길을 깨끗이 걸어갔습니다. 그 모든 충실한 성도들과 함께하면

서 느낀 감사와 존경은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복음 진리에 대한 우리의 간증만큼 우리가 다 심오하게 복음을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한다면,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받들어질 것입니다. (앨마서 36:3 참조)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이 약속은 우리가 고통이나 시련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겪는 동안 받들어질 것이며 우리를 받들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란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후기 성도가 된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옛 선지자와 현대 선지자들이 품은 구주에 대한 간증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신 구주께서 살아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을 통해 그분의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인도하심을 간증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시 스코트 그로우 장로  
칠십인 정원회

## 속죄의 기적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죄와 범법, 고통과 슬픔은 속죄의 힘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아버지에게서 충격적인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 날 아침 제 남동생이 잠든 채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생은 겨우 선한 살이었습니다. 동생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 동생의 삶에 있었던 몇몇 사건을 여러분과 나누어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좋다는 허락도 받았습니다.

젊었을 때 제 동생은 잘 생기고 친절한 데다 쾌활한 성격이었고, 복음에도 전적으로 충실했습니다. 동생은 선교 사업을 훌륭하게 마친 후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성전에서 결혼했고, 아들 딸 남매를 낳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동생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약점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향락에 빠진 생활을 택한 결과 건강도, 결혼 생활도, 교회 회원 자격까지도 잃었습니다.

제 동생은 집을 떠나 먼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도록 자기파괴적인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동생을 잊어버리지도,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절망에서 오는 고통으로 결국 겸손의 영이 동생에게 임했습니다. 동생이 느끼는 분노와 반항과 공격성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탕자와 마찬가지로 동생은 “스스로 돌이켰습니다.”<sup>1</sup> 그리고 동생은

구주께 손을 내밀어 동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충실한 부모님에게로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회개의 길을 걸었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를 떠난 지 12년 만에 다시 침례를 받았고 성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신권과 성전에서 누리는 축복도 마침내 회복되었습니다.

과거에 하던 생활 방식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를 기꺼이 감수하려는 자매를 만나 성전에서 인봉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동생은 수년 동안 감독단에서 충실하게 봉사했습니다.

동생은 월요일 아침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3월 7일이었습니다. 그 전 금요일 저녁에 동생은 아내와 함께 성전에 갔습니다. 사망 전날인 일요일 아침에는 대제사 그룹에서 공과도 가르쳤습니다. 그날 저녁에 잠자리에 든 동생은 이 생에서는 다시 깨어나지 못했지만, 의로운 자들이 부활할 그날에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제 동생의 삶에 일어난 속죄의 기적에 감사합니다. 구주께서 이루신 속죄는 우리 각자에게 언제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할 때 속죄를 통해 얻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한 실수를 떨쳐버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보라,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

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는 이로써 너희가 알 수 있나니 - 보라, 그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것들을 버리리라.”<sup>2</sup>

우리 각자는 삶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은 사람, 방황하거나 포기했던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친구나 친척, 부모, 자녀, 남편이나 아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께 속죄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메시아는 사람을 아담의 타락에서 구속하시고자 오셨습니다.<sup>3</sup>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께서 이루신 속죄 희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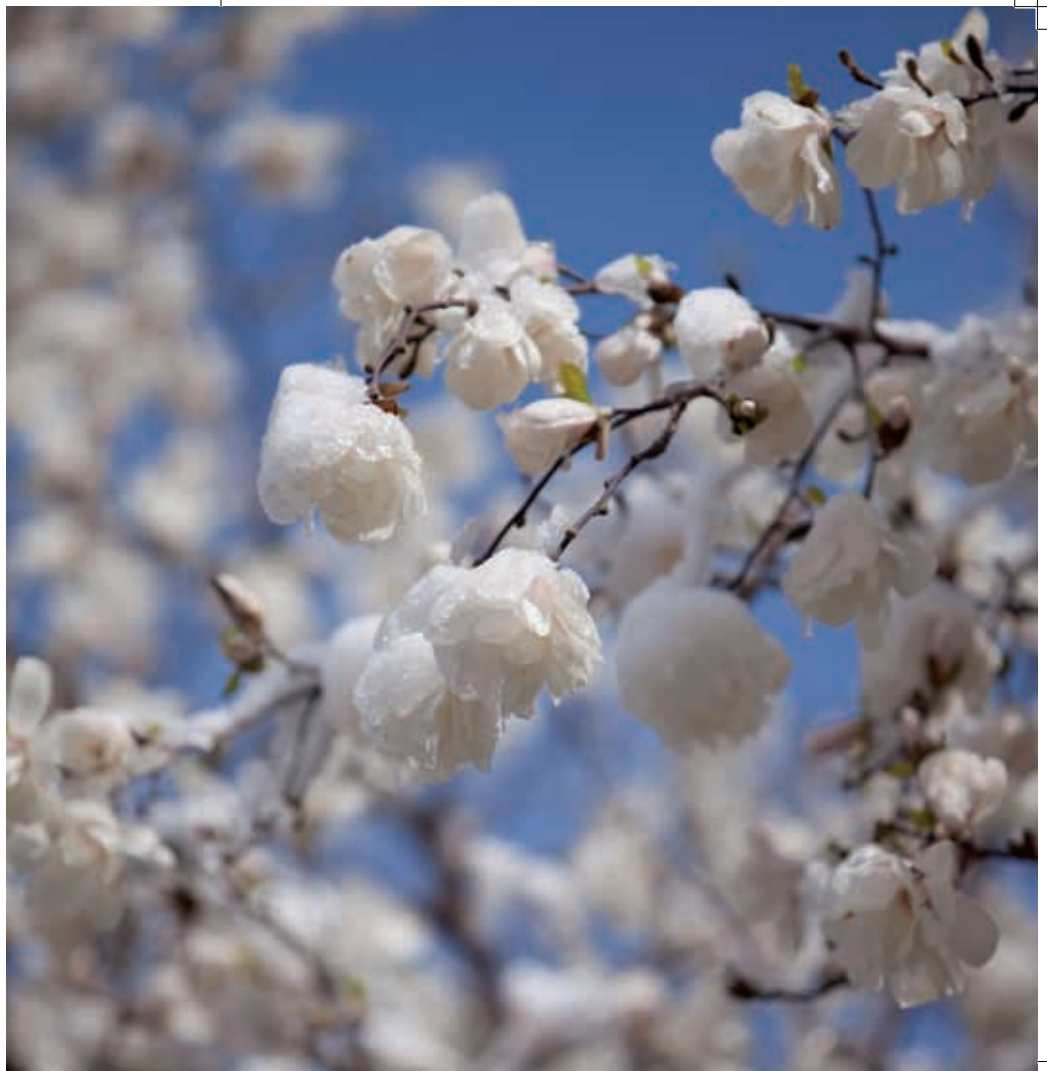
속죄 없이는 구원의 계획이 성취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자, 또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자 함이라.”<sup>5</sup>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죄를 속죄할 수 없으므로 속죄 희생은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루어야 했습니다.<sup>6</sup> 속죄는 무한하고 영원하여 모든 인류에게 영원에 걸쳐 적용되어야 했습니다.<sup>7</sup>

구주께서는 고난과 죽음을 겪으시며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sup>8</sup> 주님의 속죄는 겐세마네에서 시작되어 십자가 위에서 계속되었고 부활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 그가 끌려 가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을 당하시리니, 육체는 참으로 죽기까지 복종하며, 아들의 뜻은 아버지의 뜻 안에 삼키운 바 되리다.”<sup>9</sup> 주님은 속죄의 희생을 통해 “그의 영혼을 죄를 위한 제물로 삼으셨습니다.”<sup>10</sup>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주님은 육체적 사망을 이길 권능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죽음에 이르는 것을 제외하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과 육신의 고통, 주림, 갈증과 피로를 겪으[며] …… 피가 모든 땀구멍에서 나[오고] 그의 백성의 사악함과 가증함으로 인한 그의 고뇌가 그처럼 [끔에도]”<sup>11</sup> 주님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셨을 뿐 아니라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셨으니] ……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좇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sup>12</sup>

구주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부과된 고통의 무게, 즉 죄에 따르는 번민과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실로 그는 우리의 비애를 담당하였고, 우리의 슬픔을 [지셨습니다.]”<sup>13</sup>

주님께서 속죄를 통해 죄인들만 치유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또한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로 고통 받는 무죄한 이들도 치유하십니다. 무죄한 이들이 구주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죄인들을 용서한다면 그들 또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실수와 죄로부터 오는 죄책감으로부터 구원될 필요가 있[는]”<sup>14</sup>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구주께서는 우리 영혼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속죄 희생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습니다. 멸망의 자식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그 죄가 크든 작든 상관 없이 “회개의 조건 위에”<sup>15</sup> 속죄가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사랑은 무한합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죄로 짓눌려 고난받지 않도록 회개

하라고 권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 네 고난이 극심할까 하노라 - 얼마나 극심한지 너는 알지 못하며, 얼마나 격렬한지 너는 알지 못하니, 참으로,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너는 알지 못하느니라.

이는 보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도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이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그들은 나처럼 고난을 겪어야만 하니,

그 고난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인 나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었느니라]”<sup>16</sup>

구주께서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치유를 제안하십니다. “이제 내게로 돌아와 너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내가 너희를 고치게 하지 아니하려느냐?”<sup>17</sup>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을 낮게 하시는 위대한 분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

를 제외하고는 모든 죄와 범법, 고통과 슬픔은 속죄의 힘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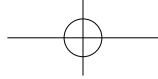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 잃은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반면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구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볼 때 변화해야 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바로잡아야 할 실수가 아직 있습니까?

죄책감이나 슬픔, 비통이나 노여움으로 힘겨워하거나 신앙을 잃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위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죄를 버리십시오. 그런 다음 기도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잘못된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필요하다면 감독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은 주님의 자비를 전하는 분이시며, 회개를 통해 깨끗하게 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을 도와 주실 것입니다.

기도와 경전 공부에 전념하십시오. 그



렇게 할 때 정결하게 해 주는 성신의 영향력을 느낄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하도다, 너희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내 앞에서 너희 손과 너희 발을 깨끗이 하여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게 하[라]”<sup>18</sup>

우리가 주님의 속죄 권능을 통해 깨끗하게 되면 구주께서는 아버지께 우리의 변호자로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자요 아무 죄도 범하지 아니한 자가 겪은 고난과 죽음을 보시옵소서. 당신 아들의 흘린 피를 보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영광을 얻으시려고 주신 자의 피로소이다.

그러하온즉 아버지여, 나의 이름을 믿는 이 나의 형제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내게 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옵소서.”<sup>19</sup>

우리 각자는 도덕적 선택의지를 은사로 받았습시다. “사람은 자유로우며 …… 자유로이 만인의 크신 중보자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악마의 …… 능력에 따라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나니……”<sup>20</sup>

오래 전에 제 동생은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어떤 생활 방식을 택했고 그 대가로 건강과 가족과 교회 회원 자격을 잃었습니다. 수년 후, 동생은 똑같이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회개하고 자신의 생활을 구주의 가르침에 부합하도록 변화시켰으며 문자 그대로 속죄의 힘을 통해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께 속죄가 일으키는 기적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저는 치유하는 그 힘을 동생의 삶에서 보았고 저의 삶에서도 느꼈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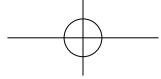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니다. 치유하고 대속하는 속죄의 힘은 우리 각자에게 언제나 적용됩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며 영혼을 치유하는 분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너희는 이제 내게로 돌아와 너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내가 너희를 고치게 하지 아니하려느냐?”<sup>21</sup>라는 구주의 초대에 응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누가복음 15:17.
2. 교리와 성약 58:42~43.
3. 니파이후서 2:25~26 참조.
4. 엘마서 34:14 참조.
5. 엘마서 42:15.
6. 엘마서 34:11 참조.
7. 엘마서 34:10 참조.
8. 엘마서 22:14 참조.
9. 모사이야서 15:7.
10. 모사이야서 14:10.
11. 모사이야서 3:7.
12. 엘마서 7:11.
13. 모사이야서 14:4.
14.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 2쪽.
15. 교리와 성약 18:12.
16. 교리와 성약 19:15~18.
17. 제3니파이 9:13.
18. 교리와 성약 88:74.
19. 교리와 성약 45:4~5.
20. 니파이후서 2:27.
21. 제3니파이 9:13.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열방을 향한 기치

연사가 영으로 가르치고 여러분이 영으로 듣는다면, 저희 중 누군가는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대해 말씀하게 됩니다.]

**노**래 한 소절 한 소절과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제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저 또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직 나무를 떠나기 전이었던 1846년 겨울, 브리검 영 회장님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 나타난 한 천사는 어느 서부 지역에 있는 옥수수 모양으로 생긴 언덕 위에 서서 계곡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약 1년 반 후, 영 회장님은 시현으로 본 그 산비탈 언덕을 실제로 보게 되었는데, 바로 지금 우리가 모인 이곳이었습니다.

이 단상에서도 종종 소개된 이야기입니다만, 브리검 형제님은 몇몇 형제를 그 언덕 꼭대기로 데려가서 그곳을 이 현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종교적으로 커다란 의미가 있는 이름인 “엔사인 피크”라고 선포 하셨습니다. 2,5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도 이 후기에 “여호와와 그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 [그곳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리라]”라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십이사도 형제들은 그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이사야가 한 예언을 부분적으로 성취하는 순간임을 느꼈고, 한 깃발을 세워 그곳이 문자 그대로 “열방을 향한 기치”임을 표시하고자 했습니다. 브리검 형제님은 윌라드 리처즈 장로님이 들고 온 지팡이 위에 허버 시 킴볼 장로님이 가져온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 그 자리에서 깃발을 만들어

꽃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계곡과 주변 산들은 후기에 주님의 말씀이 나오리라고 예언된 바로 그곳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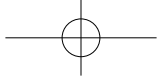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연차 대회와 반 연차 대회는 브리검 영 형제님께서 오래 전에 세상에 선포하신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저는 어제와 오늘 이곳에서 진행된 일들이 “보라 시온 기 날린다.”<sup>2</sup>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시온의 깃발이 나부끼는 또 다른 증거임을 간증드립니다. 깃발(일반적으로 표준을 뜻하는 standard는 깃발이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음-울긴이)이라는 낱말에 이중으로 담긴 의미는 분명히 의도된 것입니다. 이 연차 대회 말씀이 실리는 영문 잡지가 단순히 “엔사인”(영어 ensign은 기 또는 깃발이라는 뜻-울긴이)이라 이름 붙여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대회를 마칠 시간이 다가오는 지금, 저는 여러분이 이 대회를 마친 후 대회에서 들은 말씀뿐 아니라 연차 대회라는 특별한 행사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도록 요청합니다. 다시 말해서 후기 성도인 우리는 이 대회에 어떤 의미를 두는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대회에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기를 바라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며, 또한 여러분이 들은 권고가 성신께서 주시는 지시에 따라 주어

진, 이 시대를 위한 “주의 뜻이[며] …… 주의 말씀이[며] …… 주의 음성이[며] ……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sup>3</sup>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증거합니다.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셔야 합니다만) 여러분께서 이미 아시듯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 연단에서 말하는 분들은 어떤 주제를 미리 지명받지 않습니다. 각자 금식하고 기도하며 찾고 연구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바람이나 자신이 전하고 싶은 것은 뒤로 하고 이 시기에, 이 대회에서 연사가 전하도록 주님께서 바라시는 주제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말씀을 고치고 또 고칩니다. 이번 연차 대회를 통해 지난 열 시간 동안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 주신 모든 분들은 그 속삭임을 따르려고 애쓰셨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노심초사하며 자신의 생각과 표현을 인도해 주도록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지시를 구했습니다. 브리검 영이 이곳에서 서 있는 천사를 보았듯이 저 역시 이곳에서 서 있는 천사들을 봅니다.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하시는 장로님들과 자매님들이, 제 표현을 불편하게 여기실지 모르겠으나, 제 눈에는 천사로 보입니다. 그분들은 필멸의 육신을 지니고서 천사의 소식을 전하는 사자들이며, 여러분과 저와 마찬가지로 건강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가정 안에서 생기는 난관들을 겪으면서도 자신이 받은 부름을 위해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헌납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의무를 수행합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신 다양한 말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받는 지시 외에는 말씀 주제에 대한 아무런 사전 조율이 없었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다채로운 말씀이 전해지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회중 대부분은 이곳에 계시든 다른 곳에 계시든 교회 회원들입니다. 또한 경이롭고 새로운 통신 수단을 통해서 이 대



회를 시청하는 비회원의 비율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 회원들만을 감안하더라도,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성인, 중년과 노년에 이르신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 계신 가족과 부모와 자녀들에게,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과 자녀가 없는 분들, 또는 집을 멀리 떠나 계신 분들께도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대회가 열리는 동안 우리는 항상 믿음, 소망, 사랑<sup>4</sup>과 같은 영원한 원리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sup>5</sup>에 대해 강조하며, 그 시대에 화두가 되는 특정한 도덕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경전에서 “이 세대에게 회개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sup>6</sup>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그와 동시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침을 받으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 주제가 무엇이든, 또 어떤 형식을 택하든 간에 이 대회 말씀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 선포하며”<sup>7</sup>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sup>8</sup>을 전파합니다. 이같이 다

양한 말씀이 전해지지만 사람들은 각기 자신에게 축복이 될 무언가를 듣고 얻어갑니다. 오래 전에 해롤드 비 리 회장님께서 하신 다음 말씀이 그 점을 아주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분명 고통 받는 사람에게는 위안을, 안락하고 나태한 이에게는 고통을 안겨 줍니다.”<sup>9</sup>

연차 대회에서 말씀을 할 때면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관대하면서도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가르침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가르침 받은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수양을 요구한다는 점을 기억하게 됩니다. 가장 널리 잘 알려진 설교에서 주님께서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는 너그러운 축복을 선포하셨으며, 우리도 이를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sup>10</sup> 진복팔단의 설교는 참으로 훌륭한 교훈을 담고 있으면서도 위안을 주는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구주께서는 그 말씀에 이어지는 설교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가 걸어야 하는 길은 점점 좁아지는 길임을 알려 주셨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sup>11</sup>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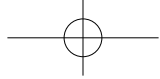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이어서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sup>12</sup>

분명히 제자가 걷는 길은 위로 올라갈수록 더욱 험악해지며, 이는 크리스토퍼슨 장로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설교의 정점, 즉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sup>13</sup>라는 권고에 이르게 됩니다. 처음 접어들었던 길에서 하신 부드러운 말씀은 참된 제자가 가는 길의 꼭대기에 이를 때쯤이면 몹시 힘들고 정말 부담스러워집니다. 예수님이 죄의 결과를 묻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믿는 사람은 틀림없이 경전을 주의 깊게 읽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관한 한 교회는 편리한 대로 음식을 골라가는 패스트푸드 음식점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은 그분께서 만드신 길을 따를 때에만 받을 수 있다는 고백을 할 것입니다.<sup>14</sup>

저희는 연차 대회 메시지에서 엄격함과 위안 두 가지를 모두 적절하게 느끼도록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때로 다루기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외설물을 보거나 결혼을 회피하거나 부적절한 성관계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모든 분들이 안식일을 여기거나 거짓 증언을 하고, 배우자를 학대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이 대회를 듣는 청중들이 대부분 그런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압니다만, 혹



해당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어디에 있던 그들에게 경고를 하라는 엄중한 명령을 받았습니 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면, 예를 들어, 집안을 장악한 어린 장난꾸러기들 때문에 혼란을 겪으면서도 가정의 밤을 하려 애쓰고 계시다면 연사가 가정의 밤을 주제로 말씀할 때 그 부분은 잘 하고 있다고 여기시고 대신 여러분이 부족한 다른 주제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연사가 영으로 가르치고 여러분이 영으로 듣는다면, 저희 중 누군가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다루며, 개인적으로 예언과 같은 메시지를 바로 여러분에게 전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연차 대회에서 연사들은 간증을 전합니다. 이후에도 이 연단에서는 같은 간증이 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중 누군가의 입을 빌어 분명 그분의 뜻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보내어 증언하게 하며 백성에게 경고하게 하였노니<sup>15</sup>

[그리고] 너희 증언 이후에 지진의 증언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이 있어 ..... 천둥[과] ..... 번개[와], 폭풍우[와] 그 경계를 넘어 밀어닥치는 파도 소리의 증언이 임하느니라. ....

또 천사들이 .....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의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sup>16</sup>

이제 이 연단에 서는 필멸의 천사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팔”을 불니다. 이 마지막 날에 자연이 사랑과 경고의 음성으로 증거하듯이, 그분들이 전하는 모든 말씀은 사랑이 담긴 간증이자 경고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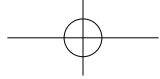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이제 잠시 후면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서 연단에 올라오셔서 폐회를 선언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선임 사도이자 선지자이신 이 사랑스러운 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급한 책임들과 여러분이 이 대회에서 들으셨던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선지자의 삶이란 결코 순탄치 않으며 몬슨 회장님의 삶 또한 그러합니다. 그분은 어제 저녁 신권 모임에서 그 점에 대해 언급 하셨습니다. 회장님이 서른여섯에 사도로 부름을 받으셨을 때, 그분의 자녀들은 각각 열두 살, 아홉 살, 네 살이었습니다. 몬슨 자매님과 자녀들은 남편과 아버지를 교회에 바쳤으며, 이제 그분이 그렇게 부름을 수행하신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질병과 힘든 일 등 모든 사람이 지상 생활에서 겪는 맴고 쓴 경험들을 참아 내셨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어려움들은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몬슨 회장님은 그 모든 와중에서도 늘 쾌활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그분을 낙담시키지 못합니다. 회장님은 특별한 신앙과 비범한 활력이 있는

분입니다.

회장님, 이곳 안팎에 있는 모든 회원들과 함께 말씀드리건대 우리는 회장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회장님이 보여 주신 헌신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됩니다. 회장님의 지도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직분에 있는 나머지 열네 명과 이 단상에 선 분들, 회중 속에 앉아 계신 분들, 또 세상 도처에 함께 모인 수많은 분들이 회장님을 사랑하고 지지하며, 회장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 회장님의 짐을 덜어 드릴 것입니다. 회장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치를 온 세계에 흔들도록 창세 이전부터 부름받은 천사 같은 사자입니다. 회장님은 그 일을 참으로 훌륭하게 해내고 계십니다. 저는 선포된 복음과 그것이 전하는 구원, 그리고 복음을 주신 주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원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이사야 2:2; 11:12.
2. “동트니 날이 밝는다”, 찬송가, 2장.
3. 교리와 성약 68:4.
4. 고린도전서 13:13 참조.
5. 고린도전서 1:23 참조.
6. 교리와 성약 6:9; 11:9.
7. 이사야 61:1.
8. 에베소서 3:8.
9. Harold B. Lee, “The Message”, *New Era*, 1971년 1월호, 6쪽 참조.
10. 마태복음 5:3~12 참조.
11. 마태복음 5:21~22; 또한 제3니파이 12:22 참조.
12. 마태복음 5:27~28.
13. 마태복음 5:48.
14. 로마서 14:11; 모사이야서 27:31 참조.
15. 교리와 성약 88:81.
16. 교리와 성약 88:89~90, 92.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헤어지며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겻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의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 그분의 속죄 희생에 대해 매일 감사를 드립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대회를 마치면서 제 가슴은 감동으로 벅차 오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을 풍성하게 느꼈습니다. 기도를 해 주신 분들을 포함하여 세계 여러 곳에서 대회에 참석하신 교회의 모든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오래도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말씀이 *Ensign*(엔사인)과 *리아호나*에 실려서 발행되면, 그것을 읽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각 모임에서 들은 훌륭한 음악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꺼이 자신의 재능을 우리를 위해 활용하여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영감을 준 분들께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손을 들어 이 대회에서 새로운 직책에 부름 받은 형제님들을 지지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그분들과 구주의 대업에서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그 점을 그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헌신적인 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과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께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그분들은 지혜와 이해력이 뛰어납니다. 그분들이 하는 봉사는 값을 따질 수 없습니다. 저는 십이사도 정원회에 속한 형제님들을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그분들은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하시며, 주님의 사업에 완전히 헌신하십니다. 칠십인 정원회와 감리 감독단 형제님들께도 저의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 속으로 우리를 헤아리신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계명을 힘써 지키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이나 교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회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손을 내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는 국가에서 훌륭한 국민이 되고, 거주하는 지역 사회에서 좋은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직과 성실의 본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모든 총관리 역원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주님의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으로 돌아가실 때, 안전하게 귀가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헤어지기 앞서, 저는 구주와 우리를 위한 그분의 위대한 속죄 희생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3주만 있으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부활절을 기릴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겻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의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우리를 위해 치르신 그분의 속죄 희생에 대해 매일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돌이킬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구하려고 만물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필멸의 생활 너머에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담의 타락에서 건져 내셨습니다.

제 영혼 깊은 곳까지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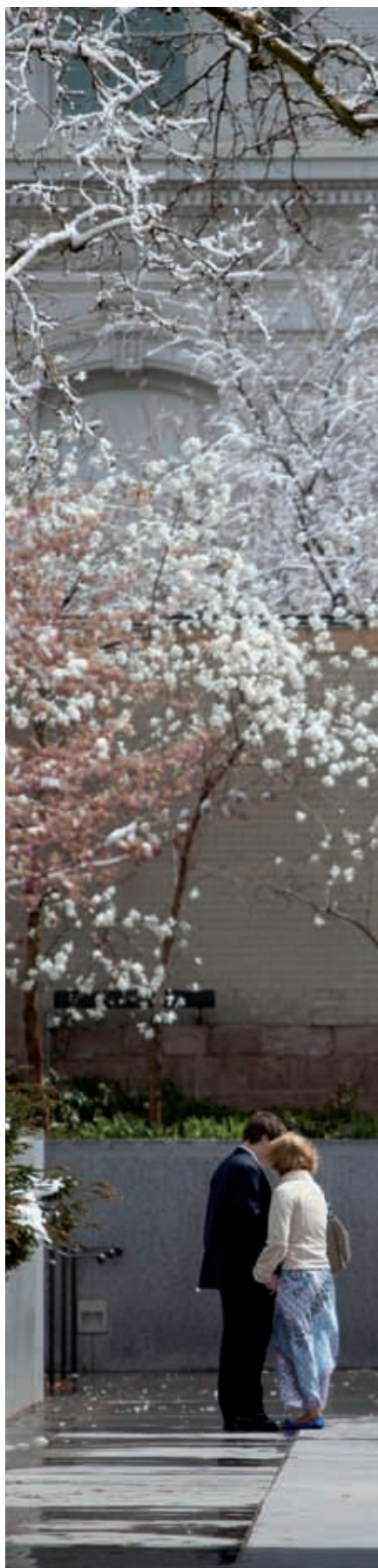
이제 말씀을 마치며, 다가오는 부활절에 대한 저의 느낌이 잘 묘사되어 있는 에밀리 해리스의 감동적인 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때 그분을 감쌌던 세마포만이  
그 자리에 가만히 남겨져 있네  
새로 짠 듯 희고 깨끗한 모습으로  
무덤 문은 열린 채  
들은 저만치 굴러져 있다  
그분을 찬송하는 천사들 노랫소리  
들리는 듯 하여라  
세마포로도 그분을 잡아 둘 수 없고  
돌로도 그분을 잡아 둘 수 없으니  
텅 빈 석회 무덤에 울리는 천사의 목소리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한때 그분을 감쌌던 세마포만이  
그 자리에 가만히 남겨져 있네  
새로 짠 듯 희고 깨끗한 모습으로  
오, 할렐루야, 세마포만 남겨져 있다<sup>1</sup>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Emily Harris, "Empty Linen", *New Era*, 2011년 4월 호, 49쪽.



앤 엠 엡  
본부 청녀 회장단 제2보좌

## “나는 정직과 진실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생으로 가는 길이 세상 풍조와 상반되고, 힘들고, 따분할지라도, 우리의 신념에 충실히 생활한다면 우리는 그 길 위에 안전하게 머물 것입니다.

**사** 랑하는 청녀 여러분, 오늘 저녁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큰 특권이자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참으로 놀랍고 감동적입니다.

2011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는 신앙개조 제13조입니다. 저는 올해 청남 청녀들이 청소년 모임과 성찬식에 참석하면서 신앙개조 제13조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는 대화를 들어 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개조 제13조는 신앙개조 마지막 조이고, 가장 길고, 가장 외우기 힘들며, 감독님이 암송해 보라고 시키지 않기를 바라는 조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은 신앙개조 제13조에 훨씬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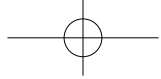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신앙개조 제13조는 의로운 기독교인의 삶에 지침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신앙개조 제13조에 나오는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기로 결심한다면 세상이 어떤 모습이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민에게의 선행을 믿는다. 진실로 우리는 바울의 훈계를 따른다 할 수 있으니 - 우리는 모든 것을 믿

으며,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며,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견디어 왔으니,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기를 바란다.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않는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교회 회장으로로서 맞는 첫 번째 연차 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에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나오는 바울의 권고를 인용하셨습니다. 이는 신앙개조 제13조에 있는 여러 원리의 토대가 되었던 구절입니다. 몬슨 회장은 우리가 사는 험난한 시기를 통감하며 격려하셨습니다. 그분은 “때로는 위험하기도 한 현재의 이 여정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고 올바른 길로 붙들어주는 사도 바울의…… 권고를 따릅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저는 확실하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고 올바른 길로 붙들어[줄]” 신앙개조 제13조에 나오는 두 가지 밀접한 원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저는 정직과 진실이라는 중요한 원리에 대해 강한 간증과 신념이 있습니다.

먼저, “[저]는 정직[을]…… 믿[습니]



필리핀 문탈반

다.” 정직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에 충실함 책에서는 “정직하다는 것은 항상 성실하고 충실하고 거짓이 없다는 뜻”<sup>2</sup>이라고 가르칩니다. 정직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며<sup>3</sup> “완전한 정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합니다].”<sup>4</sup>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님은 우리가 기꺼이, 그리고 철저하게 정직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헌터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집회소 현관과 입구에는 이런 제목을 내건 포스터들이 걸렸습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하십시오.’ 여러 포스터들 중 대부분은 삶에서 일어나는 사소하고 평범한 일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직이라는 원리는 바로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큰 일에 부정직하면 도덕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인정하지만, 작은 일에 부정직한 것은 눈감아줄 만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 달러가 걸려 있던 10 센트가 걸려 있던 부정직한 것은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 대상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 부정직한 정도가 달라집니까?”

그리고 헌터 회장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성신의 영을 동반하려면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이웃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sup>5</sup>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정직하면 평안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을 얻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인간 관계도 풍요로워집니다. 무엇보다도 정직한 생활에서 오는 가

장 큰 축복은 성신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정직하게 생활하겠다고 굳게 결심하도록 저에게 동기를 부여한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남자가 이웃집 밭에 옥수수를 훔치러 갔습니다. 남자는 어린 아들을 데려가서 울타리에 앉히고는 망을 보며 누가 오면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커다란 자루를 들고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옥수수를 따기 전에 이쪽저쪽 사방을 둘러본 뒤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남자가 자루를 채우려는 찰나,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한 군데를 빠뜨리고 안 보셨어요! …… 위쪽도 보셔야죠.’”<sup>6</sup>

우리 모두는 부정직을 범하고픈 유혹을 경험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아무도 모를 거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시며 마침내는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식은 제가 “[나는 정직[을] …… 믿는다.”라는 결의에 따라 꾸준히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앙개조 제13조에서 가르치는 두 번째 원리는 “나는 …… 진실을 …… 믿는다.”입니다. 사전에서는 진실이란 단어를 “굳건하고”, “충실하고”, “정확하며”, “탈선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합니다.<sup>7</sup>

저는 샬럿 브론테가 써서 1847년에 출판된 영국 고전인 제인 에어를 좋아합니다. 주인공인 제인 에어는 지독하게 가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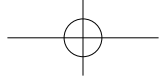
한 십대 고아이지만 진실하게 산다는 말의 의미를 모범으로 보여 줍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로체스터라는 남자는 제인 에어를 사랑하지만 그녀와 결혼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인에게 결혼하지 말고 그냥 함께 살자고 애원합니다. 제인도 로체스터를 사랑하기에 잠시 마음이 흔들립니다. 제인은 마음속으로 ‘누가 나를 염려하겠어? 나의 행동으로 피해를 볼 사람이 있거나 하겠어?’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인의 양심은 곧바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나를 염려해. 더 외로워지고 쓸쓸해지고 외톨이가 될수록 나는 나 자신을 더욱 존중할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킬 거야. …… 율법과 원칙은 유혹이 없는 시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과 같은 때를 위해 있는 거야. …… 내 편리에 따라 원칙을 깨트린다면 그런 원칙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 원칙들은 가치가 있어. 나는 늘 그렇게 믿어 왔지. …… 지금 이 순간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한 것들이야. 나는 그러한 결의를 공고히 할 거야.’”<sup>8</sup>

유혹이 엄습한 치명적 순간에 제인은 신념을 지켰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신뢰했으며, 유혹에 저항하면서 ‘결의를 공고히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생으로 가는 길이 세상 풍조와 상반되고 힘들고 따분할지라도 우리의 신념에 충실히 생활한다면, 우리는 그 길 위에 안전하게 머물 것입니다. 저는 한 청년이 그린 이 그림을 무척 좋아하는데, 이 소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리고픈 자신의 소망을 기억하기 위해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충실하게 생활하면 다른 사람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자신의 신념에 충실하기로 결심한 한 청년이 다른 청년의 삶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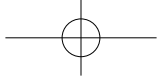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영감에 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년 전, 크리스티와 젠은 텍사스 주 허스트에서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며 함께 합창 수업을 들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잘 알지는 못했지만, 젠은 어느 날 크리스티가 친구들과 함께 종교와 각자가 믿는 다양한 신념 그리고 좋아하는 성경 일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크리스티와 다시 연락이 닿자 젠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너와 네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내게는 너무나 생소했지. 나는 그게 속상했어. 그래서 부모님께 성탄절 선물로 성경을 사 달라고 했지. 그렇게 나는 성경을 받았고 그 책을 읽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종교를 탐구하고 참된 교회를 찾는 여정이 시작됐단다. …… 그로부터 12년이 흘렀지. 그 기간 동안 몇몇 교회를 가 보았고,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늘 뭔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 어느 날 밤, 나는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 주시기를 간구했어. 그날 밤, 나는 네 꿈을 꾸었어. 근데 우린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난 그냥 이상한 꿈이라고 여길 뿐, 별 의미를 두지 않았지.

그런데 그 후로 3일 동안 계속 네 꿈을 꾸었다. 그래서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았어. 그러다 네가 몰몬이었다는 게 기억나더라. 그래서 몰몬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았지. 제일 처음 눈에 띈 것은 지혜의 말씀이었어. 그때는 폐암으로 어머니를 잃은 지 2년째 되던 해였어. 어머니는 생전에 담배를 피웠거든. 나는 지혜의 말씀을 읽고 크게 공감했어. 그 후, 아버지 집을 찾아갔다가 거실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 주시기를 간구했지. 그 직후, 텔레비전에서 방송되는 교회 광고가 눈에 들어왔어. 거기에 나오는 전화번호를 받아 적고 그날 밤으로 전화를 걸었어. 3일 후에 선교사들이 전화를 걸어서 우리 집에 몰몬경을 갖다 주어도 되겠냐고 묻더라고. 그러라고 했지. 그로부터 3개월 반 뒤에 나는 침례를 받았어. 2년 후에는 교회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달라스 성전에서 결혼했어. 우린 이제 사랑스러운 두 아이를 둔 부모가 되었다.

크리스티, 너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고등학교 시절에 너는 정말 훌륭



메리 앤 쿡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

한 모범을 보여 주었어. 친절하고 정결한 생활을 했지. 선교사들이 내게 복음을 가르치고 침례를 권유했지만 사실 너는 나를 도운 세 번째 선교사야. 모범으로 씨앗을 심어 주고 내 인생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 주었어. 이제 내겐 영원한 가족이 생겼어. 우리 아이들은 충만한 복음 안에서 성장할 거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 네가 내 삶에 그런 축복이 임하도록 도와준 거야.”

제가 크리스티에게 연락을 했을 때 크리스티는 이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우리가 신앙개조 제13조에 나오는 성품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표준대로 생활하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려고 노력한다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 암몬이 엘마서 26장 3절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내려진 축복이니, 곧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이 큰 일을 이루게 된 것이라.’라고 말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각자가 “나는 정직과 진실을 믿는다.”라고 말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매일 그 약속에 따라 생활하겠다고 결심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힘과 사랑과 축복으로 강화되어 이 세상으로 올 때 받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주

1. 토마스 에스 문슨, “과거를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갑”,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90쪽.
2. *신앙에 충실함*(2004), 158쪽.
3. *출애굽기* 20:15~16 참조.
4. *복음 원리*(2009), 179쪽.
5. Howard W. Hunter, “Basic Concepts of Honesty,” *New Era*, July 2003, 36, Feb. 1978, 4, 5.
6. William J. Scott, “Forgot to Look Up,” *Scott’s Monthly Magazine*, Dec. 1867, vol. 4, 953.
7.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11th ed.(2003), “true” 참조.
8. Charlotte Bronte, Bronte, *Jane Eyre*, Penguin Classics [2006], 365(2003), 356.

# “그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친절하렵니다.”

인자한 행동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실, 와드와 학교가 단합하게 [됩니다.]

몇 주 전 저희 와드에서 월계반 반원의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신 있게 가르치고 간증하는 그 청년에게서 감동을 받았는데, 그 청년은 이런 말로 말씀을 마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삶의 중심에 두려 했을 때 제 삶은 더욱더 훌륭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고 기쁨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먼발치에서 이 청년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청년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늘 웃음을 지으며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다른 청소년들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함께 기뻐해 주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최근에 장미반의 두 자매가 그 청년이 한 일을 들려주었는데, 그 청년은 보려는 영화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한]”<sup>1</sup> 내용이 아님을 알고 영화 표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사랑이 많고 친절하고 순종적입니다.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고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아온 이 청년이 어떻게 항상 그렇게 행복하고 상냥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둔다.”라고 간증했을 때 비로소 그 답을 얻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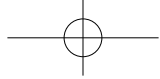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인에게의 선행을 믿는다.” 신앙개조 제13조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같은 아름다운 성품들은 우리가 성전에서 축복을 받고 영생을 준비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인자’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려 합니다. 인자는 정감이 가는 말이지만 자주 듣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것은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로 “누군가의 안녕을 비는 것”<sup>2</sup>을 뜻합니다. 인자란 친절하게 대하고 호의를 베풀고 자애롭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은 초등학교 시절에 이 노래를 외우면서 인자가 무슨 뜻인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려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친절하렵니다’<sup>3</sup>

구주께서는 인자한 삶에 대해 가르치셨으며, 또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두에게 봉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둔다면 우리는 좀 더 쉽게 인자한 성품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기르기 위해 우리는 구주에 대해 배우고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sup>4</sup>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0장에서 율법교사가 구주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묻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자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율법교사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무척 재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북쪽에 이웃한 사마리아인을 끔찍이도 싫어하여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도 사마리아를 지나가기보다는 요단 계곡 쪽으로 돌아

갈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며 율법교사의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sup>5</sup>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상처를 입고 쓰러진 사람이 같은 민족이었으나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이 다른 민족임에도 개의치 않고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인 인자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모든 사람이 우리 이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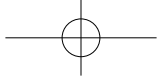
최근에 감독단 보좌로 봉사하는 한 형제님이 우리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형제님은 회중을 바라보다가 큼직한 상자를 안은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상자 속에는 색깔이 여러 가지인 크레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형제님은 와드에 있는 많은 회원들을 보면서 그들이 크레용처럼 아주 비슷하면서도 제각기 다르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형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색깔을 띤 채 와드와 세상에 옵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신만의 강점과 약점, 개인적인 바람과 꿈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회원은 영적으로 단합하여 하나의 색상환(색을 스펙트럼 순서로 둥그렇게 배열한 고리 모양 도표-웁킨이)으로 어우러집니다.

단합은 영적인 특성입니다. 단합은 가족 안에서 느끼는 평화롭고 목표지향적인 감미로운 느낌입니다. …… 단합은 자신을 위해 그러듯 다른 사람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바라는 일입니다. …… 단합은 누구도 자신을 해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sup>6</sup>

우리는 인자함, 즉 친절함의 행동으로 그와 같은 단합을 이루고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을 나눕니다.

여러분은 외로움을 느껴 본 적이 있습니까? 잿빛 세상에서 사는, 외롭게 사는 사람들을 아십니까? 청녀 여러분, 저는 여



러분이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로 다른 사람의 삶을 물들이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바로 웃음과 친절한 말과 격려하는 글을 통해서 말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교회 청년들에게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또래 친구들을 비롯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중한 청년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을 자제할 용기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사랑받는 귀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도록 해 줄 용기를 내도록 부탁드립니다.”<sup>7</sup>

우리는 인자한 사람이 됨으로써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범을 따르고 한 사람의 “세상을 변화시킬”<sup>8</sup>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행동을 적어도 한 가지 이상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평소 어울리지 않는 친구에게 다가가거나 수줍음을 이겨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불친절한 사람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용감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기 어려운 일을 시도하고, 해낸다면 무척 행복한 기분이 들고 친절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 시작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인자한 행동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실, 와드와 학교가 단합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친절하게 행동하십시오.”

구주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을 뿐

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친절한 봉사로 나이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이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어린 시절부터 연로한 분들을 늘 각별하게 여기셨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잠시 방문을 하거나 항상 웃어 보이거나 노쇠하고 주름진 손을 꼭 잡아드리는 것과 같은 일이 무척 커다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단순하지만 자애로운 그런 행동은 때로 길고 고독하고 우중충한 날로 이루어진 삶을 싱그럽게 물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조부모님과 연로한 분들께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교회에 가서 주위를 둘러보고 여러분의 색깔로 물들일 만한 분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드리고 짧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언제든 그분들을 도와드릴 자세를 취하십시오. 문을 열어 드리거나, 집안일 혹은 정원 손질을 도와드리겠다고 해 보시겠습니까? 젊은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들이 간단한 일이지만 연로하신 분들께는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친절하십시오.”

때때로 인자함을 보이기 가장 어려운 곳은 가정 안입니다. 강한 가족이 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쾌활하게 생활하고 도움을 주며,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을 가지십시오. 가정에서의 많은 문제는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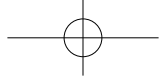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구성원들이 이기적이거나 불친절하게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또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필요 사항에 마음 쓰십시오. 놀려 대거나 싸우거나 다투기보다는 중재자가 되려고 노력하십시오.”<sup>9</sup> “그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친절하십시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안고 축복하셨습니다.<sup>10</sup> 여러분은 구주와 같이 친절을 베풀어 여러분 가정에 있는 아이들뿐 아니라 모든 어린이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모범이 어린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은 미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지역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부속 탁아소를 운영하는 친구에게서 짙막한 편지를 받았습니. 그 학교는 교회 청년 청년 몇몇이 다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친구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복도를 걸으면서 사물함 안쪽 문 여리 곳에서 예수님이나 성전 사진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볼 때면 기분이 좋아져. 한 아이가 열려 있는 한 [청녀의] 사물함 안쪽 문에 예수님 그림이 있는 것을 보고서 ‘저것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학교에 계시요!’ 하고 말했는데, 그 청녀는 감동해서 눈물을 머금은 채 몸을 숙여 아이를 껴안아 주었지. 나는 그 청녀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어 줘서 고맙다고 말해 주었어. 주변에서 들려오는 온갖 세상의 잡음과 소음으로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하지만 진리와 의를 수호하고 자신의 삶에 영을 불려들이기 위해 자신의 도리를 다하려 노력하는 수많은 청소년이 있다는 사실에 힘이 나. 우리 교회에는 정말 훌륭한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

저 역시 그렇게 느낍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며 “주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sup>11</sup>

인자한 삶을 사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는 다르다고 여겨지는 사람



일레인 에스 돌튼  
본부 청녀 회장

을 보듬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친구와 연로한 분들과 가족과 어린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독한 사람, 어려움 속에서 고통 받는 이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인자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구주의 빛을 알리고 있습니다.”<sup>12</sup> “내가 먼저 친절하렵니다.” 이 말을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 하나님께의 선지자이시며, 우리가 배울 만한, 전형적으로 인자한 삶을 사신 분임을 압니다. 선지자를 따르십시오. 그분이 보이신 모범에서 배우고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며, 조셉 스미스를 통해 신권이 지상에 회복되었음을 압니다.

저는 구주께서 살아 계시며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서로 사랑하고 봉사함으로써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sup>13</sup>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 인자[를] …… 믿[기]”<sup>14</sup>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신앙개조 제13조 참조.
2. Oxford English Dictionary Online, 2nd ed.(1989), “benevolent”, oed.com 참조.
3. “내가 먼저 친절하게 행동하렵니다.”, *어린이 노래 책*, 83쪽.
4. 2011년 청소년의 힘 미디어, “덕의 수호자”
5. 누가복음 10:25, 27, 29, 30, 33~35.
6. Jerry Earl Johnston, “The Unity in a Ward’s Uniqueness”, *Mormon Times*, 9 February 2011, M1, M12.
7. 토마스 에스 몬슨, “용기를 가지십시오”,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125쪽.
8. “덕의 수호자”
9.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01), 10쪽.
10. 마가복음 10:16 참조.
11. “덕의 수호자”
12. “덕의 수호자”
13. “덕의 수호자”
14. 신앙개조 제13조.

# 정결을 지키는 수호자

지금 준비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모든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십시오.

**때**로 어떤 느낌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성한 정체성과 영원한 책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이 임하여 증거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고귀한 딸들입니다.

저는 지난 달에 한 젊은 여성의 성전 결혼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그 여성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알아 왔습니다. 인봉실에 앉아서 성전 불빛에 반짝이는 아름다운 샹들리에를 보며 그녀를 처음 안아 보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입힌 하얀 드레스 차림을 한 그 아기를 저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 번 흰색 드레스를 입고 [인봉실] 문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시게 빛나고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인봉실에 들어서는 그녀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모든 청녀가 그 순간을 마음으로 꿈꾸었으면 하는 소망이 샘솟았습니다. 승영이라는 축복을 누릴 준비를 하기 위해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며 성전 의식을 받기에 늘 합당하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온 마음으로 염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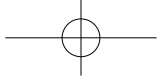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성스러운 제단에 무릎을 꿇은 이 부부는 필멸의 여정 동안 그들에게 축복과 힘과 도움이 될,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멈춰서고 온 하늘이 기뻐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막 결

혼 성약을 맺은 이 부부는 인봉실에 걸린 커다란 거울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신랑은 무엇이 보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보다 앞서 살았던 모든 사람이 보입니다.” 부부는 다시 반대편에 있는 큰 거울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신부는 눈에 눈물을 머금은 채 “우리 이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이 보여요.” 하고 말했습니다. 신부는 미래에 생길 가족인 후손을 본 것입니다. 순결하고 정결한 삶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신부가 그 순간에 다시 한 번 깨달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잘 준비된 부부가 함께 성전 제단에 무릎을 꿇은 모습만큼 아름다운 광경은 없습니다.

청녀 시절에 여러분은 성전에 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딸에게 허락된 축복들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행복을 이루려면 “유택한 길을 걸으[며]”<sup>1</sup> 여러분이 “맺은 성약에 충실”<sup>2</sup>해야 합니다.

청녀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도덕적으로 오염되고 악에 관대하며 여성을 착취하고 여성이 맡은 역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가족,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수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결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결은 무엇이고 수호자란 무엇입니까? “정결은 높은 도덕 표준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정결에는 순결과 [도덕적] 순수함이 포함[됩니다.]<sup>3</sup> 그렇다면 수호자란 무엇일까요? 수호자는 지키고 보호하고 방어하는 사람입니다.<sup>4</sup> 따라서 여러분은 정결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도덕적 순수함을 지키고 보호하고 방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은 성스럽고 고귀하며 여러분이 결혼할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결은 성신과 함께하고 인도를 받는 데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건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세상에서 훌륭한 삶을 살아가려면 그런 인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정결해야 합니다. 또한 구주 앞에 서기에 합당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정결해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은 지금 그런 때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 발전 기록부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표준은 중요합니다. 그 두 책에 나오는 원리대로 생활한다면 여러분은 강해져서 “왕국에 적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작년 여름, 유타 주 앨파인에 사는 청년들은 “왕국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들은 유타 드레이퍼 성전에서 솔트레이크 성전까지 총 35킬로미터를 걸으며 성전에 초점을 맞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이동 거리는 개척자 중 한 사람인 존 로우 모일이 걸었던 거리와 같습니다.

존 로우 모일 형제님은 선지자 브리검 영으로부터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일하라는 부름을 받은 석수였습니다. 모일 형제님은 매주 35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성전으로 갔습니다. 형제님이 맡은 임무 중 하나는 솔트레이크 성전 동편에 “주님께 거룩함”이란 글귀를 새기는 일이었습니다. 일은 쉽지 않았고 극복해야 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기르는 소가 형제님의 다리를 걷어찼는데, 그 상처가 낫지 않아서 형제님은 결국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선지자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성전에서 맡은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그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제님은 나무를 깎아 다리를 만들었으며 수 주 후에는 맡은 일을 하고자 다시 성전을 향해 35킬로미터를 걸으셨습니다.<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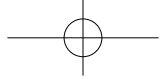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시더 힐스 제6와드 청년들은 조상을 위해,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영감을 준 누군가를 위해 동일한 거리를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청년들은 매주 상호 향상 모임 시간에 훈련을 했으며, 걷는 동안에도 성전에 관해 배우고 느끼는 점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청년들은 이른 아침에 기도를 드리고서 성전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출발하는 청년들에게서 느껴지는 자신감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잘 준비

했고, 자신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청년들은 자신의 목표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내디딘 한 걸음 한 걸음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물문경을 읽으며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길에는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도 있었습니다만 청년들은 계속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몇몇은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고 몇몇은 무릎이 아팠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전으로 향하는 길에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많은 요소와 아픔, 여러 방해물이 있지만 여러분도 굳은 결의로 계속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청년들이 걸은 길은 청년 지도자들이 직접 계획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직접 걸어 보고 운전해 보며 가장 안전하고 가까운 경로라고 판단하여 마련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걷는 길 또한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주께서 그 길을 걸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길을 걸을 때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하실 것이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전으로 가는 여정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가족들, 그리고 보호자 역할을 하는 신권 지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청년들 모두가 안전하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청년들이 수분을 잘 보충하고 체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했습니다. 신권 지도자들은 중간 중간에 청년들이 물을 마시며 쉬 수 있도록 적당한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와 감독님과 그 외 많은 분들은 여러분이 성전으로 향하는 길을 걸을 때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조심하라고 외치고, 나아갈 길을 알려 주며, 여러분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길에서 벗어날 때 도와주실 것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몇 킬로미터를 앞두고 있을 때, 그 청년들의 오빠들과 남동생들 그리고 청년 및 친구들이 와서 결의에 찬 이 소녀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모습은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한 청년의 오빠는 양쪽 발에 큰 물집이 여러 개 잡힌 여동생을 등에 업고 성전까지 마지막 남은 길을 걸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청년들은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여 성전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청년들은 마음속으로 성전에 들어가기에 늘 합당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성전을 향해 걷은 이 일은 여러분의 인



생에 대한 은유입니다. 부모님과 신권 지도자들은 그 길에서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청년들을 지지하고 도왔습니다. 청년들은 서로를 돌보고 격려했습니다. 청년들은 청년들의 힘과 결심과 끈기에 감탄했습니다. 오빠와 남동생들은 상처를 입은 여동생과 누나를 업고 걸었습니다. 부모님들은 딸들이 성전까지 걷는 임무를 마쳤을 때 함께 기뻐했고, 그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또 다른 와드에서는 티셔츠에 와드 이름과 함께 ‘정결을 지키는 수호자’라는 말을 약어로 새겨 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성전으로 향하는 길에 머물기 위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정결하도록 수호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물몬은 물몬경에서 정조와 순결이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결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은 여러분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곧 여러분이 그 일을 결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어떤 결정은 단 한 번만 내리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항상 해야 할 일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수첩에는 지혜의 말씀 지키기, 매일 기도하기, 십일조 내기, 절대로 교회에 빠지지 않기 등과 같은 결심을 적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그 후에는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오더

라도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한 모금만 마시는 건데 어때.” 하고 말했을 때에도 저는 웃으면서 “나는 이미 열두 살 때 그러지 않기로 결심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미리 결정을 내려 두면 조금 더 쉽게 정결을 지키는 수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항상 해야 할 일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목록으로 적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대로 생활하십시오.

정결을 지키는 수호자가 된다는 것은 또한 여러분이 복장뿐 아니라 말과 행위와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에도 항상 정숙함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정결을 지키는 수호자가 된다는 것은 절대로 청년들에게 영이나 신권 권능 또는 정결을 잃게 하는 말이나 영상을 메시지로 보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이 자신의 몸은 성전이라는 것과, 결혼 전에는 성스러운 출산 능력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식을 바탕으로 순결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성스러운 능력이 있음을 압니다. 그 능력에는 영들을 지상으로 데려와 그 영원한 영이 거할 집인 육신을 얻게 하는 거룩한 책임이 뒤따릅니다. 이 능력에는 또 다른 성스러운 영혼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주보다 귀한”<sup>8</sup> 것을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충실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지금 준비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모든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십시오.

오늘 밤 이 말씀을 듣는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은 딸들에게 정숙과 정결 면에서 가장 중요한 모범이 되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고귀한 딸이며 자신의 가치는 육체적인 매력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저 없이 가르치십시오. 딸들이 여러분의 태도와 외모에서 올바르게 한결같은 모범을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알 수 있도록 생활하십시오.<sup>9</sup> 여러분도 역시 정결을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저는 지난 주에 엔사인 피크를 다시 올랐습니다. 이른 아침이었는데 그 산에서 여호와 전의 산인 솔트레이크 성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그 성전은 수정처럼 맑고 깨끗했습니다. 개척자들은 여러분과 제가 성전에서 축복을 누리고 가족과 영원히 인봉될 수 있도록 산들의 꼭대기에 오기 위해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놓았습니다. 40년에 걸쳐 희생을 감수하고 힘들게 일하면서 엘파인에서 성전까지 걸어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도 여러분처럼 믿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를 믿었고, 그 선지자가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았으며 그분들과 대화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구주를 믿고, 또한 몰몬경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척자들은 “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며,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견디어 왔으니,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기를 바란다.”<sup>10</sup>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개척자들은 많은 것을 견뎌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개조 제 13조를 믿습니다. 그 신조에 따라 살아간다면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해지고,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그날에 [믿음이] 증명되고 깨끗하며 인봉된 상태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왕국에 적합한”<sup>11</sup> 사람이 되고자 지금부터 준비하며, 힘든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청녀 여러분, 여러분은 위대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혼자가 아닙니다. 정결과 순결을 지킬 때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맺은 성약을 지킬 때 성신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을 둘러쌀 것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위대한 경주에서 혼자 달리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sup>12</sup>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합당하게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 성스러운 성약을 맺을 그날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정결을 지키는 수호자인 여러분은 그분의 거룩한 집에서 구주를 따르고 싶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살아 계심을 간증합니다. 주

#### 브라질 상파울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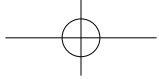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님의 무한한 속죄로 구속하는 권능이 가능해졌고, 그 덕분에 여러분 각자는 성전과 그분들 앞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인도와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훌륭한 경험이 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듯이 여러분이 “합당한 자인 연고[로]” “흰 옷을 입고…… 다니[게 될]”<sup>12</sup> 그 아름다운 날을 위해 생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교리와 성약 25:2.
2. 교리와 성약 25:13.
3. *청녀 개인 발전 기록부*[소재자, 2009년], 70쪽.
4. <http://www.thefreedictionary.com/guardian> 참조.
5. “거룩함도 더욱”, *찬송가*, 60장.
6.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들어올리십시오”,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55쪽 참조.
7. *모로나이서* 9:9.
8. 잠언 3:15.
9. 엠 리셀 벨라드, “어머니와 딸”,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18~21쪽 참조.
10. 신앙개조 제13조.
11. 토마스 에스 몬슨, 교회 교육 기구 노변의 모임, “위대한 유산”(청년 성인을 위한 교회 교육 기구 노변의 모임, 2009년 1월 11일, 5쪽), <http://lds.org/library/display/0,4945,538-1-4773-1,00.html>.
12. 요한계시록 3:4.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 살아 있는 간증

간증에는 신앙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전에 실린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우리가 받은 진리에 순종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를 빛낼 희망입니다. 오늘 저녁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깊은 간증으로 자리잡는다면 그것은 매일 매시간 여러분이 하는 선택에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사소한 선택으로 보일지도 모르는 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바라는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하는 선택으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 저희와 함께하기로 한 것은 그런 중요한 선택에 관한 한 예입니다. 백만 명이 넘는 청년과 어머니, 지도자들이 이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저희와 함께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올 만큼 충분한 신앙이 있고, 듣거나 느끼는 것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는 충분한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더 큰 행복에 이르는 길임을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의식적으로 하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아직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친구나 가족의 권유로 우리와 함께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모임에 오라고 친절히 권했기 때문에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은 구주께서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권유하시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느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 동안 주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여러분의 신앙과 간증이 굳건하고 강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말씀과 음악만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상에 세워진 주님의 참된 교회에 살아 있는 선지자들이 있으며 행복에 이르는 길은 그분의 왕국 안에 있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영이 속삭이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오늘날 지상에서 유일하게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라는 여러분의 간증은 커졌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느끼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을 통해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증거를 느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직과 정결,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구주의 성품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증거를 받으면서 주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소망도 커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간증이 강해졌으면 하고 소망합니다.

선지자 브리검 영은 오래 전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브리검 영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며, 142년 전에 선지자의 통찰력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딸들에게 엄습해오는 세상의 영향력을 내다보셨습니다. 딸들이 세상의 영향력 때문에 행복에 이르는 주님의 길에서 떨어져나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당시에는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기에 보호를 받았던 성도들이 새로 대륙 횡단 철도가 놓여 세상과 연결되면서 그런 영향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영 회장님은 여러분이 기기를 손에 쥐고 무수한 정보에 접속하고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과 통신을 하는 지금 이 시대의 경이로운 과학기술을 보지는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딸들과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살아 계시며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행복의 계획에 대한 강한 간증을 바탕으로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아셨습니다.

브리검 영이 자신의 딸들과 여러분에게 준 영감 어린 예언적 권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저녁 제가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영 회장님은 이 권고를 자신의 집 방 안에서 전하셨는데, 그곳은 제가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곳으로부터 1.6킬로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린 딸들은 진리에 대한 살아 있는 간증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sup>1</sup>

그런 후 브리검 영은 청년 협회를 설립했는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청년”이라고 부르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브리검 영이 자신의 집안 거실에서 가진 그 일요일 저녁 모임에서 선택한 그 일에서 비롯된 놀라운 결실을 오늘 저녁에



여러분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10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의 딸들은 진리에 대한 살아 있는 간증을 직접 얻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과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성벽이 되고 여러분이 걷는 길이 영생으로 이어지도록 만들, 살아 있는 간증을 얻어 이를 계속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간증을 통해 세계 곳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여러 세대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간증이 무엇인지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은 간증을 겸손하게 진리를 찾는 사람이 계시로 받는, 확신을 주는 지식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간증과 그런 계시를 전달하시는 성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성신께서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는 힘을 주실 때, 그 위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어떠한 의심도 남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sup>2</sup>

여러분도 그런 영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저녁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복음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얻었을 것입니다. 신앙개조 제13조에 나오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마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으며, 그것이 주님의 성품임을 느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주님의 선지자입니다. 그것은 제게 단순한 말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유대 땅에 있는 먼지가 이는 길들과 켈세마네 동산을 마음속으로 보았습니다. 조셉이 뉴욕에 있는 작은 숲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앞에서 했듯 무릎을 꿇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마음으로 느껴 보았습니다. 조셉이 본 것 같은, 한낮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볼 수는 없었지만 따뜻하고 놀라운 간증을 느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전체 진리 중 일부에 대해 확신을 느끼며 조금씩 간증을 얻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몰몬경을 읽고 깊이 생각할 때 이전에 읽은 성구가 새롭게 다가오며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성신께서 그것이 진실되다고 확증해 주실 때 여러분의 간증은 깊어지고 커질 것입니다.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경전 말씀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살아 있는 간증은 점점 자랄 것입니다.

저는 이 살아 있는 간증을 얻고 유지하는 방법은 바로 몰몬경에 있는 엘마서 32장에 가장 잘 설명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 부분을 여러 번 읽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빛을 발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곳에 나오는 가르침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영감 받은 성구에서 “작은 신앙”<sup>3</sup>과 그 신앙을 키우려는 소망으로 간증을 찾기 시작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오늘 여러분은 구주의 친절과 정직,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계명과 속죄를 통해 우리가 순결하게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감동

어린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믿는 신앙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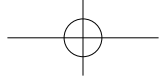
그렇게 신앙이라는 씨앗은 이미 여러분 마음에 심어졌습니다. 엘마서에 나온 약속처럼 여러분은 그 씨앗이 가슴 속에서 부풀어오르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식물과 마찬가지로 신앙도 영양분을 얻지 못하면 시들어 죽고 맙니다. 자주 기도할 때, 특히 마음에서 우리나라오는 신앙으로 기도할 때 나오는 영양분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운 진리에 따라 순종하면 간증은 계속 살아 있을 것이며 더 튼튼해질 것입니다. 계명에 순종하는 것 역시 여러분이 간증을 키우기 위해 뿌려주어야 하는 영양분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하신 다음 약속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sup>4</sup>

저는 실제로 이 말씀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배운 복음 교리 중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는 영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영생에는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영원히 함께 사는 것도 포함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 진리를 처음 들었을 때부터 마음에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가정과 가족 안에 불화가 아닌 평화가 머물도록 제가 잘 선택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인 영생을 충만하게 누리  
는 것은 이생 이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  
러나 저는 지금 이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 가족이 앞으로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낼지 어렵듯이나마 느껴 보았  
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통해 성전에서  
행해지는 인봉 권능이 실제로 효력이 있다  
는 간증이 자라고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두 딸이 조상을 위해 성전에서 침  
례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은  
그 딸아이들에게로,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찾아낸 그 조상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가족  
의 마음이 서로에게로 향할 것이라는 엘리  
야의 약속은 그렇게 저희에게 실현되었습  
니다. 그리하여 엘마서에 나오는 약속처럼  
제 신앙은 확실한 지식이 되었습니다.

저는 구주께서 지상 성역 후에 영의 세  
계로 가셨을 때 저희 조상들이 얼마나 기  
뻐했을지 어렵듯이 느껴 본 적이 있습니  
다. 교리와 성약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  
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들의 구속을 기뻐  
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아들을 사망과  
지옥의 사슬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들의 구  
속주요 구원자로 인정하더라.

그들의 얼굴은 빛났고, 주의 임재하심  
에서 나오는 광채가 그들 위에 머물렀으  
며, 그들은 그의 거룩하신 이름에 드리는  
찬양의 노래를 부르더라.”<sup>5</sup>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생이 실제한다  
는 제 간증에 따라 행했을 때 저도 그런 기  
쁨을 느꼈습니다. 그 간증은 구주께서 약  
속하신 대로 제가 행하기로 선택함으로써  
강화되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또한 순종할 것을 선택하는  
것 외에도 진리에 대한 간증을 기도로 구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물몬경에 대해 기도하라고 계명으로 가르  
치셨습니다. 그분은 선지자 모로나이를 통  
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권면하거니와, 너

희가 이를 읽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지  
혜일진대, 너희가 이 기록을 읽게 되거든,  
너희는 아담이 창조된 때로부터 너희가 이  
기록을 받게 될 때까지 주께서 사람의 자  
녀들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셨던가를 기억  
하고, 그것을 너희 마음에 깊이 생각하라.

또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내가 너희  
를 권면하거니와, 너희는 혹 이 기록이 참  
되지 아니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보라. 너  
희가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  
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  
로 간구할진대, 그는 성신의 권능으로 너  
희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

또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는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되리라.”<sup>6</sup>

저는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그 약속을  
검증했기를 바랍니다. 아직 아니라면 곧  
그렇게 해 보십시오. 응답은 단번에, 강렬  
한 영적인 경험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  
니다. 저도 처음에는 응답이 조용히 왔습  
니다. 그러나 제가 물몬경을 읽고 그에 대  
해 기도할 때마다 점점 더 응답이 강해졌  
습니다.

저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의  
존하지 않습니다. 물몬경에 대한 살아 있  
는 간증을 계속 확고히 유지하기 위해 저  
는 자주 모로나이의 약속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간증이라는 축복이 영원히 지속되는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간증에는 신앙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영  
양분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전에 실린 하  
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우리가 받은 진리  
에 순종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기도를 소  
홀히 하면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경전을  
읽고 공부하는 일에 느슨해지면 우리의 간  
증은 위협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경전을  
읽고 공부하는 일은 간증이 자라기 위해  
꼭 필요한 자양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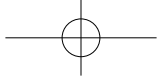
여러분은 엘마가 외친 다음 경고를 기  
역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무를 소홀히 하  
여, 그 가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보라  
그것은 아무 뿌리도 얻지 못하리니, 태양  
의 열기가 와서 그것을 태우면, 그것이 뿌  
리가 없으므로 마르고, 너희는 이를 뽑아  
내버리느니라.

이제 이는 씨앗이 좋지 않았던 까닭이  
아니요, 그 열매가 탐스럽지 못할 것이기  
때문도 아니라. 다만 그것은 너희의 토지  
가 메마르고, 너희가 나무를 가꾸려 아니  
한 연고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얻  
을 수 없느니라.”<sup>7</sup>

여러분의 간증이 자라고 번성하려면 하  
나님의 말씀을 흠족히 취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일을  
모두 꾸준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기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때  
문에 꾸준히 해 오던 경전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  
에 기도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는 시  
기도 있을 것입니다. 한동안 일부 계명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경우





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마서에 나오는 다음의 경고와 약속을 읽는다면 여러분이 소망하는 살아 있는 간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또 이리므로 너희가 신앙의 눈으로 그 열매를 고대하며, 말씀을 가꾸지 아니할진대, 너희는 결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딸 수 없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의 신앙으로 큰 부지런함을 가지고, 또 인내를 가지고 그 열매를 고대하며 말씀을 가꾼다면, 참으로 나무가 자라기 시작할 때 이를 가꾼다면, 그것은 뿌리를 내리리니, 보라 영생으로 솟아오르는 나무가 되리라.

또 말씀을 가꾸어 그것으로 너희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려는 너희의 부지런함과 너희의 신앙과 너희의 인내로 말미암아, 머지않아, 보라 너희가 지극히 귀하고, 감미로운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감미로우며, 흰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희며, 순결한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순결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이 열매를 배부르도록 흡족히 먹게 되리니, 너희가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

**자메이카 세인트 캐서린**



128 리 아 호 나

니하리라.

그때 …… 나무가 너희에게 열매 맺기를 기다린 바, 너희의 신앙과 너희의 부지런함과 인내와 오래 참음의 보상을 너희가 거두게 되리라.”<sup>8</sup>

이 성구에서 “열매를 고대하며”라는 말은 오늘 저녁 여러분이 이 현명한 가르침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전 인봉실에서 맞이할 미래를 바라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전 결혼이 행해지는 인봉실 벽면 양쪽 거울을 통해 끝없이 펼쳐지는 빛을 마음속에 그려 보라고 한 것입니다.

간증에서 비롯된 소망으로 그런 날을 고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오는 유혹들에 저항할 만큼 강해질 것입니다. 좀 더 구주와 같은 삶을 살려고 선택할 때마다 간증이 튼튼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분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직접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점점 커지는 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은 노력 없이 오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자라고 여러분이 그 간증을 키울 것을 선택할

때 빛이 올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에 분명히 그 약속이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빛이니, 빛을 받아들이고 계속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빛을 더욱 받아들이나니,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는 대낮이 되리라.”<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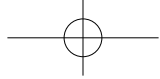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간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여 비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빛이 닿도록 주님께서 길을 마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딸들이 지닌 신앙과 간증을 통해 그분의 왕국과 전 세계에 있는 수백만 명의 삶을 그분의 빛으로 어루만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희망입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권고를 듣고 받아들여야 하는 여러분의 모범을 따를 다음 세대들이 지금 여러분의 간증과 선택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저의 사랑과 간증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살아 계시며 사랑으로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딸입니다. 저는 부활하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주이시자 빛이심을 압니다. 또한 오늘 저녁 성신이 여러분의 마음에 진리를 확신시키는 속삭임을 전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몬슨 회장님은 하나님의 살아 계신 선지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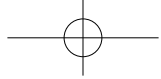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1. “Century of Sisterhood”, *Chronological Collage*, 1869~1969, 8쪽.
2. Joseph Fielding Smith, *Answers to Gospel Questions*, Vol. 3, 31쪽.
3. 엘마서 32:27 참조.
4. 요한복음 7:17.
5. 교리와 성약 138:23~24.
6. 모로나이서 10:3~5.
7. 엘마서 32:38~39.
8. 엘마서 32:40~43.
9. 교리와 성약 50:24.



## 연차 대회에서 소개된 일화 색인

다음은 연차 대회 말씀에서 소개된 일화를 선별한 목록입니다. 이 내용은 개인 학습과 가정의 밤, 그리고 그 밖에 복음을 가르치는 여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각 말씀이 실린 첫 쪽수를 나타냅니다.

연사	일화
진 에이 스티븐스	(10) 십일조를 내는 모범을 보인 어린이들. 치료를 받는 동안 아버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리암.
월터 에프 곤잘레스 장로	(13) 배우자를 친절히 대하는 모습이 진심인지 아닌지 궁금해 한 기자.
켄트 에프 리차즈 장로	(15) 입원해 있는 어린이들 곁에 있는 천사들을 본 어린 소녀.
쿠엔틴 엘 쿡 장로	(18) 복음대로 생활하는 청년의 모습이 반영된 손가방 속 물건들. 청년 성인 형제들을 도울 방법을 제안한 통가의 한 자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22) 테트 댄이 무너진 후 구호 활동에 나선 지역 사회.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30) 아내를 잃은 형제에게 “이제는 그 일에서 벗어나게.”라고 권고한 스테이크 회장.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42) 병사들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 잠자기를 포기한 레이 콕스 대위. 살기 위해 용기를 낸 아론 램스톤.
엠 러셀 벨라드 장로	(46) 금 알갱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금 탐광자.
닐 엘 앤더슨 장로	(49) 럭비 대신 선교 사업을 택한 시드니 고잉.
래리 엠 깁슨	(55) 자신이 어떤 책임을 받았는지 배운 집사 정원회 회장.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58) 유람선 승선표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몰랐던 남자.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62) 숲에서 길을 잃은 회원을 찾아나선 정원회. 충실한 한 대제사를 방문한 헨리 비 아이어링.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66) 한 부부에게 인봉 의식에 참석하도록 권한 토마스 에스 몬슨.
폴 브이 존슨 장로	(78) 오래도록 병을 앓던 중 개종한 청년.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	(81) 손수레 부대를 구조하는 일을 도운 로버트 테일러 버튼.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84) 방문 교사에게서 도움을 받은 젊은 어머니.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90) 마나우스에서 성전까지 장거리 여행을 한 브라질 성도들. 성전에 가기 위해 희생을 감수한 모우 탐 가족.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성전 기공식에 참석한 토마스 에스 몬슨.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94) 세탁기를 고치는 대신 아이들과 놀아주라는 부탁을 받은 리차드 지 스코트. 사랑이 담긴 쪽지를 보관해 둔 지닌 스코트. 심장에 문제가 있던 어린 아들을 돌본 리차드 지 스코트.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97) 까치밥나무를 가지치기한 후, 가지치기로 비유할 수 있을 만한 일을 직접 겪은 휴 비 브라운.
칼 비 프랫 장로	(101) 십일조를 내고 축복을 받은 휘튼 가족.
시 스코트 그로우 장로	(108) 불행한 선택을 했지만 그 후 회개한 시 스코트 그로우의 동생.
앤 엠 딕	(115) 진리를 찾으려서 크리스티가 보인 모범을 기억한 젠.
메리 앤 쿡	(118) 학교 사물함에 예수님 그림을 본 어린이. 내용이 의심스러운 영화를 보려 가지 않기로 한 청년.
일레인 에스 돌튼	(121) 유타 주 드레이퍼에서 솔트레이크 성전까지 걸어간 청년들.



# 대회 말씀을 삶에 적용합시다

다음 활동과 질문을 활용하여 가족 토론을 시작하거나 개인적으로 깊이 생각하여 연차 대회에서 전한 가르침을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모** 든 연차 대회 말씀은 인터넷 conference.lds.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 아래에 나와 있는 쪽수는 각 말씀이 수록된 첫 쪽을 나타냅니다.

### 어린이

•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성전 세 곳이 새로 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전까지 더하여 지금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거나 건축 중인 성전, 또는 건축되기로 발표된 성전 수는 모두 160개에 달한다고 하셨습니다. 지도에서 미국 아이다호 메리디안, 미국 콜로라도 포트콜린스, 캐나다 매니토바 위니펙을 찾아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성전이 어디인지도

찾아보세요. 성전에 참석하기 위해 큰 회생을 치른 충실한 회원들에 관해 몬슨 회장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중 몇 개를 읽어 보거나 여러분이 직접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주세요.(90쪽) 가능한 한 빨리 성전에 가겠다는 목표를 세워 보세요. 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을 토론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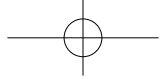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 아담과 이브가 지상에 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동물을 희생 제물로 바쳤습

니다. 엘 톰 페리 장로님은 구주께서 제자들에게 안식일에 예배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성찬을 소개해 주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성찬을 취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가족과 함께 페리 장로님의 말씀(6쪽)을 살펴보면서 적절한 안식일 복장은 무엇이며, 성찬과 안식일에 대해 경건한 마음을 지니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다른 방법들도 알아보세요.

•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명하셨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97쪽)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좀 더 그분과 같이 되도록 돕기 위해 우리를 때때로 '징계'하십니다. 징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토론해 보세요. 지나치게 크게 자란 까치밥나무 이야기를 읽어 보거나 여러분이 직접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주세요. 좌절이나 실패가 우

슬로베니아 류블라나





멕시코 코아트사코알코스

리가 더 강해지고 더 많은 결실을 거두는데 실제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 리처드 제이 메이너즈 장로님은 가족이 밧줄과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37쪽) 밧줄은 여러 가닥으로 꼬여 있는데, 한 가닥만으로는 약하지만 여러 가닥이 함께 엮이면 튼튼해집니다. 마찬가지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옳은 일을 하고 도울 때 서로가 강해지고 혼자서 할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끈이나 실을 한 가닥씩 나눠 주세요. 그리고 각자 가족들이 서로를 위해 어떻게 봉사하고 강화하는지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그런 후 끈이나 실이 함께 엮일 때 얼마나 튼튼해지는지를 보세요.

### 청소년

• 여러분이 있는 반이나 정원회는 단합하는 편인가요? 단합에 관한 헨리 비 아이 어링 회장의 말씀(62쪽)을 살펴본 후 여러분의 반이나 정원회가 더 가까워지도록 여러분이 어떻게 노력해 볼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 열거해 보세요.

• 러셀 엠 넬슨 장로님은 “뉘페식”순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34쪽) 여러분의 가족, 반, 또는 정원회와 함께 이 말이 무슨 의미이며 왜 그런 순종은 효과가 없는

지 토론해 보세요.

•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은 곧 친절과 봉사라는 단순한 행위로 나타나는 적극적인 사랑이라고 묘사하셨습니다.(46쪽) 여러분

이 속한 반 또는 정원회가 어떻게 여러분의 와드나 지부, 지역 사회에 속한 누군가에게 사랑을 보일 수 있을지 계획을 세워 보고, 그대로 실천해 보세요.

• 쿠엔틴 엘 쿡 장로님은 청소년 무도회가 끝난 후에 발견된 손가방 이야기를 들려 주셨습니다.(18쪽) 지도자들이 그 손가방 안에서 발견한 물건들은 그 손가방 주인인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방, 지갑 또는 책가방 안에 든 내용물은 여러분에 관해 무엇을 알려주나요? 여러분이 늘 가까이 하는 것 중 바꾸고 싶은 것이 있나요?

• 린 지 로빈스 장로님은 좀 더 구주와 같이 되는 것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13쪽)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하며 단순히 명하신 일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 후 좀 더 구주와 같이 되기 위해 삶에서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세요.

### 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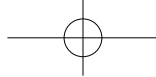
•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58쪽) 유람선 승선권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유람선에서 제공하는 많은 활동과 좋은 음식을 놓쳐서

자신에게 있는 특권을 누리지 못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가족 중 신권을 받은 이들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사람만이 받는 기회이자 권리이기도 한 성스러운 권능과 은사, 축복”에 걸맞게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토론해 보십시오.

•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용서가 지닌 힘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30쪽) 여러분이 용서해야 할 사람이거나 여러분이 “벗어나야” 할 괴로운 경험이 있습니까? 평안과 용서할 힘을 얻기 위해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님은 자신과 아내 지닌이 서로에게 쪽지를 써 보내며 어떻게 사랑을 보였는지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94쪽)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감사해 하는지를 표현하는 쪽지를 쓴 후, 그 쪽지를 배우자가 찾을 수 있는 곳에 놓아두십시오.

•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간증을 얻는 것에 관해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의 경험을 인용하셨습니다.(87쪽)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어떤 경험이 여러분의 간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



##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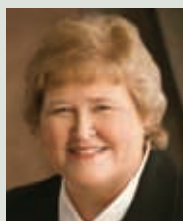
### 상호부조회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제1보좌



줄리 비 벅  
회장



바바라 톨슨  
제2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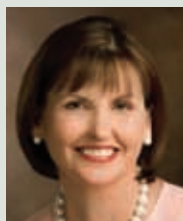
### 청녀



메리 앤 쿡  
제1보좌



일레인 에스 돌튼  
회장



앤 엠 딘  
제2보좌

### 초등회



진 에이 스티븐스  
제1보좌



로즈메리 엠 워익스  
회장



체럴 에이 에스플린  
제2보좌

### 청남



래리 엠 김슨  
제1보좌



데이비드 엘 벅  
회장



에이드리언 오초아  
제2보좌

### 주일학교



데이비드 엠 맥쿱키  
제1보좌



러셀 티 오스구토프  
회장



매튜 오 리차드슨  
제2보좌

##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넷**째 주 일요일 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공과 시간에는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을 공부한다. 각 공과로 최근 연차 대회 말씀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사용하여 준비할 수 있다. 스테이크 회장 또는 지방부 회장은 어느 말씀을 사용할 것인지 직접 선택하거나 감독과 지부 회장에게 이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지도자들은 멜기세덱 신권 형제들과 상호부조회 자매들에게 같은 일요일에 같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넷째 주 일요일 공과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최근에 나온 연차 대회 특집호를 공부하고 공과 시간에 가져오도록 권고한다.

### 말씀을 활용한 공과 준비 제언

말씀(들)을 공부하고 가르칠 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기도한다. 다른 자료를 사용하여 공과를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으나 대회 말씀은 승인된 교과 과정이다. 여러분의 책임은 최근 연차 대회에서 받은 가르침을 사람들이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하도록 돕는 것이다.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반원들 상황에 적절한 내용이 담긴 원리와 교리를 찾는다. 또한 그러한 진리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이야기, 참조 성구, 문구들을 말씀(들)에서 찾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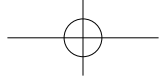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원리와 교리를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개요를 작성한다. 개요에는 다음과 같이 반원들에게 도움이 될 질문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말씀에서 원리와 교리를 찾게 하는 질문.
-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질문.
- 깨달음, 생각, 경험, 간증을 나누게 하는 질문.
- 이런 원리와 교리를 생활에 적용하게 하는 질문. ■

월	넷째 주 일요일 공과 자료
2011년 5월 ~2011년 10월	2011년 5월호 리아호나에 실린 말씀*
2011년 11월 ~2012년 4월	2011년 11월 리아호나에 실린 말씀*

\* 이 말씀들은 [conference.lds.org](http://conference.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습니다.





## 지도자들, 복지 사업을 경축하고 새로운 성전을 발표하다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컨퍼런스 센터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열린 제 181차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연차 대회에는 십만여 사람들이 참석했으며, 아울러 수백만 명 이상이 텔레비전, 라디오, 인공위성, 인터넷 방송을 통해 대회 말씀을 보거나 들었다.

전 세계 회원들은 93개 언어로 전달된 이 대회에 참석했다. 대회 방송이 담긴 오디오와 비디오, 원문은 웹사이트 conference.lds.org를 통해 여러 언어로 이용할 수 있으며, DVD와 CD로도 나올 예정이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새로운 성전 세 곳을 발표하면서 개회를 선언했다. 새 성전은 각각 미국 콜로라도 포트콜린스, 미국 아이다호 메리디안, 캐나다 매니토바 위니펙 성전이다. 따라서 이미 발표되었거나 건축 중인 성전은 모두 26개가 된다. 현재 운영 중인 성전은 134곳이다.

몬슨 회장은 “선교 사업은 이 왕국의 생명선”이라고 표현하며 선교 사업의 중요



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마데라에 위치한 교회 소유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하는 청년. 이곳에서는 건포도를 생산하여 교회 복지 시스템에 공급한다. 아래 왼쪽: 포르투갈 코임브라에서 연차 대회 방송을 시청한 가족.

성을 강조했다. 현재 오만 이천여 명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 340개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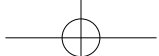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는 총관리 역원 10명과 지역 칠십인 41명이 새로 지지를 받았으며, 지역 칠십인 34명이 해임되었다. 또한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돈 알 클라크 장로가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2010년 통계 보고에 따르면 현재 교회 회원은 1,400만여 명에 이른다.

2011년은 교회 복지 사업 75주년을 기념하는 해로써, 이틀에 걸친 연차 대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실행하는 복지 프로그램과 교회 복지를 주제로 한 말씀이 다수 전해졌다.

토요일에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복지 프로그램 75주년

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회원들에게 일일 봉사 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고했다. 봉사의 날은 올해 중 특정한 날을 잡아 와드나 스테이크 행사로 열려야 한다. 봉사 활동에 관한 세부 내용은 단위 조직 지도자들이 정해야 한다. 회원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에 동참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몬슨 회장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절기에 대한 간증을 전하며 대회를 마쳤다. “구주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돌이킬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구하려고 만물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필멸의 생활 너머에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



## 호세 엘 알론소 장로

칠십인 정원회

**호**세 루이스 알론소 트레호는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기도의 힘에 대한 간증이 있었다. “열한 살 때였는데, 그때 거의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저를 포기했죠. 의사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걸 얼핏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계속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이후에 조셉 스미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어떻게 열네 살밖에 안 된 소년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이야기가 진실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으며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신다는 걸 알았거든요.”

알론소 장로는 물문경을 공부할 때에도 그와 같은 편안한 느낌을 받았다. “저는 기도와 이 책 덕분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압니다.”

알론소 장로는 1958년 11월에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루이스 알론소와 루즈 알론소 사이에서 태어났다. 교회는 십대 시절에 이사를 간 멕시코 콰우틀라 시에 들어왔다. 그 후 상호 향상 모임에서 훌륭한 청소년들과 우정을 쌓았으며, 교회는 그에게 집과 같은 곳이 되었다. 나중에 아내로 맞은 레베카 살라자르도 를 만난 곳도 상호 향상 모임이었다.

열아홉 살이 되었을 때 멕시코 헤르모실로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알론소 장로는 선교 사업을 마친 후 1981년 2월 24일에 레베카와 함께 애리조나 메사 성전에서 결혼했다. 그들은 두 자녀를 두었다.

교회 교육 기구 종교 교육원 원장으로 봉사한 알론소 장로는 소아 발달 관련 의학 학위를 받았으며 유사 요법 내과 및 외과 의사로 일했다. 알론소 장로는 어린 시절에 몸이 아팠을 때 주님께서 자신을 축복해 주셨듯이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축복하겠다고 소망했으며, 그 오랜 소망은 알론소 장로의 이력에도 잘 나타난다. 알론소 장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는 화합과 우애를 다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주님의 권능을 불러들입니다.”라고 말한다.

알론소 장로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로 부름 받기 전에 감독, 스테이크 선교부 회장, 스테이크 회장, 선교부 회장 보좌, 멕시코 티후아나 선교부 회장,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했다. ■



## 이안 에스 아던 장로

칠십인 정원회

**전**화 벨이 울리거나 누군가 문을 두드릴 때, 이안 시드니 아던 장로가 제일 먼저 꺼내는 첫 마디는 보통 “어떻게 도와드릴까요?”이다.

1954년 2월 뉴질랜드 테 아로하에서 해리 윌트셔와 그윌레디스 맥비카 윌트셔 사이에서 태어난 아던 장로는 종종 작은 봉사 행위가 이를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회상했다. “봉사하는 일이 늘 쉬운 것은 아니지만 봉사는 언제나 우리 삶을 축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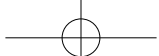
아던 장로와 아던 자매는 뉴질랜드 교회 고등학교에 재학하던 시절에 만났으며 1976년 1월 17일에 뉴질랜드 해밀튼 성전에서 결혼했다. 아던 장로 내외의 네 자녀는 서로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복음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가정에서 성장했다. 아던 장로는 “결혼한 자녀들의 가정에서 똑같은 우선순위를 보는 일은 축복입니다.” 하고 말한다.

주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시며, 자녀들이 그러한 기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방편을 마련하신다. 아던 장로는 “저희 가족이 주님을 따르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낍니다.” 하고 말한다.

아던 가족에게는 가정에서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 우선이다. 날마다 경전을 공부하는 일은 습관이 되었다. 어린 자녀들에게 그날 경전을 읽었다고 표시하는 빨간 스티커를 달력에 붙이게 했는데, 매일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스티커를 붙이려면 매일 경전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아던 자매는 “작고 단순한 일을 통해 훌륭한 습관을 키울 수 있었어요.”라고 말한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로 부름 받기 전까지 아던 장로는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스테이크 청년 회장, 고등 평의원, 감독단 보좌, 감독,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 피지 수바 선교부 회장, 지역 칠십인 등에서 봉사했다.

아던 장로는 뉴질랜드 와이카토 대학교에서 교육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교사와 원장, 뉴질랜드 세미나리 코오디네이터, 뉴질랜드 교회 고등학교 교장, 태평양 지역 대표와 같은 많은 교회 교육 기구 직책에서 일했다. ■



## 칼 비 쿡 장로

칠십인 정원회

**젊**은 시절, 칼 버트 쿡 장로는 전임 선교사로서 독일 함부르크로 떠나기 전에 언어 훈련 선교부(선교사 훈련원 전신)에서 독일어를 배우느라 애를 먹었다. 쿡 장로가 아직 기초 어휘를 익히는 데 진땀을 흘리는 동안 같은 구역의 선교사들은 더 복잡한 개념을 배우는 단계로 훌쩍 넘어갔다.

젊은 쿡 장로는 진도가 처지는 것에 낙담했고, 그래서 신권 축복을 받고 기도를 드리며 하늘에 도움을 간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쿡 장로는 온 마음을 쏟아 기도를 드린 후 구체적인 응답을 받았다. 그때 주님께서는 쿡 선교사에게 독일어에 능통하려 하기보다는 온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 봉사하라고 말씀해 주셨다.

최근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은 쿡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바로 그 순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 봉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준이 동반자나 구역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여기실까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쿡 장로가 말한 대로 그 일이 있을 후 언어를 더 빨리 배운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더는 예전처럼 걱정하지 않았다. 자신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쿡 장로는 그 일이 감독 부름을 포함하여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 스테이크 회장, 뉴질랜드 오클랜드 선교부 회장, 지역 칠십인과 현재 맡은 임무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수행해 온 모든 부름에서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고 말한다.

쿡 장로는 베버 스테이트 대학에서 비즈니스 마케팅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유타 주립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부동산 개발 관련 일을 하며 경력을 쌓았다.

쿡 장로는 1957년 10월 미국 유타 주 옥든에서 라모나 쿡 바커와 고(故) 버트 이 쿡 사이에서 태어났다. 1979년 12월 14일에 유타 옥든 성전에서 린넷 한슨과 결혼했으며 다섯 자녀를 두었다. ■



## 리그랜드 알 커티스 이세 장로

칠십인 정원회

**리**그랜드 레인 커티스 이세 장로는 “주는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신다는 것”(교리와 성약 64:34)을 잘 안다.

내인 제인 코윈 커티스는 “남편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늘 기꺼이 열심히 일하죠.”라고 말한다. 두 사람은 1974년 1월 4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남편에게는 봉사가 가장 큰 소망이자 바람입니다.”

커티스 장로는 1952년 8월, 미국 유타 주 옥든에서 리그랜드 알 커티스와 패트리샤 글레이드 커티스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후 부친은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일원(1990~1995)으로 부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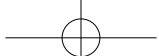
커티스 이세 장로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로 부름 받기 전에 이탈리아 북 선교부에서 봉사했으며, 감독, 고등 평의원, 스테이크 회장, 이탈리아 파도바 선교부 회장,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했다. 제일 정원회로 부름 받을 당시 커티스 이세 장로는 유타 솔트레이크시티 지역 칠십인 제오 정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커티스 장로는 경제학 학위로 브리검 영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미시건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부름을 받을 당시에는 법률 회사에서 변호사 및 임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커티스 장로는 학교와 직장 일 외에도 아내와 함께 다섯 자녀를 키웠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한 커티스 장로는 그동안 총관리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기회를 누린 것을 감사히 생각한다. “저는 뛰어난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일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을 가까이 지켜보며 배우는 그런 기회는 커다란 특권이었습니다.”

커티스 자매는 커티스 장로에게는 언제라도 선택 내밀 수 있는 손과 마음이 있다고 말한다. “남편은 늘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자세를 보여 주었어요.”

교리와 성약 64편 34절은 다음 말씀으로 끝난다. “기꺼이 하고자 하며 순종하는 자는 이 마지막 날에 시온의 땅의 좋은 것을 먹으리라.” 커티스 형제 내외는 자신들과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까지 주님을 섬기는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고 말한다. ■



## 더블유 크리스토퍼 와델 장로

칠십인 정원회

**웨**인 크리스토퍼 와델 장로 가족에게는 ‘주님을 신뢰하자’는 구호가 불문율과도 같은 지침이 되었다.

와델 장로는 인생에서 예기치 않게 겪은 우여곡절을 회상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 큰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와델 장로는 1959년 6월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 맨해튼 비치에서 웨인 와델과 조안 와델의 아들로 태어났다. 샌디에이고 주립 대학교에서 역사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배구 선수 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사회에서는 세계적인 투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여러 직책을 두루 거쳤다.

와델 장로는 캐롤 스탠슬과 1984년 6월에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성전에서 결혼했다. 두 사람은 슬하에 네 자녀를 두었다. 와델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구호는 단합이다. 가족이 단합할 수 있었던 원인은 가정에서 구주의 복음을 따르고자 노력했기 때문이다. 집 근처에 있는 바닷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족과 함께 운동경기에 참여하는 등 가족 활동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와델 장로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로 부름을 받기 전까지 스페인에서 전임 선교사, 감독, 고등 평의원, 선교부 회장 보좌, 스테이크 회장, 스페인 바르셀로나 선교부 회장,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했다.

와델 장로는 경험에 경험을 쌓고 경험 하나하나가 모여서 “간증의 보배”가 되어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의지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된다고 설명한다.

새로운 부름에 대한 준비를 언급하자, 와델 장로는 성전 이야기부터 꺼낸다.

“이 부름을 위해 무슨 준비를 했는지 물으셨습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성전에 가서 성약을 맺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형편이 좋은가와 상관없이 기꺼이 행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성전에 가고, 선교사로 봉사하고, 성약을 맺고, 그러다 보면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고 그분이 어떻게 그분의 사업을 인도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맺은 성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



## 가즈히코 야마시타 장로

칠십인 정원회

**여**러 해 전에 일본 후쿠오카에서 젊은 나이에 감독이 된 이후 가즈히코 야마시타 장로는 선임 지도자들이 보인 훌륭한 모범과 품성에서 많은 것을 배워왔다.

야마시타 장로는 아내인 타주코 타쉬로와 결혼한 직후 도쿄에서 후쿠오카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야마시타 장로는 20대 후반에 감독 부름을 받았다.

야마시타 장로는 “저와 가족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부름이었습니다.”라고 말한다. “당시에 저희에게는 어린 세 자녀가 있었고 후쿠오카는 낯선 타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건은 저에게 훌륭한 가르침을 배우고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고, 저의 간증과 신앙도 강해졌습니다.

물론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고 교회 지도자 경험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저의 선임 지도자들은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분들이 보여주신 태도와 행동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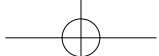
야마시타 자매는 남편이 여러 가지 부름을 받고 부름에 따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아버지와 영적 지도자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남편은 더 친절하고 사랑이 깊은 아버지와 남편으로 변해갔다. 가족은 매년 장거리 여행을 하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좋아한다.

야마시타 장로는 1953년 9월에 키요시 야마시타와 사다에 야마시타의 아들로 태어났다. 일본 도쿄에서 성장하여 1971년 세계 박람회 엑스포 70에서 교회를 알게 되었다.

야마시타 장로는 사이타마 대학교에서 교육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츠크바 대학교에서 스포츠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체육 철학을 공부하기도 하였다. 야마시타 장로는 여러 대학교에서 강사와 교수를 역임하고 과학, 지역 사회, 스포츠와 관련된 여러 단체에서 봉사했다.

야마시타 장로와 그의 아내는 1980년 3월 29일에 결혼하여 일본 도쿄 성전이 완공된 후 1980년 12월에 인봉되었다. 두 사람은 여섯 자녀를 두었다.

야마시타 장로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로 부름 받기 전에 감독, 고등 평의원, 스테이크 선교부 회장, 스테이크 회장,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했다. ■



## 랜들 케이 베네트 장로

칠십인 정원회

**치**과 교정 의사로 한창 잘 나가던 시기에 랜들 케이 베네트와 아내 셸리는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분명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자면 살던 집을 당장 처분해야 했다.

당시에는 그런 속삭임을 받은 이유를 분명히 알 수는 없었지만 집을 처분하기까지는 3년이나 걸렸다. 그 기간은 “상당한 인내가 필요했고, 주님께 우리의 굳은 결심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힘든 과정이었다고 베네트 자매는 말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성전을 자주 방문하고, 매일 경전을 공부하며,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여 그분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집이 팔리자 베네트 장로는 곧바로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고, 그런 후에는 러시아 사마라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베네트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헤아리시고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경이롭고 겸손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 느낌을 아신다는 것을 비로소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더 많이 아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베네트 장로는 칠십인 제이 정원회와 선교부 회장 부름뿐만 아니라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 지부 회장,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 감독단 보좌, 와드 청남 회장, 기타 여러 가지 부름과 프랑스 파리 선교부 및 프랑스 툴루즈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다.

베네트 장로는 캐나다 앨버타 대학교에서 치과 박사 학위와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마 린다 대학교에서 치과 교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베네트 장로는 1955년 6월에 캐나다 앨버타 주 매그래스에서 도널드 케이 베네트와 앤 달린 룡 사이에서 태어났다. 1977년 4월 23일에 셸리 다이앤 워치맨과 앨버타 카드스톤 성전에서 결혼했고, 슬하에 네 자녀를 두었다. ■



## 제이 데븐 코니쉬 장로

칠십인 정원회

**존** 데븐 코니쉬 장로는 모든 교회 회원과 모든 교회 부름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안다.

코니쉬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교회 부름을 생각할 때 어떤 부름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름에서 어떻게 봉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사업에 동참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할 뿐 어느 직책에서 봉사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코니쉬 장로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선교부에서 봉사한 이후로 최근 부름인 칠십인 제이 정원회로 부름 받기까지 와드 청남 회장, 장로 정원회 회장, 와드 집행 서기, 대제사 그룹 지도자, 고등 평의원, 감독, 스테이크 회장, 도미니카 공화국 산티아고 선교부 회장, 지역 칠십인 등 여러 부름에서 봉사했다.

코니쉬 장로는 1951년 4월에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조지 코니쉬와 나오미 코니쉬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 유타 주와 조지아 주, 버지니아 주에서 자랐고 다시 유타 주로 돌아와서 대학교를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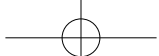
프로보에서 살던 시절에 청년 독신 성인 활동에서 일레인 시몬즈 자매를 만나 1973년 8월에 유타 맨타이 성전에서 결혼했다.

코니쉬 장로는 아내와 함께 여섯 자녀를 키우면서 미국 공군 의무대에서 근무하였으며,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의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하버드 의대 보스톤 아동 병원에서 소아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다.

미국 아이다호 주와 텍사스 주, 캘리포니아 주, 조지아 주에서 공부를 하고 근무를 한 탓에 가족은 수 년에 걸쳐 이사를 많이 다녔다. 그러나 코니쉬 장로와 자매는 어디에 살든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은 즐겁다고 말했다.

코니쉬 장로는 “이 사업이 전 세계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 그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라고 말한다.

“교회의 모든 부름이 그렇듯이 [이번에 받은 칠십인 부름은] 또 다시 주님의 사업에 참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특권을 받게 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



## 오 빈센트 할레크 장로

칠십인 정원회

**오** 토 빈센트 할레크 장로는 어려서부터 십일조를 내고, 금식을 하고, 경전을 공부하였으며, 그러다가 선교사를 만나 침례를 받게 되었다.

할레크 장로의 어머니는 교회 회원이었으나 수년 간 교회를 다니지 못했다. 아버지가 교회 회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가족은 십일조를 내고, 매주 금식을 하며, 매일 성경을 읽고, 가진 것을 궁핍한 이들과 나누었다. 할레크 장로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 받은 것이다.

할레크 장로는 1949년 1월에 미국령 사모아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인 오토 할레크와 도로시 할레크는 그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학교에 보냈다. 할레크 장로는 열일곱 살 때 학생회에 있던 몇몇 친구들이 다른 학생들과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 친구들은 저를 상호 향상 모임에 초대했어요. 그 나머지는 말 하지 않아도 다 아는 이야기죠.”

할레크 장로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광고 및 마케팅 분야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미국령 사모아에서 기업체를 여러 개 소유하고 있고 자선 사업에도 관여하고 있다. 할레크 장로와 아내인 페기 앤 캐머론은 1972년 6월 29일에 유타 프로보 성전에서 결혼하였으며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다.

결국은 할레크 장로의 가족 모두가 복음을 알게 되었다. 할레크 장로는 여든이 된 아버지에게 침례를 주고 어머니가 결혼한 지 50년 만에 교회 활동을 다시 하게 된 모습을 지켜보았다.

할레크 장로는 칠십인 제이 정원회로 부름을 받기 전에 사모아 아피아 선교부 전임 선교사, 감독,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 축복사, 스테이크 회장 및 최근에는 사모아 아피아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다.

할레크 장로는 현재 직분에서 봉사하게 된 것은 평생 쌓아온 경험 덕분이라고 믿는다. “제 삶을 돌이켜 보면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신뢰하신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영광스러울 따름입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훌륭한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



## 래리 와이 윌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사** 업과 교회, 가족에 대한 책임 사이에 균형을 잡는 일은 래리 영 윌슨 장로에게 어려운 과제였다. 그러나 윌슨 장로는 자신이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는 점을 가족들이 뚜렷이 느끼게 해주었다.

“인격을 형성하는 일에서 가장 좋은 경험은 바로 남편과 아버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운동 경기를 할 때나 음악 발표를 할 때, 또는 그밖에 여러 행사를 할 때에도 거의 빠지지 않고 찾아가 함께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책을 읽어주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한 후에 아이들을 재웠지요. 아이들 곁에 있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윌슨 장로는 지도자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인생의 모든 면에서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잘 안다. 그는 1949년 12월에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조지 윌슨과 이다 윌슨에게서 태어나 미국 아이다호 주 포카텔로에서 자랐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영미 문학 학사 학위를 받고 스탠퍼드 경영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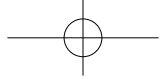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윌슨 장로는 의료 업계에서 컨설턴트와 중역으로 근무했다. 직장에서 맡은 책임이 막중했지만 윌슨 장로는 일 때문에 삶을 희생하지는 않았다.

“직업 생활만큼은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생활이 모두 잠식되고 맙니다. 말하자면 일과 교회, 가족 시간의 우선순위 배열을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를 한다면 특정한 날에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윌슨 장로는 칠십인 제이 정원회로 부름 받기 전에 브라질 센트럴 선교부 선교사, 감독, 스테이크 회장,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했다.

아내인 린다 맥키 윌슨은 윌슨 장로가 모든 봉사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도록 돕는 사람이다. 둘은 1974년 7월 10일에 유타 로건 성전에서 결혼했으며 네 자녀를 두었다.

윌슨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제가 교회 모임에 나갈 때마다 아내는 ‘여보, 잘 다녀오세요. 가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세요.’ 하고 말합니다. 사실 아내는 저의 봉사에 담긴 깊은 의미를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얼마 안 가서 아이들도 ‘아빠, 잘 다녀 오세요. 가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세요.’ 하고 말하더군요.” ■



1940년에 복지 광장을 방문한 제일회장단의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과 허버 제이 그랜트 회장,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회장(왼쪽부터)

## 교회 복지 시행 75주년을 기념하며

헤더 리글리  
교회 잡지

교회 복지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75주년을 맞아 제181차 교회 연차 대회에서도 몇몇 연사들은 이를 기념하는 말씀을 전했다.

교회 복지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발족된 1936년, 당시 제일회장단의 보좌였던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이 교회 복지 계획은 하늘에서 받은 영감으로 창시되었음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 “[복지 프로그램]은 신성한 계시에 따라 수립되었으며,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회원들을 이처럼 효과적으로 보살피는 프로그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sup>1</sup>

그로부터 7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경기 변동이 거듭되면서 사회와 문화는 큰 변화를 겪었고, 교회는 기록적인 성장을 이룩했다.

1936년에 교회가 하늘에서 온 영감에 따라 복지 계획을 발족했다는 말은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사실이다.

### 복지 원리

미국은 1929년에 주식 시장이 붕괴되면서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었다. 1932년 당시 유타 주 실업률은 35.8퍼센트에 달했다.

물론 교회는 창고 제도와 회원들의 취업을 돕는 프로그램 등 복지 원리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회원들 다수가 정부의 구조 사업에 의지하는 실정이었다.

“제가 보기에 사람들 사이에 갇지 않아도 된다는, 속보이는 알팍한 생각으로 미국 정부에서 도움을 받으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당시 허버 제이 그랜트(1856~1945) 회장이 한 말이다.<sup>2</sup>

교회 지도자들은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을 돕되, 게으름과 권리 의식을 유발시키지 않는 길을 모색했다. 지도자들은 자조 정신으로 자립을 이루게 하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1933년에 제일회장단은 이렇게 발표했

다. “신체적으로 능력이 있는 회원이라면 무상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되며 단, 그 사람에게 그것만이 마지막으로 남은 해결책이라면 그런 경우는 예외입니다. …… 구조 사업을 담당한 교회 역원들은 궁핍한 회원들 중 신체적으로 능력이 있는 이들이 지원 받은 것을 봉사 활동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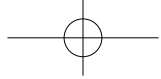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원리를 실행에 옮기고 성도들이 신앙을 발휘하면서 각 교회 단위 조직은 물론 교회 전체가 바느질하고 통조림을 만드는 팀을 꾸리고, 구조 사업 프로젝트들을 통합 조정하고, 농장을 확보하고, 의복과 김소하며 자립하는 생활을 강조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 교회 복지 계획

교회 안전 계획(1938년에 명칭이 교회 복지 계획으로 바뀜)이 수립되면서 사람들은 지원 받은 것을 갚기 위해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 이 계획은 사람들에게 외부에서 무상 지원을 받고자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직접 필요한 것을 얻고자 노력하라고 가르쳤다.

그랜트 회장은 1936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의 일차 목적은 …… 게으름에서 생기는 불행을 없애고 실업 수당에서 비롯되는 해악을 퇴치하며,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독립심과 근면, 검약, 자긍심을 심어줄 제도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 교회 회원은 다시 생활에서 근로를 주요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sup>4</sup>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 복지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편입되었다. 이를테면, 사회 서비스(현재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와 후기 성도 자선회, 인도주의 서비스, 비상 사태 대응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프로그램과 기타 프로그램은 교회 안팎에 있는 수십만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었다.



빵을 만들든(왼쪽 위) 포도를 재배하든(오른쪽 위)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든 교회 복지 프로그램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토대로 자립심을 키워나가는 데 있다.

### 국제적인 프로그램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하고 경제 대공황이 끝난 직후, 당시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회장은 장래를 내다보고 복지 프로그램을 계속 시행할 것을 주창하였다. 1945년 10월에 해리 에스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조지 앨버트 스미스(1870~1951) 교회 회장에게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 지역에 구호품을 보낼 시기와 방법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교회 지도자들은 식품과 의류, 기타 구호품을 이미 마련해 두었고 선적 준비도 마쳤다고 대답하자 트루먼 대통령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오랜 세월을 걸쳐 교회는 복지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리적으로 더 넓은 지역에 혜택을 주게 하였다. 1970년대에 교회는 자체 복지 프로젝트와 생산 시설을 멕시코와 영국, 태평양 제도로 확대했다. 80년대에 미국 이외 지역에서 아르헨티나와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는 최초로 교회 취업 센터를 설립한 나라가 되었다.

1985년 교회 인도주의 서비스가 설립되고 빈곤 및 재난에 대응하여 의류와 기타 물품을 분류하여 전세계 곳곳으로 발송할 차비를 마치는 것을 계기로 교회의 국제적인 복지 사업은 크게 발전했다.

오늘날 교회 회원 수가 국제적으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크게 늘면서 상황에 맞게 복지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 바로 지금을 위해 영감으로 마련된 계획

복지의 기본 원리인 자립과 근면은 주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창세기 3:19)라고 명하셨을 때처럼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적용된다.

후기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다. “그리고 창고는 교회의 헌물로 유지되어야 하나니, 과부와 고아는 부양을 받아야 하며 가난한 자도 또한 그러하니라.”(교리와 성약 83:6)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러나 이는 반드시 내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나니”(교리와 성약 104:16)라고 일깨워 주셨다.

복지 원리는 각 가정은 물론 전세계 곳곳에 있는 회원들 생활에서 일상적인 원리로 적용되고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교회의 힘과 주님의 진정한 복지 창고는 그분 백성들의 가정과 마음 속에 있습니다.”라고 말씀했다.<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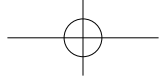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으로 자신의 자립을 발전시키거나간다면, 클라크 회장이 규정한 복지 프로그램의 장기 목표를 계속해서 성취하게 될 것이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인 모든 교회 회원들이 훌륭한 성품을 형성하고,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가장 훌륭한 것을 이끌어 내며, 풍부하게 잠재된 영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 결국 교회가 존재하는 사명이자 목적이며 이유입니다.”<sup>6</sup> ■

### 주

1. David O. McKay, in Henry D. Taylor, *The Church Welfare Plan*, 미출판 원고, 솔트레이크시티 (1984), 26~27쪽.
2. Heber J. Grant, Conference Report, 1933년 10월호, 5쪽.
3. James R. Clark, comp., *Messages of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6 vols., (1965~1975) 5:332~334.
4. Heber J. Grant, Conference Report, 1936년 10월호, 3쪽.
5. 로버트 디 헤일즈,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복지 원리: 인간의 복지를 위한 영원한 계획”, *성도의 벗*, 1986년 7월호, 30쪽.
6. J. Reuben Clark Jr., special meeting of stake presidents, 1936년 10월 2일.





## 영감 받은 사업을 향한 영감에 찬 말씀: 복지에 관한 연사들의 말씀

**교**회 복지 프로그램 시행 75주년을 맞아 제181차 교회 연차 대회에서 몇몇 연사들은 이를 기념하는 말씀을 전했다.

다음은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스스로 자립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제시하신 복지 프로그램과 복지 원리에 초점을 맞춘 연사들의 말씀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복지 프로그램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에 따라 마련된 프로그램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성전은 세상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90쪽 참조)

###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지금까지 그래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최근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는 현세적인 도전과 어려움이 다시 닥쳐왔습니다. 교회 복지 프로그램의 근간이 되는 원리는 특정한 때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원리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궁핍한 사람을 구제하는 그분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시며, 또한 그것은 계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침례의 물가에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성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성찬을 취할 때 그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선을 행할 기회”, 22쪽 참조)

###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 감리 감독

“이 예언과도 같은 복지 계획이 교회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미미하지 않습니다. 이 원리의 근저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복지 계획은 우리가 구주의 제자로서 그리스도 이신 예수님의 모범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을 나타냅니다.”

“이 성스러운 사업은 고난을 겪는 사람이나 궁핍한 사람만을 이롭게 하고 축복하

려는 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가 지상에 있는 동안 서로를 돌보는 일에 온전히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생의 충만함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며 자비를 실천할 때 희생과 헌납이라는 해의 왕국의 원리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바로 구주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성스러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지상에서 생활하셨을 때 즐겨 하시던 일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행하셨을 일입니다.”(“성결하게 하는 복지 사업”, 81쪽 참조)

###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오늘날 교회에서는 궁핍한 이들을 돕기 위해 남성과 여성이 함께 노력합니다. ……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서 사랑을 지침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봉사는 그들에게 복음대로 생활하는 모범이 됩니다. 사랑이 담긴 봉사에서 복음은 가장 밝게 빛을 발합니다. 그러한 봉사는 순수한 신앙심에서 비롯됩니다.”(“제자의 길을 따르는 참된 의미”, 84쪽 참조) ■

## 예언과 같은 약속을 성취하는 영구 교육 기금

### 나타샤 가렛 교회 잡지

**10**년 전,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한 가지 문제, 즉 개발 도상국에서 많은 귀환 선교사들과 합당한 청소년들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영구 교육 기금(PEF)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교회 회

원들과 교회에 우호적인 인사들이 기부하여 조성된 순환성 영구 교육 기금은 젊은 사람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어 그들이 자신의 거주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며, 대출금을 상환하게 하여 그것을 다시 투자해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힝클리 회장은 교회가 자원 봉사자와 기존 교회

자원을 이용하면 기금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다.

### 기적이 일어난다

힝클리 회장이 2001년 3월 31일에 연단에서 교회 신권 지도자들 앞에서 영구 교육 기금에 대한 전망을 말씀했을 때, 많은 사람은 주님의 선지자가 [하늘에서]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다.

영구 교육 기금을 위해 새로 지명 받은 지도자들이 힝클리 회장의 지시대로 서둘러서 2001년 가을에 대출을 시작했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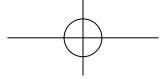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사진 촬영: 브라이언 멜로스

10년 전에 시작된 영구 교육 기금으로 사만 칠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

어쩌면 실패로 끝나고 말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어렴풋이 내다보았을 것이다. 선지자가 영감을 받아 밝힌 개요 외에는 사업 계획이나 구체적인 제안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은 힝클리 회장이 대회에서 전한 말씀 원고를 강령으로 삼아 마련되었다. 책임자를 부르고 이 프로그램의 기본 골격을 만들기 무섭게 수백 건에 달하는 대출 신청서가 교회 본부로 쇄도했다.

그러나 기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첫 해가 지나기도 전에 수백만 달러가 이 프로그램에 기부되었다. 경력 면에서 영구 교육 기금 사업을 맡을 자격을 갖춘 몇몇 사람들이 바로 자원 하여 책임자로 봉사하게 되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구 교육 기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토대가 교회 교육 기구 종교 교육원 프로그램과 교회 취업 자원 센터 형태로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그 자리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힝클리 회장은 2002

년 4월에 이 프로그램을 “굳건한 토대”라고 소개했다.

현재 영구 교육 기금 교육과 통신 담당 책임자로 자원 봉사를 하는 렉스 앨런은

“힝클리 회장님의 권유는 구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영구 교육 기금을 활용하여 자신을 발전시키는 사람들은 물론 기금에 기부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존 케이 카맥 장로

이렇게 말했다. “옛적에 모세가 지팡이를 흥해로 내밀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힝클리 회장님도 모세와 같은 신앙심으로 선지자의 망토를 빈곤이 가득한 암울한 바다

위로 펼치며 영구 교육 기금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건 기적입니다.” 힝클리 회장은 몇 번이고 이렇게 말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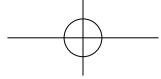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하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기적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것은 어쩌면 시작에 불과했을지 모른다.

#### 약속이 성취되다

힝클리 회장은 영구 교육 기금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 전한 연설에서도 영구 교육 기금 때문에 몇 가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으로 더 많은 수혜자들이 영구 교육 기금으로 졸업을 하고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아 축복은 차례 차례로 실현될 것이다.

#### 기회와 취업

힝클리 회장은 “[참가자들이]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 빈곤의 늪



에서 벗어날 것입니다.”<sup>2</sup>라고 말씀했다.

2011년 2월을 기준으로, 학업을 마치고 직장을 찾아나선 사람들 중 약 90퍼센트가 취직을 했다. 현재 취업을 한 사람 중 약 78퍼센트는 교육을 받기 전보다 훨씬 좋은 일자리에 일하고 있다고 말한다. 영구 교육 기금으로 학업을 마친 참가자들의 평균 수입은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 비해 서너 배가 더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크게 향상되었다.

#### 가족과 지역 사회

“그들은 결혼할 것이고 기술을 갖추면 더 나은 수입을 얻고 그에 걸맞은 사회적 지위도 누리면서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핁클리 회장은 말씀했다.<sup>3</sup> 현재 영구 교육 기금 수혜자 중 삼분의 일 이상이 기혼자이다.

영구 교육 기금 집행 이사인 존 케이 카맥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이제까지 영구 교육 기금에서 거둔 가장 고무적인 성과 한 가지는 젊은이들이 더 큰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고 인생을 살아나갈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렇다면, 그들의 가족인 자라나는 세대들은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 교회와 지도력

충실한 교회 회원인 “그들은 십일조와 헌금을 낼 것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교회는 그들 덕분에 훨씬 더 강해질 것입니다.”<sup>4</sup> 핁클리 회장이 한 말이다.

수 년간 영구 교육 기금이 운영되어 온 일부 지역에서는 현재 교회 지도자들 중 10에서 15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영구 교육 기금 수혜자들이다.

“수혜자들은 다른 젊은이들에게 영구 교육 기금 대출금을 사용하여 빈곤에서 벗어나라고 권했습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

면 수혜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그 축복을 나눌 때 소망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 많은 사람의 삶에 미치는 영향

핁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영구 교육 기금은] 이용하는 모든 사람, 즉 장차 가족을 이룰 젊은이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며, 교회도 든든한 지역 지도자를 얻는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sup>5</sup>

2001년 가을 이후로 사만 칠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구 교육 기금에 참여했다. 이 수치에는 영구 교육 기금에 참가하고 있는 가족들에게서 성원과 고무를 받는 가족과 봉사하고 기여할 능력이 커진 회원들로부터 유익을 얻는 와드 및 지부, 기술자가 필요한 지역 경제는 제외되었다.

앨런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수혜자 모두를 생각하면서 영구 교육 기금의 효과를 상상해 보세요. 영구 교육 기금에 기부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 그들의 와드와 지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한 기부로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카맥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거의 모든 후기 성도에게는 정기적으로 이 기금과 기타 합당한 사업에 뭔가를 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핁클리 회장님의 권유에 따라 실천하면 이는 구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영구 교육 기금을 활용하여] 자신을 발전시키는 사람들은 물론 그 기금에 기부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 지속되는 성장

영구 교육 기금에 대해 핁클리 회장이 말한 예언과 같은 전망은 이 영감 어린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전 세계로 계속 확산되면서 적중하고 있다. 그 같은 전망은 기부가 수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대출금 상환도 잘 되면 새로운 세대가 수혜자가 되어 자신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상황을 개선

하면서 계속 결실을 거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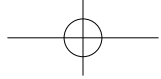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영구 교육 기금에 관해 더 알고 싶으면 [pef.lds.org](http://pef.lds.org)에 접속한다. ■

#### 주

1. 고든 비 핁클리, “교회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6쪽; *Ensign*, 2002년 5월호, 6쪽.
2. 고든 비 핁클리,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6쪽; *Ensign*, 2002년 5월호, 6쪽.
3. 고든 비 핁클리,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6쪽; *Ensign*, 2002년 5월호, 6쪽.
4. 고든 비 핁클리,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6쪽; *Ensign*, 2002년 5월호, 6쪽.
5. 고든 비 핁클리,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62쪽; *Ensign*, 2001년 5월호, 52쪽.

## 설문 조사 참여자 모집

**리** 아호나 또는 *Ensign*(엔사인)과 이 잡지들에 실린 기사를 읽는 수백만 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기회이다. 이들 잡지에서는 세계 어느 곳에 있던 의견을 제시하고 해마다 몇 가지 간단한 인터넷 설문 조사에 참여할 회원들을 찾고 있다. 이에 참여하고 싶다면 [liahona@ldschurch.org](mailto:liahona@ldschurch.org) 또는 [ensign@ldschurch.org](mailto:ensign@ldschurch.org)에 이메일을 보내되, 제목란에 “Magazine Evaluation”라고 적어 보낸다. 지원자들은 인터넷에 접속하여 영어, 포르투갈어 또는 스페인어로 통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모인 의견은 전 세계 독자들을 위해 쓰일 것이다. ■



지금도 교회 회원들은 출판된 지 400년이 된 흠정역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 사도들이 제안하다, 성경 출판 400주년을 기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것뿐!

“지금 우리가 성경을 갖게 된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그리 된 것이 아닙니다.”<sup>1</sup>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가 말했다. 벨라드 장로는 성경을 얻게 된 것은 성스러운 경험과 가르침을 기록하라는 속삭임을 따른 의로운 사람들의 순종과 그 이후 번역가들을 포함하여 성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치른 사람들의 신앙과 용기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5월 2일은 흠정역(킹 제임스판) 성경 초판이 나온 지 400주년이 되는 날이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은 이미 심포지엄과 축하행사, 음악회, 말하기 경연 대회 등으로 성경 출판을 기념하고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은 이것을 기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안한다. 즉, 우리가 구주의 삶과 성역, 그리고 고대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경에 대한 애정을 키우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 크나큰 감사를 드러야 합니다.”라고 벨라드 장로는 말했다. “저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그 가르침과 교훈과 영을 사랑합니다. …… 성경을 읽을

때 얻는 안목과 평안을 사랑합니다.”<sup>2</sup>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도 이에 대해 공감했다.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표준 경전 중 첫 번째 ‘표준 경전’으로 간주됩니다.”<sup>3</sup> 홀런드 장로는 회복은 조셉 스미스가 성경을 공부하던 중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믿는 신앙을 행사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회복을 예비한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는 일을 가능하게 만든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누구라도 흠정역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으며, 조셉 스미스 역시 그 책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참된 교회가 지상에 회복되었다. “흠정역 성격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공식 영어 성경이라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인가요?”<sup>4</sup> 하고 헤일즈 장로는 질문했다.

벨라드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성경에 어떠한 힘이 있는지 알았던 수

많은 순교자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영원한 행복과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서 평안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목숨을 바친 사람들도 늘 기억해야 합니다.”<sup>5</sup>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수백 년간 대대로 전해 내려온 가족 성경을 보다가 표지에 “성경에서 받는 가장 아름다운 감명은 이를 읽는 사람의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진다.”<sup>6</sup>라고 적힌 인용문을 발견한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팩커 회장은 이어서 이런 성구를 인용하였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고린도후서 3:2)

우리가 성경과 그곳에 기록된 성구를 알고 사랑할 때 복음이 회복된 일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그에 따른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성경과 900쪽에 달하는 또 다른 경전[이] ……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모든 것을 알려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쉬지 말고 흠족히 취하십시오.”<sup>7</sup>

### 주

1. 엠 러셀 벨라드, “성경의 기적”, *리아호나* 및 *Ensign*, 2007년 5월호, 80쪽.
2. 엠 러셀 벨라드, *리아호나* 및 *Ensign*, 2007년 5월호, 81쪽.
3. 제프리 알 홀런드, “나의 말도 …… 결코 그치지 아니함이니라”, *리아호나* 및 *Ensign*, 2008년 5월호, 92쪽.
4. 로버트 디 헤일즈, “회복과 재림을 위한 준비: 내 손이 네 위에 있으리라”, *리아호나* 및 *Ensign*, 2005년 11월호, 90쪽.
5. 엠 러셀 벨라드, *리아호나* 및 *Ensign*, 2007년 5월호, 80쪽.
6. 보이드 케이 팩커, “물문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73쪽; *Ensign*, 2001년 11월호, 63쪽.
7.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경전의 축복”, *리아호나* 및 *Ensign*, 2010년 5월호, 35쪽.